

다민족·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패러다임 구축(Ⅳ)
**다문화가족 자녀의 결혼이민 부모 출신국
언어 습득을 위한 교육 지원 사례 연구**

이재분 외

한국여성정책연구원·한국교육개발원



다문화가족 자녀의 결혼이민 부모 출신국 언어 습득을 위한 교육 지원 사례 연구

연구책임자 이 재 분 (한국교육개발원 수석연구위원)
공동연구자 박 균 열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김 갑 성 (부천오정초등학교 교사)
김 선 미 (중앙대학교 한국어교육원 강사)
김 숙 이 (충북대학교 한국지방교육연구센터 연구교수)

연구조원 이 해 영 (한국교육개발원)
연구협력자 류 명 속 (성북교육청 장학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한국교육개발원

본 보고서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주관하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0년도
협동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연구회 소속 연구기관과 협력하여 수행한 연구과제
결과입니다.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
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다민족·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패러다임 구축(Ⅳ)

1. 협동연구총서 시리즈

협동연구총서 일련번호	연구보고서명	연구기관
10-27-01	다민족·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패러다임 구축(Ⅳ): 생산적 다문화사회 구현을 위한 정책의 질적 도약 기반 구축 (총괄보고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0-27-02	다문화가족의 언어문화 사용 및 세대간 전수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0-27-03	다문화가족 자녀의 결혼이민 부모 출신국 언어 습득을 위한 교육 지원 사례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10-27-04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제활동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0-27-05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 지원 방안: 언어·문화 자원 활용 분야를 중심으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 참여연구진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진
주관 연구 기관	한국여성정책 연구원	김이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정해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정덕 전북대학교 고고문화인류학과 교수
협력 연구 기관	한국여성정책 연구원	김이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정해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은아 국제디지털대학교 강사 채수홍 전북대학교 고고문화인류학과 교수
	한국교육 개발원	이재분 한국교육개발원 수석연구위원	박균열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김갑성 부천오정초등학교 교사 김선미 중앙대학교 한국어교육원 강사 김숙이 충북대학교 한국지방교육연구센터 연구교수
	한국여성정책 연구원	양인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민무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한국직업능력 개발원	고혜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	김상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

연구요약

결혼이민자 부모가 자녀에게 자신의 출신국 언어(모어)를 교육하는 것은 한국어 능력이 부족해 자녀교육에 자신감이 없는 부모에게 자녀교육에 있어 또 다른 가능성과 희망을 줄 수 있다. 아울러 결혼이민자 부모 출신국의 언어는 그들 자녀에게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매우 유용한 자산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차 부모의 출신국과 우리 사회를 연결해 줄 수 있는 교량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도 국제결혼가정에서 한국어 교육만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으며, 자녀교육을 한국어로 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갖고 있다. 한국어뿐만 아니라 결혼이민자 부모 출신국의 언어를 자녀에게 교육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또한 자녀에게 결혼이민자 부모 출신국 언어를 체계적으로 교육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재 결혼이민자 부모 출신국 언어를 체계적으로 교육하기 위한 관련정책 및 언어교육 지원에 관한 선행 연구가 부재한 상황이어서, 본 연구에서는 국제결혼가정 자녀에게 결혼이민자 부모 출신국 언어를 체계적으로 교육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 정보를 수집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주요 연구내용으로 다루고자 하였다.

우선, 지금까지 수행되고 있는 국내 국제결혼가정의 학령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결혼이민자 부모 출신국 언어교육지원 현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교육지원 실천사례를 발굴, 분석함으로써 현안 문제와 개선점, 요구사항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결혼이민자 부모 출신국 언어교육의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국제결혼가정의 형성배경뿐 아니라 역사·문화적으로도 우리와 유사한 환경에 있는 일본, 대만의 교육지원 사례를 중심으로 국외 사례에 대해서도 탐색하고자 하였다. 끝으로 이들 국가의 교육지원 정책, 교육 환경, 교육지원 실태뿐만 아니라 교육실천 사례 분석을 통해 우리 교육에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추진하기 위해 문헌연구, 관련 자료 및 프로그램 분석, 전문가 의견

수렴을 위한 협의회 개최, 전문가 심층면담 및 수업관찰, 국내외 결혼이민자 부모 출신국 언어 교육지원 현황 조사, 실천사례 수집 분석 등의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국제결혼가정 자녀에게 이민자 부모 출신국 언어를 체계적으로 교육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언어 교육지원 정책에 대한 방향 정립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국제결혼이민자 부모 출신국 언어’를 나타내는 용어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 현재 통용되고 있는 이중언어, 모어, 계승어 등 다양한 용어들에 대한 검토를 통해, 적합한 용어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정책 수립의 방향은 다문화가족을 국가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인권보장 및 사회적 자원 확보 차원에서 이들이 지닌 언어·문화적 잠재능력을 향상시키는 쪽으로 설정될 필요가 있다. 일회적이고, 근시안적인 정책이 아닌 체계적인 절차와 과정을 수반하고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정책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둘째, 언어교육 지원을 위해 이민 부모 출신국 언어교육이 정규 교육과정으로 채택되어, 공교육의 제도 하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법적 정비면에서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일부(제11조,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의 조항에 이를 적극적으로 실현 가능하게 하는 ‘의무화’의 문구를 포함할 필요가 있으며, 이중언어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조항들이 신설될 필요가 있다.

셋째, 언어 교육 지원을 위한 행정적 지원이 요청된다. 즉, 정부는 이민자 부모의 출신국 언어교육 지원을 위해 지속적인 재정확보와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전담부서의 설치와 같은 적극적인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현재 서울시교육청과 경기도 교육청에서 추진 중인 이중언어*강사 양성·배치 사업(*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결혼이민 부모 출신국언어를 이중언어라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음)의 활성화를 위한 연구학교 및 우수학교의 지원 확대 방침 제시, 이중언어 교·강사 인력풀의 지속적 확보를 위한 재원 지원, 대학생 예비교사의 이중언어 이해 교육 강화를 위한 대학의 강좌 개설 의무화 권고, 국가차원의 이중언어 교재 및 부교재의 발간 및 보급, 이중언어 중심 정식 학력 인증 대안학교 설립 등이 요구된다.

넷째, 향후 발전된 언어 교육지원을 위해 유관기관, 부처의 연계 협력체제 구축

이 필요하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각 지역의 특수성과 상황을 고려하여 비용을 분담 하되, 단기적으로는 다문화 정책의 시행 초기 단계인 점을 감안하여 강력한 지원 의지를 보여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가 책임을 갖는 구조의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유관기관 및 부처의 연계와 협력을 유인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안정적인 언어 지도강사의 확보와 전문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요청된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에서 추진되고 있는 ‘이중언어 강사 양성·배치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밝혀진 문제점을 개선하고, 이와 유사한 사업이 지역여건에 맞게 수정·보완되어, 다른 시도교육청으로 확대 적용되어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교수법 개발, 정체성 및 자신감 향상 방법, 상담 기술 및 수업 지도안 작성과 같은 구체적 지침을 담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 등이 필요하다.

여섯째, 향후 보다 발전된 언어 교육 지원을 위해 가정, 학교, 교육청의 교육지원 환경에 대한 개선이 절실히 요청된다. 학교나 가정, 교육청의 인식 및 정책의 변화, 교·강사의 이중언어 교육에 대한 인식 변화, 교육여건 개선, 수업교재 개발 및 수업시수 확충과 같은 제반 환경의 내실화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일곱째, 국제결혼가정의 자녀들에게 이민자 부모의 출신국 언어를 교육할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저변확대 노력이 요청된다. 국내에서는 영어권을 제외한 다른 소수의 언어는 경시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소수언어를 차별하는 사회적 인식의 대전환이 요구된다. 또한 이민자 부모의 출신국 언어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언론, 시민단체 등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의 내용	6
가. 연구의 방향 설정	6
나. 연구의 이론적 기초 탐색	6
다. 이민자 부모의 출신국 언어 자녀 교육지원 현황 분석틀 설정	7
라. 국내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이민자 부모 출신국 언어 교육지원 현황 분석	7
마. 일본의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모어 교육지원 현황 분석	7
바. 대만의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모어 교육지원 현황 분석	7
사. 향후 교육지원에의 시사점 제안	8
3. 연구 절차 및 방법	8
II. 연구의 이론적 기초	15
1. 이민자 자녀 대상 언어교육 관련 용어	17
가. 이중언어	17
나. 모어, 계승어	18
다. 시사점	19
2. 이민자 자녀를 위한 언어교육의 국제동향	19
가. 국제기구의 동향	20
나. 주요국의 동향	21
다. 시사점	32
3. 언어교육의 효과 및 지원방식	34
가. 이중언어교육의 효과	34
나. 언어교육지원 방식	37
다. 시사점	42

Ⅲ. 한국 사례	47
1. 교육지원의 배경	49
가.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지원 정책	49
나. 정책추진 체계	51
2. 교육지원 대상(국제결혼가정 학생) 현황	51
3. 결혼이민자 부모 출신국 언어 교육의 정책적 지원	53
가. 16개 시도교육청의 언어 교육지원 현황	53
나. 서울시 이중언어 강사 양성 및 배치사업	57
4. 결혼이민자 부모 출신국 언어 교육지원 실천 사례	64
가. 학교중심 사례	64
나. 지역 차원의 사례	72
다. 의견조사를 통해서 본 이민자 부모 출신국 언어교육	85
Ⅳ. 일본 사례	93
1. 교육지원의 배경	95
2. 일본 내 다문화 현황	96
3. 모어교육의 정책적 지원	102
가. 중앙정부	102
나. 지방정부	104
4. 모어교육의 실천 사례	109
가. 학교중심 사례	110
나. 지역차원 사례	119
Ⅴ. 대만 사례	131
1. 교육지원의 배경	133
가. 사회적 배경	133
나. 모어전승 교육과정의 필요성	135
2. 대만 내 다문화 현황	138
가. 신주민 현황	138
나. 국적별 신생아 출생수	139
다. 신주민 자녀의 취학 현황	140

라. 신주민 자녀의 부모 국적별 현황	141
3. 모어교육의 정책적 지원	142
가. 중앙 정부의 정책 지원	142
나. 지방 정부의 정책 지원	145
다. 타이베이시의 신주민 관련 정책	147
라. 타이베이현의 신주민 관련 정책	151
4. 모어교육의 실천 사례	153
가. 타이베이현의 실천 사례	153
나. 타이베이시의 실천사례	160
다. 타이베이현과 타이베이시의 운영 현황 비교	165

Ⅵ. 국가 간 비교 및 정책적 시사점 169

1. 국가 간 비교	171
가. 교육지원 현황 비교	171
나. 실천사례 비교	174
2. 정책적 시사점	190
가. 한국	190
나. 일본	193
다. 대만	196
라. 종합 시사	199

참고문헌 203

부록 209

<부록 1> 이중언어 교육지원 현황 조사지	211
<부록 2> 유·초·중·고등학교 이중언어 교육지원 현황(2010)	215
<부록 3> 서울시 이중언어 강사 배정학교 명단	236
<부록 4> S교육청 관내 이중언어교사별 수업계획서(시간표 순)	238
<부록 5> 2010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중언어교실 현황	243

Abstract 247

표목차

<표 I-1>	초등학생 이중언어* 교육지원 학교별 현황(예)	10
<표 I-2>	이중언어 교육지원 현황 조사 설문지 구성요소	11
<표 I-3>	다문화가족 이중언어교실 현황(예)	12
<표 I-4>	국내외 모어교육* 현황 비교 분석틀	13
<표 I-5>	모어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례 비교 분석틀	13
<표 II-1>	미 연방교육부 다문화가정 학생 관련 교육프로그램	23
<표 II-2>	OECD 조사대상 국가의 이주가정 자녀를 위한 언어교육지원 방식 ..	43
<표 III-1>	2008-2009 다문화가정 교육지원정책 내용	49
<표 III-2>	학교급별 국제결혼가정 자녀 재학 현황	52
<표 III-3>	지역별 국제결혼가정 자녀 재학 현황	52
<표 III-4>	프로그램별 세부내용	53
<표 III-5>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이민자 부모 출신국 언어 교육지원 현황 ..	55
<표 III-6>	이민자 부모 출신국 언어 교육지원을 위한 주교육자 및 교육방식 ..	56
<표 III-7>	서울시 교육청 운영 이중언어 강사 양성 및 배치사업	61
<표 III-8>	수업참관대상 학교별 수업내용, 담당교사	66
<표 III-9>	경기도 ○초등학교의 무지개 주말학교 사례	69
<표 III-10>	2009년 시범운영센터별 개설언어 및 세부사업내용	72
<표 III-11>	2010년 지역별 이중언어교실 운영 센터 수	73
<표 III-12>	E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베트남어 교실	75
<표 III-13>	E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베트남어 교실 2009년도와 2010년 차이점 ..	76
<표 III-14>	하나 토요 베트남 학교	79
<표 III-15>	무지개청소년센터 이중언어교실	82
<표 III-16>	무지개청소년센터 이중언어교실 프로그램 세부 내용	83
<표 III-17>	경기도 ○학교 주말학교 교육대상 학생 의견	90
<표 IV-1>	국적별 외국인등록자수의 추이	97
<표 IV-2>	지역별 외국인등록자수의 추이	98
<표 IV-3>	재류자격별 외국인등록자수의 추이	99

<표 IV-4>	일본어 지도가 필요한 외국인자녀 학교 종류별 재적 상황	100
<표 IV-5>	일본어 지도가 필요한 외국인자녀의 모어별 재적 상황	100
<표 IV-6>	2010년 문부과학성의 모어교육 지원 예산	104
<표 IV-7>	학교 지원 인재 بانک 등록자 현황	105
<표 IV-8>	2009년 오사카후 재일외국인시책 예산	107
<표 IV-9>	2010년 효고켄 모어교육 지원 예산	109
<표 IV-10>	오사카시 시키초등학교 국제교실 실천사례	111
<표 IV-11>	중국어 모어 수업 교육과정	114
<표 IV-12>	가도마나미하야고등학교 실천사례	115
<표 IV-13>	베트남어 모어교실 커리큘럼	117
<표 IV-14>	효고켄 모어교육지원센터학교(히메지시립히가히 초등학교) 실천사례	118
<표 IV-15>	관서브라질커뮤니티 실천사례	121
<표 IV-16>	돗까비루츠어교실 실천사례	125
<표 IV-17>	토요나카국제교류센터 실천사례	128
<표 V-1>	대만의 결혼이민자 출신국별 모어의 의미	135
<표 V-2>	전국 신주민 현황(2005-2010년도)	138
<표 V-3>	신주민 거주 최다 3위 지역 현황(2010년 6월)	139
<표 V-4>	전국 신주민의 자녀 초중학교 취학생수	140
<표 V-5>	신주민 자녀의 부모 국적별 초중학교 재학생수	141
<표 V-6>	타이베이시 신주민 자녀의 초·중학교 취학 현황	148
<표 V-7>	타이베이현 신주민 자녀의 초중학교 재학생 현황	151
<표 V-8>	적수초등학교 모어전승 교육과정의 실시 내용	156
<표 V-9>	적수 초등학교의 모어전승 교육과정의 예산 집행 내역	158
<표 V-10>	적수 초등학교의 모어전승 교육과정의 항목별 예산 집행 내역 ...	158
<표 V-11>	타이베이시 학교에서 개최되는 신주민 관련 활동 현황	162
<표 V-12>	타이베이시 신주민의 출신국 언어 연수반 개설 현황	163
<표 V-13>	타이베이시의 신주민 출신국 언어 연수반 개설 내용	164

그림목차

[그림 I-1]	연구 절차	8
[그림 III-1]	교육과학기술부의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지원 정책 추진 체계	51
[그림 III-2]	사업 추진 체계	58
[그림 IV-1]	귀국·외국인 아동·학생 교육 지원체제	103
[그림 IV-2]	오사카후 모어교육 지원 사업 운영체제	106
[그림 IV-3]	효고켄의 모어교육 지원 사업 운영체제	108
[그림 IV-4]	고베시립혼조초등학교의 모어교육지원센터학교의 지정 과정	109
[그림 V-1]	부모 국적별 신주민 자녀의 초중학교 취학 현황	140
[그림 V-2]	대만 중앙정부의 신주민 교육정책 추진체계도	145
[그림 V-3]	지방정부의 신주민 교육정책 추진체계도	146
[그림 V-4]	2009년 타이베이시 각 행정구역의 신주민 주민수 현황	149
[그림 V-5]	적수초등학교의 베트남어 모어전승 교재	157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여성결혼이민자 대부분은 국내에 입국하면서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해 교육을 받지만, 이는 입국초기에 일시적으로만 이루어진다. 이후 임신·출산과 생업 등으로 대부분의 여성결혼이민자들은 교육을 지속적으로 받지 못하는 형편이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의 교육기회로부터의 소외는 자신의 생활·사회부적응 뿐만 아니라 자녀의 부적응으로까지 연장된다. 관련 연구들(설동훈, 2005; 오성배, 2005; 조영달 외 2006; 김정란, 2007; 교육부, 2007)은 언어와 문화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한 이주여성인 어머니가 자녀교육을 담당함으로써, 이들 자녀들이 언어발달 지체, 학교생활상의 문제 등 성장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지금까지 정부와 시민단체들의 다문화가족 한국어교육 지원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대응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어는 결혼이민자들에게는 그저 또 하나의 외국어일 뿐이다. 외국어를 이해·습득하여 소통하는 데에는 장시간이 필요하며, 외국어가 모국어처럼 내면화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보통 어머니들이 그들에게 가장 자신 있는 언어로 자녀를 교육할 때에도 충분하지 못하다고 느낄 때가 많은데, 하물며 결혼이민자인 외국인 어머니가 언어적 경험이 부족한 한국어로 자녀를 교육할 때 그 어려움은 더욱 클 것이다. 또한 이들의 한국어 능력 부족이 자녀의 언어발달 지체 및 학교부적응을 초래할지도 모른다는 염려는 결혼이민자 어머니들에게 심리적 부담을 가중시킨다.

다문화사회를 일찍이 경험한 미국의 경우, 초기 이민 온 소수민족들에게 새로운 언어인 영어를 가르쳐 언어 통일을 꾀하려 했다. 그리하여 표준영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미국 내의 소수민족 어린이들에게 표준 언어를 가르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사용하였으나, 수십 년 동안 실시해 온 단일 언어(영어) 교육의 결과는 실패로 나타났다. 1968년 부터 소수민족 어린이들에게 처음 배운 모어(母語)로 공부를 할 수 있게 해 줄 뿐 아니라, 표준영어를 하나의 과목으로 배워 두 개의 언어를 모어같이 구사할 수 있는 이중언어인이 되도록 하는 이중언어 정책은 이러한 배경 속에서 탄생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이민자 자녀의 언어교육에 대한 관점 변화는 유럽연합(EU), 유네스코, OECD 등 국제기구뿐만 아니라 다인종·다문화로 일찍 경험한 서구의 국가들의 경우에도 나타났다. 이민국의 언어사용 능력 부족을 이들의 문제로 보던 관점은 이민

4 ─ 다문화가족 자녀의 결혼이민 부모 출신국 언어 습득을 위한 교육지원 사례 연구

국 구성원의 다양한 언어사용을 인정하는 ‘인권리’의 관점, 더 나아가 언어를 하나의 ‘사회적 자원’으로 보는 관점으로 변화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제결혼가정의 자녀들에게 이민자 부모의 출신국 언어를 교육할 필요가 있음이 제기된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다. 2009년 교육과학기술부가 맞춤형 학습지원 및 상담, 다문화가정 학부모의 자녀교육지원 역량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 등을 강조하면서, 특히 서울시 교육청이 다문화가정 학부모의 강점을 살려 이들을 이중언어 강사로 양성하고, 학교현장에 배치함으로써 이민자 부모의 출신국 언어와 문화를 교육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다문화가족에게 한국어중심의 단일언어 교육을 강조하는 것이 대세이다.

다문화사회를 일찍 경험한 다른 나라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국제결혼가정 자녀에게 부모의 출신국 언어를 교육하는 것은 다문화가족에게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다. 이는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이들이 문화적 편견을 넘어서 서로 이해하고, 더불어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가정에서의 사용언어가 한국어로 한정되어 어머니와의 대화가 적거나 내용수준이 낮은 것보다 일찍부터 모어를 사용해 부모-자녀 간 충분한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이는 자녀들의 지능 발달과 학습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박정은, 2007:97). 또한 어머니의 언어를 알아야 자녀가 성장하여서도 어머니뿐만 아니라 어머니 가족과 소통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대개의 경우 여성결혼이민자가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남편이나 시댁 가족의 강압적인 결정으로 익숙하지 않은 한국어로 자녀를 키우고 있는데, 특히 저개발국에서 온 국제결혼가정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 그러나 자녀가 성장하여 어머니 언어를 전혀 구사할 줄 모르고, 어머니는 여전히 한국어 능력이 부족할 경우, 어머니와 자녀 간 소통과 공감대 형성은 기대할 수 없게 되므로 다문화가정의 또 다른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이처럼 이민자 부모가 자녀에게 자신의 모어를 교육하는 것은 한국어 능력이 부족해 자녀교육에 자신감이 없는 이들 부모에게 자녀교육에 있어 또 다른 가능성과 희망을 줄 수 있다. 아울러 국제결혼가정 자녀들의 배경이 되는 결혼이주 부모 나라의 언어는 그들 자녀에게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매우 유용한 자산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차 그들 부모의 출신국과 우리 사회를 연결해 줄 수 있는 교량 역할을 할 수 있다. 시대적 요구와 현실적 문제, 그리고 결혼이민자 부모 출신국 언어교육의 효과 등을 고려할 때, 이제는 자녀교육을 한국어로 해야 한다는 고

정관념에서 벗어나 보다 발전적인 사고로 전향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국제결혼가정 자녀에게 이민자 부모 출신국 언어를 체계적으로 교육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 관련 정책 수립 및 체계적 언어교육 지원에 관한 선행연구가 부재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수행되고 있는 국내 국제결혼가정 학령기 아동·청소년 대상 결혼이민자 부모 출신국 언어교육지원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교육지원 실천사례를 발굴·분석함으로써 현안 문제와 개선점, 요구사항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결혼이민자 부모 출신국 언어교육의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국제결혼가정의 형성배경뿐 아니라 역사·문화적으로 우리와 유사한 환경에 있는 일본과 대만의 사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서구의 경우는 가족단위로 이주하여 이주민 집단촌을 중심으로 그들만의 독자적인 민속 문화를 유지하고 발달시켜 온 반면, 우리나라의 이주민들 대부분은 개별 이주의 형태로써 한국인과의 결혼을 통해 가정을 형성, 적극적으로 한국 사회에 동화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서구와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내국인과의 국제결혼을 통한 이민 현상은 부분적으로 우리와 상황이 유사한 일본, 대만에서 찾아볼 수 있고, 두 국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결혼이민자 부모 출신국 언어교육 사례는 향후 우리나라에서의 자녀의 이민자 부모 출신국 언어 습득을 위한 교육지원에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들 국가의 교육지원 정책, 교육 환경, 교육지원 실태뿐만 아니라 교육실천 사례 분석을 통해 우리 교육에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국제결혼가정 자녀를 위한 이민자 부모 출신국 언어 교육지원 현황은 어떠한가?

- 1-1. 관련정책은 무엇인가?
- 1-2. 학교중심 추진현황은 어떠한가?
- 1-3. 학교 밖 지역(민간, 지역센터중심)에서의 지원 현황은 어떠한가?
- 1-4. 구체적인 실천사례들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6 ─ 다문화가족 자녀의 결혼이민 부모 출신국 언어 습득을 위한 교육지원 사례 연구

둘째, 우리나라와 유사한 사회적 배경을 지닌 일본과 대만에서의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이민자 부모 출신국 언어 교육지원 현황은 어떠한가?

- 2-1. 추진배경은 무엇이며, 관련정책은 무엇인가?
- 2-2. 학교중심 추진 현황은 어떠한가?
- 2-3. 학교 밖 지역(지역센터중심)에서의 지원 현황은 어떠한가?
- 2-4. 구체적인 실천사례들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셋째, 국내외 교육지원 현황 분석 및 실천사례 비교결과는 어떠한가?

- 3-1. 각 국의 교육지원 현황 및 실천사례 비교를 통해 파악된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인가?
- 3-2. 각 국의 사례분석 결과를 통해 도출할 수 있는 시사점은 무엇인가?

2. 연구의 내용

본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연구의 방향 설정

선행연구·관련자료 분석 및 전문가 의견 수렴 결과를 기초로 연구의 방향을 설정하고, 연구의 범위를 확정하였다.

나. 연구의 이론적 기초 탐색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국제결혼가정 자녀를 위한 이민자 부모 출신국 언어 교육지원의 필요성, 국제동향 및 관련 이론, 자녀교육의 인지적·정의적 효과 등 연구의 이론적 배경에 관해 고찰하였다.

다. 이민자 부모의 출신국 언어 자녀 교육지원 현황 분석틀 설정

국제결혼가정 자녀를 위한 이민자 부모 출신국 언어교육지원 관련 정책 및 실천 사례를 수집하여 국내 결혼이민자 부모 출신국 언어 교육지원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분석틀을 마련하였고, 이를 위해 분석틀을 구성하는 준거(예: 교육지원의 배경, 교육지원의 내용 및 방법, 성과와 문제점, 개선 요구사항 등)를 선정하였다.

라. 국내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이민자 부모 출신국 언어 교육지원 현황 분석

국내에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결혼이민자 부모 출신국 언어 교육지원 관련정책 자료 및 사례를 수집·분석함으로써, 교육지원 실행의 배경, 구체적인 정책 및 지원제도, 교육지원 내용 및 방법(교육지원 대상 언어, 커리큘럼, 지도내용, 운영방법, 지도강사, 교재 등), 실천사례의 유형(학교중심 교육사례, 민간차원의 교육사례, 학교-지역연계사례 등), 성과와 문제점 등을 조사하였다.

마. 일본의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모어 교육지원 현황 분석

일본의 「모어」교육 관련 연구 및 자료 분석을 통해, 「모어」교육지원 실행의 배경, 정책 및 지원제도, 교육지원 내용 및 방법(교육지원 대상 언어, 커리큘럼, 지도내용, 운영방법, 지도강사, 교재 등)을 파악하였다. 또한 실천사례(학교중심 교육사례, 민간차원의 교육사례, 학교-지역연계사례, 이벤트 등)를 수집·분석하고, 성과와 문제점 등을 조사하였다.

바. 대만의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모어 교육지원 현황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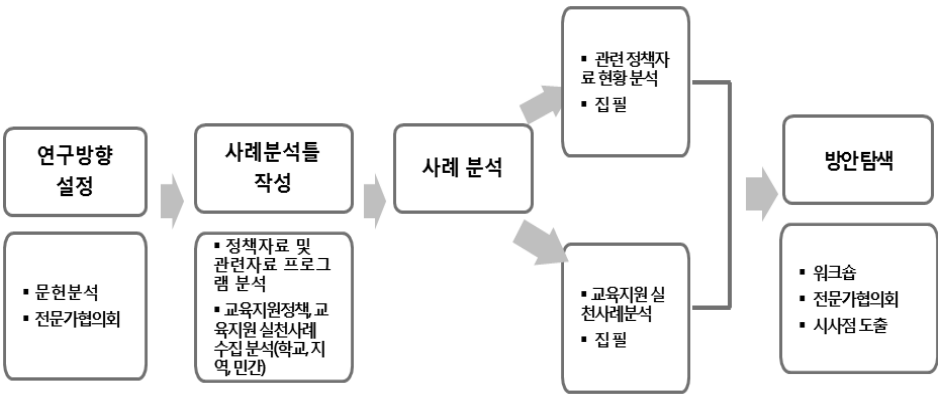
대만의 「모어」교육 관련 연구 및 자료 분석을 통해, 「모어」교육지원 실행의 배경, 정책 및 지원제도, 교육지원 내용 및 방법(교육지원 대상 언어, 커리큘럼, 지도내용, 운영방법, 지도강사, 교재 등)을 파악하였다. 또한 실천사례(학교중심 교육사례, 민간차원의 교육사례, 학교-지역연계사례, 이벤트 등)를 수집·분석하고, 성과와 문제점 등을 조사하였다.

사. 향후 교육지원에의 시사점 제안

국내외 교육지원 현황 분석과 실천사례 결과를 비교함으로써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하고, 국내 국제결혼가정 자녀를 위한 이민자 부모 출신국 언어 교육지원을 위한 향후 정책방안에의 시사점을 제안하였다.

3. 연구 절차 및 방법

본 연구의 전반적인 추진 과정 및 연구 절차는 아래의 [그림 I-1] 같다.



[그림 I-1] 연구 절차

연구내용별 구체적인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주요 연구 내용	연구방법
가. 연구의 방향 설정	전문가 협의회
나. 연구의 이론적 기초 탐색	문헌연구, 관련 자료분석
다. 분석틀 작성	정책자료, 관련 자료 분석, 연구진 자체 워크숍

주요 연구 내용	연구방법
라. 국내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이민자 부모 출신국 언어 교육지원 현황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지원 관련정책 수집·분석 - 학교 및 교육기관 운영 교육내용 분석 - 교육지원 실천사례(학교중심 교육사례, 민간 차원의 교육사례, 지역사례 학교-지역연계 사례, 이벤트 등) 분석 	설문조사 정책자료, 관련 자료 및 프로그램 분석 전문가 심층면담 및 수업관찰 (시도교육청 담당자, 교육대학교양성 이중 언어 프로그램 운영담당, 프로그램 참여 교원 등 대상 인터뷰) 현장 교육지원 담당자 참여 사례 분석
마. 일본의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모어 교육지원 현황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교육지원 정책 현황 분석 - 교육지원 실천사례 분석 	지역 전문가 해외사례 분석 현장방문, 심층면담·관찰
바. 대만의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모어 교육지원 현황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교육지원 정책 현황 분석 - 교육지원 실천사례 분석 	지역 전문가 해외사례 분석 현장방문, 심층면담·관찰 (국가 간)전문가 협의회 개최
사. 향후 교육지원에의 시사점 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의 교육지원현황 분석결과 - 국내·외 교육지원 실천 사례의 특징 및 차이점 비교 - 향후 정책방안 마련을 위한 시사점 도출, 제안 	연구진 자체 워크숍 전문가협의회

본 연구를 위해 추진된 연구방법별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관련 문헌 및 자료, 프로그램 분석

연구의 방향 설정 및 이론적 배경 탐색, 사례 분석들을 작성하기 위해 국내·외 학술 논문, 저서, 관련 자료 등을 분석하였다. 또한 국내 국제결혼가정 자녀를 위한 부모 출신국 언어 관련 정책 및 교육지원 분석을 위해 교육지원 정책으로 서울교육대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이중언어 교육지원 연수 자료를 수집·분석하고, 자녀 모어교육지원에 관한 국외 관련 자료를 수집·분석하였다.

2) 전문가 협의회 개최

연구의 방향 설정 및 향후 교육지원 정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 협의회를 개최하여 이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또한 한국·대만 간 관련 정책 및 실천 사례를 비교하기 위해 국가 간 전문가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3) 국내 결혼이민자 부모 출신국 언어 교육지원 현황 분석

가) 학교중심 교육지원 실태 분석

- 시도교육청 수준의 결혼이민자 부모 출신국 언어 교육지원 실태 조사
 - 조사대상(시기) : 16개 시도교육청 (8월 23일 - 9월 10일)
 - 조사방법 : 실태조사 양식(아래 <표 I-1> 참조)에 따라 담당 장학사가 작성
 - 조사내용 : 시도교육청별 관내 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결혼이민자 부모 출신국 언어 교육지원 실태 조사(유·초·중·고등학교)

<표 I-1> 초등학교 이중언어* 교육지원 학교별 현황(예)

교육청명	이중언어 실시 학교 (총) 수	실시학교명	학교별 참여 학생수	학교별 지도언어	지도언어별 주 교육자 (예: 교사, 결혼이주어머니 등)	기타

* 여기에서의 이중언어는 '결혼이민자 부모의 출신국 언어'를 의미함.

- 단위학교 수준에서의 결혼이민자 부모 출신국 언어교육 지원 실태조사
 - 조사대상 : 이중언어 및 모어교육 강사 43명 (서울시 이중언어 강사 39명, ○초 모어교육강사 4명)
 - 조사방법 : 구조화된 질문지 작성(<부록 1> 참조), 설문조사
 - 조사내용 : 결혼이민자 부모 출신국 언어교육에 대한 의견(구체적인 내용은 <표 I-2> 참조)

<표 I-2> 이중언어 교육지원 현황 조사 설문지 구성요소

구분	하위항목	문항번호
수업	수업 여부, 사용 교재, 수업 시간, 수업 횟수, 학생 수, 수업의 어려움 정도, 어려운 이유, 수업 보충자료	1, 2, 3, 4, 5, 6, 6-1, 7
자녀 모어교육	가정에서 모어를 가르치는지 여부, 모어 교육을 시작한 자녀의 연령	9, 9-1
강사교육	다문화교육 연수여부, 교사연수를 통해 배우고 싶은 것	8, 21
학생	이중언어 학습에서의 개인차 발생의 이유, 이중언어교육에 있어 학생이 겪는 어려움, 교육의 진행에 따른 학생의 긍정적인 변화, 중도 탈락 학생 여부, 학생의 중도 탈락 이유, 학생과의 관계에서 어려운 점	11, 13, 14, 15, 15-1, 16
운영	학교의 이중언어교육 운영 동기, 자원봉사 교사 유무, 학교 차원의 오리엔테이션 실시 여부, 오리엔테이션의 대상, 오리엔테이션의 도움 정도, 이중언어교육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개선되어야 할 점, 학교나 교육청에 건의할 점	12, 17, 18, 18-1, 18-2, 19, 20
강사 배경	성별, 연령, (귀화 전)국적, 이중언어교육 경력, 근무처, 담당과목(지도하는 언어)	

■ 실천 사례 심층면담 및 관찰

- 조사대상 : 이중언어 강사 4명(서울시 S교육청 관내 4개교 담당)
 - 초등학교의 주말학교 참여 학부모 16명, 학생 29명
- 조사방법 : 이중언어 강사 대상 면담, 수업관찰(면담 2회, 수업관찰 1회)
 - 구조화된 조사지에 의한 면대면 학부모 의견조사 및 학생 의견조사
- 조사내용 : 이민자 부모 출신국 언어교육에 대한 의견(교육동기, 가정에서의 지도여부, 교육만족도, 요구 등)

나) 지역에서의 교육지원 실태 분석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결혼이민자 부모 출신국 언어 교육지원 현황 조사
- 조사대상 :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조사방법 : 2009년도 발간 운영보고서 분석, 정리(분석<표 I-3> 참조)
 - 조사내용 : 다문화가족 이중언어교실 현황

12 ─ 다문화가족 자녀의 결혼이민 부모 출신국 언어 습득을 위한 교육지원 사례 연구

<표 I-3> 다문화가족 이중언어교실 현황(예)

센터명	2010 사업기간	이중언어	강사(출신국)	소속	계

■ 실천 사례 심층 면담

- 조사대상 : 도시지역 1개, 농촌지역 1개 기관
- 조사방법 : 담당자 심층면담
- 조사내용 : 다문화가족 이중언어교실 운영실태 조사
 - ※ 국내외 교육지원현황 비교를 위해 기 작성된 분석틀의 내용 참조

4) 국외 결혼이민자 부모 출신국 언어 교육지원 현황 분석

■ 교육지원 현황 분석

- 분석대상 : 일본, 대만
- 분석방법 : 관련자료 수집·분석, 담당자 심층면담, 수업관찰
- 분석내용 : 국내외 교육지원 현황 분석틀 참조(<표 I-4>),

■ 실천사례 발굴 및 현장방문, 면담·관찰

- 조사대상 : 일본, 대만(교육청 담당자, 학교장 및 담당교사 등)
- 조사방법 : 담당자 심층면담 및 수업관찰
- 조사내용 : 국내외 교육지원현황 분석틀 참조(<표 I-5>)

※ 국내외 교육지원현황 분석틀

국내외 결혼이민자 부모 출신국 언어 교육지원 현황 및 실천사례를 분석하기 위해 두 가지 유형의 분석틀을 작성하였다. 하나는 결혼이민자 부모 출신국 언어 교육지원 현황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며, 다른 하나는 관련 프로그램 운영 실천사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이들 각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의 <표 I-4>, <표 I-5>와 같다.

<표 I-4> 국내외 모어교육* 현황 비교 분석틀

비교 항목	한국	일본	대만
용어			
실행 배경			
추진 체계			
관련 법률			
주요 대상			
실시 시기			
재정 지원			
시행 학교			

* 여기에서 모어교육은 결혼이민자 부모 출신국 언어 교육을 의미함

<표 I-5> 모어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례 비교 분석틀

분석 준거		내용	
취지 및 목적		실시시기 언급	
주관 기관(행·재정 지원)		정부, 민간단체, 학교 등 해당 부처 및 기관의 지원 내용 기록	
운영 기관	전담 기관	모어교육 프로그램을 실제 실행하는 기관에 대해 기록	
	운영 형식	직영/위탁	
	운영 유형	거점/단위학교	
실시 방법	실시 유형	프로그램 실시 주기(학기제, 계절제, 분기제 운영 등)	
	실시 시간	0교시, 방과후, 주말 등	
	실시 대상	프로그램 대상 학생에 대해 기록	
	신청 자격 요건	대만의 경우, 아버지의 동의가 있어야만 신청이 가능하듯이 학생의 수업 참여 조건에 필수적인 사항에 대해 기록	
	지도 언어	실제 지도하는 언어 제시	
교육 과정	커리큘럼		운영 되고 있는 교육과정
	교재	개발	교재 개발의 주체, 개발비 지원 등 기록
		내용	교재의 구성 내용에 대해 기록
	교육 방법		수업 지도 방법 및 지도 내용, 평가 방법 등에 대해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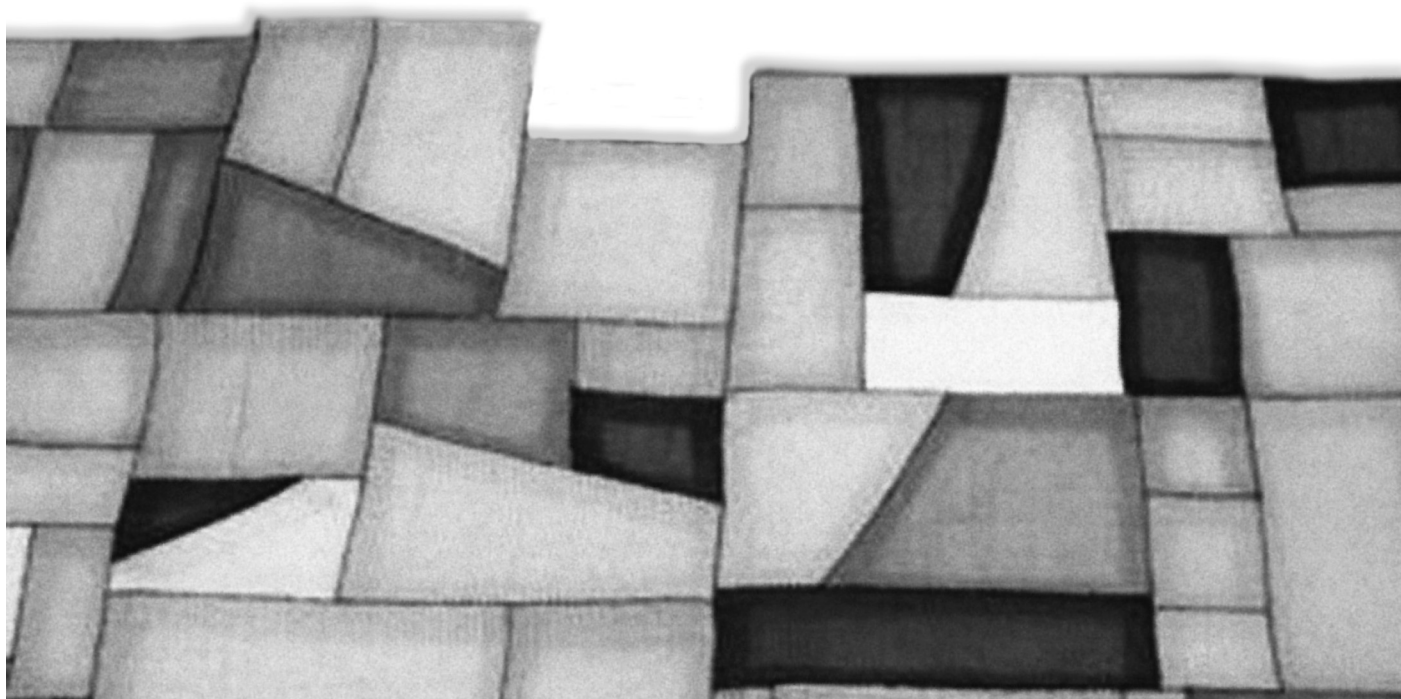
14 ─ 다문화가족 자녀의 결혼이민 부모 출신국 언어 습득을 위한 교육지원 사례 연구

분석 준거		내용
학교의 운영 지원	학교장의 지원	학교장의 배려 및 참여 등에 대한 내용 기록
	교·강사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교강사, 이들의 인건비 혹은 신분 보장, 인센티브 등 기록
		자원봉사·도우미
	물리적 지원	교육 장소 등 교육 환경 조성 여건 기록
	학습자료 지원	단위 학교별 학습 관련 편성 및 지원 여부
	기타	단위학교에서 모어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원하는 기타 사항 기록
교육 효과	효과	학생: 학부모: 학교:
	개선점(문제점)	현재 운영상의 문제점, 개선 방향 등
기타(제언)		향후 발전 방안

* 여기에서 모어교육은 결혼이민자 부모 출신국 언어 교육을 의미함.

Ⅱ

연구의 이론적 기초



1. 이민자 자녀 대상 언어교육 관련 용어

국제결혼이민자 자녀에게 이주부모의 출신국 언어를 교육하는 것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이중언어’, ‘모어’, ‘계승어’ 등은 자주 사용되고 있는 용어이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이중언어

이중언어(Bilingualism)는 두 개 이상의 언어를 의미한다. 그리고 이중언어 교육은 학습자로 하여금 두 개 이상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주는 교육을 말한다. 이러한 ‘이중언어’란 용어는 다문화사회를 일찍이 경험한 미국에서 소수민족 어린이들에게 처음 배운 모어로 공부를 할 수 있게 해 줄 뿐 아니라, 표준영어를 하나의 과목으로 배워 두 개의 언어를 모어같이 구사할 수 있는 이중언어인이 되도록 하는 ‘이중언어정책’에서 연유한다. 과거 미국은 초기 이민 온 소수민족들에게 새로운 언어인 영어를 가르쳐 언어 통일을 꾀하려 했다. 그리하여 표준영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미국 내의 소수민족 어린이들에게 표준 언어를 가르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수십 년 동안 실시해 온 단일 언어(영어) 교육의 결과는 실패로 나타나면서, 1968년부터 소수민족 어린이들에게 처음 배운 모어와 표준영어를 능통하게 구사할 수 있는 이중언어인이 되도록 하는 이중언어정책¹⁾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이중언어교육의 실시는 ‘언어결함론(Deficit Theory)’에 근거를 둔 단일 언어교육의 교육적 실패에 대한 대안으로 나온 ‘언어상이론(Different Theory)’에 근거를 둔다. 이 중에 ‘언어결함론’은 교육심리학자인 Bereiter & Englemann(1966) 이론에 근거를 둔 것으로, 글자 그대로 어떤 언어는 우월하고, 어떤 언어는 결함이 있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표준 영어는 바르고 우월한 언어이며, 흑인영어는 틀리고 결함이 있는 언어라고 보는 입장이다. 그리하여 표준영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은 미국 내의 소수민족 어린이들에게 표준영어를 가르치기 위하여 막대한 예산을

1) 1968년 1월 미국의 상하의회에서 통과한 [이중언어교육법(Bilingual Education Act)]에 당시 Lyndon B. Johnson 대통령이 사인함으로써 공포되고 미국의 초·중등학교에서 시행되었다.

들여 영어 특별교육까지 시켜보았으나 수십 년 동안 실시해 온 단일언어 교육의 결과는 기대와는 달리 실패로 나타났다.

‘언어결함론’과는 달리 ‘언어상이론’은 Bereiter & Englemann(1966)에 근거하며, 언어에는 우월한 언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각기 언어는 서로 다를 뿐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언어상이론’에 입각해 제안된 것이 이중언어교육이다. 즉 영어 하나로만 교육하는 것에 대한 한계를 깨닫고, 소수민족의 언어를 사용하여 영어를 가르치거나 소수민족의 언어와 영어를 동시에 가르치는 것이다.

이렇듯 미국에서는 ‘이중언어교육법(Bilingual Education Act)’을 근거로 미국에 살고 있는 모든 어린이들이 최대한 그들의 꿈을 실현하고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좀 더 나은 여건을 만들어 주고자 노력하였다. 실제 이 법은 학생들의 중도탈락을 방지하고, 학습부진아를 돕기 위해, 그리고 시골 벽지 어린이들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모어가 영어가 아닌 어린이들을 위한 이중언어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나. 모어, 계승어

‘이중언어’ 외에 여성결혼이민자 가정의 자녀를 위한 이주부모의 출신국 언어 교육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는 용어로 ‘모어’, ‘계승어(혹은 모어 계승어)’ 등을 들 수 있다.

일본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모어’의 개념은 어느 측면을 중심으로 보는가에 따라 그 정의가 다양한데, 石井美佳(1999)는 ‘모어란 본인이 속한 가정이나 커뮤니티에서 사용되는 것, 또는 본인과 부모에 의해 모어라고 여겨지는 언어’라고 정의한다. 한편 中島和子(2003)는 이민 환경 가운데 부모의 모어가 자녀의 모어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계승어’를 부모로부터 이어 받은 언어, ‘현지어’를 외국인자녀의 성장환경 안에서 매일 사용하는 언어라고 정의하고, 외국인자녀의 언어 환경을 ‘계승어’와 ‘현지어’로 분류하였다.

반면 캐나다 통계청에서 사용하는 모어(mother tongue)의 개념은 “개개인이 어렸을 때 가정에서 배운 첫 언어(제1언어)로, 국세조사를 하는 시점에서도 이해하는 언어(Refers to the first language learned at home in childhood and still understood by the individual at the time of the census)”를 의미한다. 예컨대

캐나다에 사는 한국인 1세대에게 한국어는 모어(제1언어)이고, 그 다음으로 배운 영어나 불어는 제2언어이다. 이민 2세 어린이가 캐나다에 올 때 5살이었을 경우, 이민 초기의 2세에게 한국어는 모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국세조사를 하는 시점에서 한국어를 상실했을 때에 한국어는 더 이상 모어가 아니라는 뜻이다.

다. 시사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문화가정의 중요 환경요인이 되는 이민자 부모의 출신국 언어를 나타내는 용어는 탄생배경의 공통성과는 달리 다양하다. 그리고 다양한 용어들의 사용과 함께 이들 용어들이 사용자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2009년 이래 국내 거주 외국인, 특히 결혼이민자를 이중언어 강사로 양성하여 이들이 초등학교 현장에서 교육지원을 하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여기에서 사용되는 의미는 주로 모국어(한국어)보다는 제2언어(이민자 부모의 모어)를 뜻한다. 실제 초등학교 교육 현장에서 이중언어 강사 대부분은 결혼이민자 부모의 출신국 언어를 다문화가정 학생에게 교육하고 있었다. 소통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관련용어 검토를 통해, 이민자 부모의 출신국 언어를 나타내는 용어에 대한 정립이 우선적으로 필요함을 시사받을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용어상의 혼동을 피하고 의미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이중언어, 모어, 계승어 등의 개념을 사용하지 않고, ‘(국제)결혼이민자 부모 출신국 언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자 한다. 다만, 국내외 사례 분석 대상이 되는 사업내용, 예컨대 한국의 ‘이중언어 강사 육성·배치 사업’, 일본에서 사용되는 용어인 ‘모어(모어 계승어)’, 대만의 ‘모어 전승어’ 등의 표현은 각국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또 다른 혼동을 피하고자 한다.

2. 이민자 자녀를 위한 언어교육의 국제동향

다음에서는 국제기구 및 다문화사회를 일찍 경험한 서구 주요국에서의 이민자 자녀의 언어교육동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가. 국제기구의 동향

EU에서는 2004년도에 30개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유럽의 이민학생 학교 통합 방안(Integrating immigrant children into schools in Europe)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이 연구의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에 제시한 바와 같이 대부분의 EU 회원국에서 이민아동을 위한 언어교육, 모국어 및 출신국의 문화, 그리고 모든 학생들을 위한 간문화교육이 가능하도록 교사 재교육을 실시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유럽의 이민학생 학교 통합 방안」의 주요 결과

- 이민이 증가한 시기나 정도의 문제는 EU 회원국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이민자들을 본토 사회에 어떤 방식으로 통합시키느냐는 대부분의 EU 회원국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음.
- 대부분의 EU 회원국들은 이민아동들을 본토 사회에 통합시키는 일차적인 수단으로서 자국어 교육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민아동들에게 모국어(mother tongue)와 출신국 문화를 배울 기회도 보장하고 있음.
- 또한, 대부분의 EU 회원국들은 이민아동과 본토아동 모두가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상호 수용할 수 있도록 간문화교육(intercultural education)을 실시하고 있음
- 대부분의 EU 회원국에서는 이민아동 증가와 간문화교육이 확대됨에 따라 교사 재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특히, 이민아동을 위한 언어교육, 모국어 및 출신국의 문화, 그리고 모든 학생들을 위한 간문화교육이 가능하도록 교사 재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최근에 EU 회원국들에서는 이민아동들을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하지만, 개별 지원방식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는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자료: EC(2004b). Integrating Immigrant Children into Schools in Europe

또한 1989년 11월 20일 UN 총회에서 결의된 「유엔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제29조의 다’항에서는 모든 아동이 자신의 부모, 문화적 정체성, 언어 및 가치 그리고 현 거주국과 출신국의 국가적 가치 및 이질문화를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협약인준국들이 다문화가족 자녀들을 교육시킴에 있어서 자국 문화에 대한 일방적인 동화, 또는 이민아동의 출신국 문화에 치우친 편향적 교육에서 벗어나 이민아동들이 양 국가의 문화와 가치 모두를 이해할 수 있는 세계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이 이루어

져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2008년 1월부터 이루어지고 있는 「OECD 이민교육에 대한 주제검토사업(OECD Thematic Review on Migrant Education)」의 일환으로 작성된 「성공하는 이민자 자녀교육의 특성」의 진행보고서(working paper)에서는 이민학생들을 위한 효과적인 학교수준정책(school-level policies)으로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이민아동들이 본토 언어를 조기에 습득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이민학생들을 본토 학생들과 같은 교실에서 통합하여 교육시키되, 언어교육을 보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둘째, 학교교육 과정과 수업교재에서 이민자들을 본토 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존재, 그리고 성공잠재력을 지닌 존재 등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이민자들의 이야기를 교육내용에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이민학생들에 대한 교사들의 이해를 높이는 교육 훈련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이민학생 부모들의 학교교육 참여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자녀의 학업성취에 부모의 교육적 관심 등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언어장벽, 낮은 소득, 시간부족 등으로 학교에 참여하기 어려운 이민가정 부모들에게 추가적인 지원을 통해 학교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EU, UNESCO, OECD과 같은 국제기구들에서도 국가간 인구이동이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이민자 가족에 대한 교육지원은 중요한 의제로 등장하고 있다. 아울러 다문화가족 자녀들에게 모국어와 문화를 학습할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으며, 인권보호 차원에서 이민아동들을 본토 사회의 주류 문화와 언어에 통합시키려는 노력과 함께 이들이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학교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나. 주요국의 동향

다음에서는 다문화사회를 일찍 경험한 미국과 유럽에서의 이민자 자녀를 위한 언어교육 동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유럽의 경우는 최근 OECD에서 발간한 이주 학생의 학교 적응 및 언어 교육에 대한 유럽 국가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미국

미국의 경우 1968년 이중언어교육법 제정 이후, 이민아동의 교육지원을 위해 일련의 법제화가 이루어졌다. 그 대표적인 법으로서 1984년도에 제정된 「긴급이민아동교육법(Emergency Immigrant Education Act of 1984: EIEA)」을 들 수 있다. 이 법은 외국에서 출생하여 미국 내의 학교에 재학한 기간이 3년이 되지 않는 학생들(3-21세)이 다수인 학교들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IEA에 의한 보조금(EIEP grants)은 ① 이민학생들의 학교활동에 대한 학부모의 참여를 촉진하는 활동 ② 이민 아동·청소년교육과 관련된 교사 훈련에 소요되는 인건비 ③ 이민아동을 위한 과외, 멘토링(mentoring), 상담활동, ④ 이민아동을 위한 교육자료 조사 및 구입비 ⑤ 이민아동과 관련된 기본적인 교수활동(instructional activities) 등에 쓰일 수 있다(O'Dea, 2001). EIEP 프로그램은 오랫동안 시행되어 왔으나, 2008년부터 지원이 중단되고 있다.

이외에도 「학생낙오방지법(No Child Left Behind Act of 2001)」에 의거하여 이민아동들은 소속 학교가 동법 제1절(Title I)의 기준에 비추어 지역교육청에 의해 개선이 요망되는 학교로 판정될 경우에는 보충적 교육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US DOE 홈페이지). 이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되며, 읽기, 언어 및 수학 등과 같은 과목에 대한 학습을 지원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이재분 외, 2009). 이 외에도 미국의 교육부에서는 우수한 교사 및 학교장 채용 및 훈련 프로그램, 이중언어 학생 등 영어능력이 부족한 학생들을 위한 어학프로그램, 최신 정보통신의 교육적 활용을 위한 21세기 학교 프로그램, 학부모의 학교선택권 부여 프로그램, 아메리칸-인디언과 알래스카 및 하와이 원주민 자녀들의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등에 대해 연방재정을 지원하고 있다(김재금 외, 2007:96-100).

또한 연방 교육부 프로그램 지침(Guide to U.S. Department Education Programs, 2007)을 통해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최근 3년간 실시해 온 소수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첫째는 소수자 정체성 보호, 둘째는 미국사회 적응 지원 등의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방 교육부가 재정지원을 하는 소수집단 학생과 관련한 교육프로그램은 다음 <표 II-1>과 같다.

<표 II-1> 미 연방교육부 다문화가정 학생 관련 교육프로그램

교육대상	내용	주관부처	프로그램 명
영어구사능력 제한 학생 (LEP Students)	이중언어교육, ESL교육, 가정 및 학부모 교육지원	영어습득국 (OELA)	· 이중언어교육을 위한 학교 지원 : Bilingual Education Comprehensive School Grants
영어구사능력 제한 학생 (LEP Students)	영어구사능력 제한 학생 에 대한 각 주의 영어능 력 향상 및 학업성취증진 프로그램	영어습득국 (OELA)	· 영어습득교육을 위한 주 지원 : English Language Acquisition State Teachers
모든 교사	교사 대상의 이중언어 교 육 능력 향상 프로그램	영어습득국 (OELA)	· 교사를 위한 이중언어 교육 : Bilingual Education Training for All Teachers
영어구사능력 제한 학생	미국 본토와 하와이, 알 래스카 원주민, 태평양 섬출신의 영어구사능력 제한 학생을 위한 영어 지원 프로그램	영어습득국 (OELA)	· 미국 원주민과 알래스카 원주민 아동을 위한 학교교육 : Native American and Alaska Naive Children in School
고등교육 기관	원주민교육기관의 역량 강화, 재정지원	고등교육국 (OPE)	· 알래스카 및 하와이 원주민 지원 기관: Alaska Native and Native and Native Hawaiian serving Institution
인디언 아동	인디언 아동 교육지원을 위한 관련기관 및 단체 지원	고등교육국 (OPE)	· 미국 원주민 중심 대학 Alaska Native and contralled Colledges and Universities · 인디언 아동 교육 : Demonstration Grants for indian Children · 지방 인디언 교육기관 지원 : Indian Children-Formular Grants to Kocal Education Agencies · 인디언 교육의 전문성을 위한 지원 Indian Children-Professional Development Grants
이민자녀	이민자 교육을 위한 관 련단체, 고등교육기관, 주 교육기관 지원	초중등교육국 (OESE)	· 이민자 교육프로그램 - Even Start · 이민자 학생 교육을 위한 주의 기초 재정 지원 · 고등교육을 받는 이민자 학생의 재정 지원 프로그램 · 주별로 연계된 협동적 이민자녀 교육 프로그램의 지원

출처 : 박성혁(2008). 다문화교육정책 국제 비교연구. 교육과학기술부.

이처럼 미국에서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적응교육을 위해 연방교육부 영어습득국이 실시하는 이중언어교육, 원주민을 위한 학교교육, 이민자녀를 위한 영어 교육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2) 유럽 국가

OECD²⁾에서 발간한 보고서를 기초로 이주 학생의 학교 적응 및 언어 교육에 대한 유럽 국가 동향을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OECD에서는 이주 학생의 교육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다음의 네 가지 영역의 정책을 개발하였다.

- 1) 조기 아동 교육 및 보육(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ECEC)에의 참여와 질 향상
- 2) 모든 학생들에게 적절한 언어 지원 제공
- 3) 교수 학습 환경 향상
- 4) 이주 학생 지원을 위한 학부모, 지역사회, 학교의 참여 등

그리고 네 가지 영역의 각 정책들에 대한 유럽 국가들의 실천사례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 정책 1 : 조기 아동 교육 및 보육(ECEC)에의 참여와 질 향상

– 덴마크에서의 어린이들을 위한 의무 언어 스크리닝(language screening)과 지원

덴마크에서 모든 이중언어 어린이들은 3세에 언어 스크리닝(language screening)을 받는다. 언어 개선이 필요한 어린이들은 언어 자극 프로그램(language stimulation programme)에의 참여가 요구되며, 6세에 학교에 입학할 때까지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한다. 만약 어린이들이 보육 시설(day care facility)에 다니지 않는다면, 무료로 주당 15시간의 언어 자극 프로그램에 참여할 것이 요구된다. 대부분의 학교들과 지방의 기관들은 언어 교육에서 이주 어린이들이 학교에 입학할 때 언어 능력 수준이 프로그램 도입 후 향상되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Source: Nusche et al., 2009).

2) OECD(2009). *OECD Reviews of Migrant Education : Austria*. OECD, Paris.

– 덴마크와 노르웨이에서의 유치원과 학교 간 연계 강화

덴마크의 교육부는 학교와 보육 제공자들 간 협력을 체계화하는 우수한 예들에 대한 설명뿐만 아니라 보육 시스템과 학교 간 어린이들의 이동(transfer)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에 대한 전문가들의 논문들이 실려 있는 소책자를 발간하였다.

노르웨이는 유치원에서 학교 시스템으로 어린이들의 이동을 촉진시키기 위한 많은 프로젝트를 소개하였다. 프로그램 “Reading Friends”는 이주 어린이들의 초등 학교와 유치원 간 연계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 프로그램은 어린이의 모국어와 노르웨이어 모두를 발달시키고, 학교와 유치원에서 다문화적인 시각을 강화하고, 학교, 유치원 및 가정 간 적절한 협력을 발전시키고, 이주 가족들 간에 지역 도서관의 이용을 증가시키는데 그 목표를 둔다. 10세가 된 어린이들은 그들의 모국어로 이야기 하기 위해 준비한다. 학교에서 책 읽는 것을 연습하고, 집에서 가족들에게 책을 읽어준다. 연습을 한 후, 어린이들은 두 유치원들을 방문하는데, 그곳에서 같은 모국어를 사용하는 유치원 어린이들과 앉아서 그들에게 책을 읽어준다. 유치원 어린이들의 학부모는 읽기 시간 후 같은 책을 빌려올 수 있다(Source: Takuma et al., 2009a).

■ 정책 2 : 모든 학생들에게 적절한 언어지원 제공하기

– 덴마크, 아일랜드에서의 언어지원에 대한 규정을 결정하기 위한 일관성 있는 평가 기준

덴마크에서 지방의 기관들은 이중언어 어린이들이 학교에 입학할 때 이들에게 언어 지원이 필요한지, 아닌지를 평가하는 의무를 가진다. 평가는 필요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고, 표준화된 평가 자료나 테스트를 포함해야 한다. 교육부는 구체적으로 이중언어 어린이의 언어 발달 요구에 맞춘 평가 자료의 개발에 재정을 지원한다. 지방의 기관들은 이중언어 학생들에게 각 어린이들의 평가에서 확인된 요구에 맞추어 강도(intensity)와 기간(duration)에 따라 언어 지원을 제공할 의무를 가진다. 주류 교육(mainstream instruction)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의 능력을 갖지 못한 학생들은 기본적인 제2언어 습득에 초점을 맞추어 학급이나 팀으로 분리되고, 2년의 최대 기간이 지나면 점차 주류 학급으로 보내진다.

한편, 아일랜드 교육 당국은 Council of Europe's Common Framework of

Reference for Languages를 사용하는 “초등 및 초등 후 평가 세트(Primary and Post-Primary Assessment Kits)”를 마련하였다. 아일랜드 교육 당국은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계속하여 세트(kit)인 A1, A2, B1을 평가받도록 추천하며, “학생들이 수준[B1]의 평가 과업을 수행하고, 지시된 점수를 성취하면, 주류 학습으로의 완전한 통합이 가능하다”는 것에 주목한다. 그리고 이러한 평가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네 가지 언어 기술 모두에 적용된다(Source: Nusche et al., 2009; Takuma et al., 2009b).

－ 영국과 덴마크에서의 교과 교사들(subject teachers)과 언어 전문가들(language specialists) 간 협력

영국에서는 이민자 학생들을 분리된 언어 수업에 계속 두기 보다는 가능한 한 연령에 적합한 수업에 배치하는데 초점을 둔다. 모든 교사들은 주류 교실에서 특별한 교과과정 활동들을 통하여 추가 언어로서의 영어(English as an Additional Language, EAL)로 개발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EAL 전문 교사들은 콘텐츠 수업(content lessons)에서 어떻게 영어 언어 학습 기회를 포함시키는지에 대하여 교사들에게 조언과 안내를 제공해 준다. 또한 전문가(specialists)들은 수업에서 EAL 학습자를 공동으로 지원하기 위해 주류 교사들과 함께 협력한다.

덴마크의 많은 학교들은 보통 언어 센터(language centre)라고 불리는 각 학교의 센터에서 언어 지원에 할당된 교사 수업을 한다. 평가(evaluations)는 이 센터들이 잘 운영될 때 이주 학생들을 위한 학습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Source: Leung, 2004; UC2 and KLEO, 2004; EVA, 2007).

－ 노르웨이에서 외국의 교사 자격에 대한 인정(recognition)

노르웨이에서는 모국에서 기본적인 교사 훈련을 받았거나 노르웨이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교사가 되기를 원하는 이중언어/다문화 배경을 가진 사람들은 교사로서 자격을 갖추는 필요가 있는 보충 교육(supplementary education)을 받는 동안 급여/보조금(stipends/grants)을 받을 자격이 있다.

2004년, 노르웨이의 7개 대학은 능력을 획득하길 원하는 모국어 교사(mother-tongue teachers), 이중언어 교사(bilingual teachers), 이중언어 보조교사(bilingual

assistants)를 위해 3년간 운영되는 7개 대학 연계 교사 훈련 프로그램(net-based three-year teacher-training programme)의 공통의 틀을 개발하였다. 목표는 3년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친 참여자들에게 이중언어 교육의 학사 학위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2005년에 시작한 이 프로그램은 매우 성공적이었고, 2009년 현재, 아홉 개의 대학에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2007년 8개의 교사 교육 칼리지와 대학들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운영하는 다언어 유치원(multilingual pre-school) 교사들을 위한 학사 학위과정을 개발하고, 테스트하는 프로젝트를 위해 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고 있다(Source: Takuma et al., 2009a).

■ 정책 3 : 교수 학습 환경 향상

– 덴마크에서의 다양성을 위한 전문가(specialists)와 주류 교사(mainstream teachers) 연수(교육)

덴마크 교육부는 모든 과목 교사들 가운데 이중언어 학생을 가르치는 것과 이(중) 문화 간의 교육(intercultural education)과 제2언어 습득에서 부가적인 목표로 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전문가들을 훈련시키는 것에 대한 특별교육을 철폐하고, 관련 내용을 일반교육에 포함하여(mainstreaming) 지식 간의 균형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하여 접근해 왔다. 이 균형은 일관성 있게 초임 및 현직 교사 연수(initial and in-service teacher training) 모두에서 찾아볼 수 있다.

초임교사 연수(initial teacher training)를 위하여, 교육부는 기본 교육을 마친 모든 신입 교사들이 최소한 이(중) 문화 간의 교육과 제2언어 습득에 대한 몇 가지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증하기 위한 기준(measures)을 제시하였다. 이(중) 문화간 교육의 측면들, 특히 학생들의 언어 요구를 알고 그에 따라 교수(teaching) 방법을 조정하는 것은 예비교사를 위한 교육의 필수 과목들 중 한 부분이다. 또한, 이 분야에서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교생들(student teachers)은 교사연수에서 전문 과목(specialisation)의 주요 과목의 하나로 제2언어로서의 덴마크어(Danish as a Second Language, DSL)를 선택할 수 있다.

현직교사 연수(in-service training)는 일반적으로 교사들에게 선택적이지만, 학교나 지방의 기관은 특정한 전문적 개발 활동들을 마치기 위하여 교사들에게 의무

화할 수 있다. 기간에 따라 연수 과정이 달리 제공된다. 단기과정(shorter courses) (일반적으로 약 36~50시간)은 전형적으로 주류 과목 교사들에게 제공되고, 그 교사들에게 과목 내용의 교수활동(subject content teaching)을 통하여 언어 발달을 촉진시키기 위한 도구들을 제공한다. 장기과정(longer courses)(240시간)은 수준을 주고 형성평가(formative assessment), 이(중) 문화 간의 교육 및 제2언어 습득과 관련된 교육을 포함한다. 덴마크의 평가 보고서는 예비교사 또는 현직교사 연수가 학교에서 일상적인 교육 실습(everyday teaching practice)에서 차이점을 만든다고 하였다(Source: Nusche et al., 2009).

－ 영국 전체학교(whole-school) 전문성 개발

영국에서 아동, 학교 및 가족부(Department for Children, Schools and Families, DCSF)에 의해 도입된 전체학교 전문성 개발 프로그램(whole-school professional development programme)인 “이중언어 학습자의 성취 높이기(Raising the Achievement of Bilingual Learners)”는 이중언어 학생들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초등학교 교사들의 자신감과 전문 지식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프로그램은 학교 리더십 팀 구축 및 통합적인 학교 문화 창조 지원, 학교 내에서 추가언어로서의 영어(English as an Additional Language, EAL) 상담가 임명, 전문가의 진단 방문, 이주자 성취 계획에 대한 개발, 교사들을 위한 전문성 개발, 그리고 교실에서의 추가적인 지원의 내용들을 포함한다.

질적 연구는 몇 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제공하고 있다. 교사와 대학생 어학 교사(teaching assistant)의 자신감이 증가되었고, 실험 활동(pilot activity)에 대한 효과로 이중언어 학생들이 그들 스스로에 대한 더 높은 기대와 자신감을 가지고, 더 많은 질문을 하고,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장려함을 보여주었다. 다층모형을 사용한 통계적인 평가에서는 시범 기간(2004-06)에 유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는 학교 보다, 프로그램을 운영한 학교에서 영어에서의 Key State 2 결과가 더 향상되었음을 나타냈다. 2006년 실험은 전국적인 전략 프로그램이 되었고, 학교간 최고의 실행을 공유하기 위해, 전문 개발 자료들이 제공되었다(Source: White et al., 2006; Benton and White, 2007).

– 스웨덴과 덴마크에서의 학교 간 아이디어와 우수 사례(practice) 공유하기

스웨덴에서 수행된 프로젝트인 “다문화주의를 위한 아이디어 학교들(Idea Schools for Multiculturalism)”을 통하여 교육부는 “아이디어 학교들(idea schools)”로서 “학교 개선을 위한 국가 에이전시(National Agency for School Improvement)”와 협력하기 위해 이들 학교에 인센티브를 제공하였다. 에이전시로는 다른 민족적, 사회적, 언어적, 문화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의 비율이 높고, 모든 학생들을 위한 평등한 기회 만들기를 지향하는 직무 경험을 가진 학교들을 선택하였다. 선택된 학교들은 다른 학교들의 역할 모델이 되었고, 학교 네트워크에 참여했으며, 다른 학교들로부터 방문을 받았고, 웹사이트에 그들의 업무를 제공하였다. 이니셔티브(initiative)는 전문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식을 보급하고, 업무의 질에서 덜 발전된 다른 학교들을 격려하기 위해 계획된 것이다. 프로젝트 평가 보고서에서 프로젝트는 다른 학교들에 업무를 설명하고 다른 아이디어 학교들(idea schools)과의 접촉을 통하여 아이디어 학교들 스스로 가장 도움을 받았다는 것이 주목된다. 또한, 참여하는 학교들에게 제공된 현직교사 연수는 학교에서 사용된 방법들에 도움을 주었다.

덴마크에서 수행된 프로젝트인 “우리학교에서 효과적인 것(This Works at Our School)”은 이주 학생들의 교육성과를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 교사들이 고려하는 것에 대한 예들을 확인하고, 기록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교육부에서 재정지원을 받았다. 프로젝트에서는 잘 수행하고 있는 이주 학생들이 있는 학교들을 조사하였고, 우수한 실행(practice)의 요소들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는 이와 관련된 학교와 학교 담당자들의 연락처와 함께 웹사이트(www.dettevirker.dk)를 통하여 제공되었다. 프로젝트는 교사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 덴마크의 이해당사자들은 프로젝트가 이 분야에서 학문적 연구를 보완하기 위해 경험 및 전문 지식의 교환을 증가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보고하였다(Source: Takuma et al., 2009a; Nusche et al., 2009).

■ 정책 4 : 이주 학생 지원을 위한 학부모, 지역사회, 학교의 참여

– 벨기에, 네덜란드, 아일랜드의 자녀교육에의 학부모 참여 증가를 위한 정책들

학교협의회(school council)에의 의무적인 참여: “벨기에의 플라망어 공동체(Flemish Community of Belgium)”에서의 정치적인 우선사항은 학부모들의 학교 참여이다. 학교 협의회에서 학부모의 대표(parental representation)가 의무적으로

참여하게 됨으로써, 이제 학교에서 학부모 참여는 잘 자리잡았다. 학부모대표는 학부모들에 의해 투표로 선출된다. 학부모 대표는 보통 원주민 학부모가 된다. 그러므로 교육부는 2010년 9월부터 학부모들이 자녀들의 학교와 관계를 맺는 것을 의무화하기 위해 국가 학부모 조직(national parents' organizations)과의 약속을 조인하였다. 이주 학부모들이 학부모 조직에 참여하도록 하여 더 많은 표현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함이다. 학부모가 참여를 하는 데 있어서 학교 리더들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다.

소수민족 학부모와 교육을 위한 플랫폼(the Platform for Ethnic Minority Parents and Education): 네덜란드에서의 “소수민족 학부모와 교육을 위한 플랫폼(Platform Allochtone Ouders en Onderwijs, PAOO)”은 2006년 전체 학부모 협회(general parents' association)에 부가하여 세워졌고, 이주 학부모들 간 학부모 참여를 촉진시키는 데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정부는 플랫폼 자금을 지원하였다. 30개의 규모가 큰 지방의 기관들에도 지역 플랫폼들이 있는데 이주 학부모들이 네덜란드의 학교 시스템과 자녀 교육에 있어서 학부모 참여의 중요성을 이해하도록 도와주고, 교사들이 이주 가족들의 사회적, 문화적 맥락을 더 잘 이해하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가정 방문에 참여하고, 숙제 감독을 제공하고, 교육에서 차별을 완화하기 위해 통합된 학교 이니셔티브를 지원하는 것을 포함하여, 국가적 플랫폼(national platform)에 의해 지원받는 활동들을 수행한다.

홈스쿨 공동체 연락 제도(Home School Community Liaison Scheme, HSCL): 아일랜드에서는 홈스쿨 공동체 연락제도를 통하여, 대상이 된 학교는 학교 시스템에서 학부모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중재자, 연락자(contact person)가 될 홈스쿨 코디네이터(home-school coordinator)를 배치한다. 학부모는 교사들의 직무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되고, 학교와 긍정적인 관계를 구축한다는 방안(idea)은 학부모와 교사 간 협력을 하기 위하여 상황을 앞서서 주도하는 이니셔티브(initiative)가 되었다. HSCL 제도는 단지 이주 학부모 그 자체 보다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족들과 지역의 학교들을 목표로 한다. 부모되기 능력 교육(training in parenting skills), 학부모 활동들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되는 학부모실(parent room), HSCL 코디네이터의 정기적인 가정 방문과 같이 자녀들의 교육에 좀 더 참여할 수 있도록 학부모들에게 다양한 지원을 제공한다(Source: Shewbridge et al., 2009; Takuma et al., 2009b).

– 독일과 미국 메사추세츠의 보상교육 지원 이니셔티브

독일에서 전일제 학교(whole-day schools)를 위한 지원이 증가하고 있다. 2003년과 2008년 사이에 문을 열거나, 이에 동의한 전일제 학교(Ganztagsschulen)가 6,918개였다. 어떻게 전일제 학교를 세우는지에 대하여 학교를 위한 웹사이트가 있으며, 현존하는 학교와 학교들의 평가에 관한 정보가 있다. 교육부는 최근 이주 학생들의 통합과 진전에 관해 반일제 학교(half-day schools)들과 비교하여 전일제 학교들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연구 팀을 지원하고 있다. 평가 결과는 2011년에 알 수 있다.

미국에서 보스턴을 기반으로 한 “action tanker”인 메사추세츠 교육부와 메사추세츠 2020(Mass 2020)은 2006년 5개의 학교구에 있는 10개의 학교에서 수업일을 늘이기 위한 실험을 시작하였다. “확대된 학습 시간(Expanded Learning Time, ELT)” 이니셔티브는 2006년 이래로 두드러지게 성장하였고, 현재 12개의 학교구에서 13,500명의 학생들이 26개의 공립학교에서 ELT 이니셔티브에 참여하고 있다. 메사추세츠 주정부는 ELT에 참여하는 학교에 여분의 재정을 지원한다. 이니셔티브는 더 많은 프로젝트 기반 및 실험적인 학습, 방과후학교 활동, 학생들을 위한 지역사회 기반의 파트너십을 포함한다. 또한, 정기적인 전문 개발과 교사들을 위한 공동의 계획 시간(common planning time)을 제공한다. 메사추세츠 실험의 예비 결과는 더 긴 수업일이 영어, 수학, 과학에서 학생들의 성취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옴을 보여준다. 더욱이, ELT는 부분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수민족 학생들에게 풍부한 활동들을 제공함으로써 백인과 소수민족 학생들 간의 성취 차이를 완화시키는 것처럼 보인다.

– 영국, 네덜란드에서의 역할 모델 및 멘토로서의 성인 이민자 참여시키기

영국의 리즈(Leeds) 지역에서 “흑인 및 소수 민족 멘토링 프로그램(Black and Ethnic Minority Mentoring Programme)”은 더 높은 교육으로 이동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동기나 학업 지원에 대한 부족으로 조기에 교육을 포기하는 위험을 가지고 있는 소수민족 학생들(아프리카계 카리브인, 흑인, 파키스탄인, 방글라데시인)을 대상으로 개발되었다. 성취를 높이는 데 있어서 멘토의 부가된 가치를 밝히기 위한 집단 연구에서 83%의 소수민족 학생들이 16세에 국가시험

(national tests)에서 “부가된 가치(value added)” 목표를 만족시키거나 증가하였다.

네덜란드에서 “이주자 공동체의 자율권을 위한 협회(association for the empowerment of immigrant communities, FORUM)”는 대사(ambassadors)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매년 젊은 이주 학생들을 위한 역할 모델로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사들의 목록이 있는 브로셔가 발간된다. 각 대사들에 대한 짧은 전기는 그들의 배경 및 교육에 대하여 자세하게 보여준다. 또한, 자기능력 이하의 성적을 내는 특정한 이주 학생 집단들을 위한 프로그램들도 있다. 예를 들어, 헤이그(The Hague)에서 시협의회(city council)와 학교에서 재정지원을 받는 “모로코인 코칭 프로그램(Moroccan Coaching Project)”은 특히 위험한 상황에 있는 모로코계의 청소년들을 목표로 한다. 멘토링 프로젝트의 경험은 소수민족의 “위기 학생(risk students)”(예: 예비 직업중등교육의 가장 낮은 진로에 있는 학생들)들의 사회적 기술과 행동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Source: Brind et al., 2008; Herweijer, 2009).

다. 시사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문화사회를 일찍 경험한 미국과 유럽에서는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발전된 이민자 자녀를 위한 언어교육을 실천하고 있었다.

미국의 경우 1968년 이중언어교육법 제정 이후, 이민아동의 교육지원을 위해 1984년도에 「긴급이민아동교육법(Emergency Immigrant Education Act of 1984: EIEA)」을 제정하였고, 이민자 가족 교육지원을 위해 EIEA에 의한 보조금(EIEP grants)지원 및 EIEP 프로그램을 오랫동안 시행하였다. 그리고 「학생낙오방지법(No Child Left Behind Act of 2001)」에 의거하여 이민아동들을 위해 보충적 교육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이외에 ‘소수자 정체성 보호’, ‘미국사회 적응지원’ 등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우수교사 및 학교장 채용, 이를 위한 재정지원을 하고 있었다. 즉, 미국은 이민자가정 자녀들의 적응을 돕기 위해 법적, 행·재정적, 교육과 정적 차원 등 다각도의 교육지원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유럽의 일부 국가들은 이주 학생의 교육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OECD에서 개발한 4개 영역의 정책 즉, 조기 아동 교육 및 보육에의 참여와 질 향상, 모든

학생들에게 적절한 언어 지원 제공, 교수 학습 환경 향상, 이주 학생 지원을 위한 학부모, 지역사회, 학교의 참여 등을 실천하고 있었다.

첫 번째 정책인 「조기 아동 교육 및 보육(ECEC)에의 참여와 질 향상」을 추진하기 위해 덴마크에서는 3-6세 입학 전까지 모든 이중언어 어린이들이 언어 스크리닝을 받고, 언어 자극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었다. 유치원과 학교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덴마크 교육부는 학교와 보육 제공자들 간 협력을 체계화하도록 노력하고 있었으며, 노르웨이에서는 초등학교와 유치원 간 연계 강화 프로그램, 프로젝트 등을 실시하고 있었다.

두 번째 정책인 「모든 학생들에게 적절한 언어 지원 제공」을 추진하기 위해 덴마크에서는 언어 지원에 대한 규정을 결정하기 위한 일관성 있는 평가기준을 개발하고, 아일랜드에서는 교과교사들(subject teachers)과 언어 전문가들(language specialists) 간 협력을, 노르웨이에서는 외국의 교사 자격에 대한 인정(recognition) 등을 실천하였다.

세 번째 정책인 「교수학습 환경 향상」과 관련해서는 덴마크에서의 다양성을 위한 전문가(specialists)와 주류 교사(mainstream teachers) 연수(교육), 영국에서의 전체 학교(whole-school) 전문성 개발 프로그램(whole-school professional development programme)인 “이중언어 학습자의 성취 높이기(Raising the Achievement of Bilingual Learners)”를 지원하기 위한 초등학교 교사들의 자신감과 전문 지식 제고, 스웨덴 및 덴마크에서의 학교 간 아이디어와 우수 사례(practice) 공유하기 등이 실천되고 있었다.

이상의 내용 검토를 통해 몇 가지 사항을 시사 받을 수 있었다.

먼저, 다문화가정 자녀들에게 한국어교육만을 강조하는 단일언어 교육정책 및 관점에서는 한국어 능력 미흡에 따른 이들의 언어 문제는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요소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다문화사회를 일찍 경험한 나라들에서 볼 수 있듯이 다양한 언어, 문화 환경은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매우 유용한 자산일 뿐만 아니라 장차 그들 부모의 모국과 우리 사회를 연결해 줄 수 있는 교량 역할을 해 줄 수도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제 우리도 다문화가정의 배경을 적극적으로 유지·보존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문화적 배경이나 언어적 배경을 충분히 고려하여 한국어와 부모출신국 언어, 즉 이중언어 능력을 육성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 받을 수 있었다.

둘째, 이민자 부모 출신국 언어교육(혹은 이중언어교육, 모어교육, 계승어 교육 등)이 다문화가정 아동들에게 학교 환경 속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힘을 부여하는 매우 가치로운 것이라는 사고 및 이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함도 시사 받을 수 있었다.

셋째,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언어적응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도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우선 「조기 아동 교육 및 보육(ECEC)에의 참여와 질 향상」과 관련하여 유치원과 학교 간 연계 강화 노력을 할 필요가 있겠다. 다음으로 「모든 학생들에게 적절한 언어 지원 제공」과 관련하여 제2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KSL)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기반마련이 필요하며, 이민자 부모 출신국 언어를 교육할 경우, 교사의 이중언어 능력, 간 문화적 태도는 무엇보다도 중요하여 이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이 요청된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지원을 위한 법적, 행·재정적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아울러 「교수학습 환경 향상」과 관련해서 교육과정 마련과 학습자료 및 방법 등의 개발 등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시사 받을 수 있었다. 따라서 향후 이에 관한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언어교육의 효과 및 지원방식

가. 이중언어교육의 효과

선행연구에서는 이중언어 교육이 학생의 인지 및 정서발달, 학업능력 및 교육적응에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인지발달과 관련하여, Pearl & Lambert(1962)는 이중언어가 아동의 인지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결과를 처음으로 보고하였고, 이를 계기로 다양한 연구들이 이중언어 사용이 상위 언어능력 및 인지발달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 주었다. Vygotsky(1962)는 이중언어 사용 어린이들이 어떤 사물에 대한 이름을 짓고 교환하는데 빠르며, 단일언어 어린이보다 결과를 예상하는데 더 빠르다고 하였으며, Tunmer & Myhill(1984)은 유창한 이중언어 사용자는 독서 능력에서 단일언어인보다 우세하다고 하였다. 또한 Meisel(1989)는 이중언어 아동이 언어의 형식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오히려 단일어 집단보다

언어 구조를 빨리 습득하고 실수를 적게 한다고 주장하였다.

다양한 사고력(Divergent thinking)에서도 이중언어 사용자가 단일언어인보다 우세함을 보여주었다. Kessler & Quinn(1987)은 11살짜리 단일언어 어린이와 이중언어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문제 해결 상황에서 과학적 가설을 수립하는 것을 배우는 시간에 두 집단의 어린이들 간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이중언어 어린이가 우세하였으며, 이는 이중언어 능력으로 인한 언어학적, 인지적 창의성의 발달 등 다양한 사고력 때문이라고 연구자는 해석하였다.

Hakuta and Diaz(1985), Gorrell(1987)들의 연구에서는 언어 외적 지능에서도 역시 이중언어인들이 우세함을 보여주었다. 연구결과, 지각분석(perceptual analysis)을 요구하는 여러 가지의 비언어적 과제들에 대해 이중언어인이 우세하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폭넓은 언어적 신축성이 비언어적 과제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소수이지만 국내에서도 아동의 외국어 학습 경험이 상위 언어 능력에 미치는 영향(공숙자, 1995) 등 일부 연구들이 이루어졌고 유사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중언어 능력은 인지발달 뿐 아니라 정서발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보여주었다. Dopke(1986)는 이중언어인들의 정서적 발달 현상을 보면 대부분 긍정적이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모들과의 관계라고 하였다. 즉, 어린이가 거주지 언어 또는 제 2언어에 능숙하면서도 부모의 언어를 배우고 보존하고 있어서 부모와 거리감 없는 대화가 이루어지는 한 정서적인 문제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만일 부모가 제 2언어에 능통하지 못하고, 자녀는 부모의 언어에 능통하지 못해서 진정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정서적인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한다.

한편, Oksaar(1983), Skutnabb-Kangas(1984)에 의하면 이중언어들이 갖기 쉬운 심리적인 문제로 아노미(anomie)현상을 들었다. 아노미 현상이란 소외감, 불안, 부적응과 같은 심리적 병리현상을 말하는데 양쪽 언어에 모두 능통하지 못한 사람에게 심리적 갈등이나 위축감 같은 아노미 현상이 올 수 있지만, 언어적으로 양쪽 언어에 모두 능통하고 균형 있는 언어능력을 가진 사람도 이러한 심리적 갈등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도 매우 불행한 일임으로 이중·다중언어교육을 하는 국가, 사회, 학교, 부모들은 혹시라도 어린이에게 아노미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이중·다중언어인으로서의 자신감과 긍지, 그리고 사명감을 가질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필

요하다. 특히 부모들과 동일한 언어로 깊이 있는 대화를 할 수 있게 되면 이러한 정신적인 질환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아무리 이중언어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환경에서 살고 있는 경우라도 자기 자녀의 언어발달이 정상보다 느릴 때는 기다려야 한다.

언어학적으로나 심리학적인 연구에 의하면 이중언어인들이 언어학적으로나 심리학적으로 결코 부정적인 면을 보이지 않는다는 결과들이 많이 발표되기는 했지만, 많은 수의 이중언어 어린이들이 학교에서는 그리 성공적인 면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보고들이 있다. 이 현상에 대하여 Lambert(1977)는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이중언어인들의 학업능력 수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즉 (1) 두 개의 언어에 모두 완전하지 않은 경우 - 양쪽 언어에서 모두 모국어만큼 못할 경우(semilingualism or subtractive bilingualism - less than native-like competence in both languages)와 (2) 사회·경제적 요인들(social and economic factors)이 그것이다.

위의 두 가지 요인 중에서 첫 번째 것은 Cummins(1976), Cummins & Swain(1983), Martin-Jones and Romaine(1985)에 의하면, 언어능력을 ‘기본적인 대화능력(BICS, basic interpersonal communication skills)’과 ‘인지적/학문적 언어능력(CALP, cognitive/academic language proficiency)’으로 구별해야 하고, 양쪽 언어에서 모두 모국어만큼 못할 경우(semilingualism)는 주로 ‘인지적/학문적 언어능력(CALP)’에 결함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이런 결함은 학교 교육상의 언어와 학생들이 알고 사용하고 있는 언어와의 차이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하였다. 두 번째의 사회·경제적인 요인은 단일언어 어린이들도 사회·경제적으로 낙후된 어린이들과 같이 학교에서 학업성취도가 낮음을 지적하면서 이중언어인만에 해당되는 현상은 아니라고 하였다.

나. 언어교육지원 방식³⁾

다음의 내용은 이주 학생들의 언어숙달을 돕기 위한, 각국의 국가정책 및 실행에 대한 OECD의 조사 결과를 기초로 간략히 정리한 것이다.

1) 언어교육에서 이주 학생들의 교육을 위한 일반적인 접근들

이주 학생들의 언어 숙달을 돕기 위한 국가 정책 및 실행(practices)에 관한 PISA 2003 보충 조사(supplementary survey)는 유입국(receiving country)의 공용어 구사력(official language proficiency)이 이민자들의 통합을 위한 중요한 전제조건이라고 추정하고, 부모나 조부모가 각 나라에서 이주하였고 언어 구사력이 떨어지는 학생들의 요구를 다루는 정책과 실행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다른 수준의 교육 시스템에서 받고 있는 언어 지원 조치의 유형들을 나타내는 몇 가지 질문들을 국가의 전문가들에게 요청하였고, 이 질문들은 문헌(Hakuta, 1999⁴⁾; Reich, Roth et al., 2002)에서 제시한 일반적인 접근들에 초점을 둔 것이며, 이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몰입교육(submersion/immersion)

언어 구사력이 떨어지는 학생들은 정규 학급에서 배운다. L2⁵⁾의 언어 기술들(language skills)은 학생들이 주류 교육(mainstream instruction)에 참여함으로써 발전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이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체계적인 언어 지원도 제공되지 않는다.

■ L2에서 체계적 언어 지원을 하는 몰입교육(Immersion with systematic language support in L2)

언어 구사력이 떨어지는 학생들은 정규 학급에서 배운다. 이 학생들은 학업의 내용 영역 보다는 문법, 단어, 의사소통에 주된 초점을 맞추어 L2 수준의 언어 기술 개발을 목표로 하여 구체적으로 명시된 교육 시간을 받는다. 학업 내용은 주류 교육을 통하여 다루게 된다.

3) OECD (2006). Where immigrant students succeed: a comparative review of performance and engagement in PISA 2003. pp. 118~155.

4) Hakuta, K. (1999), "The debate on bilingual education", *Developmental and Behavioral Pediatrics*, Vol. 20, pp.36-37.

■ **L2 단일어 준비단계가 있는 몰입교육(Immersion with an L2 monolingual preparatory phase)**

정규 학급으로 이동하기 전에 언어 구사력이 떨어지는 학생들은 L2의 언어 기술들을 개발시키기 위하여 계획된 준비 프로그램(preparatory programme)에 참여한다. 목표는 가능한 한 빨리 주류 교육으로 이동하게 만드는 것이다.

■ **과도기적 이중언어 교육(Transitional bilingual education)**

프로그램의 대부분 학생들은 L2 구사력이 떨어진다. 이 학생들은 처음에 모국어를 통하여 몇 가지 교육을 받지만 L2의 교육으로 점진적으로 이동한다. 프로그램의 목표는 가능한 한 빨리 주류 학급으로 이동하게 만드는 것이다.

■ **이중언어 교육 유지(Maintenance bilingual education)**

프로그램의 대부분 학생들은 같은 언어 배경을 가지고 있으며 L2 구사력이 떨어진다. 그들은 모국어로 상당한 교육을 받는다. 이 프로그램들은 L2와 모국어(L1⁶⁾ 두 가지 모두의 능력을 개발시키기 위한 것을 목표로 한다.

2) 이민자 가족의 언어숙달을 위한 각국의 접근방식

OECD(2006)는 이주가정 자녀의 언어 구사력 미흡에 대해, 각국이 학생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정책과 실행(practices)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조사내용은 다음의 6가지, 즉 ① 이주성인들의 국가 공용어 숙달을 돕기 위한 체계적인 정책·실행, ② 유아교육(ISCED 0)⁷⁾에서의 정책과 실행, ③ 초등교육(ISCED 1)에서의 정책과 실행, ④ 중등교육(ISCED 2)에서의 정책과 실행, ⑤ 추가 학교 자원, ⑥ 이주 학생들의 모국어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보충 수업 등이었다. 조사대상 국가는 3가지 방법별로 구분된다.

5) “L2”는 제2언어나 언어교육을 받는 학생들을 의미한다.

6) “L1”은 학생들의 모국어(제1언어)를 의미한다.

7) 국제표준교육분류(the International Standard Classification of Education, ISCED) :
Level 0 - Pre-primary education / Level 1 - Primary education or first stage of basic education / Level 2 - Lower secondary or second stage of basic education / Level 3 - (Upper) secondary education / Level 4 - Post-secondary non-tertiary education / Level 5 - First stage of tertiary education / Level 6 - Secondary stage of tertiary education

- ① 설문지 작성의 경우,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프랑스 공동체), 캐나다, 덴마크, 독일,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홍콩-중국과 마카오-중국 등 13개 국가를 대상으로 하였다.
- ② 조사(survey)는 영국, 핀란드와 스페인 등 3개국을 대상으로 하였다.
- ③ 그 외, 연방 구조를 가진 호주(뉴사우스웨일즈주, 퀸즈랜드주, 빅토리아주), 오스트리아(비엔나주와 포어알베르크주), 캐나다(브리티시컬럼비아주와 온타리오주), 스위스(베른주, 제네바주, 취리히주)의 4개 국가들에서는 두 개 또는 세 개의 주(sub-national entities)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였다.

OECD에서 수행한 조사연구의 내용을 전반적인 사항과 이주 학생들의 모국어 능력 제고에 관한 사항, 두 가지로 구분하여 요약·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조사결과의 전반적인 사항

- ① 설문지를 작성한 거의 모든 국가들은 최근에 이주한 성인들에게 언어수업을 제공하고 있었다. 유럽의 소수 국가들에서 언어 수업의 참여는 의무사항이었는데, 예컨대 오스트리아, 덴마크, 핀란드, 독일, 네덜란드와 노르웨이는 필수 프로그램(mandatory programmes)을 운영하였다. 대다수의 국가들에서는 자발적 참여의 언어 수업을 제공하였다.
- ② 대부분의 국가들은 유아교육(ISCED 0)이나 초등교육(ISCED 1) 동안 이주 학생들의 언어 능력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다. 이 부분은 일반적으로 모든 어린이들을 포함하는 일반적인 평가에 포함되었다. 일부 국가에서 일반적인 평가는 이주 학생들을 위하여 특별한 참여 요구조건이나 평가 요소들을 포함하기도 한다. 덴마크, 독일, 노르웨이, 스위스의 베른주와 마카오-중국도 일반적인 테스트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이주 학생들을 위한 언어 평가를 가지고 있었다.
- ③ 극소수의 국가들은 유아교육(ISCED 0)에서 명시적 교육과정에 근거한 체계적 언어 지원을 제공하고 있었다. 캐나다의 브리티시컬럼비아주와 네덜란드가 그 예이다.
- ④ 언어 구사력이 떨어지는 이주 학생들을 지원하는 데 가장 널리 퍼진 접근은 초등교육(ISCED1)과 중학교교육(lower secondary)(ISCED 2) 모두에서 체

계적인 언어 지원을 하는 몰입교육이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에서 학생들은 표준수업(standard class)에 참석하고, 언어교육 능력 발달을 목표로 하는 특정한 교육을 받았다. 이 프로그램들의 내용, 조직, 범위는 국가들마다 상당히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 ⑤ 일부 국가들은 처음 이주한 학생들을 위해, 준비단계가 있는 몰입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접근은 초등교육(ISCED 1)에서 보다는 중학교교육(lower secondary education)(ISCED 2)에서 더 많이 사용되었다. 준비단계가 있는 몰입교육에서 언어 구사력이 떨어지는 학생들은 주류 학급에 이동하기 전에 언어 기술들을 발전시키기 위해, 계획된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호주(빅토리아주), 핀란드, 스웨덴에서 초등교육 동안, 호주, 캐나다(브리티시컬럼비아주), 핀란드,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스웨덴과 스위스(취리히주)에서는 중학교 교육(lower secondary education) 동안에 상당한 이주 학생들의 비율이 준비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 ⑥ 조사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국가들은 높은 이주자 비율을 가진 학교에게 특별한 자원을 제공하고 있었다. 추가 재정지원, 일반적으로 제2언어습득을 위해 특별한 교육에 참여할 추가 교사 제공 등이 가장 흔히 이루어지는 자원 제공의 내용이었다.

나) 이주 학생들의 모국어 능력 제고 사항

다음에서는 앞서 제시된 OECD의 조사 내용 중 본 연구와 매우 관련이 깊은 ‘이주 학생들의 모국어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보충 수업’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① 학생들의 모국어와 언어교육 모두를 포함하는 이중언어 지원 프로그램은 비교적 흔하지 않았다.

스웨덴, 스위스 등의 소수 국가들에서 일관성 있게 학교에서 언어 수업을 제공하고 있었다. 그러나 11개의 다른 국가들이나 주(sub-national entities)에서는 유산, 언어 수업이 가능할 수는 있으나, 수업 제공 여부는 지방기관이나 개별 학교에 달려있었다. 대부분의 경우,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이러한 수업에 출석하는지 명확하지 않았다. 실제 22개 국가들 혹은 주(sub-national

entities) 가운데 6개만이 참여 비율에 대한 자료들을 제공하였다. 또한 마지막으로 조사에 참여한 9개의 학교시스템에서도 이주 학생들에게 어떠한 모국어 수업도 제공하지 않았다.

- ② 일부 국가들이나 국가 하위기관들(sub-national entities)에는 제2언어 지원을 위한 명시적 교육과정이나 교육과정 틀 문서(curriculum framework documents)가 있었다.

호주(뉴사우스웨일즈주와 빅토리아주), 덴마크, 네덜란드(초등교육에서만)에서는 체계적 언어 지원을 하는 부분몰입과 준비단계가 있는 부분몰입 모두를, 캐나다(온타리오주), 독일의 일부 주들, 노르웨이, 스웨덴과 마카오-중국에서는 체계적 언어 지원을 하는 부분몰입을, 캐나다(브리티시컬럼비아주)와 룩셈부르크에서는 준비단계가 있는 부분몰입을 시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교육과정은 내용, 특수성 수준, 범위의 측면에서 상당히 다양하였다.

- ③ 극소수의 국가들은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학생들의 모국어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보충 수업을 제공하였다.

스웨덴의 학생들은 모국어 수업에 대한 법적 권리를 가지고, 같은 모국어를 사용하는 학생 최소 5명이 같은 지역에 산다면, 학교들은 일반적으로 이들을 위한 수업들을 제공하였다. 사실상, 스웨덴의 이주 어린이들은 모국어 수업에 대한 법적 권리를 가진다. 따라서 초등학교와 중학교(lower secondary schools)의 50~59%의 학생들은 제1언어 수업을 받고 있었다.

또한 스위스 제네바주의 초등학교와 중등학교(secondary school)들은 일반적으로 가장 흔한 소수 언어를 위하여 모국어 수업을 제공하였다. 이주 학생들의 대략의 참여 비율은 20~30%이었다.

- ④ 11개의 다른 국가들이나 국가 하위기관들(sub-national entities)에서는 모국어 수업에 대한 조항은 지역기관이나 개별 학교들에 달려있었다.

남은 9개의 학교 시스템들은 일반적으로 어린이들을 위한 모국어 언어교육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를 가족들이나 공동체 그룹에 맡겼다. 이러한 방식은 오스트리아(퀸즐랜드주), 캐나다(브리티시컬럼비아주), 독일,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스페인, 스위스(베른주)와 홍콩-중국에서 시행되고 있었다.

다. 시사점

지금까지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이중언어교육의 효과 및 교육지원방식에 대해 살펴본 결과, 대체로 이중언어 능력과 인지발달은 상보적으로 작용하며, 정서적인 면에서는 이중언어 능력이 잘못된 환경 속에서 아노미 현상과 같은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정서적 발달에 있어서 아노미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부모와 교사가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시사하였다.

여기서 참고할 이론은 Cummins(1986)의 소위 ‘문지방 이론’(Threshold Theory)으로 문지방은 일종의 선천적인 언어능력의 수준을 말하는 것인데, 자신의 자녀와 학생의 언어능력 수준(문지방)의 높이를 잘 헤아려서 교육해야 한다는 것이다. Cummins에 의하면 선천적으로 언어재능이 낮은 어린이에게 너무 일찍 이중언어 교육을 시켰을 때, semilingual(두 언어에 모두 통달하지 못한 사람)이 되기 쉽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선천적인 언어능력의 수준이 어떠한가에 따라 이중언어 교육의 시기와 목표를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다.

또한 OECD에서 수행한 각국의 언어교육 지원방식에 대한 조사 결과로부터 이주 학생들의 언어교육을 위한 접근과 관련해 국가 간 공통점을 찾아볼 수 있었다. 즉, 조사대상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주자들의 언어숙달을 돕기 위해, ‘체계적 언어 지원’을 하는 부분몰입을 강조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었다. 일부 국가들에서는 처음 이주한 학생들에게 준비단계가 있는 몰입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이중언어 프로그램이 대부분의 학교 시스템에서 큰 역할을 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러한 유사점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대응은 국가나 주에 따라 다양한 차이를 보여, 향후 우리나라의 관련 정책 및 실제 교육지원 방식에 중요한 아이디어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다음의 <표 II-2>은 OECD조사대상 국가의 이주가정 자녀를 위한 교육지원방식을 초등교육(ISCED 1)과 중등교육(ISCED 2)을 중심으로 간략히 정리하여 제시한 것이다.

<표 II-2> OECD 조사대상 국가의 이주가정 자녀를 위한 언어교육지원 방식

구분	국가 및 주명	대상	초점을 맞추는 언어지원 유형	명시적 교육과정 유무	비고
설문 작성 국가	벨기에 불어권 공동체		몰입교육 준비단계가 있는 몰입교육		· 준비수업 (preparatory class)
	덴마크		체계적 언어지원을 하는 몰입 교육 준비단계가 있는 몰입교육	있음	· reception classes and standard class · Folkskole act
	독일	초등교육 (ISCED 1)	체계적 언어지원을 하는 몰입 교육	명시적 교육과정은 과도학급을 위해 있음.	· preparatory classes · CASNA
		중등교육 (ISCED 2)	몰입교육 체계적 언어지원을 하는 몰입교육 준비단계가 있는 몰입교육		
	네덜란드	초등교육 (ISCED 1)	체계적 언어지원을 하는 몰입교육	있음	
		중등교육 (ISCED 2)	준비단계가 있는 몰입교육	없음 (개별 학생들의 요구에 맞춤).	
	노르웨이		과도기적 이중언어 요소뿐 만 아니라 준비단계를 포 함할 수도 있는 체계적 언 어지원을 하는 몰입교육	있음	
	홍콩-중국		체계적 언어지원을 하는 몰입교육 준비단계가 있는 몰입교육	없음 (학교들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있음).	· School-Board Support Scheme Grant
	마카오-중국		체계적 언어지원을 하는 몰입교육	있음	
조사 (survey) 국가	영국		체계적 언어지원을 하는 몰입교육	없음	
	핀란드		체계적 언어지원을 하는 몰입교육 준비단계가 있는 몰입교육 과도기적 이중언어 요소 를 포함할 수도 있음.		· preparatory instruction
	스웨덴		체계적 언어지원을 하는 몰입교육 준비단계가 있는 몰입교육	있음	

44 ─ 다문화가족 자녀의 결혼이민 부모 출신국 언어 습득을 위한 교육지원 사례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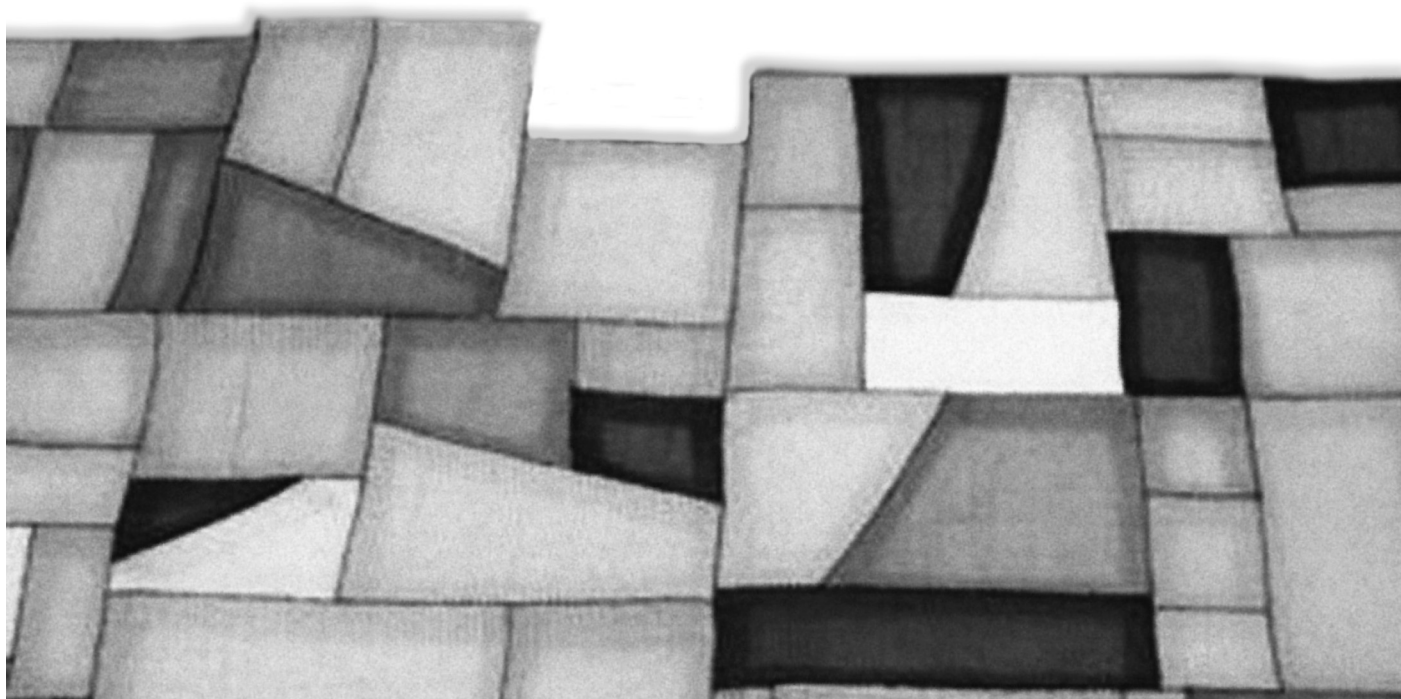
구분	국가 및 주명	대상	초점을 맞추는 언어지원 유형	명시적 교육과정 유무	비고
그 외	호주 뉴사우스 웨일즈주	중등교육 (ISCED 2)	체계적 언어지원을 하는 몰입교육 준비단계가 있는 몰입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중영어센터 (Intensive English Centre, IEC) · 집중영어고등학교 (Intensive English High School, IEHS)
	호주 퀸즐랜드주		체계적 언어지원을 하는 몰입교육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dvisory visiting Teacher · ESL Teacher Aids
	호주 빅토리아주		준비단계가 있는 몰입교육 체계적 언어지원을 하는 몰입교육	· developed key curriculum documents에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nglish language school and centres 에서 제공되는 집중적인 전일제 영어 프로그램 · targeted support
	오스트리아 비엔나주		체계적 언어지원을 하는 몰입교육		· 보충교사(adjunct teachers)
	오스트리아 포어알베르크 주		체계적 언어지원을 하는 몰입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xtraordinary student status · regular student status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초등교육 (ISCED 1)	체계적 언어지원을 하는 몰입교육	· 표준 교육과정에 참여하지만 명시적 교육 과정에 바탕을 두지 않는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음.	
		중등교육 (ISCED 2)	준비단계가 있는 몰입교육		· 준비프로그램 3단계 : 리셉션 단계, 과도 단계, 통합 단계
	캐나다 온타리오주		체계적 언어지원을 하는 몰입교육	· 중학교를 위한 명시적 교육과정	
	스위스 베른주		몰입교육 체계적 언어지원을 하는 몰입교육 준비단계가 있는 몰입교육	없음	

구분	국가 및 주명	대상	초점을 맞추는 언어지원 유형	명시적 교육과정 유무	비고
	스위스 제네바주		체계적 언어지원을 하는 몰입교육	없음	· 준비프로그램
		중등교육 (ISCED 2)	준비단계가 있는 몰입교육		
	스위스 취리히주		몰입교육 체계적 언어지원을 하는 몰입교육		
		중등교육 (ISCED 2)	준비단계가 있는 몰입교육		· 준비프로그램

출처 : OECD (2006). Where immigrant students succeed: a comparative review of performance and engagement in PISA 2003 재구성.

Ⅲ

한국 사례



여기에서는 현재 한국에서 국제결혼가정 자녀를 위한 언어교육지원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이중언어교육 관련 정책과 시도교육청의 이중언어교육 지원현황, 교육대학교 이중언어 교원지원 프로그램 운영 현황, 그리고 학교 및 지역사회 교육기관에서의 실천 사례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교육지원의 배경

가.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지원 정책

교육과학기술부의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지원 대책은 2006년 처음 수립되었으며, 최근 2009년에는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 지원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다. 즉 맞춤형 학습지원 및 상담, 다문화가정 학부모의 자녀교육지원 역량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 등을 강조하게 되었다. 특히 서울시 교육청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이러한 정책을 기초로 다문화가정 학부모의 강점을 살려 이들을 이중언어 강사로 양성하고, 학교 현장에 배치함으로써 이민자 부모의 출신국 언어와 문화를 그들 자녀 뿐 아니라 일반학생들에게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는 그동안 이들을 소외계층으로만 간주하고 지원의 대상으로만 접근하던 관점에서 벗어나, 이들이 가진 언어·문화적 배경을 강점으로 살리기 위해 지원을 실시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예비교사인 교육대학교 학생들의 다문화교육 이해 제고를 위한 전국 11개 교육대학교에 ‘다문화교육 강좌’개설 지원과 다문화 이해교육의 강화, 멘토링 지원 등은 정책추진의 강조점이 보다 직접적인 교육지원 쪽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표 III- 1> 2008-2009 다문화가정 교육지원정책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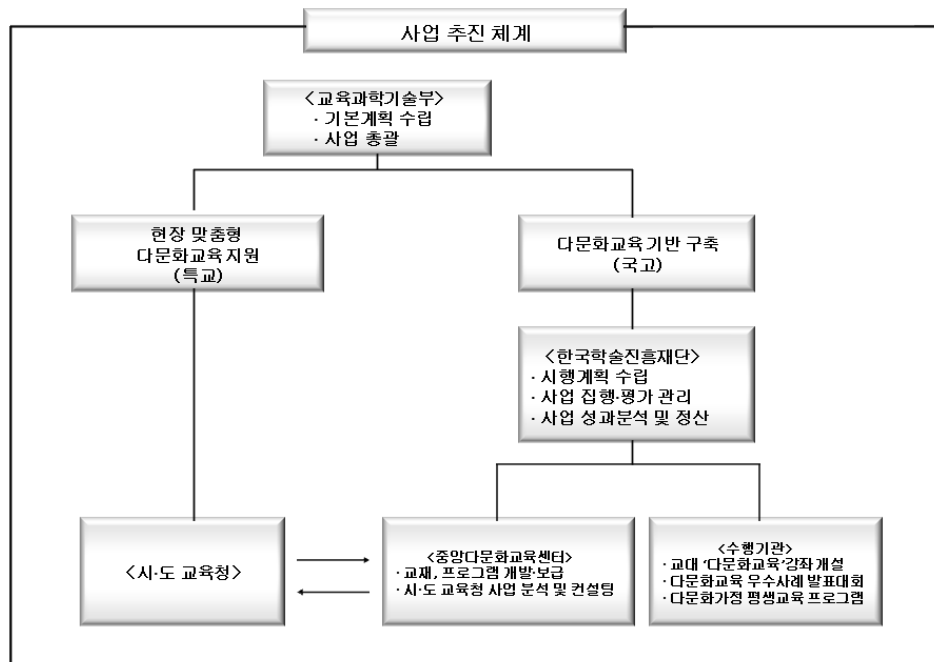
기관	교육지원 정책 내용	
	2008	2009
교육과 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기반 구축 * 중앙다문화교육센터 운영 및 다문화교육 관련 연구·개발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맞춤형 학습 및 상담지원 강화 * 다문화가정 유아를 위한 언어·인지·사회·정서발달 프로그램 개발 보급

기관	교육지원 정책 내용	
	2008	2009
기술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정 지원 관련 부처 및 교육청과의 협의 강화 ○ 일반학생의 다문화 이해교육 * 다문화 이해교육을 위한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 학교·지역별 다문화교육 사업 평가체제 구축 ○ 다문화교육 정책 중장기 방향 연구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치원에 다니지 않는 다문화가정 유아를 위한 평가·발달지원 프로그램 제공(희망교육사) * 교육대학교와 교육청, 학교가 협력하는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1:1 맞춤형 멘토링 지원 ○ 다문화 이해교육을 위한 연구학교 (15개교) 및 다문화교육 우수학교 (58개교) 지정 지원 ○ 다문화가정 학부모를 위한 학교생활 안내책자 배포 ○ 다문화가정 학생지도교사를 위한 교사용 매뉴얼 개발·보급 ○ 예비교사의 다문화교육 이해 제고를 위한 전국 11개 교육대학교에 '다문화교육 강좌' 개설 지원
교육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 교육청 별 '다문화교육 지원협의회' 구성·운영 ○ 다문화가정 학생의 자아정체성 확립지원 * 긍정적 자아정체성 함양을 위한 상담 지원 * 외국인 유학생 멘토링 운영 ○ 지역별 다문화교육 우수사례 발굴·확산 ○ 교사연수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정 학생 재학 학교의 교장·교감 및 장학사의 다문화 연수 ○ 교사 직무연수에 '다문화이해 연수과정'(30, 60시간) 개설 ○ 다문화가정 학생과 학부모의 강점을 살리기 위한 지원 확대 * 국제지도자 육성 프로그램 운영 * 이중언어가 가능한 고학력 다문화가정 학부모를 이중언어 교수요원으로 양성
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중심의 맞춤형 교육 * 다문화가정 학생의 한국어·학습 능력 향상 지원 - 한국어(KSL)반, 부모와 함께하는 한글교실, 방과후 학교 운영 - 방문교사제, 대학생 멘토링 등을 통한 한국문화 이해 및 학습지도·상담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 이해교육 강화 * 재량활동·특별활동에 '다문화 이해교육' 강화 * 다문화가정 학부모가 강사로 참여 ○ 다문화교육 거점학교(42개교) 운영 ○ 언어·인지 능력진단 후 한국어 능력이나 기초학력이 부족한 경우 수준별 보충 프로그램(방과후학교, 멘토링) 제공 ○ 학부모를 위한 '자녀행복교실'운영 * 한글과 한국문화이해 교육프로그램 제공 ○ 다문화가정 학부모 상담주간을 통한 자녀의 학교생활·교육안내 제공

출처 : 2008~9년도 16개 시·도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지원 실적 및 계획 보고서(교육과학기술부, 2008, 2009)

나. 정책추진 체계

교육과학기술부의 다문화가정 학생교육지원 정책 및 추진사업은 다음과 같은 사업추진체계를 통해 수행되고 있다.



출처 : 교육과학기술부(2009) 내부자료.

[그림 Ⅲ- 1] 교육과학기술부의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지원 정책 추진 체계

2. 교육지원 대상(국제결혼가정 학생) 현황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2010년 현재, 다문화가정 학생 재학생 수(유·초·중·고 등학생)는 총 36,378명이다. 이 가운데 국제결혼가정의 자녀는 34,338명이고, 외국인근로자 가정의 자녀는 2,040명이다. 학교급별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재학생수는 다음 <표 Ⅲ-2>과 같다.

<표 III-2> 학교급별 국제결혼가정 자녀 재학 현황

구분	유	초	중	고	계
2009년	-	20,632	2,987	1,126	24,745
2010년	4,298	23,602	4,814	1,624	34,338

출처 : 교육과학기술부(2010) 내부자료.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이 68.7%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중학교 14.0%, 유치원 12.5%, 고등학교 4.7%의 순으로 높아, 초등학교 재학생 비율이 월등히 높음을 알 수 있다. 지역별로는 경기(21.0%), 서울(12.8%), 전남(9.6%), 경남(7.3%), 충남(6.8%)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부모국적별로는 일본(34.0%), 필리핀(17.3%), 중국(16.9%)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I-3> 지역별 국제결혼가정 자녀 재학 현황

(단위: 명, (%))

구분	국제결혼가정 학생 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서울	534	3,108	584	196	4,422(12.8)
부산	248	978	197	70	1,493(4.3)
대구	131	606	115	30	882(2.5)
인천	266	1,171	209	82	1,728(5.0)
광주	79	567	104	34	784(2.2)
대전	168	409	98	36	711(2.0)
울산	134	349	62	19	564(1.6)
경기	541	5,029	1,144	515	7,229(21.0)
강원	222	1,341	289	77	1,929(5.6)
충북	227	1,089	241	62	1,619(4.7)
충남	244	1,565	399	129	2,337(6.8)
전북	226	1,674	250	75	2,225(6.4)
전남	421	2,337	449	106	3,313(9.6)
경북	488	1,475	262	75	2,300(6.6)

구분	국제결혼가정 학생 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경남	350	1,677	377	103	2,507(7.3)
제주	19	227	34	15	295(0.8)
계	4,298(12.5)	23,602(68.7)	4,814(14.0)	1,624(4.7)	34,338(100.0)

출처 : 교육과학기술부(2010) 내부자료.

3. 결혼이민자 부모 출신국 언어 교육의 정책적 지원

가. 16개 시도교육청의 언어 교육지원 현황

16개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 탑재된 교육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언어교육 지원 현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언어교육은 학생을 위한 한국어반, 부모를 위한 한국어교육, 그리고 학생을 위한 이중언어교육으로 구분되며, 홈페이지에 탑재된 언어 프로그램은 16개 시도 중 서울, 인천, 경북지역 등 일부지역에서만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3개 지역의 언어프로그램별 세부내용은 다음의 <표 Ⅲ-4>와 같다.

<표 Ⅲ-4> 프로그램별 세부내용

구분	프로그램	세부내용
한국어반	한국어반 및 귀국자특별학급 운영 지원(서울)	
	다문화가정 자녀 언어사용능력 향상 계획(경북)	1:1 소리내어 동시 읽고 외우기, 주말에 있었던 일 말하기, 동시 쓰기, 낱말 쓰기
	다문화가정 사랑방(경북) 반딧불 교실(경북)	학생 상담 자원봉사자와 전문 상담교사 활용한 한글 교육, 편입학, 진학, 학력, 생활상담 등
	창영초 한국어반-저학년(인천)	오리엔테이션, 한글의 구성, 상황에 따른 인사말, 올바른 발음 학습, 가족/친척간 호칭 알아보기, 한글 맞춤법, 국어사전 사용법, 어휘력 향상 학습, 속담/사자성어, 전래동화 듣고 내용 파악하기,

54 ─ 다문화가족 자녀의 결혼이민 부모 출신국 언어 습득을 위한 교육지원 사례 연구

구분	프로그램	세부내용
	창영초 한국어반-고학년(인천)	글을 읽고 중요한 내용 간추리고 발표하기, 주제에 맞는 글 쓰고 발표하기 오리엔테이션, 생활 속 속담 알기, 틀리기 쉬운 한글 맞춤법 알아보기, 바르게 써야 할 외국어/외래어, 아름다운 우리말이 담긴 전래동요, 아름다운 우리말이 담겨진 시, 원고지 사용법
	남부초 한국어지도(인천)	중국, 베트남, 이라크 출신 가족의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 능력 점검 후 각각의 능력차에 따라 차별화된 방식으로 지도
	한국어반 특별교실-무지개 문화 체험반(인천)	오리엔테이션 및 진단평가, 수준별 한국어 학습, 생활적응, 문화체험활동
	한국어 학당(인천)	
이중언어 교육	이중언어 강사 운영(서울) 이중언어 경진대회 실시(인천)	
부모 한국어 교육	다문화가정 어머니 한글 교육(경북)	자음, 모음, 받침, 단어, 조사, 문장, 쌍받침/겹받침, 꾸미는 말, 느낌/성격, 시간/순서, 수 세는 낱말, 말놀이, 바른말, 높임말, 접속사, 원인과 결과, 안내하는 글, 편지글, 의견글, 설명문, 동시, 동화, 발음, 짧은글짓기, 독해, 문화재/민속놀이에 대한 자료 읽기
	다문화가정의 취학 전 학부모 교육(경북)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부모 한국어학교(인천)	초등 방과후 학교, 병설유치원 종일반 통해 취학 전 학부모 및 다문화 아동이 한글 배울 수 있는 기회 제공

그러나 홈페이지에는 탑재하지 않았지만, 실제 지역교육청 관내 유·초·중등학교에서 이민자 부모 출신국 언어 교육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16개 시도교육청 담당자를 대상으로 이에 관한 현황을 조사하였다. 조사결과는 다음의 <표 III-5>와 같다.

<표 Ⅲ-5>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이민자 부모 출신국 언어 교육지원 현황

(단위 : 개교, 명)

시도	부모 출신국 언어교육 실시 학교(총) 수*					학교별 참여 학생 수*					지도언어 수
	유	초	중	고	합계	유	초	중	고	합계	
서울		68	1	3	72		578	1	4	583	10
부산	1	17	5	1	24	1	38	6	32	77	7
대구	8	16	1		25	9	78	2		89	6
인천	6	14	2		22	10	59	3		72	6
광주		1	2		3		4	3		7	3
대전	1	11	2	2	16	1	78	3	3	85	3
울산		3			3		10			10	2
경기	2	33	18	1	54	94	469	216	13	792	8
강원		6			6		104			104	5
충북		2			2		18			18	3
충남	2	29	8		39	2	270	89		361	5
전북	2	15	6		23	46	344	77		467	4
전남		14	5		19		244	44		288	4
경북	2	4	1		7	4	161	1		166	7
경남		3	3	1	7		56	67	1	124	3
제주											
합계	24	236	54	8	322	167	2,511	512	53	3,243	

* 학교 수와 학생 수는 교육청 조사자료 중 전교생(전학년)을 대상으로 한 재량활동, 체험활동은 제외한 것임(자세한 내용은 <부록 2> 참조).

<표 Ⅲ-5>에 나타난 바와 같이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이민자 부모 출신국 언어 교육지원은 서울시의 학교(72개)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그 다음이 경기도(54개교), 충남(39개교), 대구(25개교), 부산(24개교)의 순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민자 부모 출신국 언어 교육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 수를 시도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792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583명, 전북이 467명, 충남이 361명, 전남이 288명의 순이었다. 학교급별(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는 초등학교에서 가장 많이 실시되어, 236개의 초등학교에서 언어 교육지원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 학생 수 역시 초등학교가 2,511명으로 가장 많았다. 지도언어 수에 대해 살펴보면 서울이 10개(몽골어, 러시아어, 일어, 중국어, 필리핀어, 우즈베키스탄어, 미얀마어, 베트남어, 영어, 태국어)로 가장 다양한 언어를 가르치고 있었으며, 경기도는 8개(영어, 중국어, 몽골어, 베트남어, 태국어, 한국어, 필리핀어, 일어), 부산 7개(영어, 중국어, 러시아어, 인도네시아어, 페루어, 베트남어, 스페인어)와 경상북도 7개(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페루어, 일어, 우즈베키스탄어) 순이었다.

<표 III-6> 이민자 부모 출신국 언어 교육지원을 위한 주교육자 및 교육방식

(단위 : 개교)

	주 교육자*							교육방식**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①	②	③	④	⑤	⑥
서울	62	6	5	1			1	60	14	7	3	3	16
부산		10	6	1		6	5	10	1	6		5	4
대구	1	4	1				19	3	2				20
인천		10	12	3		1		18		2			3
광주		1	1		1			2			1		
대전	10	3	3					11		1	1		3
울산		3						3					
경기	17	10	22	1	5	4	8	38	4	5	3	5	15
강원		5	2		6			9	2				2
충북		2						2					
충남		16	9	1	2	2	5	26	2		2	2	1
전북		19	6	2	4			23	2	3	1		2
전남		8	3	5	1	3		18					3
경북		5	2				1	6					2
경남		6			1			6					1
합계	90	108	72	14	20	16	39	235	27	24	11	15	72

* 주교육자 ① 이중언어 강사, ② 다문화가정 학부모, ③ 교사, ④ 외부강사, ⑤ 방과후강사, ⑥ 원어민강사, ⑦ 기타(대학생 강사, 인턴 교사, 센터 지원 교사 등)

** 교육방식 ① 방과후 프로그램(학교·수업), ② 방학 중 프로그램, ③ 정규 수업, ④ 주말 프로그램(토요학교), ⑤ 가정 학습(가정과 연계), ⑥ 기타(재량활동, 특기적성교실, 멘토링, 선택교과, 돌봄 학교, 아침방송, 체험학습 등)

*** 자세한 내용은 <부록 2> 참조 바람.

이민자 부모 출신국 언어 교육지원의 주교육자는 이중언어 강사, 다문화가정 학부모, 교사, 외부강사, 방과후 강사, 원어민 강사, 기타(대학생 강사, 인턴강사, 센터 지원 강사 등)로 이루어졌다. 시도별 주교육자 현황을 살펴보면 다문화가정 학부모(108개교)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이중언어 강사(90개교), 교사(72개교) 순이었다. 교육방식에 있어서는 <표 III-6>에 제시된 바와 같이 대부분의 시도에서는 방과후 지도(총 235개교) 방식을 택하고 있었다. 그 외 방학 프로그램(총 27개교), 정규 수업(총 24개교), 가정 학습(총 15개교) 순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나. 서울시 이중언어 강사 양성 및 배치사업

1) 사업 개요⁸⁾

가) 추진의 배경

이 사업은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한국 사회에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국어와 자신의 모어를 함께 교육하는 이중언어교육이 근본적 이면서도 바람직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일선 초등학교에서 이들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지도할 이중언어 강사를 양성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제 학교 현장에서 이중언어 교수 요원을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실시하게 되었다.

나) 추진체계 및 절차

(1) 사업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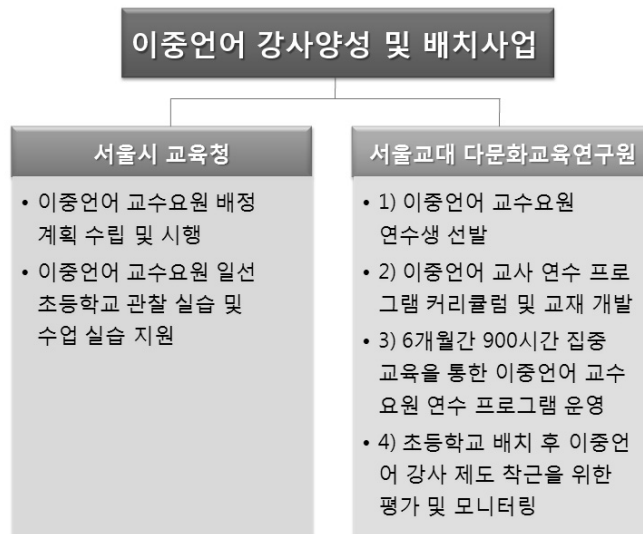
이중언어 강사 양성 사업의 핵심은 한국에 합법적인 지위를 가지고 거주하는 다문화를 배경으로 하는 사람 가운데 한국어와 대상 언어인 다른 언어를 능숙하게 구사할 줄 아는 우수한 인적 자원을 선발하여 초등 교사에 준하는 자질을 갖춘 전문 인력으로 양성하고 서울시 교육청 산하 일선 초등학교에 배치함으로써 다문화가정 자녀를 교육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다.

8) 원진숙 외(2010)의 ‘다문화가정 학생을 위한 이중언어 강사 양성 및 배치 사업 평가 백서’를 바탕으로 요약 정리한 것임.

따라서 이 사업에서는 초등학교 다문화가정 학생들을 위한 이중언어 강사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일선 초등학교에서의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한국어 교육 및 이중언어 교육, 교과 학습 적응을 지원하고 일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 이해 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우수한 이중언어 교수 인력을 선발하고 교육하여 이들의 다문화교육 지원이 절실하게 요청되는 일선 학교에 배치, 관리, 운영하고 이 프로그램이 초등학교 교육 현장에 착근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는 것까지를 포함한다.

(2) 사업 추진 체계

이중언어 강사 양성 사업은 서울교육대학교 다문화교육연구원이 서울시 교육청과 연계하여 업무를 이원화하여 시행하였으며, 구체적 내용은 아래 [그림 III-2]과 같다.



[그림 III-2] 사업 추진 체계

위 [그림 III-2]에서처럼, 서울시 교육청은 이중언어 교수요원 배정 계획 수립 및 시행과 이중언어 교수요원 일선 초등학교 관찰 실습 및 수업 실습 지원을 하였다.

그리고, 서울교육대학교 다문화교육연구원은 이중언어 교수요원 연수생 선발, 이중언어 강사 연수 프로그램 커리큘럼 및 교재 개발, 6개월간 900시간 집중 교육을 통한 이중언어 교수 요원 연수 프로그램 운영, 초등학교 배치 후 이중언어 강사 제도 착근을 위한 평가 및 모니터링을 수행하였다.

다) 이중언어 강사 선발

이중언어 강사는 모집 홍보 후, 제출 서류를 바탕으로 한 적격성 심사, 한국어 지필 및 면접시험 실시 등을 통해 선발되게 된다. 강사선발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중언어 강사 선발 과정>

■ 제출 서류를 바탕으로 한 적격성 심사

- ① 지원서(소정 양식)
- ② 신원 확인 서류(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증 사본, 여권 사본 등)
- ③ 대학교 졸업 증명서(한국어 또는 영어로 공증하여 제출)
- ④ 한국어 자기소개서(A4 1매, 자유 형식)
- ⑤ 경력증명서(한국어 또는 영어로 공증하여 제출)(해당자에 한함)
- ⑥ 교사 자격증 사본(한국어 또는 영어로 공증하여 제출)(해당자에 한함)
- ⑦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확인서 사본(해당자에 한함)

■ 한국어 지필 및 면접 시험 실시

- ① 한국어 지필 시험 실시
 - ☐ 일시 : 2009년 1월 31일(토) 14:00~15:30
 - ☐ 평가내용 : TOEFL 형 평가 문항 구성
어휘력, 한국어 문법, 단문 독해, 장문 독해 총 45문항, 작문 문제 1문항
- ② 2차 면접 시험 실시
 - 일시 : 2009년 2월 7일(토) 13:00~18:00
 - 평가 내용 : 구두 면접을 통한 한국어 구어 소통 능력 평가, 교직 적성 및 소양, 인성 평가
 - ☐ 잔여 인원을 채우기 위해 <추가 모집> 공고를 다문화교육 연구원 홈페이지에 게재함
 - ☐ 추가 모집생 시험 실시
 - 한국어지필고사 및 면접 2009년 12월 13일(금)
 - 면접 시험 9:30~12:00
 - 한국어 지필 시험 13:30~15:00(90분)

라) 이중언어 강사 양성 및 현장 배치

이중언어 강사를 양성하기 위해 최종 선발된 13개국의 75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였다. 연수는 2009년 3월 2일부터 8월 31일까지 27주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집단연수는 3월 2일- 5월 30일(1학기), 6월 1일- 8월31일(2학기)로 나뉘어 하루 6-8시간씩 운영되어, 총 900시간을 교육하였다.

연수는 교양과목, 교직과목, 전공과목, 교육실습의 4원 체제를 기본 틀로 하여 구성된 교육과정에 따라 운영되었으며, 교양과목에는 ‘한국사회의 이해’, ‘다문화교육의 이해’, ‘한국문화탐방’ 등이, 교직과목에는 ‘한국 초등학교 교육의 이해’, ‘아동심리와 상담기법’,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예술교육, 수학교육’ 등이 포함되었다. 전공과목으로는 ‘다문화사회의 이중언어교육’, ‘한국어 문법’ 수업 관찰, 실습 등이 포함되었다.

이중언어 강사를 위한 연수 프로그램 실시 후 이들을 초등학교에 배치하기 위해 사전 작업으로 다음과 같이 이중언어 강사의 역할이 정립되었다.

- ▶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그룹지도, 개별지도, 찾아가는 방문 교육 등
- ▶ 다문화가정 학생의 방과후 프로그램의 한국어 지도 및 모국어 지도
- ▶ 일반 학생을 위한 제2외국어 지도 및 국제문화이해교육
- ▶ 다문화가정 학부모 대상 부모 교육 또는 한국어 지도
- ▶ 다문화가정 학부모 상담을 통한 통역 지원
- ▶ 다문화가정 학생이 많은 학교, 연구학교를 거점학교로 한 순회 교육 실시

끝으로 양성된 이중언어 강사는 국적, 특기사항, 가능한 근무형태를 고려하고 해당초등학교에서 이중언어 강사가 필요한지를 조사하여 학교현장에 배치하였다. 그 결과 2009년 70명의 이중언어 강사가 서울시교육청 관내 70개 학교에 배정되었다.

마) 사업 추진의 애로점 및 제언

사업 추진의 어려움으로 크게 두 가지가 지적되었는데, 하나는 선행사업 경험 부재로 인한 어려움이었으며, 다른 하나는 홍보와 관련한 어려움이였다(서울교육대학교 다문화교육연구원, 2010). 이는 공교육 시스템 안에서 처음 시도된 사업이라는 점에서 관련 부처의 이해가 부족하고, 사업의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특히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여러 인종 및 민족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다문화 그룹의 네트워크를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을 시작하였기에 홍보에 어려움을 보였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홍보 채널의 다양화가 요청되었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얻게 된 효과적인 홍보 전략으로는 ① 법무부 출입국 사무소의 도움을 얻어 여러 유관 다문화 네트워크에 연결하여 홍보하는 방안 ② 각 시도 교육청에 집계된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교별 현황을 활용하는 방안 ③ 여러 다문화 네트워크 사이트 게시판을 통해 홍보하는 방안 등이 제안되었다. 아울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수강생들이 감수해야 할 가장 큰 애로 사항으로 자녀의 탁아 문제가 있었으며,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 모색이 요청되었다.

이상의 내용을 본 연구의 분석틀에 맞추어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 <표 Ⅲ-7>과 같다.

<표 Ⅲ-7> 서울시 교육청 운영 이중언어 강사 양성 및 배치사업

비교 항목		한국
취지 및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에 합법적 지위를 가지고 거주하는 다문화를 배경으로 하는 사람 가운데 한국어와 대상 언어를 능숙하게 구사할 줄 아는 인적자원을 선발하여 초등학교에서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지도할 이중언어 강사를 양성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 실제 학교 현장에서 이중언어 교수 요원을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실시
주관 기관(행·재정 지원)		주관 : 서울시교육청(서울교육대학교 다문화교육연구원과 연계)
운영 기관		2010년 : 63개 초등학교(<부록3>참조) / 2009년 : 70개 초등학교
운영 방법	직영/위탁	직영
	거점/단위학교	
	실시 유형	1주 25시간 이내 수업, 전일제 또는 반일제
	교육자	<p><이중언어 강사 양성 및 배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집 홍보 후, 제출 서류를 바탕으로 한 적격성 심사, 한국어 지필 및 면접 시험 실시 - 최종 선발자를 대상으로 6개월간 총 900시간 집중 교육을 통한 이중언어 교수 요원 연수 프로그램 운영 - 양성된 이중언어 강사는 국적, 특기사항, 가능한 근무형태를 고려하고 해당 초등학교에서 이중언어 강사가 필요한지를 조사하여 학교현

비교 항목			한국
			장에 배치 - 월 급여 : 2009sus 매월 1,300,000원(전일 근무), 700,000원(반일제, 방과후 근무) 2010년 매월 1,500,000(전일근무), 900,000원(반일제) <이중언어 강사의 자조모임과 정보교류> - 인터넷을 통한 상호 정보교류를 위해 이중언어 강사 카페가 운영되고 있음, 카페 안에 언어권별 모임도 있고, 친분에 따른 모임도 있음.
	학습자		다문화가정 학생과 학부모, 일반 학생
교육 과정	지도 언어		중국어, 일본어, 우즈베크어, 몽골어, 러시아어, 필리핀어, 태국어, 키르기스스탄어, 카자흐스탄어, 대만어, 인도네시아어, 말레이시아어, 베트남어
	교재	개발	해당언어 강사가 매 시간마다 직접 교재를 만들어 수업함
		내용	해당 나라의 문화를 바탕으로 한 생활 언어
	교육 방법		- 일반 아동의 다문화 이해 수업 - 다문화가정 아동의 이중언어 교육 - 일반 아동의 외국어 교육 - 다문화가정 학부모 상담 - 학교 및 지역의 다문화 행사 지원
학생의 수업 참여 조건	신청 자격 조건		일반다문화수업 - 아동 전원 이중언어수업- 해당자와 희망자
운영 지원	학교장의 지원		- 이중언어 강사들이 초등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카운슬링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이중언어 강사 양성 과정의 수료식 때 서울시 관내 초등학교 교장과 이중언어 강사와의 멘토-멘티 결연을 맺음.
	자원봉사·도우미		
	물리적 지원		
	기타		- 학교 및 지역의 다문화 행사 지원의 일환으로 서울시 교육청 다문화가정 학생을 위한 다문화 캠프 개최
교육 효과	효과		1) 다문화가정 학생 측면 - 이중언어 강사들은 한국어가 미숙하여 학업능력이 부진한 다문화가정 학생들에게 한국어 교육과 교과교육 지도를 통해 학업능력 향상에 기여하였으며, 학교생활에 원만히 적응하도록 기여하였음 - 가정형편상 학부모의 돌봄을 받지 못하고 방치되어 왔던 다문화가정 아동들이 이중언어 강사들의 교육지원을 통해 학교 생활의 적응도가 개선됨 - 부모님 나라의 언어를 부모님과 같은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이중언어

비교 항목	한국
	<p>어 강사를 통해 습득함으로써 부모님과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하는 긍정적 효과를 얻을 수 있었음</p> <p>2) 일반 학생 측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중언어 강사들이 일반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다문화교육은 일반학생들의 다문화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는 효과를 냄 - 다문화교육을 통해서 일반 학생들이 다문화에 대해 갖고 있던 편견을 버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며, 글로벌 시대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다문화적 감수성을 신장시키는 데 도움이 됨 <p>3) 학교장 및 교사 측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 현상과 문제에 대해 막연히 갖고 있는 생각을 이중언어 강사 제도를 통해 직접 체험하고 학교현장에 적용하면서 다문화교육의 중요성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음 - 한국어 능력이나 학업 수행능력이 떨어지는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방과 후 지도에 이중언어 강사가 투입됨으로써 교사들과 협력하여 지도할 수 있는 체계가 만들어짐 - 다문화가정 학생이 전학을 오거나 입학한 경우, 다문화가정 학부모, 학교, 교사간의 의사소통에 이중언어 강사가 큰 도움을 줄 수 있었음. <p>4) 다문화가정 학부모 측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어가 미숙하여 자녀들에게 한국어 교육과 함께 부족한 교과교육을 방과후 프로그램을 통해 지도함으로써 다문화가정 학부모들에게는 매우 좋은 반응을 얻었음 - 자녀들에게 자신의 모국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음 <p>5) 일반 학부모 측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중언어 강사들이 다문화가정 자녀뿐 아니라 일반 학생들까지 포함하여 다양한 외국어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일반 학부모들은 자녀들이 21세기에 필요한 외국어를 배울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임. <p>6) 이중언어 강사 측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중언어 강사의 대다수가 국제결혼에 따른 이민자로서, 사전 설문에서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졌으나 사회생활의 기회는 거의 주어지지 않아 한 가정에만 예속되어 생활해 오던 중 이중언어 강사 양성과정을 통해 처음으로 한국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음으로써 자신의 잠재 능력을 개발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임 - 초등학교에 배치되어 직접 교육활동을 실시함으로써 다문화가정 구성원으로서 한국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자부심과 자긍심을

비교 항목		한국
		갖게 되어, 이중언어 강사 제도가 한국 사회의 통합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별로 이중언어 강사의 지원이 필요한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좀더 정확한 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강사를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이중언어 강사 배치 첫 해의 경우, 수요에 관계없이 해당 학교에 다문화가정 학생 재학여부에 따라 이중언어 강사들이 배치된 학교들이 있어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차질을 준다는 지적이 일부 있었음. - 이중언어 강사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강사의 역할영역과 우선순위를 정하여 활용하는 것이 필요함 - 이중언어 강사가 주된 목적인 다문화가정 학생지원이 아닌 단순한 외국어 강사나 국제이해교육 강사로 활용된 사례를 찾아볼 수 있었는데, 이러한 경우 이중언어 강사 본인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의문을 가지게 되어 본래 취지가 퇴색될 수도 있음. - 이중언어 강사 계약 관련 내용이 공문을 통해 전달되었으나, 각 학교마다 급여가 다르게 산정되어 지급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여 좀더 상세한 복무 규정이 마련되어 제공될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 이중언어 강사들의 배치 첫 해에 가장 어려움을 겪은 사항은 수업에 필요한 교육내용과 자료를 전적으로 혼자 알아서 준비해야 하는 부담감이었음. - 일본이나 중국 문화권의 강사들은 서로 협력하여 교육자료를 공유할 수도 있으나 동남아시아나 러시아권 이중언어 강사들은 수업에 필요한 교육자료 개발이 전적으로 강사 개인들의 능력에 달려있어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교육자료의 개발과 보급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임.
기타		

4. 결혼이민자 부모 출신국 언어 교육지원 실천 사례

가. 학교중심 사례

1) 서울시 관내 이중언어 강사의 현장 교육지원 사례

가) 개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서울시에서는 초등학교에서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지도할 이중언어 강사를 양성, 현장에 배치하는 사업을 실시해왔다. 실제 학교 현장에서 학생을 지도할 이중언어 강사를 양성하기 위해 최종 선발자를 대상으로 6개월

간 총 900시간의 집중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양성된 이중언어 강사는 국적, 특기사항, 가능한 근무형태를 고려하고 해당 초등학교에서 이중언어 강사가 필요한지를 조사하여 학교현장에 배치하였다. 여기에서는 서울시 소재 S교육청을 대상으로 관내 이중언어 강사가 배치된 4개 학교에서의 교육지원 사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사례조사는 이중언어 강사들과의 두 차례 면담 및 수업관찰을 통해 이루어졌다. 면담은 학교 수업을 시작하는 시점인 3월(집담회 형태)과 수업진행 중인 4월(개별 형태)에 이루어졌다. 주요 면담 내용은 900시간의 연수와 지난 1년간의 학교 현장 경험에 비추어, 향후 이중언어 강사 양성을 위해 요구되는 연수프로그램 및 교육지원 내용, 학생특성과 가정의 환경과의 관계, 이중언어 강사 자조모임 및 요구사항 등에 관한 것이었다.

면담을 통해, 이중언어 강사들이 지난해(2009년) 70명 배출되었으나, 2010년에는 63명으로 감소되었으며, 지난 2월에 3일간 재교육 연수를 받고, 각 학교에 다시 배정 받았음을 알 수 있었다. 제시한 질문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의견들을 수집할 수 있었다.

▶ **향후 이중언어 강사 양성을 위해 요구되는 프로그램**

- 초등학생 맞춤형 다양한 교수법 개발 방법, 학생의 정체성 및 자신감 향상 방법, 구체적인 상담기법과 실습, 수업지도안 작성 방법 등이 제안됨.

▶ **이중언어습득 성공 학생과 가정과의 관계**

- 보통의 다문화가정은 한국어에 익숙해지기 위해,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놀림을 받을까 모어교육을 회피함. 이중언어 강사가 학교에 파견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중언어 필요성을 느껴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됨. 따라서 이중언어는 부모를 먼저 교육시켜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학부모 상담이 필요함을 제안함. 아울러 학생에게 일정 시간을 두어 반복 교육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함.

▶ **이중언어 강사의 자조모임과 정보교류**

- 인터넷을 통한 상호 정보교류를 위해 이중언어 강사 카페가 운영되고 있으며 도움이 많이 됨. 카페 안에 언어권별모임도 있고, 친분에 따른 모임도 있음. 직접경험(교수법)이 도움이 많이 됨. 작년 12월에 DAUM에 ‘이중언어 강사’로 생김.
- 교육대학교에서 많은 도움을 받기도 함. 구청 다문화센터, 무지개센터 등으로 부터 CD, 자료, 준비 등의 도움을 받고 있음.

▶ **효과적인 이중언어교육 지원을 위해 요구되는 사항**

- 1년 순환배치에 따른 문제점 개선 필요(원거리 문제, 이중언어 강사의 모어 학생 부재문제 등)

수업관찰은 4월 중순에 이루어졌다. 이중언어 강사들은 대체로 학교에서 두 가지 종류의 수업을 운영하고 있었다. 일반 아동을 대상으로 정규시간에 국제이해교육 수업을 하였으며, 다문화가정 아동을 대상으로는 방과 후에 이민자 부모 출신국 언어를 가르치거나 이민자 부모 출신국 언어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이중언어교육 수업을 하였다. 학교별 관찰 내용은 다음 <표 III-8>과 같다(자세한 내용은 <부록 4> 참조).

<표 III-8> 수업참관대상 학교별 수업내용, 담당교사

학교	내용	학년	담당교사	비고
가초등	국제이해교육수업		A교사	몽골어, 러시아어 가능
나초등	국제이해교육수업	3학년 4반	B교사	러시아어, 이탈리아어 가능
다초등	이중언어(일본어) 수업	다문화가정 학생(2학년)	C교사	일본어
라초등	이중언어(몽골어) 수업	일반학생 계발활동	D교사	몽골어
	이중언어(한국어) 수업	다문화가정 학생(6학년)		

수업참관 대상 이중언어 강사별 특성과 이들의 수업에 대한 참관 후 수업의 특색은 다음과 같다.

- A교사는 몽골과 러시아에서 고등교육을 받고, 한국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한국어와 몽골어, 러시아어에 능통하며, 청소년 상담 관련 경험을 지녀 학생의 눈높이에 맞는 수업을 운영하고, 학생 호응도도 매우 높다.
- B교사는 키르기스스탄에서 공부한 후, 이탈리아에서 법학공부를 한 법률가이다.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에 이주해 온 지 2년 정도 지났으며, 거주기간에 비해 한국어를 매우 잘 구사하고 있었다.
- C교사는 한국거주 10여년 정도의 베테랑 교사이다. 놀이학습을 통해 일본어를 교육하며, 학생들이 매우 즐겁게 수업에 임하고, 수업에는 일본출신국 어머니를 둔 학생 외에 한국학생(일본에서 유치원을 다닌 경험이 있는)도 함께 하였으며, 방과 후 일본어 수업을 비교적 잘 운영하고 있었다.
- D교사는 몽골의 울람바트르 대학에서 지리학을 공부한 교사로서 한국에 9년 정도 머물고 있었다. 한국말을 상당히 잘 구사하여 학교에서 일반학생 대상

몽골어 지도와 몽골학생 대상 한국어 지도를 병행하여 수업을 운영하고 있었다. 학생들이 흥미를 갖고, 수업에 임하고 있었으나, 한국어발음이 취약한 경우가 있어(예 : 소풍을 소퐁으로 발음) 발음수업에서는 녹음테이프 사용이 필요해 보였다.

나) 시사점

이중언어 교사들과의 면담을 통해 학교 배정과정에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강사의 거주지가 고려되지 못하고 있었고, 또한 배정 받은 학교의 다문화가정 학생 재학현황이 반영되지 않은 문제를 발견할 수 있었다. 예컨대, 일본어 강사는 K구에 살고 있는데, S구의 학교로 출퇴근해야 하는 어려움을 가졌고, 몽골어 강사는 소속 학교에 몽골출신 학생이 없어서 부모가 몽골출신인 학생이 있는 인근 학교의 강사를 겸해야 하는 어려움을 가졌다. 이를 통해 향후 이중언어 교사 현장배치에 있어 강사의 거주지, 지도 언어, 학교 내 다문화가정 학생 재학 현황 등에 대한 정보가 사전에 충분히 고려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받았다.

또한 향후 이중언어 교사 양성을 위해 요구되는 프로그램으로 면담강사들은 초·중·고등학생 맞춤형 다양한 교수법 개발 방법, 학생의 정체성 및 자신감 향상 방법, 구체적인 상담기법과 실습, 수업지도안 작성 방법 등을 제안하였다. 이로써 향후 대응이 필요함을 시사받았다.

2) 경기도 ○초등학교의 무지개 주말학교 사례

가) 개요

무지개 주말학교는 다문화가정 어린이들이 이중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교육적 환경을 구성하여 학생 입장에서 다언어, 다문화 이해 능력을 습득하고, 자신감, 정체성을 확립하게 하며, 가정에서는 결혼이주 부모의 언어와 문화를 이해함으로써, 부모 자녀관계를 개선하고, 사회적으로는 글로벌 인재로써 미래사회의 주역으로 육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구체적인 운영 사항을 요약하면 다음 <표 III-9>와 같다.

2010년 현재 무지개 주말학교의 학생은 총 70명이다. 일본어는 30명, 필리핀어는 25명, 중국어는 10명, 태국어는 5명이고, 교육은 부천시내 전 초등학교 다문화

가정 아동과 그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다.

무지개 주말학교에서는 일본어, 중국어, 필리핀어, 태국어 등을 교육할뿐 아니라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위한 영어 수업을 따로 진행한다. 아울러 학부모 대상의 한국어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커리큘럼은 학기로 나누어 진행하고, 학교 오는 토요일(매달 1, 3, 5주) 1학기에 약 9회 정도의 수업과 한 수업 당 2시간 연속 수업으로 진행한다. 지도내용은 해당 언어 강사가 각 대상아동의 언어 능력, 학년 그리고 관심분야에 따라 자신이 커리큘럼을 짜고 그 언어에 기반한 그 나라의 문화, 그리고 정체성을 키우는 데 주력한다.

학교 운영을 위한 재정은 경기도다문화교육센터(경기교육청 후원)의 ‘다문화교육지원 사업’에 응모하여 선정되어 운영금을 교부받고, 여러 NGO 단체에서 캠프나 일일체험 등을 지원받는다.

주말학교 운영을 위해 자율적인 교사동아리(20명 내외)가 조직되어 있으며, 지도강사는 이주여성 가운데 대학을 나온 우수 인력에서 선발한다. 교재는 방학 동안 교사들이 강사들과 협의하여 일반 교재를 바탕으로 해서 만든 책으로 사용하고 있다.

성과로는 아동들은 같은 나라 어머니를 가진 친구들을 만나며 어머니 나라 언어를 배움으로써 자신의 모습을 긍정적으로 찾아가는 모습을 보이며, 학부모들은 공교육기관에서 자신의 나라 언어를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기회가 생기자 매우 만족해한다. 특히 <제1회 가족 말하기 대회>와 무지개 주말학교 종업식의 개최 등은 의미있는 행사였다.

문제점으로는 접근성의 문제와 학급내 학생 수준 차이에 따른 어려움을 들 수 있다. 즉 토요일에 학교수업을 마치고 부천시내 곳곳에서 어머니들이 저학년 자녀들과 버스를 타고 멀리서 와야하는 불편함이 있었고, 또한 한 반에 수준이 다른 각 학년 아이들이 섞여있다보니, 지도의 어려움이 있었다. 그리고 안정적인 강사 요원의 확보가 시급하며, 정책적 지원으로 인한 장소 지원, 재원이 바탕이 된 교재 구입 등이 필요하였다.

<표 Ⅲ-9> 경기도 ○초등학교의 무지개 주말학교 사례

비교 항목		한국	
취지 및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의 다문화가정 및 다문화가정아동지원정책에 있어서 ‘한국어 및 한국문화 배우기’ 만으로는 다문화가정의 어머니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상태에서 어머니를 존중하거나 인정하는 분위기 형성에 한계가 있음. - 한국어의 중요성이 강조되다 보니 한국어에 서툰 어머니를 무시하고 어머니는 가정에서 소외되며, 자녀는 여전히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아 그 역량이 강화되지 못함. - 이중언어 교육을 통해 모성이 발현되고 건강한 가정으로 되어 장차 미래사회의 당당한 일원이 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함. - 2008년 하반기부터 시작하여 3년 간 진행됨, 	
주관 기관(행.재정 지원)		주관 : 경기도교육청 후원 : 경기도다문화교육센터 →○초등학교	
운영 기관		○초등학교 시행자 : 다문화가정아동 지원 부천시 교사동아리 ‘무지개’ http://cafe.daum.net/rainbowweekend	
운영 방법	직영/위탁	직영	
	거점/단위 학교	거점 학교 (부천시 전체)	
	지원금액	2008년	1,000만원
		2009년	1,800만원
		2010년	1,000만원
	실시 유형	1학기, 2학기로 나누어 진행하고 학교 오는 토요일(매달 1, 3주, 5주) 1학기에 약 9회 정도의 수업과 한 수업 당 2시간 연속 수업	
	교육자	<교사동아리> - 교육대상 아동과 학부모를 가르치기 위해서 적은 규모로서는 언어 교실 개설이 어려우며 또한 전 부천시내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기 위해서는 자율적인 교사동아리가 조직되어야 관 주도의 일시적인 형태를 벗어나 연계성 있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므로 먼저 이에 관한 관심과 애정이 깊은 교사들을 규합해 자율적인 교사동아리(20명 내외)를 조직. - 교사동아리 회원들은 행정적인 일을 맡아서 첫 해에는 각자 한 나라를 맡아서 거의 아동들과 함께 학교에 오고 가고 했으나 2010년도에는 순번을 정해 차례로 돌아가며 일을 하고 있음. <지도강사> - 석박사과정의 한국유학생이나 학부모 중에서 대학을 나온 사람으로 선발. 그러나 강사비가 교통비 수준이었으므로 좋은 강사를 구하기가	

비교 항목		한국							
		어렵고 유학생의 경우는 공부가 끝나고 본국으로 돌아가자 후임을 정하기도 쉽지 않아서 대체로 학부모가 하게 되었음. - 강사비 : 한 회에 40,000원 * 9주 = 약 360,000원 한 학기가 끝난 후 한 번에 지급							
	학습자	부천시내 전체 다문화가정 아동 및 학부모 대상							
	규모 어린이 70명 어머니 18명 강사 9명	일본어 초급	일본어 중급	중국어	필리핀어	태국어	어머니 한글 초급	어머니 한글 중급	베트남, 몽골
		15	15	10	25	5	10	8	있다가 없어짐
		2008년				약 50명			
		2009년				약 60명			
		2010년				약 70명			
교육 과정	지도 언어	2008년		일본어, 중국어, 베트남어, 필리핀어, 태국어, 몽골어,					
		2009년		일본어, 중국어, 베트남어, 필리핀어, 태국어, 영어					
		2010년		일본어, 중국어, 필리핀어, 태국어, 영어					
	교재	개발	- 강사들이(일본어, 중국어, 필리핀어, 태국어, 영어) 학기 및 연간교육 계획안을 만들고, 각 주에 수업한 내용에 대한 지도안을 만들어 홈페이지에 탑재. - 교재는 시중교재를 참고하여 강사 자신이 준비해서 아동의 수준에 맞추어 재구성.						
			내용	해당 나라의 문화를 바탕으로 한 생활 언어					
		홈페이지	http://cafe.daum.net/rainbowweekend 교육계획안과 아동들의 학습 사진과 다른 나라의 다문화관련 사진이나 행사 동영상 등을 탑재하고 교사들 간의 네트워크가 되고 있음.						
	교육 방법		해당언어 강사가 각 대상아동의 언어 능력, 학년, 관심분야에 따라 커리큘럼을 짜고 그 언어에 기반한 그 나라의 문화, 정체성을 키우는 데 주력						
학생의 수업 참여 조건	신청 자격 조건	* 부천시내 다문화가정 자녀 및 학부모 * 부모중의 한 분이 외국인 (인천에서도 오는 경우가 있음)							
운영 지원	학교장의 지원	교실 사용에 따른 담임교사들의 불만 등 학교 측에는 상당한 부담이 있으나 교장선생님의 각별한 관심과 신뢰 속에 진행							
	자원봉사·도우미	서울 신세기 특허법원에서 자원봉사자들이 매회 4명 정도가 참여하여 아동들의 간식을 준비하고 있으며 강사들의 수업을 돕고 있음. (2010년 1년간 한시적)							

비교 항목		한국
	물리적 지원	○초등학교 교실 8개, 교무실 및 교사연구실 매회 개방
	기타	함께 현장학습이나 1박2일 캠프 등을 가족단위로 하면서 다른 언어권 아이들과도 친해지는 시너지 효과가 생김
교육 효과	효과	<p>1. 아동</p> <p>1) 어머니 나라의 언어를 배우면서 그 어려움을 알아 어머니가 한글을 잘 모르거나 발음을 틀리게 하는 점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며 어머니를 차츰 이해하게 됨</p> <p>2) 어머니 나라에 대한 관심이 차츰 생겨 가끔 질문도 하며 어머니를 존중할 수 있는 기반이 생김</p> <p>3) 같은 형편에 처한 다른 아이들을 만나며 혼자만의 문제이거나 외로움이 아닌 것을 알고 힘을 냄</p> <p>4) 어머니 나라의 언어를 열심히 배워 장차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고 하는 희망이 생김</p> <p>5) 어머니의 가족(할아버지, 할머니 등)과 간단한 인사라도 어머니 나라의 언어로 함으로써 자신의 뿌리를 느낄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됨</p> <p>2. 학부모</p> <p>1) 자신의 언어로 자녀와 이야기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김을 대단히 기뻐함</p> <p>2) 같은 나라에서 이주한 다른 친구들을 만나 대화와 정보를 나누는 소통의 장이 되어 한국생활의 어려움 등을 서로 나누며 친교의 시간이 됨,</p> <p>3) 생활언어가 아닌 아동들의 학습언어를 배워가며 아동들의 학교 생활과 학습 지도 및 가정 통신문 등에 대해 한국교사에게 질문하며 아동의 학교생활에 대해 점차 알아감으로써 자신감이 생김</p> <p>4) 자녀가 자신을 점점 인정해가는 것을 보며 한국생활에 대한 점차적인 안정감을 되찾음</p> <p>3. 지도교사 및 지역사회</p> <p>지도교사 및 지역사회에서도 이중언어 교육이 아동들의 긍정적인 정체성 형성과 밝은 미래에의 비전이 될 수 있음을 느끼며 한국인 교사 자신들의 인식이 바뀌어 가고 있음</p>
	문제점	<p>1) 아동들은 이중언어 수업과 더불어 친구들과 캠프 등도 가고 싶어 하지만 재정 운영의 어려움에 자주 가지 못함</p> <p>2) 강사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하지 못함</p> <p>3) 거리가 멀고, 혹은 어린 아이들이라 어머니가 일하러 나가야 할 경우 데리고 올 사람이 없어서 참석이 어려움(몽골어, 베트남어 수업이 없어진 이유와 관련됨.).</p> <p>4) 수업시간이 적어 언어 자체가 능숙하게 빨리 늘지는 않음.</p>
	기타	재정 지원이 끊기거나 담당자의 근무처가 바뀔 경우 프로그램의 지속이 우려됨.

나) 시사점

주말학교 운영상의 문제로 학부모가 자녀를 이중언어교실에 보내고 싶어도, 아동이 어려서 혼자 등교하기 어렵고, 어머니는 직장에 다녀, 학생들이 학교에 오지 못하는 사례가 나타났다. 또한 강사들은 한 교실에 다른 학년 다른 수준의 아동들을 동시에 지도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교재가 따로 준비되지 못해 지도하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이러한 어려움은 교육환경 및 지도 여건의 개선과 직결된다고 볼 수 있다. 주말학교 운영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보다 구체적인 개선이 요청된다.

- ▶ 안정적인 강사 요원의 확보가 시급히 요청된다.
- ▶ 교육청 차원에서의 행·재정 지원(예: 장소지원, 학생의 통학지원)이 필요하다.
- ▶ 충분한 재원이 확보되어 교재 구입 등 내실 있는 수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 ▶ 방학 중 2주 혹은 그에 상당한 기간 동안 집중 수업을 받는 방법이 요구된다.

나. 지역 차원의 사례

1) 다문화가족 이중언어교실

가) 개요

전국다문화가족사업지원단은 2009년 6월 전국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대상으로 한 공모를 통해 시범운영센터 5개소를 선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다문화가족 이중언어교실을 출범하였다(<표 III-10> 참조).

<표 III- 10> 2009년 시범운영센터별 개설언어 및 세부사업내용

시범운영센터	언 어	수업 횟수(주 2회 이상)	실인원	연인원
A	베트남어	○	21	110
B	베트남어	○	14	76
C	베트남어	○	12	106
D	중국어	○	17	115
E	몽골어	○	25	241
총5개소	총 3개 국어		89	648

출처 : 전국다문화가족지원단 (2010)

다문화가족 이중언어교실 운영의 목적은 결혼이민자 주요 출신국 언어수업을 통해 초등 및 미취학 아동이 다문화 감수성을 지닌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다문화가족의 부모-자녀 간 소통 증진 및 자아존중감과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며, 다문화가족 아동 및 일반아동이 함께 하는 수업을 통해 다문화인식 개선 및 사회통합에 기여하는데 있다.

2010년 현재 운영 현황에 대해 살펴보면, 제주를 제외한 15개 시·도, 총 57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개설·운영하고 있으며,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총 11개 센터로 가장 많이 이중언어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구체적인 내용은 <부록 5> 참조).

<표 Ⅲ- 11> 2010년 지역별 이중언어교실 운영 센터 수

지역	센터 수	지역	센터 수
경기	11	강원	3
서울	7	부산	2
전북	5	대구	2
전남	5	충북	2
경남	5	광주	1
인천	4	대전	1
충남	4	울산	1
경북	4		

출처 : 전국다문화가족지원단 (2010)

언어별로는 중국어 교실이 48개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베트남어 교실(22개), 몽골어, 러시아어, 필리핀어, 태국어 교실(각 1개)이어서, 중국어와 베트남어 수업 위주임을 알 수 있다. 교육 **기간별**로는 익산시와 진주시 다문화센터가 10개월로 가장 길었고, 안성시(베트남어 교실)가 2개월로 가장 짧았다. 이중언어교실의 **강사 소속별**로는 센터 관계자가 47명으로 가장 많았다. 센터 관계자는 센터 회원(22명), 센터 통번역 담당(15명)을 의미한다. 즉, 언어별 해당 국가 출신으로 모국어 및 한국어 구사가 가능한 사람이나 대졸 이상의 결혼이민자를 강사로 활용하였다.

□ 실천 사례 분석 : 2개 시범운영센터

지역차원의 결혼이민자 부모 출신국 언어 교육지원에 대한 사례 분석을 위해 대도시 소재 1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농촌 소재 1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 두 기관의 이중언어 교실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B(대도시 소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베트남어반

- ① 수업일시 : 5월 25일~11월 10일(6개월) 15시 30분~16시 30분
- ② 참가대상 : 5세 이상 12세 미만의 아동(다문화가정 아동 우선 선발)
- ③ 수업장소 : B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④ 신청방법 : 전화신청 선착순
- ⑤ 주 최 : B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⑥ 수업내용

	언어교실	문화체험교실	문화탐방
내용	베트남어의 기초, 간단회화, 생활언어 학습 및 즐거운 게임	동요댄스나라, 베트남음식 만들기	베트남 대사관, 베트남 음식점 방문

- 중국어반

- ① 수업일시 : 8월~12월, 매주 토 1시~2시 30분
- ② 참가대상 : 5세 이상 12세 미만의 아동(다문화가정 아동 우선 선발)
- ③ 수업장소 : B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④ 신청방법 : 전화신청
- ⑤ 주 최 : B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언어교실	문화체험교실
내용	중국어의 기초, 간단회화, 생활언어 학습 및 즐거운 게임	동요댄스나라, 중국음식 만들기

○ E(농촌 소재)다문화가족지원센터

- 베트남어 교실

- ① 수업일시 : 매주 화요일 오후 4시~6시
- ② 참가대상 : 만 3세~초등학교 재학생, 10~15명
- ③ 수업장소: E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④ 신청방법: 전화
- ⑤ 주최 : E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담당자 면담을 통한 구체적 교육지원 현황 파악

담당자와의 면담을 통한 구체적인 교육지원 현황은 E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사례만을 수집할 수 있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표 Ⅲ-12>과 같다.

- 현황개요

<표 Ⅲ- 12> E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베트남어 교실

비교 항목			한국
취지 및 목적			- 결혼이주여성의 보유 자원 활용을 통한 지역사회봉사와 결혼이주여성가정 자녀의 이중언어교육 실시로 미래의 건강한 학습경쟁력 확보, - 어머니나라의 문화와 언어를 배우고 익힘으로써 자기 정체성과 자아존중감을 확대함
주관 기관(행·재정 지원)			여성가족부
운영 기관			E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방법	직영/위탁		직영
	거점/단위학교		익산다문화가족지원센터(거점센터- 이중언어교실은 전혀 관련 없음)
	실시 유형		48회기(일주일에 한 번(화요일))
	교육자		베트남통번역사/ 베트남 이주여성 2명/ 담당선생님
	학습자		총 15명(취학전 5명 포함, 일반가정 5명 포함)
교육 과정	지도 언어		베트남어
	교재	개발	2009년도 몽골어 이중언어교실 교육 책자 개발 2010년도에는 개발된 것 없음(베트남)
		내용	기초 몽골어, 몽골문화

76 ─ 다문화가족 자녀의 결혼이민 부모 출신국 언어 습득을 위한 교육지원 사례 연구

비교 항목		한국
	교육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적인 베트남어 수업을 진행하고 주로 베트남 문화, 아시아 문화 체험 위주로 수업 진행 - 간단한 강의 자료, CD, 인터넷 자료 등을 활용하여 아이들이 쉽게 다가올 수 있는 방법을 수업에 반영
학생의 수업 참여 조건	신청 자격 조건	- 다문화가족 자녀 및 일반가정 자녀 중 만 3세부터 초등학생
(6번과 연계)	학교장의 지원	
	자원봉사·도우미	
	물리적 지원	사업단 예산
	기타	
(4번과 연계)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중언어교육의 실시로 인해 어머니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계기 마련 - 수업과정의 프로그램을 언어와 문화를 재미와 놀이를 통해 진행함으로써 흥미와 관심 유발 - 결혼이주여성 출신으로 주강사와 보조강사가 수업을 진행하여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베트남 문화에 다가갈 수 있으며, 어머니들이 수업을 진행하다보니 아이들에게 좀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음. - 베트남어 통번역지원사가 배우면서 이중 언어 교실을 진행하는 경험을 얻을 수 있고, 이 경험이 쌓이게 되면 좋은 인적자원이 될 수 있음.
	문제점	- 베트남어 통번역지원사가 본 업무 외에 이중언어교실 수업까지 진행하는 것이 업무과중이라는 문제점
기타		

- 심층면담 결과

담당자와의 심층면담결과 다음과 같은 차이를 발견하였다.

<표 III- 13> E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베트남어 교실 2009년도와 2010년 차이점

	2009	2010
언어권	몽골어	베트남어
사업기간	7~8월(1개월간)	4~10월(6개월간)
프로그램 진행회기/시간	10회기/1시간	48회기/1시간
프로그램 주강사	해당언어 통번역지원사	해당언어 통번역지원사
프로그램 보조강사	한국인 1명	베트남 이주여성 2명
프로그램 연계기관	E지역아동센터	E지역아동센터

2009년 예산이 200만원이었는데, 2010년에는 조금 더 증가하였다. 지도언어가 바뀐 이유는 특별하게 없으며, 2009년 몽골어를 해봤기 때문에 2010년에는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아울러 E지역에는 몽골 출신보다 베트남 출신이 꾸준한 증가 추세를 띄고 있어 베트남어로 하였다.

<지역적 배경 및 학습자(아이들)의 가정 환경>

E지역은 영유아, 초등학생을 포함해 다문화가정 아동이 총 204명이었다. 이 지역은 대표적인 농산촌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전라북도의 강원도라 할 만큼 주위에 많은 산들이 있어서 좋은 경치를 가지고 있지만 여러 가지 문화와 예술, 교육의 불모지라 불리는 산골이다. 인구는 2만 명이 조금 넘어 아주 작은 반면, 면적은 넓어 이동거리가 긴데 반해 교통편이 좋지 못해 이주여성과 학생이 움직이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이중언어교실에 참여하는 아이들은 대부분 이주여성들의 아이들이며, E지역 아동센터와의 연계로 일반가정의 아이들도 있었다. 교육적인 환경이 열악해, 이주여성 대부분의 가정이 그렇듯 농사일을 하는 가정이 많아 어머니와 아버지는 농사일에 바빠 아이들의 교육을 돌봐주기에 어렵고 아이들 역시 교육적인 부분에 있어 미진한 상태이었다.

<교육과정, 교육내용, 운영방법>

이 곳 이중언어 교실은 언어를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엄마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문화체험 위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엄마나라, 아빠나라 문화의 같은 점은 무엇이고, 차이점은 무엇인지, 엄마나라 문화의 특징은 무엇인지 등을 가르치고 있었다. 예를 들어, 한국 국기와 베트남 국기를 그려보면서 서로 차이점을 실질적으로 체험하면서 이해할 수 있게 하였으며, 어느 한 나라의 문화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두 나라의 문화를 서로 이해하며 아이들이 스스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진행하도록 노력하였다. 언어 수업이 딱딱해 질 수 있고, 아이들이 참여할 때는 지루해질 수 있기 때문에 될 수 있는 한 놀이를 하면서 아이들이 언어를 배울 수 있게 한다는 특징이 있었다.

<학생들의 만족도>

학생들 대부분은 이중언어 교실에 대해 만족하고 있었다.

<개선점>

베트남 통번역사가 주강사로 활동하지만 강의계획을 세우고, 강의 자료를 만드는 등 강의를 준비할 때 필요한 자료를 인터넷에서 찾거나 문서를 편집하거나, 정보활용 능력이 부족하여 원활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또한 교육이나 강의를 전혀 해 본 적이 없는 결혼이주여성이 수업을 진행할 때 아이들에게 효과적인 교육 진행을 할 수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중언어교실 주강사, 보조강사, 담당실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강사 워크숍이 요청되었다.

이중언어 교실 프로그램 초기에 대상자를 모집할 때, E초등학교와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진행하려 했으나 어려움이 있었다.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대상자의 연령 층이 같은 학년이거나 비슷하면 수업을 진행할 때 포커스를 맞추기 쉬워 수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 E초등학교에 협조를 구했지만, 학교 내 방과 후 교실 프로그램과 겹쳐 같이 진행되지 못했다.

현재는 E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하지만 연령대가 다양하여 아이들의 수준도 맞추기 힘들고 관심과 흥미도 다양하여 수업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E지역의 특성상 이동거리가 멀어 아이들이 일주일에 한두 번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버스를 타고 다녀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중언어교실을 진행 할 수 있는 매뉴얼이나 워크북 개발이 필요하며 학생모집을 위해 교육청이나 사업단 또는 공신력 있는 교육기관의 추천 및 안내 협조가 요청되었다. 이중언어교실의 언어 선택권이 아이들의 선택에 기초해야 한다고 보며, 언어 교육의 여건상 몇 개월에 한정된 교육이 아닌 좀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계획을 세워 이주여성과 다문화를 위한 교육의 장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지역 내 유관기관, 프로그램과의 연계>

학생의 경우, E초등과의 연계가 어려워 현재 특별한 연계는 없고, 자체 운영하고 있었다. 어머니들 경우는 이주여성취업과 연계하고 있었다.

2) 하나 토요 베트남 학교

다음은 민간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지역 사례이다. 이는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Kids of Asia’ 프로젝트에 대한 내용으로, 추진되고 있는 ‘하나 토요 베트남 학교’에 대해 살펴보면 <표 III-14>과 같다. 이 프로젝트는 다문화가정의 아동을 대상으로 양국의 언어와 문화를 가르쳐 건강한 정체성을 확보하며, 글로벌 인재로 육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거점학교로는 서울, 인천, 안산의 학교들을 들 수 있다. 매주 토요일에 수업이 있으며, 수업시간에는 수준별 베트남어 교육과 문화체험 교육을 한다. 2008년에 시작하여 3년째 진행해오고 있다. 베트남 다문화가정의 아동이 교육 대상이며, 서울에 15명, 인천에 25명, 안산에 20명이 있다. 교육자는 유학생이나, 학부모가 하며, 교재는 총 11권을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다. 교육 효과로는 학생이 베트남에 대해 더 자세히 공부하며, 정을 갖게 되고, 베트남의 할머니와 할아버지와도 의사소통을 함으로써 가족간에 유대가 깊어지는 것을 들 수 있다. 어머니들의 만족도도 높고, 어머니 자신의 자신감도 향상되었다. 문제점으로는 가정에서 이중언어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과, 훌륭한 교사의 부재, 또한 고학년의 경우 학습량의 과다로 스트레스를 받기도 한다는 점이다.

<표 III- 14> 하나 토요 베트남 학교

비교 항목		한국
취지 및 목적		다문화가정 아동들을 대상으로 어머니 나라의 말과 문화를 당당히 접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다문화가정이라는 특성이 차별의 이유가 되지 않고 양국의 언어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다는 강점으로 개발되어, 다문화가정 아동들이 건강한 정체성을 갖고 더 나아가서는 글로벌 인재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다문화가정 아동지원 사업임.
주관 기관(행·재정 지원)		세이브더칠드런, 하나금융그룹 공동
운영 기관		세이브더칠드런
운영 방법	직영/위탁	세이브더칠드런 본부 (서울 마포구 창전동)
	거점/단위 학교	1) 서울 하나토요베트남학교 - 세이브더칠드런 본부 2) 인천 하나토요베트남학교 - 세이브더칠드런 인천시아동복지종합센터 3) 안산 하나토요베트남학교 - 세이브더칠드런 경기지부 안산
	실시 유형	· 내용 : 그룹식 언어교육 - 수준별 베트남어 교육 체험식 다문화 교육 - 한국문화와 베트남문화 비교교육

비교 항목		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 둘째, 넷째 토요일 10:30~15:00 첫째, 셋째 토요일 14:30~16:30 ※ 운영일시는 지역 학교별로 다를 수 있음.
	실시 시기	2008년 11월부터, 3년 지속 지원 계획
	교육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한 베트남 유학생(베트남 학사 이상, 한국 석박사 과정) · 베트남인 어머니(한국어 능력 시험 중급이상)
	학습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트남 다문화가정 아동 · 총 60명 : 서울 15명, 인천 25명, 안산 20명
교육 과정	지도 언어	베트남어
	교재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등학생을 위한 베트남어 교재 개발 (총11권) - 기초 베트남어 1,2 - 내가 사랑하는 베트남어 1,2,3 - 베트남 문화 1,2,3 - 학부모·교사용 학습지도안 1,2,3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트남어와 베트남과 한국 문화 비교 · 수준별로 심화시키는 장기적 교육 프로그램
	교육 방법	그룹식 언어교육, 체험식 다문화교육
학생의 참여 조건	신청 자격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 서울, 인천, 경기 지역 · 다문화 배경 : 베트남 (한국인 아버지 + 베트남인 어머니)
운영 지원	자원봉사·도우미	멘토 활동자 40명
	물리적 지원	세이브더칠드런 (지역 토요베트남학교 별로 3~4개의 교실 운영)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서울, 인천, 안산 3개 지역의 하나토요베트남학교 운영 · 연중 프로그램 : 야외체험(4회), 캠프(1회), 송년행사(1회), 부모교육 및 참여(4회), 멘토 교육 및 간담회(월2회)
교육 효과	효과	1) 아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엄마 나라 언어와 문화를 배우면서 다문화가정에서 태어난 내가 소중한 존재이며, 한국과 베트남에 대해서 다른 아이들보다 많이 알게 되어 자랑스럽다. - 베트남에 계신 외할머니, 할아버지, 친척들과 짧게나마 전화통화도 할 수 있어 무척 기뻐다. - 커서 베트남과 한국을 연결하는 그런 일을 하고 싶다. 2) 학부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이가 엄마 나라의 노래와 언어를 배워와 베트남어로 조금씩 의사소통을 시도하면서 자신이 가진 점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 엄마로서 뿌듯함도 느끼며, 가족 간의 유대 관계도 훨씬

비교 항목		한국
		<p>가까워졌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이가 엄마 나라에 대해 알고, 부끄럼기보다는 오히려 당당하게 받아들여주니 엄마로써 더욱 자신감이 생겼다. <p>3) 교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처음엔 아이들이 베트남어를 배우는 것에 반대하는 아버지도 일부 있었지만 이젠 베트남어를 배운 뒤로 엄마와 간단한 회화 등을 주고받으면서 더욱 가까워졌고 가족 간 화합에도 큰 도움이 된 사례가 많아졌다 - 베트남 어머니들로부터 고맙다는 문자를 받고 뿌듯해졌다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 내 이중언어 활용 등, 가정으로부터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나, 프로그램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져 이에 대한 협조가 부족한 실정임 · 고학년 아동들의 경우, 학교 교과과정 수행과 더불어 본 프로그램까지 소화하는데 시간적으로 학습적 스트레스를 느끼는 편임 · 원어민교사 및 멘토 활동자의 잦은 교체, 변동과 같은 인적자원 수급 및 관리의 어려움
기타		세이브더칠드런, 유아대상 - 이중언어지원사업 진행 중
향후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국가의 아동들로 대상을 확대하여 각 나라에 맞는 이중언어 및 다문화 교육프로그램 및 각종 교육매체를 개발하여 보다 많은 다문화가정의 아동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 · 세이브더칠드런 산하기관의 어린이집이나 일반 어린이집, 전국의 다문화지원센터에 세이브더칠드런에서 개발한 이중언어 및 다문화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언어적, 인지적 발달의 결정적 시기에 있는 영유아들의 균형 있는 발달을 지원 예정 · 가정으로 교사를 파견하여 다문화가정의 이중언어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 · 부모 대상의 교육과 한국어/모국어 전래동화 읽기 코칭, 다문화 서적 대여 등 다양한 이중언어 지원 사업 준비 · 교사와 부모 및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다문화 인식개선 교육 및 다문화 자녀 권리교육을 하여 다양한 문화와 언어가 공존하고 서로 교류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 일조를 하고자 함

3) 무지개청소년센터 운영 이중언어교육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주관, 무지개 청소년센터에서는 “문화예술활동을 통한 이중언어 역량개발 프로그램 - “안녕하세요, 꾸무스타까?”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다문화가정 아동 14명과 일반가정 아동 7명을 대상으로 매주 수요일에 이루어진다. 필리핀 이주여성이 필리핀어(타갈로그어) 뿐 아니라 문화예술

활동을 통한 필리핀 문화 이해교육을 수행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III- 15> 무지개청소년센터 이중언어교실

비교 항목		한국	
취지 및 목적		- 아이들이 즐겁고 친숙하게 접근할 수 있는 문화예술활동을 통한 이중 언어 역량개발 프로그램을 진행, 아동청소년들의 건강한 다원적 정체감 형성 및 글로벌 시대 리더로서의 성장을 지원	
주관기관(행·재정지원)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운영기관		무지개청소년센터, 살레시오다문화교육센터, 서울시립 청소년직업 체험센터(하자센터)	
운영 방법	직영/위탁	직영	
운영 방법	거점/단위 학교	무지개청소년센터	
	실시 유형	매주 수요일 16:30~18:00(기초필리핀어교육 16주, 타악기교육 6회, 다문화 이해교육 및 필리핀 문화이해교육 6회)	
	교육자	필리핀 이주여성 2명(기초필리핀어 강사, 필리핀문화이해교육 강사) 음악강사 3명(작곡 및 편곡, 기타반주, 타악기 교육) 보조강사 2명(공동체 놀이 등 프로그램 진행/관련 학과 대학원생)	
	학습자	초등학생 21명(다문화가정 아동 14명, 일반가정 아동 7명)	
교육 과정	지도 언어	- 필리핀어(따갈로그어) - 따갈로그어 이해를 돕기 위해 한국어, 영어, 따갈로그어(3중 언어로 진행)	
	교재	개발	2010년 필리핀 이중언어교육 매뉴얼 개발 중
		내용	- 수업 교안 - 기초필리핀어 회화 수업에서 활용한 동요악보 및 CD 제작 - 필리핀 문화이해교육 자료
		교육 방법	- 공동체 놀이를 통한 지난 시간에 배운 기초 필리핀어 복습 - 노래와 율동, 다국의 타악기 연주를 통해 기초 필리핀어 학습 - 전통놀이, 그림, 음식 등을 활용한 필리핀 문화 이해교육 실시
학생의 수업 참여 조건	신청 자격 조건	- 다문화 가족 자녀 및 일반가정 자녀 중 초등학생	

비교 항목		한국
운영 지원	학교장의지원	
	자원봉사·도우미	
	물리적 지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2010 지역 다문화 프로그램 지원사업
	기타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나라의 언어 및 문화이해교육을 통해 다문화아동청소년들이 자신의 문화적 배경을 장점으로 인식함으로써 건강한 다원적 정체감 형성 - 다문화가정 및 일반가정 아동청소년의 또래관계를 증진시키고, 다양한 문화에 대한 수용력, 다문화적 감수성을 향상시켜 학교 교실내 차별 및 편견 감소 효과를 가져 옴 - 다문화가정 아동의 엄마인 필리핀 이주 여성이 직접 기초필리핀어 수업을 진행함으로써 이중언어 교육 역량이 개발됨 - 이중언어수업의 내용을 매뉴얼화하여 제작·보급함으로써 각 지역의 이중언어 교육의 중요성 및 교육방법 전수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리핀이주여성 강사와 음악강사, 보조강사들의 수업준비모임을 통한 커뮤니케이션 및 수업 역할 분담이 매우 중요함 - 수업시간 외에 일상생활에서도 필리핀어를 자주 사용할 수 있도록 환경이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
	기타	

또한 프로그램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Ⅲ- 16> 무지개청소년센터 이중언어교실 프로그램 세부 내용

일자	주제	수업 내용
5/12	기초 필리핀어(1)	· 인사노래 익히기(Hello Song, Good bye Song)
5/19	기초 필리핀어(2) 알파벳	· 따갈로그어 알파벳 배우기
5/26	부카스 둠바(1) 다문화이해교육(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카스 둠바: 타악 연주 활동 · 기본 리듬 몸으로 따라하기 - 다문화이해교육(1) · 인종, 국가 등에 대한 편견 깨기 · 다양성의 존중
6/2	선거일	

일자	주제	수업 내용
6/9	기초 필리핀어(3) 인사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따갈로그 알파벳 복습 - 기본 인사말 배우기(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침인사, 오후인사, 저녁인사 ·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6/16	기초 필리핀어(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 인사말 배우기(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잘 지내요? · 이름 묻고 답하기 “ 너 이름이 뭐야? 내 이름은 ___야”
6/23	부카스둠바(2) 한-필 문화이해교육(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카스 둠바: 타악 연주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나라의 타악기 이름, 악기 소리 익히기 - 한-필 문화이해교육(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리핀, 한국 국가 개요: 지도, 국기, 인구, 기후, 언어 등
6/30	야외현장학습	
7/7	기초 필리핀어(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 관련 단어 익히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누나, 형, 동생, 삼촌, 고모, 이모
7/14	기초 필리핀어(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숫자 익히기 - 나이 묻고 답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너 몇 살이야? 난 ___살이야
7/21	다문화 음악 캠프 주간 *7/23~25	
7/28	부카스둠바(3) 한-필 문화이해교육(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카스 둠바: 타악 연주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래에 맞추어 타악기 연주하기 - 한-필 문화이해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필리핀 역사, 역사적 관계
8/4	기초 필리핀어(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 묻고 답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 분 / 지금 몇 시야?
8/11	기초 필리핀어(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일 익히기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 화, 수, 목, 금, 토, 일 · 오늘 무슨 요일이야? 오늘은 ___요일이야
8/18	기초 필리핀어(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정표현 단어 익히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좋아요, 싫어요, 기뻐요, 슬퍼요.....
8/25	부카스둠바(4) 한-필 문화이해교육(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카스 둠바: 타악 연주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악기를 활용한 필리핀 동요 연습 - 한-필 문화이해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리핀 정치, 사회, 생활모습 등
9/1	기초 필리핀어(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일 단어 익히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과, 포도, 바나나, 배, 수박,.... · 나는_____를 좋아해요

일자	주제	수업 내용
9/8	기초 필리핀어(11)	- 취미 말하기 · 운동, 축구, 노래하기, 요리하기.....등 · 나는_____을 좋아해요. 나는_____을 잘해요
9/15	기초 필리핀어(12)	- 계절 관련 표현 익히기 · 봄, 여름, 가을, 겨울 · 나는_____을 좋아해요. 나는_____을 잘해요
9/22	추석	
9/29	부카스둠바(5) 한-필 문화이해교육(4)	- 부카스 둠바: 타악 연주 활동 · 타악기를 활용한 필리핀 동요 연습 - 한-필 문화이해교육 · 전통문화(노래, 춤), 놀이문화
10/6	기초 필리핀어(13)	- 학교생활 관련 단어 익히기 · 학교, 선생님, 학생, 교실, 숙제, 친구 등
10/13	기초 필리핀어(14)	- 학교생활 관련 표현 익히기 · 나는 _____학년 _____반입니다. 나는 _____학교에 다녀요.....
10/20	기초 필리핀어(15)	- ‘무엇’을 활용한 묻고 답하기 ·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_____입니다.
10/27	부카스둠바(6) 한-필 문화이해교육(5)	- 부카스 둠바: 타악 연주 활동 · 타악기를 활용한 필리핀 동요연습 - 한-필 문화이해교육 · 필리핀 음식 문화 체험
11/3	기초 필리핀어(16)	- 3개국어(한국어, 필리핀어, 영어)로 자기소개 해보기

다. 의견조사를 통해서 본 이민자 부모 출신국 언어교육

1) 교사대상 설문조사

서울시 이중언어 강사와 주말학교 관계자 총 43명을 대상으로 이민자 부모 출신국 언어교육에 대한 의견(수업, 강사교육, 학생특성, 학교지원환경 등)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이중언어 강사가 된 이유

이중언어 강사를 하게 된 이유에 대해, 43명 중 21명(48.8%)은 ‘다문화가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라고 응답하였으며, 13명(30.2%)은 ‘보람을 느끼는 일을 하고

싶거나 이주여성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싶어서’, ‘사회활동 경험을 쌓고 싶어서’, ‘한국에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싶어서’ 등 이주여성으로서의 자신을 위해 하게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6명(13.9%)의 강사는 ‘교사로 활동했던 경력이 있기에 그 능력을 활용하고 싶어서’, ‘자신 나라의 언어와 문화를 알리기 위해서’라는 이유를 들었고, 이외에도 ‘평소 교육에 관심이 있거나 적성에 맞아서’, ‘안정된 직장을 갖고 싶어서’라는 응답이 있었다. ‘생활비에 보탬이 되는 등 경제적 이유’라고 답한 사람도 2명(4.6%)이 있었다.

○ 수업에 대한 의견

조사에 참여한 이중언어 강사 전체 43명 중 37명(86.0%)이 현재 학교에서 이중언어 수업을 하고 있었다. 이중언어 수업에 사용하는 교재는 직접 제작[37명(86.0%)]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서점에서 구입[22명(51.1%)]하는 경우가 그 다음으로 많았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이중언어 수업은 주로 방과후 시간[30명(69.7%)]에 이루어졌다. 이중언어 강사중 48.8%정도가 수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으며, 그 이유로 ‘교구 구입의 어려움[20명(46.5%)]’,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추기가 어려워[12명(25.5%)]’, ‘교수법이 다양하지 못해서[8명(18.6%)]’, ‘수업지도안 작성이 어려워[6명(13.9%)]’ 등이 제시되었다. 수업에 필요한 보충자료는 ‘직접 제작[9명(20.9%)]’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수집[8명(18.6%)]’, 혹은 ‘서점에서 관련 자료를 구입’함으로써 해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중언어 강사 카페(동호회)를 통해 24명(55.8%)’ 강사들이 상호 도움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 강사교육·연수

“최근 다문화교육 연수를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전체 43명의 응답자 중 25명(58.1%)이 있었다고 답하였다. 교사 연수가 제공된다면 무엇을 가장 먼저 배우고 싶은지에 대한 질문에 전체 43명 응답자 중 25명(58.1%)이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거나 게임, 놀이를 활용하는 교수법’을 배우고 싶다고 답했으며, 8명(18.6%)은 ‘아동심리나 학생들과 상담하는 법’, ‘학생들을 지도하는 요령’등을 배우고 싶다고 하였다. 7명(16.2%)은 ‘교재나 교구의 개발법’을, 4명(9.3%)은 ‘일반 교사들이

사용하는 교육자료나 연수 등에 접근, 공유'할 수 있기를 원하였다. '다른 학교의 이중언어 교육 성공이나 실천 사례를 공유하여 활용하고 싶다'는 응답과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교육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알고 싶다'는 응답은 각각 2명(4.6%)이었다.

○ 학생의 학습: 이중언어 학습에 있어 학생 개인차가 생기는 이유

학생 중에는 이중언어 교육을 함에 있어 수업을 잘 따라오는 학생과 그렇지 못한 학생이 있게 되는데, 그 차이가 왜 생긴다고 보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응답한 이중언어 강사 43명 중에 22명(51.1%)이 '학생의 동기', 16명(37.2%)이 '가정에서의 모국어 지도의 유무', 13명(30.2%)이 '부모의 열의', 6명(13.9%)이 '지적능력(IQ)'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이전에 모국어를 전혀 접해보지 못한 학생들에게 이중언어 교육을 처음으로 시작했을 때, 이들 학생들이 보이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응답자 43명중 14명(32.5%)이 '이중언어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즉 동기부족으로 어려움을 보인다고 응답하였으며, 13명(30.2%)은 '학생들이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데에 있어서 발음이나 쓰기 등을 어려워해서' 라고 응답하였다.

수업이 진행됨에 따라 학생들이 보이는 변화에 대해, 응답자 43명중 15명(34.8%)이 '이중언어 교육에 흥미를 가지고 열심히 배우려는 의지를 보인다'고 답했으며, 이 외에 '두 가지 언어를 구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긴 것'과 '다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고 관심을 가지게 된 것', 실제 학생의 이중언어 구사능력이 향상된 것' 등을 지적하였다. 학생이 활동적이고 명랑해지는 등 성격이 개선되고, 학생 스스로 이중언어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며, 결혼이주 어머니와의 관계가 개선된 것 등도 언급되었다.

이중언어 수업을 중간에 그만 둔 학생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응답자 43명중 15명(34.8%)이 있다고 했으며, 중간에 그만 둔 이유로 이중언어 강사는 학생들이 '학교 보충수업에 참여'하거나 '학원에 가야 하기에', '언어를 배우는 것이 어렵고 재미없어서', '자신이 다문화가족인 것을 알리기 싫어서' 등을 제시하였다. 부모의 열의 부족도 이유로 제시되었다.

학생과의 관계에서 이중언어 강사들이 가장 어려워 한 점은 학생의 동기 부족과

흥미나 집중을 보이지 않는 점, 학생과의 친밀한 관계유지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이 언어 배우는 것을 어려워하는 것, 강사 자신의 교육경험 부족으로 인한 학생의 심리 이해 부족 및 대응 방법 미숙, 학급 내 학생의 수준차가 심한 점 등도 어려운 점으로 지적되었다.

○ 학교의 지원 환경

현재 수업하고 있는 학교에서 이중언어 교육을 어떻게 실시하게 되었는지를 질문한 결과, 응답자 43명중 19명(44.1%)이 학교의 필요에 의해 실시하게 되었다고 하였으며, 17명(39.5%)은 학생이나 가정의 요구에 의해 하게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수업 때, 강사를 지원하는 자원봉사자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응답자 43명중 9명(20.9%)만이 있다고 하였다. 수업을 하기 전에 학교에서 이중언어 수업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한 경우는 응답자 43명 중 12명(27.9%)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에 대해 강사들은 ‘향후 수업내용에 대해 안내할 수 있었다’, ‘이중언어 교육의 중요성을 알릴 수 있었다’, ‘학부모의 자녀 학교생활 지도에 도움이 되었다’, ‘교사의 자신감을 고취시킬 수 있었다’, ‘학생 개개인의 요구를 파악할 수 있었다’는 것, ‘학생과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었다’ 등을 제시하였다.

이중언어 교육을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개선해야 할 점으로 이들은 ‘학교나 교육청의 정책의 변화’, ‘가정에서의 인식 변화’, ‘선생님의 교수법 변화’ 등을 지적하였으며, 이외에도 ‘교육자료(교재) 마련’, ‘주 2회 이상 수업 필요’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수업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학교나 교육청에서 꼭 해주었으면 하는 내용으로 이중언어 강사들은 ‘교재, 교구, 학습지 등과 같은 교육 자료의 개발 및 지원’을 요청하였으며, ‘학교 측이나 일반 교사들의 이중언어 교육에 대한 인식 개선’, ‘이중언어 강사들끼리 연수를 받거나 연구할 수 있는 시간 마련’, ‘이중언어 교육에 대한 예산 확충과 강사 처우 개선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안정적인 수업장소나 학습자료 등에 대한 학교의 지원’, ‘이중언어 교육의 필요성 홍보’, ‘이중언어 교육에 대한 정책적 지원’, ‘다문화가정 학부모교육’, ‘수업시수 확충’, ‘다문화가정의 자녀가 어렸을 때부터의 교육’ 등도 제안되었다.

○ 자녀 모어교육

끝으로 이주언어강사 중 자녀가 있는 경우 자신의 출신국 언어를 가르치고 있는 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 34명 중 18명(52.9%)이 자녀에게 자신의 모어를 가르치고 있었으며, 8명(23.5%)은 가르칠 계획이라고 하였다. 응답자 중 자녀가 2세 이하일 때부터 모어를 가르친 경우는 39%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2) 학부모 대상 설문조사

경기도 ○초등학교 주말학교 학부모 16명을 대상으로 이민자 부모 출신국 언어 교육에 대한 의견(교육동기, 가정에서의 지도여부, 주말학교 교육에의 만족도와 요구 등)을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 중요 결과

조사결과, 주말학교 학부모 대부분(12명)은 자녀에게 자신의 출신국 언어를 가르치기 위해 주말학교에 보낸다고 하였으며, 가정에서 전혀 어머니나라 말을 자녀에게 가르치지 않은 경우는 2명뿐이었고, 대개(11명)는 가끔이라도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 어머니 중 절반은 1세부터 가르쳤으며, 6명의 어머니는 5세부터 가르쳤다고 하였다.

주말학교를 다니면서 자녀가 보인 중요한 변화로 이들 어머니들은 ‘엄마나라에 관심을 가짐(6명)’, ‘스스로 인사말을 함(3)’, ‘엄마 말을 알아들음(3)’, “엄마에 대해 자랑스러워함(3)”을 들었다. 어머니의 경우는 ‘모국어를 섞어서 말함(7)’, ‘자녀에게 모국어를 가르쳐야 한다는 부담감이 줄어들(2)’, ‘뿌듯함(2)’을 자신의 중요 변화 사항으로 지적하였다. 가정에서의 아버지 역시 엄마나라 말을 사용하거나 엄마나라에 대해 관심을 갖고 존중하는 등의 변화를 보였다고 한다. 주말학교 교육에 대해서는 응답자 14명이 만족해 하였으며, 향후 더 가르쳐주길 원하는 내용으로 엄마나라 음식(4)과 문화(3)를 지적하였으나, 7명의 어머니는 이에 대해 응답하지 않았다.

3) 학생 의견 조사

경기도 ○학교 무지개주말학교 학생 29명을 대상으로 1학기 수업을 마친 후, 이들의 수업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다. 학생들의 언어표현이 부족한 것을 고려해 3가지를 질문 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의 <표 III-17>과 같다.

<표 III- 17> 경기도 ○학교 주말학교 교육대상 학생 의견

반	가장 기억에 남는 것	수	더 배우고 싶은 것	수	자신이 달라진 점	수
태국어반 (총 4명)	태국어를 배운 것	3	태국어를 더 배우고 싶다	3	엄마와 태국어로 이야기 할 수 있다	2
	퍼즐로 공부한 것	1	퍼즐, 퀴즈로 공부	1	태국어를 잘 한다	2
			전통을 배우고 싶다	1	자신감이 생겼다	1
중국어반 (총 7명)	중국어 배운 것	4	동물 이름	2	중국어를 알게 되었다	3
	중국어 노래	2	중국어 쓰는 법	2	중국어로 말할 수 있다	1
	국기 만들기	1	활동 통한 공부	2	중국어를 잘 한다	1
			영어	1	중국에 가고 싶다	1
캠프			1			
필리핀어 반 (총 9명)	노래	6	캠프	5	필리핀어를 잘 한다	2
	필리핀어 배운 것	5	필리핀에 가고 싶다	2	엄마와 대화할 수 있다	2
	박물관 견학	2	놀이공원	2	엄마 나라에 가고 싶다	2
					자신감이 생겼다	2
					아빠와 대화할 수 있다	1
					아빠 나라가 자랑스럽다	1
					다른 다문화가정 아이들과 친해졌다	1
일본어 A반 (총 4명)	만들기	2	영어	2	일본어를 알게 되었다	2
	일본어 쓰기	1	일본어	1	일본 방문	1
	노래	1	캠프	1	재미있다	1
	견학	1	만들기	1		
일본어 B반 (총 5명)	일본어 배운 것	3	놀이공원	2	일본어를 잘 할 수 있다	2
	만들기	1	중국어	1	일본어를 알게 되었다	1
	영어	1	캠프	1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	1
					엄마 나라가 자랑스럽다	1
영어 노래를 할 수 있다	1					

<표 Ⅲ-17>에 제시한 바와 같이 학생들은 가장 기억에 남는 것으로 태국어, 중국어, 필리핀어, 일본어 등 어머니나라 말을 배운 것(15명)으로 지적하였으며, 자신이 달라진 점에 대해서는 ‘엄마와 이야기 할 수 있다’, ‘어머니나라(태국어, 중국어, 필리핀어, 일본어) 말을 할 수 있다’, ‘자신감이 생겼다’, ‘중국이나 일본에 가고 싶다’ 등의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변화를 보여주었다.

IV

일본 사례



1. 교육지원의 배경

일본의 모어교육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 대상과 목표를 달리 하며 다양한 형태로 실행되고 있다. 일본에서 외국에 뿌리를 가진 아동·학생을 대상으로 한 모어교육의 시작은 1948년 조선학교의 폐지가 가져 온 재일코리언학생의 교육 기회의 박탈에 대한 반발을 수습하기 위해 실시한 ‘민족학급’ ‘민족동아리’의 활동에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1948년 설치된 ‘민족학급’은 민족 차별로 감소되다가 1972년 ‘민족 교육 보장’의 주장으로 다시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민족학급’ ‘민족동아리’는 재일코리언을 중심으로 한 모어교육으로 2009년 현재 93개 학교(초·중학교)에 설치되어 민족 교육의 일환으로서의 민족정체성 확립을 목표로 한국어·조선어 학습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한편 1980년대 이후부터 일본에 들어오기 시작한 ‘뉴커머(new-comer)’라 불리는 외국에 뿌리를 가진 아동·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모어교육은 ‘국제학급’ ‘국제교실’과 ‘순회지도’의 형태로 실시되었다.

뉴커머의 일본 유입은 세 단계의 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1980년대 전반까지는 필리핀여성을 중심으로 한 흥행의 재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여성 노동자의 유입이다. 다음으로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기까지는 인도네시아난민, 중국전쟁잔류고아귀국자2세·3세(이후 중국귀국자), 미국·유럽으로부터의 주재원, 일본계남미인, 외국인노동자 등이 중심이 되었다. 마지막으로 1990년대 초기 이후는 국제결혼과 함께 ‘입국관리법’의 개정을 계기로 일본계남미인, 중국귀국자가 증가한다.

뉴커머는 주로 공장과 같이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지역으로 집중하여 집주지역을 형성하게 되고, 뉴커머와 함께 일본에 들어온 외국에 뿌리를 가진 아동·학생들을 비롯하여 일본에서 출생한 아동·학생의 증가로 외국인아동·학생의 교육에 관심이 집중하게 된다. 외국에 뿌리를 가진 아동·학생의 교육에 대한 관심은 주로 일본어의 습득에 집중되고 있지만, 이들 교육의 다양한 문제점을 모어교육과의 관련 속에서 인식하기 시작한다.

재일코리언학생의 모어교육이 민족정체성의 확립을 목적으로 한 반면, 뉴커머와 함께 일본에 들어 온 외국에 뿌리를 가진 아동·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모어교육은 가정 커뮤니케이션의 회복, 제2언어인 일본어의 원활한 습득, 학습능력 향상, 모

어와 모국에 대한 관심과 자긍심, 정서적 안정 등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실시되고 있다.

이러한 뉴커머의 지역적 특성과 다양한 목적에 따라 지자체 방침에 의해 모어 교육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도 있다. 모어교육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으로 효고켄, 오사카후, 아이치켄, 가나가와켄 등이 있다. 효고켄은 ‘인권교육기본방침’과 ‘외국인아동·학생에 관한 교육방침’을 바탕으로, 어린이 다문화 공생 교육을 추진하면서, 2003년에 ‘어린이다문화공생센터’를 설치하였고, 2006년부터 ‘뉴커머외국인아동·학생에 대한 모어교육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1993년 고베에서 발생한 한신대지진은 구제활동을 하는 가운데 외국인의 존재를 인식하게 되었고 이후 효고켄의 외국인 정책에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오사카후도 오사카후교육센터가 중심이 되어 적극적으로 모어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재일코리언이 집주하고 있는 오사카후는 1992년 ‘국제화 추진 기본 방침’을 책정한 이후, 2002년 ‘모든 사람이 인간의 존엄과 인권을 존중하고, 국적·민족 등의 차이를 인정하여 함께 살아가는 공생사회의 실현’을 중심 내용으로 하는 ‘재일 외국인 시책에 관한 지침’의 책정까지 다문화 공생의 관점으로부터 여러 가지 시책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오사카시는 1970년에 전국에서 가장 먼저 ‘외국인교육기본 방침’을 책정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효고켄과 오사카후의 공통적인 특징은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인권교육’의 전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지역적 특징과 배경은 외국인 정책과 외국인아동·학생에 관한 정책에도 기본적인 이념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

2. 일본 내 다문화 현황

2008년 현재 외국인 등록자수는 2,217,426명으로 일본 총인구의 1.74%를 차지하고 있다. 국적별 추이를 살펴보면 외국인 등록자의 국적 수는 190개국이며, 이 가운데 중국이 655,377명으로 전체의 29.6%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조선은 전년도에 비해 4,250명 감소하여 589,239명으로 전체의 26.6%를 차지한다. 그 뒤로 브

라질 312,582명(14.1%), 필리핀 21,617명(9.5%), 페루 59,723명(2.7%)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역별로 외국인 등록자수가 가장 많은 곳은 도쿄도(402,432명)로 전국의 18.1%를 차지하고 있다. 그 뒤로 아이치켄(228,432명), 오사카후(211,782명), 가나가와켄(117,889명), 사이타마켄(121,515명), 치바켄(111,228명), 시즈오카켄(103,279명), 효고켄(102,522명), 기후켄(57,570명)의 순으로 이어진다.

<표 IV- 1> 국적별 외국인등록자수의 추이

(단위: 명, %)

국적(출신지)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총수	1,973,747	2,011,555	2,084,919	2,152,973	2,217,426
중국 구성비(%)	487,570 24.7	519,561 25.8	560,741 26.9	606,889 28.2	655,377 29.6
한국·조선 구성비(%)	607,419 30.8	598,687 29.8	598,219 28.7	593,489 27.6	589,239 26.6
브라질 구성비(%)	286,557 14.5	302,080 15.0	312,979 15.0	316,967 14.7	312,582 14.1
필리핀 구성비(%)	199,394 10.1	187,261 9.3	193,488 9.3	202,592 9.4	210,617 9.5
페루 구성비(%)	55,750 2.8	57,728 2.9	58,721 2.8	59,696 2.8	59,723 2.7
미국 구성비(%)	48,844 2.5	49,390 2.5	51,321 2.5	51,851 2.4	52,683 2.4
기타 구성비(%)	288,213 14.6	296,848 14.8	309,450 14.8	321,498 14.9	337,205 15.2

출처 : 일본입국관리국 통계(2009년 7월)

<표 IV-2> 지역별 외국인등록자수의 추이

(단위: 명, %)

지역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구성비(%)	전년 말 대비 증감률(%)
총수	1,973,747	2,011,555	2,084,919	2,152,973	2,217,426	100.0	3.0
도쿄도	345,441	348,225	364,712	382,153	402,432	18.1	5.3
아이치켄	179,742	194,648	208,514	222,184	228,432	10.3	2.8
오사카후	212,590	211,394	212,528	211,758	211,782	9.6	0.0
가나가와켄	147,646	150,430	156,992	163,947	171,889	7.8	4.8
사이타마켄	102,685	104,286	108,739	115,098	121,515	5.5	5.6
치바켄	95,268	96,478	100,860	104,692	111,228	5.0	6.2
시즈오카켄	88,039	93,378	97,992	101,316	103,279	4.7	1.9
효고켄	101,963	101,496	102,188	101,527	102,522	4.6	1.0
기후켄	48,009	50,769	54,616	57,250	57,570	2.6	0.6
이바라기켄	51,123	51,026	52,460	54,580	56,277	2.5	3.1
기타	601,241	609,425	625,318	638,468	650,500	29.3	1.9

출처 : 일본입국관리국 통계(2009년 7월)

재류자격별로는 ‘영주자(일반영주자)’가 전년도에 비해 52,299명 증가하여 492,056명이고, ‘특별영주자’는 420,305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9,924명 감소하였다. 그 뒤를 이어 ‘정주자’ ‘일본인 배우자 등’ ‘유학’의 순으로 이어진다. ‘일본인 배우자 등’의 외국인 등록자수는 245,497명(11.1%)로 매년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일본인 배우자 등’의 재류 자격에 의해 재류하고 있는 신규 외국인의 국제결혼 현황을 살펴보면, 2008년도 부부 중 한편이 외국인인 혼인 건수는 36,969건으로, 그 중 부인이 외국인인 혼인 건수가 28,720건, 남편이 외국인인 혼인 건수가 8,249건에 이른다. 국적별로 살펴보면 부인이 외국인인 경우는 중국이 12,218건으로 가장 많고, 뒤를 이어 필리핀 7,290건, 한국·조선 4,558건, 태국 1,338건, 브라질 290건, 미국 215건, 페루 116건에 이른다. 한편 남편이 외국인인 경우는 한국·조선이 2,107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미국 1,445건, 중국 1,005건, 영국 363건, 브라질 322건, 필리핀 165건에 이른다.

<표 IV-3> 재류자격별 외국인등록자수의 추이

(단위: 명)

재류자격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구성비 (%)	전년 말 대비 증감률(%)
총수	1,973,747	2,011,555	2,084,919	2,152,973	2,217,426	100.0	3.0
영주자	778,583	801,713	837,521	869,986	912,361	41.1	4.9
일반영주자	312,964	349,804	394,477	439,757	492,056	22.2	11.9
특별영주자	465,619	451,909	443,044	430,229	420,305	19.0	-2.3
비영주자	1,195,164	1,209,842	1,247,398	1,282,987	1,305,065	58.9	1.7
정주자	250,734	265,639	268,836	268,604	258,498	11.7	-3.8
일본인 배우자 등	257,292	259,656	260,955	256,980	245,497	11.1	-4.5
유학	129,873	129,568	131,789	132,460	138,514	6.2	4.6
가족체제	81,919	86,055	91,344	98,167	107,641	4.9	9.7
연수	54,317	54,107	70,519	88,086	86,826	3.9	-1.4
인문지식/국제업무	47,682	55,276	57,323	61,763	67,291	3.0	9.0
기술	23,210	29,044	35,135	44,684	52,273	2.4	17.0
취학	43,208	28,147	36,721	38,130	41,313	1.9	8.3
기능	13,373	15,112	17,869	21,261	25,863	1.2	21.6
영주자의 배우자 등	9,417	11,066	12,897	15,365	17,839	0.8	16.1
기업 내 전근	10,993	11,977	14,014	16,111	17,798	0.8	10.5
홍행	64,747	36,376	21,062	15,728	13,031	0.6	-17.1
교육	9,393	9,449	9,511	9,832	10,070	0.5	2.4
교수	8,153	8,406	8,525	8,436	8,333	0.4	-1.2
기타	190,858	209,964	210,898	207,380	214,278	9.7	3.3

출처 : 일본입국관리국 통계(2009년 7월)

2008년 현재 일본 문부과학성의 조사에 의한 ‘일본어 지도가 필요한 외국인자녀’는 28,575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3,164명 증가하였다. 학교별 재적자수를 살펴보면 초등학교에 19,504명, 중학교에 7,576명, 고등학교에 1,365명, 중등교육학교에 32명 재적하고 있다.

일본어지도가 필요한 외국인자녀가 재적하고 있는 공립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

교, 중등교육학교, 특별지원학교는 6,212교로 전년도에 비해 5.7%증가하였다. 학교별로 보면 초등학교 3,791개교, 중학교는 2,028개교, 고등학교 342개교, 중등교육학교 2개교, 특별지원학교 49개교에 재적하고 있다.

모어별 재적 상황을 살펴보면, 포르투갈어 11,386명, 중국어 5,831명, 스페인어 3,634명, 필리핀어 3,367명, 한국·조선어 926명, 베트남어 932명, 영어 591명, 기타 1,907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모두 증가하였다.

<표 IV-4> 일본어 지도가 필요한 외국인자녀 학교 종류별 재적 상황

(단위: 개교, 명)

학교	재적 상황	일본어 지도가 필요한 외국인자녀 수	
		2007년	2008년
초등학교	아동 수	18,142	19,504
	학교 수	3,639	3,791
중학교	학생 수	5,978	7,576
	학교 수	1,876	2,028
고등학교	학생 수	1,182	1,365
	학교 수	312	342
중등교육학교	학생 수	25	32
	학교 수	1	2
특별지원학교	아동·학생 수	84	98
	학교 수	49	49
합계	아동·학생 수	25,411	28,575
	학교 수	5,877	6,212

출처 : 일본 문부과학성 통계(2009년 7월)

<표 IV-5> 일본어 지도가 필요한 외국인자녀의 모어별 재적 상황

(단위 : 명)

모어	연도	합계	구성비(%)
포르투갈어	2007년	10,206	40.2
	2008년	11,386	39.8
중국어	2007년	5,051	19.9
	2008년	5,831	20.4

모어	연도	합계	구성비(%)
스페인어	2007년	3,484	13.7
	2008년	3,634	12.7
필리핀어	2007년	2,896	11.4
	2008년	3,367	11.8
한국·조선어	2007년	884	3.5
	2008년	927	3.2
베트남어	2007년	834	3.3
	2008년	932	3.3
영어	2007년	560	2.2
	2008년	591	2.1
기타	2007년	1,496	5.9
	2008년	1,907	6.7
합계	2007년	25,411	100.0
	2008년	28,575	100.0

출처 : 일본 문부과학성 통계(2009년 7월)

지역별 재직 상황을 살펴보면 아이치켄이 5,030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시즈오카켄이 2,631명, 가나가와켄이 2,601명, 도쿄도가 1,913명, 미에켄이 1,407명, 오사카후가 1,316명에 이른다. 아이치켄, 시즈오카켄, 미에켄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장 지역으로 재외일본인과 그들의 자손인 일본계브라질인, 일본계페루인 등의 취업 입국에 의해 외국인이 증가한 지역이다. 이 지역은 외국인노동자의 증가와 장기체류에 따라 외국인아동의 교육 문제가 일찍부터 부상된 지역이기도 하다. 가나가와켄은 일찍이 요코하마를 중심으로 외국과의 교역을 통한 거류지로서 구미인은 물론 중국인들의 밀집 지역이었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에 따라 일본에 재류하게 된 중국귀국자들은 새로운 터전으로 이 지역에 모이게 되고 중국인을 중심으로 한 외국인들의 밀집 지역으로 자리를 잡아가게 된다. 도쿄도와 오사카후는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에 걸쳐 한국, 중국과의 문화 개방으로 일본으로의 유입이 증가되면서 뉴커머 타운(new-commer town)이 형성될 정도로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지역이다.

3. 모어교육의 정책적 지원

일본에서 뉴커머의 모어교육은 외국인 당사자들의 필요에 의해, 개인적으로 혹은 이들이 학교나 민간단체에 모어교육 교실의 운영을 요구하면서 시작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학교나 민간단체는 지자체에 지원을 요청하고, 지자체는 중앙정부에 지원을 요청함으로써 정책으로 연결되어진다.

중앙정부는 문부과학성이 중심이 되어 지원책을 책정하고 있다. 문부과학성의 귀국 및 외국인아동·학생교육 등에 관한 시책 가운데 모어교육과 관련된 시책을 살펴보면, ‘귀국 및 외국인아동·학생교육 지원체제’를 기반으로 ‘일본어 지도 등 특별한 배려를 필요로 하는 아동·학생에 대응하는 교원 배치’ ‘귀국 및 외국인아동·학생교육 지원체제 모델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지자체와의 연계를 통해 모어지원센터학교에 모어가 가능한 지도자, 코디네이터를 배치하여 모어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지자체는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시책대로 그것만을 시행하는 곳과 독자적이고 선진적인 시책을 시행하는 곳으로 나뉜다고 할 수 있다. 외국인 집주지역은 독자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책을 시행하기도 하지만 재적수가 적은 산재지역은 예산 편성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고 따라서 정부의 시책을 그대로 시행하는 지역이 많다.

본 연구의 대상 지역인 오사카후와 효고켄의 모어교육 지원책은 ‘인권교육 기본방침’ ‘외국 국적 주민 시책 기본방침’ ‘외국인아동·학생에 관한 교육지침’ 등의 정책지침 아래 지역 특성 및 구성원의 특성에 따라 교육위원회 및 교육센터 등이 중심이 되어 독자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가. 중앙정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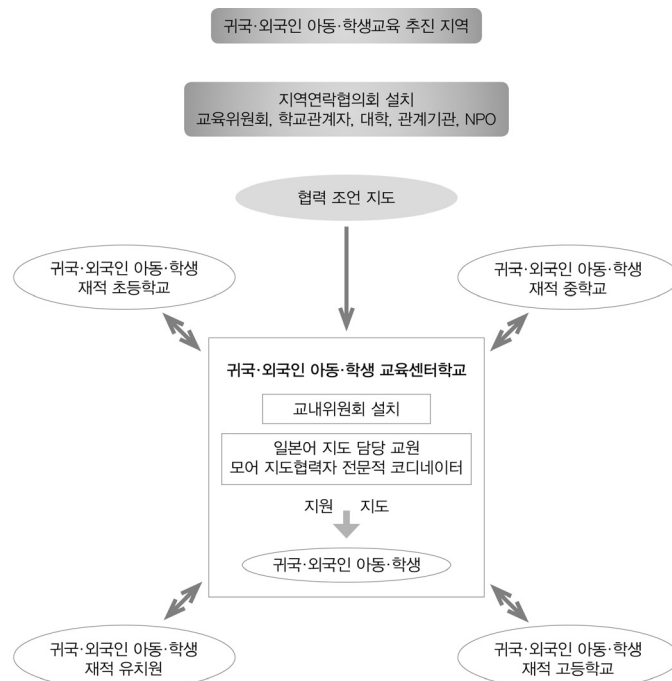
1) 모어교육 운영 방침 및 모어교육 지원 사업

일본 문부과학성은 귀국·외국인 아동·학생 등에 관한 시책으로 지도체제 정비, 교원 연수, 일본어 지도, 각종 교재·자료 작성 등을 시행하고 있다. 이 가운데 모어교육 등에 관한 시책으로 ‘일본어 지도 등 특별한 배려를 필요로 하는 아동·학생에

대응하는 교원 배치' '귀국·외국인 아동·학생 교육 지원체제 모델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문부과학성은 1992년부터 '외국인 아동·학생, 귀국 아동·학생'의 일본어지도에 대응한 교원 정수의 특례 가산에 의해 그 급여 등을 국고 부담으로 하고 있다. 여기에 '일본어 지도 등 특별한 배려를 필요로 하는 아동·학생에 대응하는 교원 배치' 사업의 일환으로 모어지도협력자를 배치하고 있다.

한편 2006년부터 '귀국·외국인 아동·학생 교육 지원체제 모델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공립학교에서 귀국·외국인 아동·학생의 입학 체제를 포괄적으로 정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귀국·외국인 아동·학생이 많이 집중하고 있는 16개 지역을 지정하여 실시하였다. 사업 내용으로는 센터학교 지정, 센터학교에 모어가 가능한 지도자·코디네이터 배치, 일본어 교실 개설, 모어 학습 등을 지자체 및 학교와 연계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음 [그림 IV-1]과 같다.



출처: 2006 문부과학성 자료

[그림 IV-1] 귀국·외국인 아동·학생 교육 지원체제

2) 모어교육 지원 사업 예산

문부과학성의 2010년 모어교육 지원 사업 예산은 다음 <표 IV-6>과 같다.

<표 IV-6> 2010년 문부과학성의 모어교육 지원 예산

(단위 : 백만엔)

사업명	예산액	담당과
외국인아동학생 교육 추진(교원 배치 등)	16	국제교육과
외국인아동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 체제 충실(지원체제 모델 사업 등)	69	국제교육과

출처 : 2010년 문부과학성 예산

나. 지방정부

1) 오사카후(大阪府)의 모어교육 정책

가) 오사카후의 모어교육 운영 방침 및 모어교육 지원 사업

‘민족학급’ ‘민족동아리’를 통하여 모어교육에 있어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오사카는 2002년 책정된 ‘외국인시책’을 기본방침으로 하여 오사카후교육위원회와 오사카후교육센터가 중심이 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오사카후교육위원회는 ‘국적과 민족에 불문하고 모든 인간이 다름을 인정하고 공생하는 지역사회 만들기’를 기본 방침으로 하여 모어교육 지원 시책으로 ‘과외자주활동(민족학급 등) 지원’ ‘과외자주활동(민족학급 등)을 설치한 학교에 강사 배치’ ‘교육지원교사(모어강사)의 육성 연수’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과외자주활동(민족학급 등) 지원’은 과외 활동의 실시 학교 확대를 목적으로, 지역의 실정과 외국에 뿌리를 가진 아동·학생의 실태에 맞춘 활동을 위하여 시초 무라교육위원회⁹⁾와 연계하여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2009년 현재 오사카후 내의 공립초·중학교 93교에 민족학급이 설치되었다. ‘과외자주활동(민족학급 등)을 설치한 학교에 강사 배치’ 사업은 오사카후 내의 공립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민족학급을 설치한 초등학교에 강사를 배치하였다. 2009년 현재 11명의 강사가 11개 학교

9) 지역 단위의 교육위원회

에 배치되었다.

또한 외국에 뿌리를 가진 아동·학생이 재적하고 있는 공립고등학교 23개교에 일본어·모어 지도 및 적응 지도를 위한 교육지원교사를 파견하였다. ‘교육지원교사(모어강사)의 육성 연수’는 외국에 뿌리를 가진 아동·학생의 학교생활 지원을 위한 교육지원교사의 기술 향상과 새로운 교육지원교사의 양성을 목적으로, 현재 초·중·고등학교에서 활동하고 있는 교육지원교사, 지역의 국제교류협회 등에 자원봉사 등록을 하고 지원 경험이 있는 언어통역자 등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한다. 중국어, 한국어, 베트남어, 필리핀어,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그 외 언어 등의 모어강사 60여명을 대상으로 3일간 외국인교육·다문화교육에 관한 강의, 언어 지도 방법 및 지도 교재, 실천 보고, 사례 발표 등의 내용으로 연수가 실시된다. 연수 후에는 수료증을 교부하고 교육지원교사로 등록된다.

한편 오사카후교육센터는 교육의 진흥 도모를 목적으로 연수, 조사·연구, 교육상담, 정보제공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 가운데 모어교육과 관련된 사업으로 ‘학교 지원 인재 بانک’과 ‘국제교육연수’ 등을 실시하고 있다.

‘학교 지원 인재 بانک’은 탁월한 지식과 기능을 가진 다양한 인재를 학교 교육에 활용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 의욕과 장래에 대한 기대를 키워주는 관점에서, 오사카후 내의 공립학교와 교육위원회에 대상이 되는 인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2010년 3월 현재 4,895명이 등록되어 있다.

<표 IV-7> 학교 지원 인재 بانک 등록자 현황

분야	등록자수	분야	등록자수
국제/외국어	554	자연/환경	175
사회/생활	332	과학/기술	345
복지/보건	1,004	문화/예술	1,428
경제/산업	70	스포츠	9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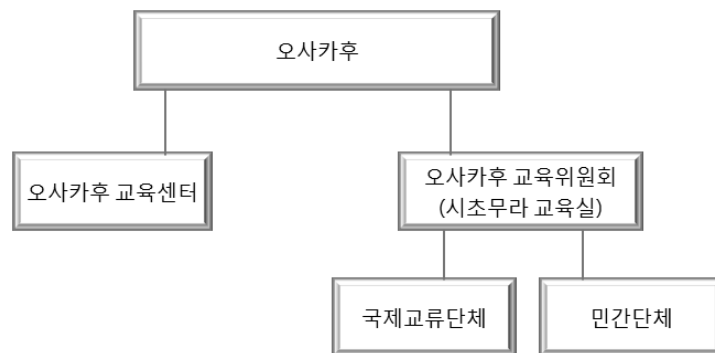
출처 : 2010 오사카후교육센터 ‘학교 지원 인재 بانک’ 등록자 현황

‘국제교육연수’는 교육자로서의 탁월한 인격 형성과 사명감의 함양을 도모하기 위해 오사카후교육위원회, 시초무라교육위원회와 연계하여 다양한 연수를 실시하

고 있다. 국제교육연수는 인권교육 추진 계획을 근거로 하여 국제교육에 관한 참가체험형 및 실천형 워크숍 등을 통해, 국제 이해와 국제 교류, 외국인아동·학생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직원의 지도력 육성을 도모한다. 대상자는 공립 초·중·고등학교 및 후립지원학교의 교직원으로, 연수내용은 강의, 실천 발표, 워크숍, 연구협의 등으로 진행된다. 연수 기간은 이틀이며 2009년 연수에 참가한 인원은 총 93명이다.

나) 모어교육 지원 사업 운영 체계

인권교육을 바탕으로 모어교육에 오랜 역사를 지닌 오사카는 독자적이고 선진적인 모어교육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모어교육 지원 사업의 운영은 지자체인 오사카후를 중심으로 지역 특성 및 구성원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센터와 교육위원회가 시행하고 있다. 교육센터는 연수, 조사, 연구, 교육상담, 정보제공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교육위원회는 국제교류단체 및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현장에서의 모어교육의 실행 및 그에 따른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다.



[그림 IV-2] 오사카후 모어교육 지원 사업 운영체제

다) 모어교육 지원 사업 예산

오사카후의 2009년 재일외국인시책 예산은 다음과 같다.

<표 IV-8> 2009년 오사카후 재일외국인시책 예산

(단위 : 천엔)

사업명	예산액	담당과
일본어 교육 학교 지원 사업	7,648	시초무라교육실
교육지원교사(모어강사)의 육성 연수		시초무라교육실
과외자주활동(민족학급 등) 지원	예산 조치 없음	시초무라교육실
과외자주활동(민족학급 등)을 설치한 학교에 강사 배치	예산 조치 없음	교직원실
학교지원인재뱅크		교육센터
국제교육연수	280	교육센터

출처 : 2009년도 오사카후 재일외국인시책 예산

2) 효고켄(兵庫縣)의 모어교육 정책

가) 효고켄의 모어교육 운영 배경 및 모어교육 지원 사업

효고켄교육위원회는 1998년 ‘인권교육기본방침’과 2000년 ‘외국인아동·학생 관련 교육방침’을 책정함으로써 인권교육 관점에 기초하여 외국인아동·학생의 자존감 형성 촉진함과 동시에, 모국의 문화와 언어를 접할 학습 기회 제공을 중요시하고 있다.

이러한 행정 배경을 바탕으로 일본어 지도가 필요한 외국인아동·학생에 대한 일본어 지도와 모어교육, 외국인아동·학생의 정서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03년에는 현립국제고등학교 안에 ‘어린이다문화공생센터’를 개설하여, 센터를 중심으로 학교와 국제교류협회, NGO/NPO 등의 관계기관·단체 등과 연계하면서, 기업, 대학 등 전문기관을 포함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정보 공유, 사업 공동 개발 등을 시행하고 있다.

효고켄교육위원회는 2006년부터 모어를 사고 기반으로 하는 외국에 뿌리를 가진 아동·학생이 재적하고 있는 공립 초·중학교를 모어교육지원센터로 지정하고 모어 지도가 가능한 사람을 파견하여 학습언어(일본어)의 습득을 지원함과 동시에, 모어 학습·모국 문화와 접촉하는 다양한 체험을 통하여 정체성 확립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고베시, 히메지시 등을 비롯한 8개 시의 17개 학교에서 7개 언어로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 다문화 공생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2004년부터 ‘어린이 다문화 공

생 자원봉사 양성 강좌’를 시행하여, 일본어 지도 및 모어·모국 문화 지도에 파견하고 있다. 이 강좌는 학교나 지역에 있는 외국에 뿌리를 가진 아동·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 공생 교육에 참가할 자원봉사의 기초적이고 실천적인 자질 양성을 목적으로, 기초 강좌 5회, 실천 강좌 3회(일본어 지도 2회, 모어·모국 문화 지도 1회)를 실시하고 있다. 2006년 현재 자원봉사 등록자수는 112명에 이른다.

효고켄교육위원회나 모어교육지원센터학교는 자원봉사자가 필요한 경우 어린이 다문화공생센터에 요청한다. 요청을 받은 어린이다문화공생센터는 등록되어 있는 자원봉사자 가운데 적절한 사람을 소개하고, 효고켄교육위원회나 모어교육지원센터학교는 자원봉사자와 연락하여 활동목표, 학습내용, 경비 등을 조정한다.

효고켄의 모어교육 지원 사업 운영체제는 다음 [그림 IV-3]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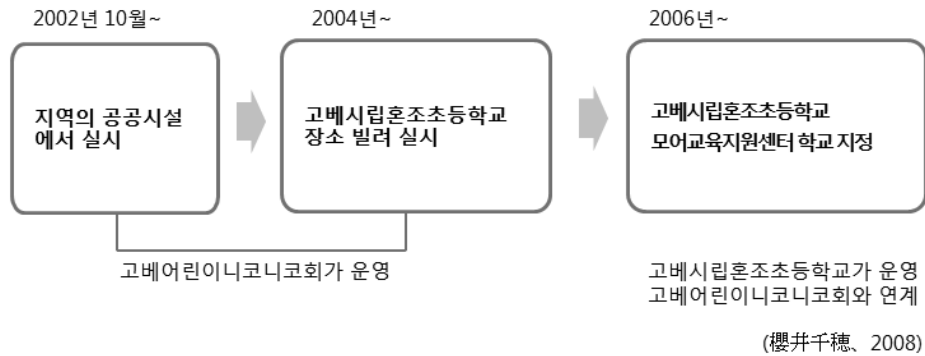
[그림 IV-3] 효고켄의 모어교육 지원 사업 운영체제

나) 모어교육지원센터학교의 지정

외국에 뿌리를 가진 아동·학생이 많이 재적하고 있는 초·중학교 가운데 사업 실시를 희망한 학교를 모어교육지원센터학교로 지정하여, 재적하고 있는 학생뿐만 아니라 근처 학교의 외국인학생도 참가하는 모어교실을 운영하면서, 일본어 습득의 기초가 되는 모어 지도와 모국 문화에 대한 이해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모어교육지원센터학교의 지정 과정을 고베시립혼조초등학교의 사례를 통하여 살펴보면, 고베시립혼조초등학교는 모어교육지원센터학교로 지정되기 전부터 외국에 뿌리를 가진 아동·학생 지원 NPO 단체인 ‘고베어린이니코니코회’에서 운영하

는 모어교실의 장소로 사용되다가 2006년 모어교육지원센터학교로 지정되면서 ‘고베어린이니코니코회’와 연계하여 스페인어 모어교실을 운영하게 된다.



[그림 IV-4] 고베시립혼조초등학교의 모어교육지원센터학교의 지정 과정

다) 모어교육 지원 사업 예산

효고켄은 2010년 다문화공생의 사회 실현이라는 사업 가운데 모어교육 지원 사업 예산을 책정하고 있다.

<표 IV-9> 2010년 효고켄 모어교육 지원 예산

(단위 : 천엔)

사업명	예산액	담당과
모어교육 지원을 위한 교재 만들기	3,000	국제교류과
어린이 다문화공생교육지원사업 실시	113,105	인권교육과

출처 : 2010 효고켄 행재정 예산

4. 모어교육의 실천 사례

일본에서 모어교육은 크게 학교에서 시행되는 것과 지역 차원에서 시행되는 것으로 나뉘어진다. 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는 모어교육은 ‘국제학급’ ‘국제교실’ ‘순회 지도’ 등의 형태로 시작되었고, 현재는 거점학교를 지정하여 지역사회 단체와의 연

계 가운데 운영하는 형태, 정규 수업 과정의 선택 과목으로 운영되는 형태 등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지역 차원에서 시행되는 모어교육의 주체는 자원봉사로 모어교육의 선구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 가운데에는 교육위원회가 지원하거나, 학교를 개방해서 운영하는 형태 등이 있다.

가. 학교중심 사례

1) 오사카시 시키초등학교 국제교실

1993년에 외국에 뿌리를 가진 아동·학생이 편입하면서 매년 외국에 뿌리를 가진 아동·학생이 증가하고 있는 시키초등학교는 이들이 들어오던 당시부터 ‘일본어학급’을 설치하고 일본어 배치교원을 두었다. ‘일본어학급’은 2001년까지 외국에 뿌리를 가진 아동·학생을 위한 일본어 지도 교실이었다. 그러나 당시 ‘일본어학급’ 담당 교사는 ‘일본어학급’을 운영하는 가운데 외국에 뿌리를 가진 아동·학생들의 공격성, 학습에 대한 무기력, 저학력 등의 원인이 이들의 정체성의 상실, 자존감정 부재에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 해결의 방안으로 모어 육성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이들에게 모어 유지와 신장을 위한 일본어 지도를 시작하게 된다. 당시 교장 선생님 또한 외국에 뿌리를 가진 아동·학생의 모어 유지 교육이 중요하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일본어학급’을 ‘국제교실’로 이름을 바꾸고 학습 내용도 모어 유지와 신장을 위한 일본어 지도로 전환하였다. 그리고 시간제 통역과 지역의 학부모를 모어 학습 지도자로 두고 외국에 뿌리를 가진 아동·학생에게 모어 유지와 신장을 꾀하는 일본어 지도를 시작한다.

‘국제교실’의 지도 시간과 모어강사의 현황을 살펴보면, 모어 유지 지도 시간수는 중국어가 주 5시간, 베트남어가 주 2시간, 태국어 주 2시간으로 교과 학습 시간 중에 외국에 뿌리를 가진 아동·학생은 별도로 모어 유지 교육을 받는다.

중국어의 경우, 모어 유지 교육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 시간에 시행된다. 외국에 뿌리를 가진 아동·학생은 각각 수업시간이 되면 ‘국제교실’로 이동하여 모어강사에게 병음, 어휘, 중국 한자, 단문 등의 지도를 받는다. 일본에서 태어나거나 유년기에 일본에 입국한 아동, 즉 중국어 능력이 낮은 아동 학급에서는 병음학습¹⁰⁾을 중심으로

10) 중국어를 로마자로 표기

하면서 발음, 일본어 대역, 한자 쓰기, 단문, 이중언어 번역 등에 대해 학습한다. 한편 학교 과정 중간 편입 아동 및 중국어 학습 경험 아동, 즉 중국어 능력이 높은 아동 학급에서는 중국어의 단문을 일본어로 번역하거나 문법에 관하여 학습한다.

담당 교사는 일본어 배치교원 1명, 교내 배치교원 1명, 각 언어 모어강사 3명으로 중국어 강사는 시교육위원회의 통역 파견 사업의 일환으로 중국어가 가능한 일본인이고, 베트남어 강사는 시의 보유과가 위탁한 베트남인, 태국어 강사는 시키초등학교의 외국에 뿌리를 가진 아동·학생의 학부모가 담당하였다. 모어강사의 급여는 시급제로 1시간당 2천 엔 정도이다.

교재는 각 모어 지도자와 ‘국제교실’ 담당 교사가 각 언어 학습 과정에서 어려웠던 부분을 중심으로 직접 만들고 있지만, ‘일본어교실’을 변경하여 ‘국제교실’을 하고 있는 시키초등학교는 모어교육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의 부족으로 교재 개발과 부교재가 부족한 상황이다.

모어 유지 교육의 효과를 살펴보면, 먼저 학급 친구에게 자신이 외국인임을 말하지 못했던 외국에 뿌리를 가진 아동·학생이 교내 발표 대회에서 전교생 앞에서 자신이 외국인임을 말할 수 있게 되었다. 즉, 자신의 존재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가정에서도 부모에게 모어를 배우는 등 모어교육에 대한 의욕을 보였고, 자신의 이름을 일본 이름으로 바꾸지 않고 본명을 사용하는 등 모어의 유지가 정체성 확립에 영향을 주었다.

시키초등학교의 모어유지 교육은 ‘모어는 현지어에 의한 학습과 정체성 형성에 시너지 효과를 준다’는 이론적 입장을 실천적으로 보여준 사례이고, 외국에 뿌리를 가진 아동·학생에 대한 중앙 정책인 일본어 습득을 위한 일본어 지도에서 모어유지와 신장을 위한 일본어 지도로 일본어 지도의 학습목표와 방법의 전환을 보여준 사례로서 그 의미가 크다.

<표 IV- 10> 오사카시 시키초등학교 국제교실 실천사례

비교 항목	오사카시 시키초등학교 국제교실
취지 및 목적	1993년 ‘일본어학급’의 설치 이후, 외국에 뿌리를 가진 아동·학생의 공격성, 학습에 대한 무기력, 저학력 등의 원인이 이들의 정체성의 상실, 자존감정 부재에 있다고 보고, 이러한 문제 해결의 방안으로 모어 육성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2001년 ‘일본어학급’을 ‘국제교실’로 이름을 바

비교 항목		오사카시 시키초등학교 국제교실
		꾸고 모어 유지와 신장을 도모함
주관 기관(행·재정 지원)		야오시교육위원회
운영 기관		오사카시 시키초등학교
운영 방법	직영/위탁	직영
	거점/단위학교	단위학교
	실시 유형	학기제(교과 학습 시간) 화, 목 오전(중국어 주 5시간/베트남어 주 2시간/태국어 주 2시간)
	교육자	일본어 배치교원 1명, 교내 배치교원 1명, 모어강사 중국어 : 시교육위원회의 통역과견사업의 일환으로 중국어가 가능한 일본인 베트남어 : 야오시가 위탁한 베트남인 태국어 : 시키초등학교의 보호자
	학습자	외국에 뿌리를 가진 아동·학생(일본 출생, 유년기 일본 입국, 학교 과정 중간 편입 모두 포함) 재적 상황:총 35명-베트남어 13명, 중국어 11명, 태국어 5명, 필리핀어 2명, 영어 2명(2006년 현재)
교육 과정	지도 언어	중국어, 베트남어, 태국어
	교재	개발 각 모어 지도자와 국제교실 담당 교사
		내용 각 언어의 읽기·쓰기, 일본인 통역자가 각 언어 학습 과정에서 어려웠던 부분
	교육 방법	[중국어] 레벨1(일본 출생 및 유년기 일본 입국 아동) : 병음학습, 발음, 일본어 대역, 한자 쓰기, 단문, 양언어 번역 레벨2(학교 과정 중간 편입 아동 및 중국어 학습 경험 아동) : 중국어 단문을 일본어로 번역하기, 문법
학생의 수업 참여 조건	신청 자격 조건	재적 아동
운영 지원	학교장의 지원	‘일본어학급’에서 ‘국제교실’로의 변화를 시도한 사람이 당시 교장으로, 학교장의 이해와 지원이 크다고 할 수 있음
	자원봉사·도우미	
	물리적 지원	국제교실 확보 : 중국어 2반, 베트남어 2반, 태국어 1반
	기타	
교육	효과	모어의 유지가 정체성 확립에 영향을 줌(자신의 존재에 대한 자신감, 모

비교 항목		오사카시 시키초등학교 국제교실
효과		어교육에 대한 의욕, 일본이름이 아닌 본명 사용 등)
	문제점	1. '일본어교실'을 변경하여 '국제교실'을 하고 있는 시키초등학교는 모어교육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의 부족으로 교재 개발과 부교재가 부족 2. 모어교육 시간의 제한으로 인한 모어 능력 향상의 한계
기타		

2) 오사카후립 가도마나미하야고등학교

가도마시는 오사카후의 북동부에 있는 지역으로 다수의 중소기업 공장이 있어서 외국인노동자가 밀집한 지역이다. 특히 가도마나미하야고등학교 주변에 있는 주택단지에는 중국귀국자가 집단으로 정주하게 되면서 학교에도 1996년 한 명의 중국귀국학생 입학으로 1997년 4명, 1998년 7명으로 중국귀국학생이 증가하게 된다.

가도마나미하야고등학교는 1998년부터 중국문화연구부의 활동을 시작으로 중국귀국학생을 위한 교실을 확보하여 방과 후 중국어 학습을 시작한다. 지역의 문화센터에서 중국어를 가르치고 있던 중국 사람, 유학생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모어강사를 섭외했지만 장기간 계속할 수 있는 모어강사를 확보하기는 쉽지 않았다. 이러한 가운데 2001년 일본어 별도수업과 방과 후 중국어 학습을 담당할 중국인 강사를 계약 강사(전임 강사)로 초빙하면서 모어교육이 본격적으로 출발하게 된다.

가도마나미하야고등학교의 외국에 뿌리를 가진 아동·학생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은 '자신이 태어나 자란 나라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갖도록 하는 것' 과 이것을 위해서는 모어 보장이 중요하다는 의식이었다. 즉 모어 학습은 외국에 뿌리를 가진 아동·학생의 삶과 깊이 관계하고, 모어를 상실하는 것은 그 학생의 삶을 위축시킨다는 생각이었다. 한편 일본어 교육에 대하여는 일본인화를 위한 교육이 아닌 일본에서의 생존의 힘을 기르기 위한 제2언어로서의 일본어를 지도하고자 하였다.

2001년 중국귀국학생을 위한 '중국귀국학생 코스'를 개설하여 정규 수업 가운데 선택 과목으로 모어 수업이 시작된다. 아래는 중국어 모어 수업의 교육과정이다. 중국귀국학생의 문화적 배경을 배려하고 사회에서 강하게 살아가는 힘을 육성할 수 있는 일본어 지도와 모어 보장을 내용으로 교육과정을 편성하였다. 여기에서 제1언어는 중국어 이외의 언어를 모어로 하는 학생을 위한 수업으로 입학하는 학생

의 모어에 따라 각각의 모어 수업이 개설된다.

<표 IV- 11> 중국어 모어 수업 교육과정

학년	수업 내용
1학년	모어 중국어(2단위), 제1언어**(2단위)*
2학년	중국어C(3단위), 제1언어**(3단위), 국제영역 중국어(일본인 학생도 선택 가능, 2단위)
3학년	중국어C(2단위), 국제영역 중국어(2단위), 중국어 강독(2단위), 제1언어(2단위)

*1단위는 1시간 수업

**제 1 언어는 중국어 이외의 외국어-스페인어, 필리핀어, 태국어, 한국어 등

이러한 모어 수업을 설치하면서 가도마나미하야고등학교는 중학교와의 연계를 통하여 특별전형에 교육위원회에 제안하였고, 2001년부터 중학교의 요망 사항을 수렴한 특별전형입시를 실시한다.

담당 교사는 중국귀국생 담당 교사 1명, 중국어 전임 강사 1명, 모어 강사로, 전임 강사가 있는 중국어와 달리 다른 언어는 외국에 뿌리를 가진 아동·학생의 최종 합격이 결정된 이후 강사를 찾아야 하기 때문에 강사 확보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기에 도움이 되는 것이 외국인교육, 모어교육 등의 네트워크라고 한다.

교재는 각각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모어강사가 개인적으로 선택하고 있다. 잡지나 소셜 등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중국어에 관해서는 후립고등학교의 중국인 강사가 편찬한 교재를 사용하고 있다.

모어교육의 효과를 살펴보면, 먼저 입학 당시 모어를 사용하지 않았던 학생이 같은 모어를 사용하는 친구와 모어로 대화를 하게 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실히 인식하게 되었다. 또한 가족과 모어로 대화하고 모어의 읽기, 쓰기가 가능하게 됨으로서 가족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회복되었다. 이 밖에 자신과 같은 상황의 학생에게 모어를 가르치겠다는 장래 희망을 찾게 된 경우도 있다.

가도마나미하야고등학교의 모어교육은 먼저 일본 공교육에 있어서의 모어교육의 가능성을 제시해 주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또한 교사의 역할과 학교의 관심, 모어교육(다문화교육)과 다문화학생에 대한 단계별 학교 간 연계의 중요성을 보여주었다.

<표 IV- 12> 가도마나미하야고등학교 실천사례

비교 항목		가도마나미하야고등학교	
취지 및 목적		외국에 뿌리를 가진 아동·학생이 자신이 태어나 자란 나라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갖도록 하기 위한 목적 아래 1998년 방과 후 중국어학습회로부터 모어 교실이 시작되고, 2001년 제 2언어로서 일본어 수업과 모어 수업이 정규 수업 가운데 선택 과목으로 개설됨	
주관 기관(행·재정 지원)		오사카후교육위원회	
운영 기관		가도마나미하야고등학교	
운영 방법	직영/위탁	직영	
	거점/단위학교	단위학교	
	실시 유형	학기제 정규 수업 시간	
	교육자	중국귀국생 담당 교원 1명, 중국어 전임 교원 1명, 모어강사 모어강사 : 외국인교육, 모어교육 등의 네트워크를 통하여 보충	
	학습자	각 언어를 모어로 하는 학생, 일본인 학생	
교육 과정	지도 언어		중국어, 스페인어, 필리핀어, 태국어, 한국어
	교재	개발	모어 지도자
		내용	모어 중국어 초급용
	교육 방법	1학년 : 모어 중국어, 제 1 언어 2학년 : 중국어C, 제 1 언어, 국제영역 중국어 3학년 : 중국어C, 국제영역 중국어, 중국어 강독, 제 1 언어	
학생의 수업 참여 조건	신청 자격 조건	재적학생	
운영 지원	학교장의 지원	모어의 정규 수업과 모어 지도자의 전임 강사 등의 요구는 학교장을 통해 교육위원회에 제출	
	자원봉사·도우미		
	물리적 지원		
	기타		
교육 효과	효과	정체성 확인, 가족 간의 커뮤니케이션의 회복, 모어와 관련된 장래 희망 발견	
	문제점	1. 열악한 보수와 대우로 모어강사의 확보가 어려움 2. 교재의 개발과 선택 기준의 어려움	
기타		1. 일본 공교육에 있어서의 모어교육의 가능성을 제시 2. 교사의 역할과 학교의 관심, 모어교육(다문화교육)과 다문화학생에 대한 초·중·고등학교 연계의 중요성을 보여줌	

3) 효고켄의 모어교육지원센터학교(히메지시립히가시초등학교)

효고켄교육위원회는 모어를 사고 기반으로 한 외국에 뿌리를 가진 아동·학생의 학습 언어 습득 지원 및 모어, 모국문화 접촉의 다양한 체험을 통한 정체성 확립 지원을 위하여 2006년부터 모어교육지원센터학교를 지정하여 모어교육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대상 외국인아동학생의 다수가 다니는 초·중학교 가운데 사업 실시를 희망하는 학교를 모어교육 지원 센터 학교로 지정하고 재적 학생뿐만 아니라 근처 학교의 외국에 뿌리를 가진 아동·학생도 참가하여 모어 교실을 운영한다.

교실의 운영 방법, 지도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연 3회, 센터학교 담당자, 모어강사, 교육위원회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모어교육 지원 센터 학교 연합회를 개최하여 사업 취지의 공통 이해 및 사업의 충실을 위한 정보 교환과 협의를 한다.

17개의 센터 지정 학교에서 스페인어, 필리핀어, 중국어,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한국어, 포르투갈어의 7개 모어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모어교육 지원 센터 학교 가운데 히메지시립히가시초등학교의 실천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히메지시립히가시초등학교의 외국에 뿌리를 가진 아동·학생의 상황을 살펴보면, 일본에 입국해서 기간이 오래되지 않은 아동의 경우, 모어로의 이해는 가능하지만 일본어를 충분히 사용하지 못하여 자신의 마음을 정확히 표현하지 못하는 아동이 많다. 반면에 일본에서 태어난 아동의 경우는 보호자와 모어로의 회화가 잘 되지 않아 부모와의 커뮤니케이션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외국에 뿌리를 가진 아동·학생을 대상으로 한 모어 교실의 운영 목표는 첫째, 모어교실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는 자세를 키운다. 둘째, 모어의 기본적인 단어나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다. 셋째, 일본에 입국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동은 일본어 능력이 충분하지 않아 수업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학교에서 배운 학습언어(일본어)를 모어로 전환해 주는 작업은 어휘의 개념을 확립시켜 줌으로서 학습의 이해를 도와준다. 즉 일본어와 모어의 상호보조적 작용을 통해 학습효과를 높여준다. 넷째, 모국에 대해 조사하면서 모어에 흥미와 관심을 갖고 모국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마음을 기른다.

모어교육은 연 74시간으로 커리큘럼은 기본 언어 학습과 함께 음식, 노래, 놀이 등 다양한 문화 체험과, 단어 카드를 이용한 생활 언어 습득 등의 내용으로 시행하

고 있다. 교재는 모어강사가 직접 만든 카드나 베트남의 국어 교과서, 사전, 지도 등을 사용하고 있다.

<표 IV- 13> 베트남어 모어교실 커리큘럼

	단원명	지도목표	지도내용/활동 예	시수
1 학 기	베트남어로 인사하기	베트남어로 인사를 할 수 있다.	간단한 인사를 외워, 일상 생활 가운데 사용하기	4
	베트남어의 리듬 외우기	베트남어의 기본적인 발음과 리듬을 따라할 수 있다	자신의 이름과 주변의 물건 이름 말하기	4
	베트남어를 읽을 수 있을까?	베트남어의 간단한 어휘를 배우고, 읽기를 할 수 있다	베트남어 어휘 읽기 (*교과에서 학습한 일본어를 베트남어로 바꾸는 학습을 통해 학습언어 개념 확립)	10
	베트남 문화를 알자 (음식편)	베트남 요리를 통해 모국의 문화를 안다	베트남 요리 만들기	6
	교류회 참가	친구의 폭을 넓힌다	교류회를 통해 친구의 폭을 넓히고, 다른 나라 사람에 대해서 알기	10
2 학 기	베트남 노래 부르기	베트남 노래를 즐길 수 있다.	간단한 베트남 노래 부르기	6
	베트남 놀이를 즐기자	베트남 놀이에 관심을 갖고, 친구와 즐긴다	베트남 놀이 체험하기	2
	베트남어로 뭐라고 말할까?	간단한 베트남 어휘를 사용할 수 있다	베트남 어휘를 외우기 (베트남어 어휘 카드) (*교과에서 학습한 일본어를 베트남어로 바꾸는 학습을 통해 학습언어 개념 확립)	8
	베트남 문화를 알아보자	베트남 문화에 대해 조사하고 이해함으로 모국에 대한 자긍심을 가진다	베트남 문화와 역사 알아보기	8
3 학 기	베트남 문화를 알자 (생활편)	베트남 문화 알기 활동을 통하여 친구와 서로 도울 수 있다	베트남 사자춤(무란) 연습	8
	자신의 생각을 말해봅시다	베트남어로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있다	베트남어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기	6
	친구의 생각을 들읍시다	모어로 친구의 생각을 들을 수 있다	베트남어로 친구의 생각 듣기	2

외국에 뿌리를 가진 아동·학생은 모어교육을 통해 모어와 일본어를 연결함으로써 학습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어휘가 증가하였고, 문화 체험을 통하여 모국에 대한 이해와 모어·모국문화를 배우고자 하는 의욕과 관심이 높아졌다. 또한 모어로 안심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들과의 연계 형성을 통해 마음의 안정을 찾았고, 자긍심을 갖게 됨으로써 정체성 확립에 영향을 주었다.

운영면에서는 학교장, 담당자를 중심으로 시교육위원회와 연계하여 교내추진위원회를 조직함으로써 조직적, 계획적인 운영을 하게 되었고, 연간 지도 계획을 책정하여 학생 실태에 따른 지도 내용 및 방법을 모색하게 되었다.

한편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같은 시간에 같은 활동을 함으로써 교육의 한계를 가져오고, 방과 후 수업이기 때문에 정규 수업 시간의 영향을 많이 받아 모어교실 시간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지만, 모어와 현지어의 상호 학습을 통하여 학습 언어 습득을 시도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표 IV- 14> 효고켄 모어교육지원센터학교(히메지시립히가시초등학교) 실천사례

비교 항목			효고켄의 모어교육지원센터학교(히메지시립히가시초등학교)
취지 및 목적			모어를 사고 기반으로 한 외국에 뿌리를 가진 아동·학생의 학습언어 습득 지원 및 모어·모국문화 접촉의 다양한 체험을 통한 정체성 확립 지원을 위하여 2006년부터 모어교육 지원 사업 실시
주관 기관(행·재정 지원)			효고켄교육위원회
운영 기관			어린이 다문화 공생 센터
운영 방법	직영/위탁		위탁
	거점/단위학교		거점학교
	실시 유형		학기제(방과 후) 거점학교별 지도 언어가 다름
	교육자		어린이다문화공생센터에 등록된 모어 지도자 파견
	학습자		외국에 뿌리를 가지고 있는 아동(일본 출생, 유년기 일본 입국, 학교 과정 중간 편입 모두 포함)
교육 과정	지도 언어		중국어, 베트남어, 태국어, 스페인어, 한국어, 중국어
	교재	개발	모어 지도자
		내용	어휘 지도에 필요한 카드(각 학교의 교실에 따라 내용이 다름)

비교 항목		효고켄의 모어교육지원센터학교(히메지시립히가시초등학교)
	교육 방법	기본 언어 학습과 함께 음식, 노래, 놀이 등 다양한 문화 체험과 단어 카드를 이용한 생활 언어 습득
학생의 수업 참여 조건	신청 자격 조건	베트남어를 모어로 하는 학생
운영 지원	학교장의 지원	모어교육 지원 센터 학교 지정은 학교의 지원 신청에 의해 지정되는 것으로 학교장의 지원이 필수적
	자원봉사·도우미	
	물리적 지원	
	기타	
교육 효과	효과	<p>학생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마음의 안정 -같은 모어를 사용하는 친구들과의 연계와 모어로 안심하고 이야기할 수 있음 2. 학습언어의 습득 3. 자긍심을 통한 아이덴티티 확립에 영향 <p>학교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교장, 담당자를 중심으로 시교육위원회와 연계하여 교내추진위원회를 조직함으로써 조직적, 계획적인 운영을 함. 2. 연간지도계획을 책정하여 학생실태에 따른 지도내용·방법을 모색함
	문제점	학습언어 습득을 위한 효과적인 지도 내용 및 개인차에 따른 지도 방법 모색
기타		모어와 현지어의 상호 학습을 통한 학습 언어 습득을 시도함

나. 지역차원 사례

1) 관서브라질커뮤니티의 포르투갈어교실

관서브라질커뮤니티는 일본계브라질사람인 마리나를 중심으로 1999년 형성되었다. 1989년경 일본에 입국한 마리나는 일본어가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다. 당시는 외국인아동에 대한 특별한 지원이 없이 자녀들을 학교에 보냈고, 일본어를 습득한 후에는 학교에서 통역과 상담 등의 자원봉사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이러한 가운데 일본에서 생활한 지 10년이 되던 1999년 외국인에 대해

변하지 않는 환경과 외국에 뿌리를 가진 아동·학생의 현실적인 문제를 실감하여 개인적으로 모어 교실을 시작한다. 개인적으로 장소를 빌리고 외국인부모에게 회비를 받아 교실을 운영하다가 2001년 현재의 장소로 교실을 이전했지만 경제적인 어려움과 모어 강사 확보 등의 어려운 문제가 계속되는 가운데 외국에 뿌리를 가진 아동·학생이 한 명이 된 적도 있다.

그러나 일본계 남미인이 계속 증가하면서 2003년부터 효고켄국제교류협회의 지원으로 모어교실을 운영하게 된다. 현재 코디네이터와 모어강사 지원비 6만 엔과 교통비 보조 2만 엔을 매 달 지원받고 있다. 교통비 보조로 운영하고 있는 버스 운행은 모어교실을 지속시키는 힘이라고 한다. 한편 2009년 지자체로부터 10억 엔의 조성금을 받아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건물의 리모델링을 하여 쾌적한 환경 교육을 확보하게 된다.

모어교실을 시작할 당시 NPO에서 ‘모어’라는 용어를 사용했지만 외국에 뿌리를 가진 아동·학생에게 있어서 ‘모어는 무엇인가?’라는 제기와 함께, 현재는 모어교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포르투갈어교실’ ‘베트남어교실’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관서브라질커뮤니티 포르투갈어교실은 부모와의 커뮤니케이션, 세계를 향한 의식, 쓰기·듣기·생각하기를 통한 힘의 육성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부모의 대부분이 가정에서는 포르투갈어를 사용하는 브라질 가정이지만, 외국에 뿌리를 가진 아동·학생은 일본에서의 성장 기간이 길어짐과 비례하여 모어의 사용이 줄고 일본어만 사용하려고 한다. 이러한 가운데 외국에 뿌리를 가진 아동·학생과 외국인부모는 원활하지 못한 의사소통으로 갈등을 겪는다. 포르투갈어교실은 이러한 외국에 뿌리를 가진 아동·학생과 외국인부모와의 갈등을 모어교육을 통해 회복하고자 한다. 또한 새로운 언어를 습득함으로써 새로운 사회를 알게 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세계를 알고, 세계를 향한 의식을 형성시키고자 한다. 이 때 모어교육은 말하기만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쓰기·듣기·생각하기의 전 영역을 학습함으로써 모어교육을 통하여 살아가는 힘을 기르고자 한다.

포르투갈어교실의 운영은 매 주 토요일 13시부터 17시까지 일본계브라질학생을 대상으로 한 모어교실(포르투갈어 교실)과 일본 학교를 다니고 있는 일본계브라질 학생을 위한 학습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시간 배정은 1시간 20분간의 포르투갈어 수업과 1시간 20분간의 일본어, 산수 학습 지도에 이어, 미국에서 가지고 온 영

상 자료를 이용한 30분간의 포르투갈어 어휘 학습으로 진행된다.

담당 교사는 모어교육을 담당하는 포르투갈어 강사 3~4명과 학습 지원을 담당하는 일본어 강사 2~3명으로 운영된다. 강사는 자원봉사 활동을 기본으로 하여 1일 3천 엔 정도의 교통비가 지급된다. 교재는 브라질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재와 미국에서 사용하는 영상 자료 등을 사용하고 있다. 장기간의 경험에 의한 알파벳 교수법을 정리하여 교재로 개발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 중의 하나이다. 초등 과정에서는 기본 문자 습득, 중등 과정에서는 문법 학습이라는 전체적인 커리큘럼의 흐름은 정해져 있지만, 외국에 뿌리를 가진 아동·학생의 상황에 맞추어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형식을 갖춘 지도안은 작성하지 않는다. 모어강사들은 10년간의 경험을 통해 터득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관서브라질커뮤니티 포르투갈어교실은 학생들에게는 학습 의욕을 갖게 하였고, 부모에게는 자녀 교육에 관심과 열의를 갖게 하였다. 외국에 뿌리를 가진 아동·학생들은 학교의 성적 향상이 모어 학습의 영향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모어교실에 와서 학습하고 있고, 이러한 자녀의 모습은 부모에게도 자극이 되어 모어교실의 행사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관서브라질커뮤니티 활동이 10년 이상 지속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교육 내용의 업그레이드 및 지속적인 변화의 시도와 이러한 자원봉사 활동의 지속성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있다. 즉 관서브라질커뮤니티는 당사자들에 의해 유지되어 온 내구성에 의해 정부의 지원을 확보하였고, 나아가 정책으로 확대되어지는 일본의 정책 체계를 보여주고 있다.

<표 IV- 15> 관서브라질커뮤니티 실천사례

비교 항목	관서브라질커뮤니티
취지 및 목적	외국인에 대해 변하지 않는 환경과 외국에 뿌리를 가진 아동·학생의 현실적인 문제를 실감하여 1999년 개인적으로 모어 교실을 시작. 2003년 호고켄국제교류협회의 지원으로 현재의 모어교실 운영. 부모와의 커뮤니케이션, 세계를 향한 의식, 쓰기·듣기·생각하기를 통한 힘의 육성을 목적으로 함.
주관 기관(행·재정 지원)	호고켄국제교류협회
운영 기관	관서브라질커뮤니티

비교 항목		관서브라질커뮤니티
운영 방법	직영/위탁	위탁
	거점/단위학교	
	실시 유형	연중(휴업 : 봄방학, 추석, 연말연시) 매주 토요일 13:00~16:30
	교육자	포르투갈어 강사3~4명 일본어 강사 2~3명(자원봉사)
	학습자	일본계브라질 학생 : 초·중학생 20명
교육 과정	지도 언어	포르투갈어
	교재	개발 브라질 및 미국 교재 사용
		내용
	교육 방법	1시간 20분 : 포르투갈어 수업 1시간 20분 : 일본어, 산수 30분 : 포르투갈어 어휘 학습(비디오)
학생의 수업 참여 조건	신청 자격 조건	특별히 없음
운영 지원	학교장의 지원	
	자원봉사·도우미	
	물리적 지원	켄과 시의 조성금을 받아 2009년 리모델링 (10억 엔) 교통비 보조(1달 2만 엔) : 버스 운영
	기타	
교육 효과	효과	학생 : 학습의욕 증가 학부모 : 자녀 교육에 관심과 열의
	문제점	1. 교재 개발(알파벳을 가르치는 방법 정리) 2. 자원봉사의 역량
기타		1. 자원봉사(활동)의 지속성에 대한 정부의 지원 2. 교육 내용의 업그레이드와 지속적인 변화의 시도가 교실을 지속시킴



2) NPO법인돗까비¹¹⁾의 루츠어교실¹²⁾

오사카후 야오시의 돗까비루츠어교실은 1974년 재일코리언 청년들에 의해 만들어진 ‘돗까비어린이회’에서부터 시작된다. 당시 재일코리언 청년들은 외국인학생의 학교에서의 문제나 비행이 가정배경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어린이회를 만들어 연구회를 시작하였다. 이후 중국귀국자와 베트남난민의 입국이 증가하였고, 현재는 국제결혼에 의한 입국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2년 돗까비어린이회는 NPO법인이 되면서 시의 위탁 사업으로 상담(한국어, 베트남어, 중국어)과 모어교실을 운영하게 된다. 초기의 모어교실은 중국어로부터 시작했지만, 모어교실이 중국인들의 거주 지역과 멀었기 때문에 지속하기가 어려웠다. 이러한 이유로 모어교실은 2004년부터 베트남어교실로 운영되고 있다.

-
- 11) ‘돗까비’는 우리말 ‘도깨비’에서 유래한 것으로, 민중과 더불어 살면서 민중을 돕기도 하고 민중에게 사랑받기도 한 도깨비처럼 지역의 관심 속에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름 지어졌다고 한다. (NPO법인 안내팸플렛 참조)
- 12) ‘루츠어’는 외국에 뿌리를 두고 있는 사람들의 언어를 의미하는 용어로, ‘모어’ ‘계승어’와 함께 사용되고 있다. ‘돗까비루츠어교실’은 모어교실의 이름으로 고유명사이므로 그대로 사용하기로 한다.

돛까비루츠어교실은 부모와의 커뮤니케이션, 부모에 대한 의식 변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외국에 뿌리를 가진 아동·학생은 학교에서 일본어를 습득해 가면서 베트남어를 잊어 버려가고, 외국인부모는 생계를 위해 일을 하느라고 일본어를 습득할 여유를 갖지 못한다. 이러한 가운데 외국에 뿌리를 가진 아동·학생과 부모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이 단절되게 되는데, 돛까비루츠어교실은 이러한 상황에서 부모와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통로 역할을 하고자 한다. 또한 자신의 부모를 부끄럽게 생각하는 외국에 뿌리를 가진 아동·학생들에게 자신의 뿌리를 인식하게 함으로써 부모에 대한 의식을 변화시키고자 한다.

돛까비루츠어교실은 시로부터 1회 5천 엔의 강사비를 지급받고 있으며, 기업의 조성금과 약 100여명의 회원들에 의한 회비로 운영되고 있다. 회원은 NPO돛까비 사업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로 연 3천 엔~5천 엔의 회비를 낸다. 장소는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안중인권커뮤니티의 교실을 무료로 사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돛까비루츠어교실은 지자체와 기업, 지역이 연계되어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다.

돛까비루츠어교실은 매주 토요일 10시부터 40분간 3교시의 수업이 실시되며, 6개 그룹을 두 명의 베트남어 강사가 지도하고 있다. 학생은 초·중학생 약 25명으로 일본 출생의 학생이 대부분이다. 담당 교사는 초·중학교에서 통역과 상담을 하는 가운데 소개를 통해 돛까비루츠어교실에서 베트남어를 가르치게 되었는데, 모어 강사의 확보가 운영상 어려운 문제 가운데 하나이다.

교재는 2007년 돛까비루츠어교실의 선생님과 일본학교의 일본인 선생님, 일본학교의 베트남어 선생님이 참가하여 초급용 베트남어 교재를 개발하였다. 초급용 교재는 기본 글자가 중심 내용으로 돛까비루츠어교실의 기초 단계에서 사용하고 있다. 초급 이상의 단계에서는 미국 교재를 사용하여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수업의 진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먼저 3년째 돛까비루츠어교실에 다니고 있는 3학년 그룹의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선생님과 인사를 나눈 후 지난 시간에 한 내용을 칠판에 어휘를 쓰면서 읽고 복습한다. ②반대어와 유사어를 비교하면서 어휘를 익힌다. ③교재를 사용하여 문장 읽기, 쓰기, 말하기를 연습한다. ④숙제를 검토한다. 세 명의 학생들로 구성된 이 그룹은 학생들에게 맞추어 진도가 진행되었고, 한 사람씩 검토와 확인이 가능하였다.

다른 한 그룹은 6학년 한 명과 중학교 2학년 한 명으로 구성된 그룹으로 5년째 돛까비루츠어교실에 다니고 있었다. 수업이 시작되자 ①한 명씩 선생님 앞에 앉아

서 옛날이야기 책을 읽는다. 기다리는 다른 학생은 지난 시간에 학습한 것을 복습한다. ②정해진 주제에 관하여 설명하고 질문한다. ③앞에서 배운 어휘를 사용하여 문장을 만든다. 이 그룹의 경우 가정에서 주로 베트남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수업의 진행은 주로 베트남어를 사용하고 있고, 따라서 일상 언어보다 학습 언어 습득에 중점을 두고 있다.

지속적인 모어 학습은 가정에서 대부분 모어를 유지하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커다란 효과를 가져왔다고 하겠다. 또한 학교에서와 달리 모어 교실에서 편안한 모습을 보여 줌으로써 외국인 아동·학생에게는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였다. 한편 학교와 달리 구속력이 없는 자유스러운 분위기는 학생들의 잦은 결석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보호자와의 보다 적극적인 연계 형성을 필요로 하고 있다.

<표 IV- 16> 돛까비루초어교실 실천사례

비교 항목			돛까비루초어교실
취지 및 목적			1974년 재일교포의 청년들이 외국에 뿌리를 가진 아동·학생의 학교에서의 문제가 가정배경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어린이회를 만들어 스터디를 시작한 것에서부터 시작 2002년 NPO 법인이 되면서 시의 위탁 사업으로 상담(한국어, 베트남어, 중국어)과 모어 교실을 운영. 부모와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통로 역할, 부모에 대한 의식 변화를 목적으로 함.
주관 기관(행·재정 지원)			야오시국제교류협회
운영 기관			NPO법인 돛까비
운영 방법	직영/위탁		위탁
	거점/단위학교		
	실시 유형		연중 매주 토요일 10:00~10:40/10:50~11:30/11:40~12:20
	교육자		모어강사 2명
	학습자		베트남에 뿌리를 가진 학생 : 초·중학생 25명
교육 과정	지도 언어		베트남어
	교재	개발	2007년 기업 조성금으로 교재 개발 : 초급용 돛까비 선생님, 학교 선생님(일본인, 베트남어 가능) 참가
		내용	기본 글자

비교 항목		돛까비루초어교실
	교육 방법	학년에 따라 6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수업. 개발한 교재를 사용한 기본 글자 학습 미국 교재를 사용한 수업
학생의 수업 참여 조건	신청 자격 조건	특별히 없음
운영 지원	학교장의 지원	
	자원봉사·도우미	
	물리적 지원	1. 장소 : 안중인권커뮤니티→무료 2. 운영 : 시에서 감사비 지급, 기업의 조성금, 회원의 회비 (약 100명의 회원 :회비 연3000~5000엔)
	기타	
교육 효과	효과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공간을 제공
	문제점	학생들이 결석하지 않고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 부모와의 연계
	기타	가정에서 베트남어를 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교실에서는 일상 언어보다 학습언어에 주력하고 있음



3) 토요나카국제교류센터의 ‘어린이모어사업’

오사카후 토요나카시는 외국인이 소수 산재해 있는 지역으로 학교나 집 근처에서 같은 배경을 가진 친구를 만나기가 쉽지 않은 환경적 특징을 가졌다. 이러한 환경에 있는 외국에 뿌리를 가진 아동·학생에게 그들만의 공간을 만들어 주고자 2006년부터 ‘어린이서포트사업’을 시작한다. 이 사업은 학교 학습 가운데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나 일본어를 지원하는 ‘일본어·학습 지원 사업’과 부모의 언어·문화를 배우는 ‘어린이모어사업’의 두 가지 활동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어린이모어사업’은 매월 2·4 일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 실시된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모어교실은 중국어·스페인어·포르투갈어의 3개 언어이다. 이 사업은 국제교류협회 사업의 일환인 외국인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외국인여성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상담을 하는 가운데 집에서의 커뮤니케이션 문제에 따른 부모의 의뢰로 시작하게 된다. 따라서 모어와 문화를 배움으로써 외국에 뿌리를 가진 아동·학생에게 자긍심을 높여주고 부모와의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모어교실의 운영은 시에서 장소와 운영비의 반을 제공하고 있고, 나머지는 회원의 회비로 지원되고 있다. 모어교실의 학습자는 현재 페루 10명, 브라질 3명, 중국 5명으로 일본 출생, 유년기 일본 입국, 학교 과정 중간 편입 등 배경이 다양하다. 각 배경에 따라 교실에서의 사용 언어도 다양하여 스페인어교실과 포르투갈어교실은 모어를, 일본 출생이 많은 중국어교실은 일본어를 사용하여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모어교실에는 부모가 외국에 뿌리를 가진 아동·학생과 동반해서 오는 경우가 대다수로 아동·학생이 모어를 학습하는 동안 부모들은 외국생활이나 양육에 관한 고민 등을 같이 나누는 공간으로 사용된다.

모어교실의 담당 교사는 원어민 대학생과 대학원생으로, 이들도 어려서 일본에 온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면에서 외국에 뿌리를 가진 아동·학생이 학교나 가정의 일상생활에서 갖고 있는 불안과 고민 등을 이해하고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중요한 존재로 롤모델이 되고 있다. 또한 각 언어에는 한 명씩 운영을 지원하는 일본인 자원봉사자가 있어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교재는 담당 교사가 준비하는데 각 나라의 교과서나 사이트 자료를 사용하고 있는 상황으로 독자적인 교재 개발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또한 모어강사의 확보와 육성에 대한 필요의 소리

도 높았다.

수업 활동은 모어교실 초기에는 발음이나 문법에 중점을 두고 활동했지만, 점차 아동·학생이 스스로 체험할 수 있는 놀이·노래·요리 만들기 등의 내용을 넣어, 앞서 이야기를 듣는 수동형의 활동에서 몸으로 체험하는 참가형의 활동으로 전환하였다. 또한 학습한 노래 등을 발표회 등의 이벤트에서 발표하는 기회를 통해 아동·학생들이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모어교실의 학습을 통해 외국에 뿌리를 가진 아동·학생들은 적극적으로 자신이 알고 있는 범위의 모어를 사용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러한 모습을 통해 모어나 모국 문화에 저항이 없어졌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부모에게 드리는 감사카드 만들기를 아동·학생들이 제안하여 활동하는 모습을 통해 부모와 가족에 대한 의식의 변화를 볼 수 있었고, 자신과 같은 상황의 친구들과 만나면서 학교생활에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

토요나카시는 외국인 산재지역이라는 환경때문에 외국인을 고립시킬 수도 있지만, 이러한 환경 속에서 시도한 ‘어린이서포트사업’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맞는 교육 활동을 통해 산재지역의 특징을 장점으로 살릴 수 있는 교육의 가능성을 보여 준다. 또한 토요나카국제교류협회의 상담 사업과 토요나카국제교류센터의 일본어교실을 통한 외국인부모와의 연계는 기관과 당사자 간의 의사소통에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다.

<표 IV- 17> 토요나카국제교류센터 실천사례

비교 항목		토요나카국제교류센터
취지 및 목적		국제교류협회 사업의 일환인 외국인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외국인 여성과 외국에 뿌리를 가진 아동·학생을 대상으로 상담을 하는 가운데 집에서의 커뮤니케이션 문제에 따른 부모의 의뢰로 모어 교실이 시작
주관 기관(행·재정 지원)		토요나카시국제교류협회
운영 기관		토요나카국제교류센터
운영 방법	직영/위탁	위탁
	거점/단위학교	
	실시 유형	연중 매월 2·4 일요일 10:00~12:00

비교 항목		토요나카국제교류센터	
	교육자	토요나카국제교류센터 직원 8명 모어강사 3명	
	학습자	외국에 뿌리를 가지고 있는 아동(일본 출생, 유년기 일본 입국, 학교 과정 중간 편입 모두 포함) 페루 10명, 브라질 3명, 중국 5명	
교육 과정	지도 언어		중국어,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교재	개발	각 모어 강사가 준비
		내용	
	교육 방법		스페인어 :스페인어로 수업 진행, 보조교사가 있어서 일본어 설명 중국어: 일본 출생이 많기 때문에 일본어 사용이 많음 포르투갈어 : 포르투갈어를 주로 사용
학생의 수업 참여 조건	신청 자격 조건	특별히 없음	
운영 지원	학교장의 지원		
	자원봉사·도우미		
	물리적 지원		1. 장소 : 시에서 제공 2. 운영 : 시에서 운영의 반을 지원 받고 나머지는 회원의 지원
	기타		
교육 효과	효과		학생 : 1. 부모(가족)를 의식하기 시작 2. 자신과 같은 상황에 있는 친구들과의 만남을 통해 학교생활에 자신감을 가지게 됨
	문제점		독자적인 교재 개발 선생님 확보와 육성
기타			1. 산재지역이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맞는 교육이 가능 2. 국제교류협회의 상담 사업과 토요나카국제교류센터의 일본어교실을 통한 외국인부모와의 연계를 통해 의사소통



V

대만 사례



1. 교육지원의 배경

가. 사회적 배경

대만의 정식 명칭은 중화민국(Republic of China)으로 인구는 23,000,000명이며, 수도는 타이베이시(Taipei)이다. 대만에 거주하는 민족들은 대만인 70%, 토착 원주민(일명 고산족) 2%, 한족(대륙 남하인사) 28%로 구성되어 있고, 주로 사용하는 언어로는 표준 중국어(만다린), 대만어, 객가어, 원주민 방언 등을 사용하고 있다(臺灣觀光廳, 2010).

대만은 일본 군국주의에 의하여 50여년을 모어(대만어)를 사용하지 못하던 시절을 겪었고, 이로 인하여 모어인 대만어 교육이 중단되었었다. 그 후에는 대만 정부의 언어정책으로 표준 중국어(만다린)를 사용하도록 하는 ‘국어정책’이 추진되면서 모어교육이 중지되었다. ‘국어정책’은 공공기관이나 학교에서 표준 중국어(만다린)를 사용할 것을 권장하였기에 일상생활 외에 공식적으로는 대만어를 자제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대만에서 ‘국어’를 사용하는 것은 곧 신분과 지위를 상징하게 되었고, 표준 중국어 사용자는 무의식중에 우월감을 갖게 되었다. 당시 사회적으로는 대만어인 모어를 경시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한편 중국 대륙에서 남하한 민족 가운데는 객가인(客家人)들이 주류를 이루었으며, 이들은 객가어를 모어로 하고 있으나 일상생활 외에 모어를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을 받았다. 또한 대만의 고산 지역에 거주하던 원주민들이 경제적 이유로 인하여 대부분 하산하여 도시 생활을 하게 되면서 자신들의 원주민 방언인 모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등 다양한 형태의 모어 사용에 대한 제한을 받게 되었다(鄧運林, 1993:524).

그러나 대만 사회의 정치적 형태가 다원화되면서, 정치, 경제, 문화, 심지어는 교육계에서도 향토 문화 상실에 대한 위기감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에 일부 대만의 저명한 인사들이 정치적으로 향토 감정에 호소하기 시작하면서 문화, 예술, 교육계에서 모어학습 실시의 필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시대적 기류에 의하여 정치의 중심 세력이, 대륙 남하 인사들이 주 구성원인 국민당에서 대만의 토착 민족 중심의 민진당으로 옮겨지면서, 점차적으로 ‘대만어 모어교육’으로 전환되는 분위기가 마련되었다(鄧運林, 1993:533).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하여 전 교육부장관인 모고원(毛高元)은 1980년 대만어를 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

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대만에서 ‘모어교육’이라 함은 ‘대만어’를 가르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1987년 대륙과의 경계령이 해제된 이후, 경제 자유화, 정치 민주화 및 사회 다원화의 개혁이 본격적으로 가속화되었다. 아울러 국제화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져 국제 간 경제 무역 및 교육, 관광 등의 교류뿐만 아니라, 외국인 및 대륙 배우자들과의 국제결혼이 증가하였다. 동남아 지역에 공장을 설립하는 대만의 남향정책과 맞물려 국제결혼의 형식을 통해 대만으로 진입해 온 대륙 및 동남아 배우자들이 대만 인구의 주요한 구성원이 되었다.

1990년대 이후는 동남아 국가에서 국제결혼 방식을 통하여 대만에 거주하게 된 사람들을 대륙 출신은 ‘대륙 신부’, 동남아 등의 배우자는 ‘외국 신부’라고 불렀다. 그러나 이 용어는 ‘비(非)대만인’의 느낌이 강하고, 배척성이 강하며, 또한 잠시 거주하고 영원히 대만인으로서 대우받지 못하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어 외국인 배우자들로부터 반감을 불러 일으켰다(邱汝娜·林維言, 2004:6). 이에 시민단체에서는 국제결혼을 통하여 대만 사회로 진입해 오는 신이민자들에 대하여 긍정적인 용어로 지칭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에 국제결혼 이민자를 지칭하고 있는 다양한 용어-신이민자, 대륙 배우자, 동남아 배우자, 외국인 신부 등을 대만에서는 ‘신주민’이라고 하게 되었다(김숙이, 2010:30). 이는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 대만사회에 새롭게 진입하였다는 의미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도 국제결혼 이민자를 가리킬 때에 ‘신주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대만에서 2003년은 대만인과 외국인과의 결혼이 31.9%로 가장 많은 해였고, 2004년에는 전체 결혼자 가운데 외국인(대륙 및 동남아 배우자)이 23.8%나 되었다. 당시 사회 전반적으로 결혼률이 감소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결혼은 오히려 상승하는 추세였고, 사회문화면에 있어서도 더욱 다채로운 현상을 야기하였다(楊千儀, 2006:533; 金淑伊, 2010:29). 이로 인하여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는 사회로의 변화가 자연스럽게 심화되었고, 외국인 배우자의 모어와 모국어, 대만인의 모어 등 언어 용어에 대한 혼란을 겪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관하여 상세히 설명하면, 중국 전역에서 주로 사용되는 언어는 표준 중국어(만다린)와 각 지역의 언어이다. 따라서 대만에서는 토착어인 대만어가 사용된다. 앞서도 언급한 바 있지만, 대만인일 경우 대만어가 모어이며, 중국 대륙 출신일 경우의 모어는 표준 중국어이다. 따라서 국제결혼 이민자(외국인배우자)들이 대만에

서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표준 중국어’이다. 이 ‘표준 중국어’를 공식어로 지정하고 있기에 외국 배우자들이 대만에서 거주하기 위하여서는 ‘표준 중국어’를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한국 유학생이나 이민자들이 학습하여야 하는 것도 ‘표준 중국어’이다. 이에 신주민의 출신국 언어를 대만에서 정책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모어교육과 구분하여, ‘모어 전승 교육과정’으로 그들의 자녀에게 출신국 언어를 가르치고 있다. 이를 도표로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V-1> 대만의 결혼이민자 출신국별 모어의 의미

이민자의 출신국	모어	대만 공용어	비 고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어, 인도네시아어, 태국어 등	중국어 (표준 만다린)	필리핀어, 인도네시아어, 태국어를 교육하는 것을 ‘모어 전승 교육과정’으로 구분함
대륙 배우자	중국어 (북경어, 광둥어 등 출신 지역 중국어)	중국어 (표준 만다린)	
대만 원주민, 대만인	대만어, 원주민어	중국어, 대만어	
기타 외국 국적	영어 등 출신국 언어	중국어	

*연구자 자체 구성

대만에서는 이미 1980년대 후반 대만인을 위한 모어교육과 신주민을 위한 모어 전승교육이 동시에 진행되었다. 이처럼 시대적인 요청과 사회정치적인 변화로 인하여 대만어를 학교에서 교육하는 ‘대만어 모어교육’과 국제결혼을 통해서 이주해 온 신주민의 출신국 언어교육을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모어 교육의 대상이 신주민의 자녀이기에 다음에서는 2010년부터 타이베이 현에서 실시하고 있는 ‘모어 전승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나. 모어전승 교육과정의 필요성

대만은 작은 섬에 불과하지만, 한족, 대만인, 객가인, 원주민 등 이외에도 과거 대륙 남하 인사, 동남아 국적의 배우자 및 근로자, 외국인 등으로 구성된 매우 다양한 다문화사회이다. 더욱이 1987년 대륙과 문호 개방 이후 대륙 배우자, 국제결

혼으로 인한 동남아 이민자들이 급증하여 신주민 집단을 형성함으로써 과거에 비해 보다 다양한 문화를 형성하게 되었다. 이처럼 다양하게 구성된 민족으로 인하여 점차적으로 대만인은 신주민에 대하여 ‘우리는 한 가족이다’라는 모토로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대만 정부는 신주민에 대한 문화적응, 생활, 취업, 자녀 교육 등에 관하여 중앙과 지방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대만 정부는 대만의 풍습을 소개하고, 언어 차이 극복 등을 돕고 있으며, 신주민 자신들의 출신국 문화와 풍습을 대만에 전승하고, 양국의 생활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가장 현격한 정책적 지원으로는 2007년 중앙 정부 차원에서 출입관리국을 「출입국 및 이민서(入出國及移民署)」로 승격한 것을 들 수 있다. 「출입국 및 이민서」에서는 신주민의 입국에서부터 생활적응, 취업, 진학, 보건 위생 등의 각가지 문제들에 대하여 정부차원의 돌봄과 재정 확보 및 지원을 하고 있다. 이에 각 부처별로 역할을 분담하고 있을 뿐 아니라, 연계 체제도 강화되어 신주민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례로, 국제결혼 배우자들이 대체적으로 낮은 학력을 소지하고 있는 점을 기초로 교육부의 교육국에서는 이들을 위해 보습학교에서 중국어 학습 및 학력 취득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주간에 수업 참석이 어려운 것을 배려하여, 야간에도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중 대학 졸업 출신자에게도 동일하게 초중등 수준(낮은)의 중국어를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있어, 시민단체 및 전문가들은 이들을 성인교육 대상으로 구분하여 언어 및 보다 상위 학력 수준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을 강조한다(金淑伊, 2010:48).

이처럼 대만은 국제결혼을 통해서 입국한 만큼 신주민이 생활적응을 하고, 화목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가족과의 소통을 중시하고 있다. 따라서 신주민 가족과 자녀들로 하여금 배우자의 출신국 언어를 배우게 함으로써 상호 문화에 대한 이해 및 문화적 교류를 활성화하는 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뿐만 아니라, 1998년 이후 대만인의 저출산으로 인해 출생률이 급속히 감소하였고, 이러한 영향은 초등학교 신입생 입학생 수뿐만 아니라 상급 학교교육의 단계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상대적으로 신주민의 자녀가 초중학교에 재학하

고 있는 학생수는 급격하게 증가하였다(<표 V-2> 참조).

더욱이 신주민 자녀의 학습 및 생활 조사 결과, 대만인과 결혼한 외국인 및 대륙 배우자 대부분이 경제, 사회적 지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영향은 초등학교 저학년 단계의 학습 성과 이외에도 대만을 떠나게 되거나, 고학년 후의 학습에 있어 신주민 자녀가 일반 학생과 경쟁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신주민 학생들을 조기에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教育部統計處, 2009:3).

이러한 사회적 공감대가 정책으로 실현되어 2006년 교육부는 「외국 및 대륙 배우자 자녀의 교육지도 계획 지원 원칙」을 발표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각 급 학교에서는 외국인 배우자 자녀에 대해 구체적인 지도를 하였다. 그리고 교육부는 위의 원칙에 부족했던 조항들을 수정하여 2009년 <신이민¹³⁾ 자녀교육 개선 방안>을 발표하였다. 개선 방안의 주요 항목으로 ‘모어 전승 교육과정’을 개설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모어 전승 교육과정의 개설 배경은 외국인 배우자인 학부모의 염원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교사와 신주민이 학교 현장을 체험하면서, 자신의 자녀들에게 출신국 언어를 학교에서 가르칠 수 있다면, 가정에서도 자녀의 학습을 지도하기 쉬울 것이라는 희망 사항이 학교와 교육청에 전달된 것이다. 외국인 배우자인 학부모의 염원에 의하여 ‘모어 전승 교육과정’을 기획하게 된 것이다.

교육부는 모어 전승 교육과정을 통하여 신주민 자녀가 스스로의 정체성을 인지할 뿐만 아니라, 학습에 열의를 갖게 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았다. 뿐만 아니라, 그 부모의 출신국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약자인 외국인 배우자의 자녀가 개인적으로 언어 역량을 소유하게 될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는 이들이 국가의 인적자원으로 성장하여, 개인 혹은 대만사회에 경제적인 측면에서 경쟁력을 높여 주게 될 것이라는 비전을 갖게 되었다(教育部, 2009).

결국 대만에서는 ‘모어 전승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신주민 자녀에게 모어교육을 강화함으로써, ‘동화와 전승’이라는 한 사회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구성원에 대한 긍정적인 정체성을 형성하고, 타 집단에 속한 구성원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정책이 실천되고 있는 것이다.

13) 대만에서는 국제결혼 이민자를 신주민이라고 호칭하나 법률상으로는 신이민자라고 표기함.

2. 대만 내 다문화 현황

대만에서의 ‘외국인 배우자’는 중화민국 국민과 본 국적을 소지하지 않은 자와 혼인 한 관계로, 대륙, 홍콩 및 마카오, 비동남아 지역의 배우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대만 정부는 외국인 배우자의 범위를 ‘동남아 국적을 가진 자’로 제한하고 있어, 외국인 배우자라고 할 경우 대부분 ‘동남아 배우자’로 이해하고 있다. 실제 취업 혹은 거류증 문제에 있어 대륙 배우자와 외국인 배우자로 명확하게 구분되고, 차별화된 조건으로 국적 취득을 하고 있으나 자녀의 학교 입학 및 진학은 동일하다.

가. 신주민 현황

1987년 이후 대만에서의 국제결혼은 증가하였다. 대만 내정부 자료에 의하면, 2003년에 외국인과의 국제 결혼률이 가장 높아 전체 결혼의 31.9%를 차지하였다. 그 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대만에 거주하고 있는 신주민은 2009년 말 전국적으로 총 429,495명이다. 이후 2010년 6월 436,556명으로 약 7,061명이 증가하였다. 아래 <표 V-2-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최근 6년 간 전국 신주민 수가 71,960명이 증가하였으며, 현재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표 V-2> 전국 신주민 현황(2005-2010년도)

(단위 : 명)

연도	전 국		
	총계	중국·홍콩·마카오계 배우자	외국인 배우자
2005년	364,596	233,697	130,899
2006년	383,204	249,118	134,086
2007년	399,038	262,421	136,617
2008년	413,421	274,173	139,248
2009년	429,495	285,793	143,702
2010년	436,556	291,241	145,315

자료 : 內政府入出國及移民署全國資訊網 (2010).

거주 지역별로는 타이베이현(臺北縣), 타이베이시(臺北市), 타오이엔현(桃園縣) 순으로 신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다. 타오이엔현은 대륙 배우자들이 약 83.63%로 비율로는 가장 높다. 그러나 여전히 타이베이현에 58,899명으로 가장 많은 수의 대륙 배우자들이 거주하고 있다. 국적별로는 대륙 배우자들은 타이베이현, 타오이엔현, 타이베이시 순으로 많이 거주하고, 외국인 배우자들은 팽호(澎湖), 운림(雲林) 등 남부 농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金淑伊, 2010:31).

<표 V-3> 신주민 거주 최다 3위 지역 현황(2010년 6월)

	타이베이현	타이베이시	타오이엔현
신주민 총계	83,148	46,828	46,582
대륙·홍콩·마카오배우자	58,899	36,129	38,960
%	70.83	77.15	83.63
외국인 배우자	24,269	10,699	7,622
%	29.18	22.84	16.36

자료: 內政府入出國及移民署全國資訊網(2010). <http://www.immigration.gov.tw/aspcode/info9906.as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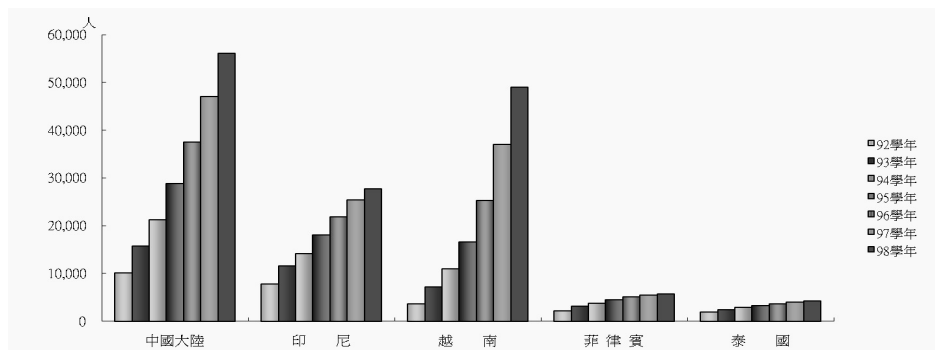
나. 국적별 신생아 출생수

1998년 총 신생아수 271,450명에서 대만 국적은 257,546명이고, 대륙 및 외국인은 13,904명(5.12%)이었는데, 2003년 총 신생아수 227,070명에서 대만 국적외의 신생아수는 30,348명(13.37%)으로 급증하였다. 2009년 총 신생아수 191,310명 가운데 외국 국적의 신생아 수는 16,612명으로 약 8.68%를 차지하고 있다(內政府統計處, 2009).

이처럼 외국인 배우자의 신생아수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유아교육 및 보육교육에 있어서도 외국인 배우자 자녀에 대한 정책 지원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다. 신주민 자녀의 취학 현황

대만인의 출생률이 낮아짐에 따라 최근 전국의 초중등학교 학생수도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2005학년도 2,783,000명에서 2008학년도에는 2,629,000명으로 153,796명이 줄어 5.53%의 감소를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주민의 학생수는 오히려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2008년도 전국 신주민 자녀의 초중학생 총수는 129,899명이었다. 이는 2007학년도에 비하여 26,299명이 증가하여, 총 103,600명으로 증가폭은 25.39%나 되었다.



자료: 教育部統計處(2010). 就讀國中小之外籍配偶子女人數—按父母國籍分.

[그림 V-1] 부모 국적별 신주민 자녀의 초중학교 취학 현황

<표 V-4> 전국 신주민의 자녀 초중학교 취학생수

(단위: 명, %)

학년도	총계			초등학교 학생수			중학교 학생수		
	외국인배우자 자녀			외국인배우자 자녀			외국인배우자 자녀		
	명수	비율		명수	비율		명수	비율	
2005	2,783,075	60,258	2.17	1,831,873	53,334	2.91	951,202	6,924	0.73
2006	2,750,737	80,166	2.91	1,798,393	70,797	3.94	952,344	9,369	0.98
2007	2,707,139	103,600	3.83	1,753,951	90,958	5.19	953,188	12,642	1.33
2008	2,629,279	129,899	4.94	1,677,303	113,173	6.75	951,976	16,726	1.76
예년 증감수	-77,860	26,299	(1.11)	-76,648	22,215	(1.56)	-1,212	4,084	(0.43)
예년 증감%	-2.88	25.39	—	-4.37	24.42	—	-0.13	32.31	—

자료: 教育部統計處(2010). 就讀國中小之外籍配偶子女人數—按父母國籍分.

라. 신주민 자녀의 부모 국적별 현황

신주민 자녀의 국적별 현황으로 볼 때, 2009년에는 대륙 배우자의 자녀수가 36.15%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미얀마, 기타 국적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3년에는 총 학생수가 30,040명에 불과하였는데, 2009년에 155,144명으로 5배가 증가하였다.

<표 V-5> 신주민 자녀의 부모 국적별 초중학교 재학생수

(단위 : 명)

국적별	총계	초등학교							중학교			
		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계	1학년	2학년	3학년
총계	155,144	133,112	27,423	28,820	25,993	20,642	16,250	13,984	22,032	8,881	7,342	5,809
대륙	56,087	48,511	9,446	10,092	9,307	8,258	6,328	5,080	7,576	2,999	2,519	2,058
베트남	48,973	46,026	11,876	11,744	9,169	5,842	4,198	3,197	2,947	1,538	911	498
인도네시아	27,678	21,380	3,354	4,017	4,259	3,536	3,032	3,182	6,298	2,452	2,141	1,705
태국	4,229	3,221	471	547	620	569	498	516	1,008	396	338	274
필리핀	5,701	4,099	532	619	708	788	693	759	1,602	620	557	425
캄보디아	3,257	3,183	672	736	704	497	357	217	74	32	20	22
일본	1,064	716	115	110	118	134	128	111	348	111	120	117
말레이시아	1,787	1,178	145	168	199	207	225	234	609	208	209	192
미국	685	519	104	100	105	91	55	64	166	63	46	57
남한	652	434	69	62	84	72	71	76	218	75	75	68
미얀마	2,469	1,943	265	296	363	370	351	298	526	156	202	168
싱가포르	188	129	24	18	25	21	29	12	59	21	16	22
캐나다	157	125	31	28	27	14	10	15	32	10	11	11
기타	2,217	1,648	319	283	305	243	275	223	569	200	177	192

자료 : 內政府統計處(2009). 2009學年度外籍配偶子女就讀國中小人數統計-縣市國籍別.

위의 <표 V-5>에서 보면 초등학교생은 133,112명, 중학생은 22,032명으로 총 155,144명이 재학하고 있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대륙 배우자의

재학생수는 56,087명, 베트남 48,973명, 인도네시아 27,678명이고, 필리핀 5,701명이며, 이를 제외한 기타 국적 자녀수는 각각 5,000명 이하이다(內政府統計處, 2009).

3. 모어교육의 정책적 지원

대만의 신주민 정책 이념은 외교차원의 이민자, 사회인구 정책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문화접촉, 가치 재정립에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책의 범정책임을 강조하는 한편, 감성적인 관심을 가지고, 상황에 적합하게, 객관적인 정책목표를 지향하고 있다(馮淸皇, 2010).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신주민에 대한 교육적 지원이 정책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가. 중앙 정부의 정책 지원

1) 정책의 필요성

대만의 신주민 자녀(외국 및 대륙 배우 자녀)수가 해마다 증가함에 따라 교육부는 급증하는 신주민 학생을 위한 교육지도 방안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에 당면하였다. 특히, 신주민 자녀들은 문화, 언어, 풍습 및 문자(한자) 사용에 어려움을 보여 생활적응이 쉽지 않고, 특히, 학교생활에 부적응을 나타내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을 양육해야 하는 신주민 부모 자신도 대만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정에서 숙제 지도도 어렵고, 자녀 및 교사들과도 소통의 어려움을 겪었다. 따라서 교육부는 신주민 부모의 출신국 언어를 통하여 자녀를 지도할 수 있는 활로를 열어 주게 되었다.

신주민의 언어 표현이 자녀의 언어 학습에 영향을 주고, 이는 동시에 자녀의 학습 적응에도 어려움을 주기 때문에 보조학습을 실시하지 않으면 자녀들의 학습 경쟁력은 떨어질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신주민 가운데 대륙 출신 부모는 일상생활에서는 불편함이 없다고 할지라도, 자녀의 학습지도에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예를 들어, 대륙은 중국어 발음에 있어 한어병음이라는 표기법을 사용하고, 대만은 주음

부호를 사용하고 있다. 이 두 가지 유형의 중국어 발음 표기법은 완전히 상이한 체계라서 대만에서 공부를 하려면 반드시 주음부호를 학습해야 하기 때문에 대륙 배우자가 대만에서 학교를 다니는 자녀를 지도하려면 주음부호를 배워야 가능하다. 따라서 자녀의 학습 지도가 쉽지 않다. 한편 동남아 출신 신주민들은 대만어의 의사소통조차도 어렵기 때문에 자녀의 학습 지도는 전혀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신주민 자녀의 생활적응, 학습적응, 숙제지도, 교사와의 의사소통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교육부는 「외국 및 대륙배우자 돌봄 계획 업무 원칙」과 「초중등학교 및 유치원의 취약학생 지원 실시 요점」을 발표하여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 가운데 「초중등 및 유치원의 취약학생을 위한 지원 항목」은 학업성취도가 낮은 학생을 위한 보조 학습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吳瓊茹, 2010:18).

이러한 정책을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언어상 의사소통의 한계로 인하여 가정에서의 자녀 학습지도는 여전히 어려운 문제로 남아있다. 이는 자녀로 하여금 학습에 대한 흥미를 상실하게 하였다. 따라서 기존의 신주민 자녀의 학습지원 방안에서 거론되지 않았던 ‘모어 전승 교육과정’의 절대적인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이에 의해 <신이민 자녀교육 개선 방안>에서 중점적으로 지원하게 되었다.

실제, ‘모어 전승 교육과정’의 주요 수혜자는 동남아 국적 배우자의 자녀이다. 대륙 배우자 자녀는 언어에 있어서는 대만과 유사성을 지니고 있기에 가정이나 학교 생활에 있어 크게 어려움은 없기 때문이다.

2) 정책 목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만 교육부는 신주민 자녀 교육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외국 및 대륙 배우자 자녀의 교육지도계획 지원원칙」을 수정하여 2009년 <신이민 자녀교육 개선 방안>을 제정하였다. 이 방안에서 특히 강조된 것이 ‘모어 전승 교육과정’의 실시이다.

모어 전승 교육과정의 정책 목표는 신주민 자녀의 모어전승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이들의 자녀가 스스로 정체성을 확립하고, 아울러 학습을 즐겨워하고, 그 부모(모)의 모어를 사용함으로써 또 하나의 언어 자산을 가지게 되고, 국가 미래 경쟁력을 갖게 하는 것이다(吳瓊茹, 2010:20).

즉, 궁극적으로 모어를 통하여 외국인 배우자와 자녀간의 의사소통의 기회를 확대하고, 이로 인하여 자녀의 학습에 대한 흥미를 높일 수 있을뿐더러, 향후 이중언어를 소유하게 되어, 다양한 역량을 소유하고, 인적 자원을 개발함으로써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경쟁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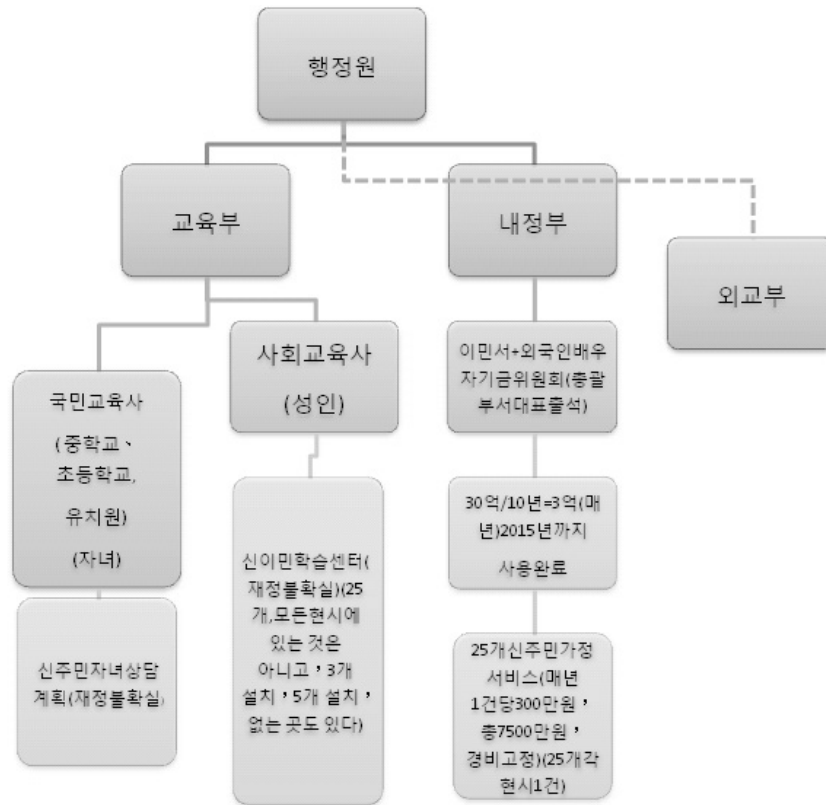
구체적인 실시 계획으로 2009년에 6개월간 단기적으로 시범학교를 선정하여 실시하였다. 이를 통하여 2010년 3월부터 신청하는 학교에 한하여 지원하였는데, 타이베이현의 경우, 3개 초등학교에서 이를 실시하고 있다. 각 반의 개설은 겨울방학에는 4단위, 여름방학에는 8단위이다. 1학기와 2학기 최대 18단위를 기준으로 각 학교는 학급 개설시 전체 단위를 고려하고, 학기별 실제 수요에 의하여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추진 체제

대만의 행정 체제는 입법원, 사법원, 감찰원, 고시원, 행정원 등 5원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 가운데 행정원 산하의 내정부에서 신이민의 일반적인 생활 적용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데, 하위 부서로 민정국에서 주로 이를 담당하고 있다. 이민서에서는 출입국 관리 및 신주민 돌봄 기금회를 운영하고 있다.

신이민 관련 업무는 신분증, 보건위생, 보험, 취업, 교육 등 다양한 영역을 포함하고 있다. 이들 각 영역별로 중앙 부처 산하에서 역할 분담을 하여 통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예컨대, 내정부에서는 출입국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이는 신분증 취득 및 취업과 연계되어 있어, 민정국에서 담당하게 된다. 한편 외국인 배우자들이 신분증을 취득하기 위한 기본 조건이 중국어 학습 36시간 혹은 72시간의 의무적 이수인데 이는 교육부에서 실시하고 있어 부처 간 연계가 긴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교육부에서는 신주민 및 그 자녀의 교육을 국민교육사와 사회교육사에서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모어 전승 교육과정’은 교육국의 국민교육사에서 담당하고 있다. 이를 도식화하면 아래 [그림 V-2]과 같다.



[그림 V-2] 대만 중앙정부의 신주민 교육정책 추진체계도

나. 지방 정부의 정책 지원

2010년 6월 통계에 의하면, 신주민 총 436,556명 가운데 가장 많은 신주민이 타이베이현(우리의 경기도에 해당)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이베이현에 신주민 83,148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타이베이시에는 그 다음으로 많아 46,828명이 거주하고 있다. 다음에서는 신주민의 점유율이 가장 높은 대북현(타이베이현)과 다음 순으로 높은 대북시(타이베이시)의 정책을 중심으로 비교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추진체계

타이베이시와 타이베이현의 신주민 관련 정책 추진 체계는 이원화되어 있다. 다음의 [그림 V-3-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타이베이시는 민정국 → 인구정책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타이베이현에서는 현 정부 → 교육국 → 신주민 문교 지도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부서에서 교육 관련 업무 및 직업교육 훈련 등을 지원하고, 생활 적응, 취업, 보건, 거류 등의 업무는 연계 운영하고 있다. 특히, 타이베이현의 경우, 민정국, 위생국, 노공국, 문화국, 신문처, 교통국, 경찰국, 사회국 등은 교육국의 ‘신주민 문교 지도과’를 중심으로 단일 창구화 하여 신주민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의 자원을 연계하고 있다. 이는 기타 지역에서는 볼 수 없는 것으로 원활한 지원 체계의 기능을 발휘하고 있어, 대만에서도 우수 사례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단일 창구는 신주민의 각종 필요와 요구에 즉각적으로 대응하여 문제들을 신속히 해결해 주고 있다.



[그림 V-3] 지방정부의 신주민 교육정책 추진체계도

2) 재정 지원 정책

대만은 외국인 배우자 및 그 자녀가 빠른 시일 안에 대만의 생활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2003년부터 「외국인 및 대륙 배우자 돌봄 지원 시책」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정부와 민간 자원을 효과적으로 통합하여, 외국인 배우자를 돌보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에 2005년 ‘외국인 배우자 돌봄 지도 기금’을 마련하여, 각 부처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내정부로 이관하였다. 매년 3억씩, 10년간 총 30억을 마련하여 이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외국인 배우자 돌봄 사업에 지원하고 있다.

보조 대상은 중앙정부 및 직할시, 현(시)정부와 재단법인 혹은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이다. 이들은 대만지역에 거주하는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외국인, 무국적인, 대륙지역 혹은 이미 국적을 취득하였지만 여전히 돌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 자 및 그 자녀들을 지원한다.

이 기금은 2015년까지 10년간 사용하면 소멸하는 것으로 외국인 배우자 및 그 자녀를 돌보는 관련 사업에 집중 지원된다. 각 단위에서 신주민 관련 사업이나 계획안을 제출하면 기금관리회에서 이를 심의하여 지원하게 된다(內政部入出國及移民署, 2010).

다. 타이베이시의 신주민 관련 정책

타이베이시는 대만의 수도이며, 행정의 중심지로서 중앙 정부 차원의 정책 집행이 가장 먼저 실시되는 곳이다. 타이베이시는 신주민을 위한 정책에 있어서 타이베이현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타이베이시 정부 산하의 민정국에서 시정부가 통합적으로 외국인 배우자 돌봄 상담 서비스 체제를 추진하여, 교사들에게 다문화 소양을 향상시키며, 신주민 자녀의 학습 능력을 개발하고, 신주민의 중국어 능력과 생활 적응력을 계발시키며, 존중과 화합으로 화합하는 학교 문화를 유지하는 정책을 지향하고 있다.

1) 현황

타이베이시의 초중학교 학생수가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2005학년도에는 281,896명에서 2008학년도에는 261,907명으로 19,989명이 감소하여, 7.09%감소하였다. 그 가운데 신주민 자녀의 학생수는 오히려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점유율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08학년도 신이민 자녀가 초중학교에 입학 한 수는 8,719명으로, 전체 총 초중학교 학생수 261,907명의 3.33%이다. 그 가운데 초등학생은 7,198명, 중학생은 1,521명으로, 초중학교 각각 학생 총수의 4.41%와 1.54%를 점유하고 있다. 신이민 부모의 비율이 해마다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어 조기에 관련 교육정책을 계획하여 양호한 학습 환경을 제공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표 V-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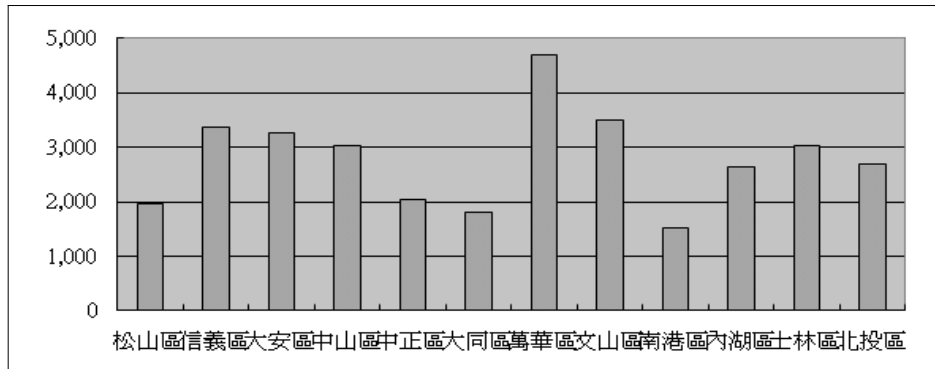
<표 V-6> 타이베이시 신주민 자녀의 초·중학교 취학 현황

(단위: 명, %)

학년도	총계			초등학교 학생수			중학교 학생수		
	외국인배우자 자녀			외국인배우자 자녀			외국인배우자 자녀		
	명수	비율		명수	비율		명수	비율	
2005	281,896	5,031	1.78	183,171	4,025	2.20	98,725	1,006	1.02
2006	277,159	5,888	2.12	178,494	4,808	2.69	98,665	1,080	1.09
2007	271,391	7,155	2.64	172,474	5,880	3.41	98,917	1,275	1.29
2008	261,907	8,719	3.33	163,133	7,198	4.41	98,774	1,521	1.54
전년도 증감수	-9,484	1,564	(0.69)	-9,341	1,318	(1.00)	-143	246	(0.25)
전년도 증감%	-3.49	21.86	—	-5.42	22.42	—	-0.14	19.29	—

자료: 臺北市政府教育局.

타이베이시의 12곳 행정구역 중 2009년 신주민 수가 가장 많은 곳은 만화구(萬華區)로 타이베이시 신주민의 14%(4,702명)가 이 곳에 거주하고 있고, 그 다음이 문산구(文山區)로 10.38%(3,451명)의 신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자료 : 馮清皇(2010). 臺北市新移民照顧輔導政策及實施方案.

[그림 V-4] 2009년 타이베이시 각 행정구역의 신주민 주민수 현황

2) 신주민 교육정책

2003년 7월 타이베이시는 「신이민 돌봄·지도 정책 및 실시 방안(臺北市新移民照顧輔導政策及實施方案)」을 발표하여 이 방안을 근거로 시에 거주하는 신주민을 돌보고 있다. 타이베이시 정부는 기관 및 민간단체의 기존 자원을 통합하고 이에 대한 관리·심사방법을 마련하여, 집행방안에 관한 적절한 업무분담을 통해 자원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완전한 돌봄·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기존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였다.

또한 신주민의 기본 권익과 필요를 직시하고 돌봄·지도대책을 실시하기 위해 <신주민 돌봄·지도대책 자문위원회>를 특설하였다. 이를 통해 신주민의 생활적응능력을 향상시키고, 다문화사회 창조 도모의 목적을 실현하고자 하였다. 이 위원회는 매 3개월 마다 정기 위원회의를 소집하며, 특정 의제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고, 필요할 경우 상황에 따라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타이베이 돌봄 정책 가운데 생활적응능력 향상 항목에 의거하여 ‘타이베이시 신이민회관 설치’를 하였고, 아울러 신주민 생활성장캠프 및 각종 교육과정을 실시하고 있다. 신이민회관의 주요 안건 집행을 위해 3개월에 한 번씩 각 관련 부서장 혹은 담당자가 회의를 하고 있으며, 특별히 개별 사안이 발생 할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하여 사안에 대하여 각 부처가 협의한다. 예를 들어, 대개 결혼이민자들이 결혼 10개월 후 출산을 하게 되는데, 결혼 3개월 만에 아이를 출산하게 되는 사안이

발생 할 경우, 관련 부서, 민정국 보건, 신분, 의료 등의 서비스 진행을 위하여 임시 회의를 소집하여 이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타이베이시의 신주민 교육정책 실시에 있어서는 '신이민자 통합방안'을 계획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관련 부서의 자원통합으로 교육지도망을 강화하고 있다. 한 예로, 「타이베이시 정부 신이민자 돌봄·지원위원회」를 정기적으로(1월, 4월, 7월, 10월) 개최하여 타이베이시 신이민자(가정)가 필요로 하는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타이베이시 교육국은 관련 부서와의 협조 강화를 통해 「신이민자 돌봄·지원업무 분담 및 실시 상황」을 파악하고, 신이민자 및 그 자녀에게 필요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시립도서관 본관에 「다문화자료 센터」를 설치하여 다문화교류 촉진, 다문화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며, 외국인 배우자 및 자녀 지도 자료를 정기적으로 구축하여 교육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둘째, 교육지도계획 실시, 우호·존중의 환경을 조성하였다. 교육부의 외국 국적 및 중국 배우자 자녀 교육 지도계획을 지원 실시하며, 유치원에서 고등학교(직업학교)까지 신이민자 다문화주간(다문화의 날)을 개최하고, 초중등학교 및 유치원교육의 전문성·창의성과 행동연구 공모활동 및 멀티미디어 교재 심사 선발 및 다문화 교육 Seed Teacher Workshop 및 세미나 실시, 다문화과정 및 학습지도 사이트 마련(台北益教網 <http://etweb.tp.edu.tw>과 결합), 신이민자 자국 문화 계승·교류 활동 및 다문화교육을 홍보하고 있다.

셋째, 다원적 적응 방안을 전개하며, 교육문화 콘텐츠 향상을 꾀하고 있다. 신이민자 업무에 대한 불만 신고 전화업무 운영, 중국·홍콩·마카오 지역의 학력증명서 교제 발급, 외국 국적 배우자교육 학습 실시, 타이베이시 12개 행정구 31곳 초등학교에서 신이민자 전문반 15개반 및 국민반 35개 반 개설, 성인 기본교육반 교재편집, 교사연수, 과정관련 자문 실시, 지역대학의 신이민자 과정 운영, 검정고시 실시(신이민자 포함), 신이민자 학습과정 및 각국 문화 보급 활동, 가정자원 및 관리과정(부모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넷째, 외국 국적 배우자 자녀 교육지원, 적극적·공평한 대우를 하고 있다. 중고등학교 신이민자 자녀 지역생활캠프, 가정돌봄교육계획, 방과후 대안프로그램 시행, 공립유치원 우선 입소 실시, 심신장애 아동 공립유치원 우선 입소 심사, 외국 국적 배우자 기금 전담업무 처리, 신이민자의 학습 참여를 위한 임시 탁아서비스를 하고 있다.

각종 신주민 교육 활동 지원을 통하여 타이베이시 교육국은 효율적인 시정부의 업무분담·통합, 사회자원의 선용, 완전한 교육서비스 제공, 세밀한 지원망을 구축하고 있다. 아울러 타이베이시 성인 기본교육반(신이민자 언어학습지도반 포함)은 12개 행정구역에 분포되어 있고, 타이베이시 각 학교는 신이민자 다문화주간 활동을 진행할 때, 교육부와 타이베이시 교육국에 대한 경비 신청 외에 지역사회와 관련 민간자원을 결합하여 활동의 다원성을 제고하고 있다(馮淸皇, 2010).

이처럼 타이베이시는 정부의 각 자원을 통합 연계하는 방안으로 신주민의 교육 관련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신주민의 출신국 언어교육을 통한 문화 인식 및 문화 교류 확대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라. 타이베이현의 신주민 관련 정책

1) 현황

대만 내에서는 저출산의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고, 자국 여성의 출산율이 저하되고 있지만, 신주민 출산율은 일정하게 유지되어, 이들 자녀가 타이베이현에서 점유하는 초등학교 신입생수의 비율이 점차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표 V-7> 타이베이현 신주민 자녀의 초등학교 재학생 현황

(단위 : 명, %)

지역	총계	백분비	초등학교	백분비	중학교	백분비
총계	26,272	100%	22,777	100%	3,495	100%
신장구(新莊區)	4,748	18.07%	4,172	18.32%	576	16.48%
판토구(板土區)	5,152	19.61%	4,400	19.32%	752	21.52%
삼중구(三重區)	3,949	15.03%	3,448	15.14%	501	14.33%
쌍화구(雙和區)	3,738	14.23%	3,118	13.69%	620	17.74%
삼영구(三鶯區)	3,308	12.59%	2,878	12.64%	430	12.30%
문산구(文山區)	2,021	7.69%	1,719	7.55%	302	8.64%
칠성구(七星區)	1,476	5.62%	1,329	5.83%	147	4.21%
담수구(淡水區)	1,074	4.09%	947	4.16%	127	3.63%
서방구(瑞芳區)	806	3.07%	766	3.36%	40	1.14%

자료 : 臺北縣政府教育局新住民文教輔導科(2010년 4월 기준).

따라서 타이베이현에서 신주민 및 그 자녀를 위한 교육 및 생활상의 서비스를 갖추어 제공해야 할 필요성과 긴박성이 제기되었다(臺北縣政府教育局, 2008:6-7). 이에 타이베이현은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2007년 ‘신주민 문교 지도과’를 신설하여 신주민과 관련된 모든 생활의 전반적인 서비스를 단일 창구 체제로 운영하고 있다.

2) 신주민 교육정책

타이베이 현에서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을 보살피고, 각 개인에게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여 행복을 얻게 하기 위한 신주민 및 자녀의 교육을 위한 서비스 이념으로 신주민 교육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신주민 문교지도과의 기획 하에 교육국이 대응 전략을 구상하고, 신주민 및 자녀의 다문화교육을 통해 사회적응능력을 증진시키고,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며, 가정과 사회의 화목을 꾀하여 나아가 사회적 경쟁력을 높이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타이베이 현에서는 2008년 7월 ‘신주민사무위원회’를 설립하여 신주민을 위한 자문단을 구성하였다(臺北縣政府教育局, 2008:8). 신주민사무위원회는 타이베이현 정부와 교육국의 중간 단계에서 자문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각 부처의 담당자와 정기적으로 신주민 안전에 대한 회의를 개최하여 지역 자원과 신주민을 연결시켜 주고 있다. 예를 들어, 경찰국에서는 신주민 부녀의 가정 폭력 업무 처리, 위생국에서는 출산 및 건강관리, 민정국은 가정 방문, 문화국은 전시회 등 문화 정보 제공 및 지원, 사회국은 신주민가정서비스센터 설치 운영, 교통국의 오토바이 자격증 취득(오토바이는 대만 생활의 필수품), 노공국에서는 취업, 창업 자문, 신문국에서는 협조 홍보 등의 업무를 분담하여 정기적인 회의를 통하여 신주민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臺北縣政府教育局, 2008:28).

이러한 연계 활동을 주관하는 신주민 문교 지원과에서는 다문화 관련 행사 개최, 신주민 자녀 임시탁아서비스 지원, 지역 신주민학습센터 및 국제교육센터 설치 운영, 신주민 유아의 유치원 우선 입학, 신주민 자녀 상담, 다문화 전공 연수회 개최, 각종 신주민 중국어 학습 및 생활기술 학습반 개설, 신주민 다문화교육 과정 네트워크 구축, 직업 전문 교육 개설, 신주민 다문화 방송 및 텔레비전 프로그램 제작, 신주민 교육과정 및 교재 연구 개발, 신주민 및 자녀 대상 각종 교육 학습 장려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臺北縣政府教育局, 2008:18).

특히, 다문화 교재 및 동남아 문화 및 풍습을 소개하는 다문화 동화 시리즈(1세트 10권)를 제작하여, 신주민 아동의 독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신주민 교육방송, 신주민 중국어 방송 학습, 신주민 전용 다문화 교육과정 홈페이지 개설, 신주민 교육 상담단체 구성 등 단일 창구를 통하여 각 지역 자원 및 기관, 학교를 일원화하여 체계적인 정책을 실행함으로써 신주민에 대한 각종 배려와 지원을 하고 있다.

4. 모어교육의 실천 사례

가. 타이베이현의 실천 사례

대만은 2009년 <신이민 자녀교육 개선 방안>에서 ‘모어 전승 교육과정’의 추진을 발표하였다. 이에 2009년 단기적으로 시범학교를 선정하여 실시하고, 2010년 3월부터 타이베이현의 3개 초등학교를 지정하여 실시하고 있다. 3개 초등학교는 중화시의 적수초등학교, 토성의 안화초등학교, 오곡의 오곡초등학교이다. 그 가운데 연구팀이 방문한 적수초등학교의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실시 동기

적수초등학교의 교사와 베트남 국적 학부모와 학생들이 야외 참관 활동을 하는 가운데 학생의 질문에 대하여 학부모가 중국어로 설명하기에는 자신의 중국어가 부족하고, 베트남어로 설명해 주기에는 자녀가 알아듣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당시 학부모가 현장에 있던 교사에게 자신의 자녀에게 학교에서 베트남어를 가르칠 수 없겠느냐는 부탁을 하였고, 다문화 담당 교사가 교육부에 기획안을 제출한 것이 모어 전승 교육과정 사업의 계기가 되었다.

2) 정책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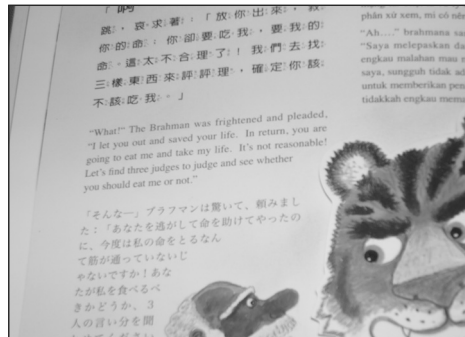
모어전승 교육과정 개설의 주요 목적은 신주민 배우자의 본국 언어를 자녀가 학습함으로써 개인적으로는 자신감과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데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이들이 다양한 언어자산을 축적함으로써 미래의 국가 경쟁력 강화를

가져온다는 역량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 교육과정의 기대효과 역시 신주민 자녀 학습 제공 및 모어의 사용으로 인한 다양한 언어 자산 축적과 미래의 국가 경쟁력 증진 등과 일맥상통 한다.

3) 실시 내용

적수초등학교는 전체 학생수 3,000명에 97개 반의 대규모 학교이다. 그 가운데 신주민 자녀 총 313명이 재학하고 있다. 대륙 149명, 베트남 93명, 인도네시아 30명, 미얀마 22명, 필리핀 8명, 태국 5명, 일본 2명, 한국 2명, 기타 2명이다. 적수초등학교는 대륙 배우자 자녀 외에 베트남 학생이 가장 많이 재학하고 있어, 모어 전승 교육과정에서 ‘베트남어’ 지정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수업을 실시하기 전에 각반의 교사의견을 수합하여 수업 시간을 결정한다. 수업 편성에 있어 학년 및 나이를 고려한다. 또한 베트남 국적 신주민 자녀의 신청표를 발송하여 참가 여부를 묻는다. 반드시 학생의 아버지 동의가 있어야 하며, 동의를 받지 못한 학생은 수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 ▶ **참가 대상** : 2009학년도 베트남 국적 자녀의 학생이 총 93명으로, 6학년 학생은 졸업 활동이 많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편제하지 않고, 1-5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모집하였다. 1-2학년 학생 1개 반, 3-5학년 학생 1개 반을 모집하였다. 이에 저학년 반은 31명, 고학년 반은 24명이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이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하였다.
- ▶ **실시 시간** : 2010년 상반기(3월- 6월) 4개월에, 2개 반을 대상으로, 32일간 수업을 실시하였고, 하반기(9월-12월)에도 4개월에 2개 반을 편성하여 32일간 수업을 진행하게 된다. 저학년 반은 1-2학년을 대상으로 매주 월요일, 오전 7:50-8:30, 고학년 반은 3-5학년을 대상으로 매주 목요일 7:50-8:30에 약 40분간 수업으로 총 16주를 진행하고 있다. 수업시간은 정식 수업이 진행되기 전 오전에 실시한다. 이는 출석률을 높이고 학생의 귀가 시간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이다. 또한 학생의 안전 및 가정의 화목, 휴식에 불편을 끼치지 않는 한편, 출석을 장려하기 위하여 주말 또는 방과 후 시간은 피한다.
- ▶ **교수자** : 중국어 교사 1명, 베트남어(학부모) 강사 1명이 진행한다. 한 학급에 2명의 강사를 배정하여, 베트남어를 중국어로 설명하기에 부족할 경우, 중국어를 베트남어로 설명할 경우 상호 보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1명의 신주민 학부모 보조 강사를 배치함으로써 학생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하고, 학생들이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교사는 신주민 중국어반 교사와 타이베이현 정부 통역훈련반을 이수한 신주민 학부모 강사로 구성되어 있다. 강사 자격은 외국인 배우자로 해당 언어 국가 출신자로 반드시 통역요원 훈련 36시간을 이수하여야 한다. 중국어 강습반은 1기에 100명 이상이 이수하고, 1년 1회 진행된다.
- ▶ **교육과정** : 자기소개, 가족 호칭, 베트남의 풍습, 생활 등의 내용을 가르치고 있다.

<표 V-8> 적수초등학교 모어전승 교육과정의 실시 내용

기간	수업시간	교육과정 내용	강사	비고
· 3월 8일, 11일 · 9월 6일, 9일	7:50~8:30	자기소개1 - 이름, 인사, 안부	서벽려(徐碧麗, 중국인 교사) / 나민유(羅敏瑜, 베트남 학부모 강사)	* 1개 학급에 2명의 강사를 배정한 것은 신주민학부모의 중국어가 유창하지 않기에, 1명의 보조 강사를 배치함으로써 수업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 3월 15일, 18일 · 9월 13일, 16일	7:50~8:30	자기소개 2 - 이름, 인사, 안부		
· 3월 22일, 25일 · 9월 20일, 23일	7:50~8:30	가족 이해 1 - 호칭		
· 3월 29일, 4월 1일 · 9월 27일, 30일	7:50~8:30	가족 이해 2 - 호칭		
· 4월 5일, 8일 · 10월 4일, 7일	7:50~8:30	베트남 이해하기 - 지리, 종교, 언어		
· 4월 12일, 15일 · 10월 11일, 14일	7:50~8:30	베트남의 풍습 1 - 명절, 의복		
· 4월 26일, 29일 · 10월 25일, 28일	7:50~8:30	베트남의 풍습 2 - 명절, 의복		
· 5월 3일, 6일 · 11월 1일, 4일	7:50~8:30	베트남 가보기 - 도서관 이해		
· 5월 10일, 13일 · 11월 8일, 11일	7:50~8:30	베트남의 음식 문화 1		
· 5월 17일, 20일 · 11월 15일, 18일	7:50~8:30	베트남의 음식 문화 2		
· 5월 24일, 27일 · 11월 22일, 25일	7:50~8:30	숫자 - 숫자 놀이 재미있어요. 색		
· 5월 31일, 6월 3일 · 11월 29일, 12월 2일	7:50~8:30	e메일 카드쓰기		
· 6월 7일, 10일 · 12월 6일, 8일	7:50~8:30	도와 드릴까요? 학교, 병원 이해하기		
· 6월 14일, 17일 · 12월 13일, 16일	7:50~8:30	손동작 놀이		
· 6월 14일, 17일 · 12월 13일, 16일	7:50~8:30	나의 성장 - 베트남 그리기		
· 6월 21일, 24일 · 12월 20일, 23일	7:50~8:30	나의 노래 - 베트남 가요		
합계 (4)회, 총 시간수 (64) 시간				

- ▶ **장려** : 모어전승 교육과정을 담당하고 있는 해당 학교 교사에게는 「공립 고등학교 이하 교사 근무평가방법」에 준하여 격려를 하도록 한다. 이 사업을 담당하는 교사는 공립 중·고등학교 이하의 교사 근무평가 방법에 준하여 포상받도록 하고 있다.
- ▶ **재정** : 교육부의 교육국에 해당 학교가 사업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를 승인받으면 된다. 교육부에서 1년에 대만화폐로 NT 48,192원(한국 돈 약 2,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예산의 구체적인 집행 내역은 아래의 <표 V-9>와 같다.

CA NHA THUONG NHAU
親^{ㄅㄧㄣ}愛^ㄞ的^{ㄉㄜ}家^{ㄐㄧㄚ}人^{ㄖㄣ} 《Yノ ㄅㄧㄣYV ㄅㄨㄣ ㄅㄧㄣ》

BA THUONG CON. VI CON GIONG ME
爸^{ㄅㄚ}爸^{ㄅㄚ}疼^{ㄊㄨㄥ}我^{ㄉㄨ} 因^ㄩ為^ㄞ我^{ㄉㄨ}像^{ㄒㄩㄥ}媽^{ㄇㄚ}媽^{ㄇㄚ}
ㄅㄚ ㄅㄚ ㄅㄨㄣ 《ㄌ ㄅㄧㄣノ ㄇㄚㄅㄨㄣ

ME THUONG CON. VI CON GIONG BA
媽^{ㄇㄚ}媽^{ㄇㄚ}疼^{ㄊㄨㄥ}我^{ㄉㄨ} 因^ㄩ為^ㄞ我^{ㄉㄨ}像^{ㄒㄩㄥ}爸^{ㄅㄚ}爸^{ㄅㄚ}
ㄇㄚㄅㄨㄣ ㄅㄚ ㄅㄨㄣ 《ㄌ ㄅㄧㄣノ ㄅㄚ

CA NHA TA CUNG YEU THUONG NHAU
一^ㄧ家^{ㄐㄧㄚ}人^{ㄖㄣ}相^{ㄒㄩㄥ}親^{ㄅㄧㄣ}相^{ㄒㄩㄥ}愛^ㄞ
《YV ㄅㄧㄣYV ㄅㄨㄣ 《ㄌV ㄅㄧㄣ ㄅㄚ ㄅㄧㄣ》

XA LA NHO GAN NHAU LA CUOI
分^{ㄈㄣ}開^{ㄎㄞ}會^{ㄅㄨㄣ}思^ㄙ念^ㄢ 見^{ㄐㄧㄢ}面^{ㄇㄣ}就^{ㄐㄩㄝ}歡^{ㄏㄨㄢ}笑^{ㄒㄩㄝ}
ㄈㄣ ㄅㄚYV ㄅㄚV ㄅㄚ 《ㄌV ㄅㄧㄣ ㄅㄚYV 《ㄅㄚV ㄅㄚ

[그림 V-5] 적수초등학교의 베트남어 모어전승 교재

<표 V-9> 적수 초등학교의 모어전승 교육과정의 예산 집행 내역

(단위 : 원(NT))

항목 / 학기 보조	개설 학급수 (A)	a 학기 시간수 (B)	b 단위수 (C)	a 시간 업무비 소계 (D) (D=B* 260/3 60)	b 시간 업무비 소계 (E) (E=C* 400/4 50)	강사 업무비 합계 (F) (F=D+E)	교재비 (G) (G=40 *(B+C)	강사수 (H)	강사 보험료 /월 (I)	강사 근로 퇴직 보험 /월 (J)	강사 건강 보험 /월 (K)	월수 총계 (L)	보험 총계 (M= (H+J+K) *L*)	총경비 (N=F+ G+M)
2010학년도 (2학기) 3.1~6.11 (4개월 계 15주, 1학급 계 15-18주)	2	32	0	16640	0	16640	1280	2	4736	1440	0	4	6176	24096
2010년 여름방학 7.5~8.27 (2개월, 8주, 1학급 8회)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010학년도 (1학기) 9.13~12.31 (4개월 16주, 1학급 16-18주)	2	32	0	16640	0	16640	1280	2	4736	1440	0	4	6176	24096
학급 개설 총계	교사 업무비 및 교재비 : 35840						보험료 : 12352						총계: 48192	

자료 : 2010年度臺北縣積穗小學教育部推動外籍及大陸配偶子女教育輔導計劃.

<표 V-10> 적수 초등학교의 모어전승 교육과정의 항목별 예산 집행 내역

(단위 : 원(NT))

번호	항목	단가	수량	단위	합계	비고
1	교사 업무비	260*2	64	시수	33,280	1학급-2명 교사 수업
2	교재비	40	64	시수	2,560	
	소계(1)		35,840			1, 2 항목 경비의 소계
3	강사근로 보험료	592	8*2	월	9,472	* 이 항목에 산정하지 않은 것은 0으로 처리 * 해당 항목은 아래에 의거 처리 1. 2009학년도(2학기) 총4개월로, 2명 초빙시 8개월로 산정 2. 2010년도 여름방학은 2개월로, 2명 초빙시 4개월로 산정
4	강사퇴직금	180	8*2	월	2,880	

번호	항목	단가	수량	단위	합계	비고
5	강사건강 보험료	803	0	월	0	3. 2010학년도(1학기) 총4개월로, 2명 초빙시 8개월로 산정 * 통역 알바는 보험이 되지 않아 중복하지 않음.
	보험료 소계(2)		12,352			
	총계 (1+2)		48,192			

자료 : 2010年度臺北縣積穗小學教育部推動外籍及大陸配偶子女教育輔導計劃.

모어 전승 교육과정을 실시하는데 있어, 강사 및 통역 아르바이트를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강사의 근로 및 건강보험이 지급되고, 퇴직금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외국인 배우자에 대한 취업 지원, 신분보장 및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台北縣中和市積穗國民小學, 2010).

4) 기대효과

이 교육과정을 통하여 신주민 학부모와 자녀가 학부모의 언어로 상호 의사소통을 함으로써 친자관계가 강화될 것이며, 모어 학습을 통하여 신주민 자녀가 이국 문화에 대한 인식을 할 수 있고 동시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신주민 자녀들이 동일성을 인지하고, 동일 언어 학습 경험을 공유하면서 상호 격려를 하여 신주민 자녀들 간 좋은 친구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들이 하나 이상의 언어를 구사함으로써, 개인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국가 경쟁력 또한 지니게 될 것이다.

5) 진단 및 평가

적수 초등학교가 모어전승 교육과정을 실시한 지 1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연구자가 1차 방문을 하였고, 1학기가 끝난 시점에서 연구팀이 2차 방문을 하였다. 대체적으로 타이베이현 교육관계자, 학교 및 교사, 학생, 학부모 등 모두 만족할 만한 평가를 하고 있었다. 연구팀이 1학기 동안 실시 해 온 수업 결과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재 편제 및 사용에 있어, 해당 교사 및 강사에 의하여 자체적으로 편제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교재 내용은 간단한 일상회화 정도의 수준이었다. 교강사가

교재 편성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상황에서 학부모 자신의 생활 경험에 의거한 일상생활 중심의 교재는 학생들에게 논리적인 언어 습득을 어렵게 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학교에서 1주일 1회 50분 정도의 수업을 받고, 6년을 학습한다고 해도 학생의 언어 발전에 큰 기대를 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일반적으로 학교에서는 중국어를 사용하고, 가정에서도 베트남어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모어 학습에 있어 장기간의 시간과 인내가 요구된다.

셋째, 모어 수업 시간이 일주일에 1회, 1시간 밖에 배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교강사도 아이들과 베트남어로 좀 더 어울릴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였다. 따라서 모어 전승 교육과정에 할당되는 시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특히, 베트남어를 일시에 많이 가르칠 수 없기 때문에 가정에서 자주 소통하는 기회를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넷째, 저학년부터 교육을 한다는 것은 장점으로 볼 수 있다. 저학년일 경우 엄마와 자주 이야기하기 때문에 더 잘 기억하는 편이고, 고학년이 되면 추가로 언어를 학습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다섯째, 베트남과 가정교육 방법에 차이가 있어 무심결에 아이가 엄마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어머니나 언어에 대하여서도 동일한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베트남어에 대해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던 자녀가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게 되고, 짧은 언어라도 베트남어를 배우고자 하는 의욕을 보이며, 무엇보다 동 민족의 또래 집단들과 수업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변화를 보이는 점은 바람직하다.

나. 타이베이시의 실천사례

타이베이시의 모어교육은 타이베이현과는 교육 대상에 차이가 있다. 타이베이시에서는 국제결혼 이민자 가족 및 다문화 관계자,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신주민의 사고를 이해하고, 이들과의 소통을 통해 필요와 요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모어교육의 대상을 자녀에 국한하지 않고, 성인 대상으로 신이민의 출신국 문화에 대한 인식 및 문화교류를 확대하기 위하여 개설하기 때문에 학교 내에서 실시하기보다는 구청 및 민간단체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타이베이시 민정국은 2010년 6월 발표한 ‘타이베이시 신주민 돌봄 상담시책 현

황 성과' 보고에서 다문화 관념의 확립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서 신주민의 다문화를 존중하고, 방송매체를 통하여 일반 대중에게 신주민의 출신국 언어와 문화를 홍보하도록 장려하였다.

타이베이시는 신주민 돌봄 성과에서 발표하였듯이, 신주민을 위한 교육 및 따뜻한 모임의 공간으로 2005년 '신이민회관'을 건립하였다. 이는 대만 전역에서 최초로 개설되었다. 회관 내부는 인터넷 및 거실, 가벼운 다과를 나눌 수 있는 주방도 마련되어 있다. 장애우를 배려하여 바닥은 문턱이 없이 평평하게 설계 되어있다.

특히, 입국 초기 신주민을 위하여 외국어 통역자(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및 영어 등)를 배치하여 수시로 대만 생활 안내 및 관련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이 자원봉사이며, 소액의 교통비가 지급된다. 또한 신이민의 원 국적 언어 연수반을 개설하여, 다문화가정의 구성원들이 신주민의 출신국 문화를 인식하고, 나아가서는 상호간 이해 및 존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 타이베이시의 다문화교육 활동

타이베이시 교육국은 민족 간의 평등과 상호 존중의 개념을 홍보하기 위하여 다문화 교재를 편제하고, 초등학교부터 민족의 평등과 상호 존중의 개념을 수용하기 위하여 신주민 문화 활동, 친자교육활동 및 학교 내 다문화 활동 주간 등을 강화하고 있다. 2008년도에 신주민 다문화 주간에 관련 활동을 실시한 학교수는 265개로, 2007년에 비하여 112개 학교가 증가하였다(73.20%). 이외에도 다문화의 날 행사 또한 중시하고 있다(<표 V-11>).

<표 V-11> 타이베이시 학교에서 개최되는 신주민 관련 활동 현황

(단위: 개)

년도	친자교육 활동 개최 학교수	신주민 다문화주간 활동 학교수
2005	8	...
2006	9	153
2007	23	153
2008	42	153
예년 비 증감수	19	0
예년 비 증감 %	82.61	0.00

자료: 臺北市政府教育局.

2) 타이베이시 지역구청의 신주민 출신국 언어·문화연수반

타이베이시의 민정국은 '신주민 출신국 언어 및 문화연수'반을 매년 개설하고 있다. 이는 신주민과 결혼한 시민 및 그 가족- 신주민과 타이베이시 시민 및 3촌 이내의 친족, 신주민을 담당하는 행정기관, 교사, 자원봉사자 및 일반 시민들이 신주민의 사고를 이해하고, 이들과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며, 문화에 대한 인식 및 문화교류를 확대하기 위함이다. 신주민 출신국 언어반은 현재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등 3개 언어반을 개설하고 있으며, 2008년에는 110명이 교육을 받았다.

<표 V-12> 타이베이시 신주민의 출신국 언어 연수반 개설 현황

연도별	개설 학습 수(개)	참가 인원(명)
2005년	3	58
2006년	3	102
2007년	3	128
2008년	3	110
예년 비 증감수	0	-18
예년 비 증감%	0.00	-14.06

자료 : 臺北市政府教育局.

타이베이시의 각 12개 구청에서 1999년부터 다문화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생활성장캠프」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대만 생활에 필요한 대만어, 출신국가 언어, 컴퓨터, 네일아트 등을 가르치고 있다. 이미 11년의 역사를 지닌 다문화 프로그램 가운데 출신국 언어프로그램은 자녀 대상 위주가 아닌 가족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는 신주민의 배우자 가족들이 배우자의 본국 언어를 습득함으로써 상대방을 잘 이해하게 되고, 신주민들을 위한 행정기관 담당자, 교사, 자원봉사자 등 일반인들의 신주민에 대한 이해를 넓혀 상담 혹은 의사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각 구청마다 모두 지도하고 있지 않고, 4개 구청에서만 한 개 국가의 언어를 선택해서 중점적으로 가르치고 있다. 송산구청은 인도네시아어, 대안구청과 남강구청은 베트남어, 내호구청은 태국어를 실시하고 있다. 교육과정은 출신국 문자 소개, 기본 문형, 일상 회화, 자기소개하기, 전화하기, 문화 알기, 가요, 음식, 쇼핑, 교통, 신체구조, 취미 등이며, 3개월 12주 기간에 총 36시간을 이수하도록 한다. 학생 모집은 30명을 정원으로 하며, 선착순 마감이다.

<표 V-13> 타이베이시의 신주민 출신국 언어 연수반 개설 내용

	대안구청	남강구청	송산구청	내호구청
언어	베트남어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태국어
기간	8월 4일-9월 14일	4월 8일-5월 24일	7월 11일-9월 26일	9월 6일-10월 31일
요일	매주 화, 목 2시-5시	수 저녁 7-9시, 토 9-12시, 1:30-2:30	매주 토 9-12:00	09.06-11.01, 일 9-12:00 10.17-10.31, 토 9:00-12:00
이수 시간	36시간	36시간	36시간	36시간
비용	무료	무료	무료	무료

자료: 臺北市民政局(2009). 2009新移民課程學習成果特輯.

3) 신이민회관(新移民會館)의 신주민 출신국 언어 연수반

신이민회관은 민정국의 주관 하에 신주민 관련 각종 연수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신주민 생활성장 캠프 4개 반(대륙 배우자반 2개, 외국인 배우자반 2개 포

함), 대만어 연수반 5개, 신이민 출신국 언어 연수반(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포함) 4개, 컴퓨터반 6개 및 수공예반 3개 등, 총 43개 반을 개설하고 있다.

4) 시민단체

시민단체에서 실시하는 신주민들을 위한 ‘중국어 학습반’은 비교적 활발하게 진행되며, 평생교육 차원에서 대동사회대학의 외국인배우자교육센터(外籍配偶資源教育中心)에서 실시되고 있다. 이외에도 민간단체로서 펄벅기금회(賽珍珠基金會)는 대만에 거주하는 혼혈아 및 입양아를 중심으로 지원하다가, 2000년부터 외국인 배우자 및 그 가정을 지원하고 있다. 주로 아동의 생활, 교육 보조, 외국인 배우자의 다양한 문제 상담, 가정 방문 상담, 각종 활동 및 교육 강좌 개최, 다문화 홍보, 국내 입양 서비스, 장학금 지급을 하고 있다.

에텐기금회(伊甸基金會)의 신이민가정성장센터에서는 2002년 8월부터 신이민 가정이 ‘완전한 돌봄’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국제결혼가정의 2대 자녀교육 상담을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주로 학업이 뒤쳐진 국제결혼이민자녀의 학업 능력이 향상 되도록 돕고, 이민자를 위하여 생활적응 강좌, 중국어 학습반을 진행하고 있다.

남양대만자매회(南洋臺灣姐妹會)는 중국어 학습을 목적으로 모인 국제결혼여성들이 2003년 12월 정식으로 발족한 단체이다. 주로 사회교육, 법령 정책 등의 홍보를 포함하여 각종 업무간의 긴밀한 관련을 맺고 있다. 자체적으로 중국어 교육과정을 개설하였고, 특히 회원들을 ‘다문화 전담교사’로 양성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자녀교육 프로그램, 공공교육과 다문화 추진, 개별 사례 지원, 의제 제안 및 수정, 회원 친목 활동 등을 하고 있다.

이들 시민단체의 활동은 타이베이시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연계 망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대만 전체의 활동이라고 할 것이다.

다. 타이베이현과 타이베이시의 운영 현황 비교

대만의 수도는 타이베이시이지만, 2010년 6월 통계에 의하면 신주민 거주 현황은 타이베이현에 비하여 36,320명이나 적다. 타이베이현은 신주민이 8만 명이나 거주하고 있으며, 단일화된 지원 창구가 있어 이들에 대한 관심 및 지원 활동이 활성화

화 되고 있다. 이 두 지역의 운영 현황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신주민의 국적별 구성비에 있어, 타이베이시는 약 80%가 대륙 배우자이다. 따라서 언어상의 문제는 적지만, 일상생활의 차이에서 오는 문화의 격차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대륙배우자나 동남아 배우자 자녀의 교육 지원에 있어서는 동등한 대우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타이베이현은 대륙 출신이 아닌 동남아 배우자가 신주민의 20%정도에 불과하지만, 숫자로는 약 2만 여명이나 된다. 동남아 배우자가 다수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모어 전승 교육과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두 지역은 신주민의 국적 별 현황을 고려한 다문화교육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둘째, 모어 전승 교육과정 실시에 있어, 타이베이시는 구청 및 신주민 회관, 지역사회 대학, 시민단체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신이민 가족, 자원봉사자, 행정 기관의 신이민 담당자 및 교사 등 성인 중심으로 신주민 출신국 언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비해 타이베이현은 신주민 자녀를 주요 대상으로 하는 모어 전승 교육과정을 실시하고 있다. 본 연구의 초점으로 볼 때, 타이베이현의 사례에서 많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셋째, 추진체제에 있어, 타이베이현은 교육국에 신주민 전담 부서인 ‘신주민 문교 지도과’를 중심으로 단일 창구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 부서를 통하여 각 부처 및 자원을 연계하고 있다. 반면에 타이베이시는 다각적인 방면으로 민간과 정부의 자원을 통합·연계하여 신주민을 보살피고 있다.

넷째, 신주민 교육지원 장소에 있어, 타이베이시는 각 부서의 자원을 통합함으로써 교육지도망을 강화하여 신주민의 돌봄과 일반인의 다문화 의식 확산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신주민이 밀집되어 있는 타이베이시의 문산구와 만화구에 신이민 회관을 설립하여 신주민들의 교육 및 교류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타이베이현은 학교 중심으로 특히, 9개 학군별로 1개의 국제학습센터를 설치하여 거점 학교를 활용하고 있다. 이는 시민과 지역사회의 활동 중심을 시설기반이 갖추어진 학교로 유입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섯째, 타이베이시는 ‘신이민 돌봄·지도 정책 및 실시 방안’을 제정하여, 이 방안을 중심으로 신주민 관련 지원 및 돌봄을 실시하고 있으며, 타이베이현은 중앙정부의 <신이민 자녀교육 개선 방안>에 의하여 모어 전승 교육과정을 실천하고 있다.

이들 지역을 비교 분석 한 결과, 타이베이시와 타이베이현에서는 각각 다른 대상으로 신주민 출신국 언어를 교육하고 있으며, 언어이외의 출신국 문화에 관련한 활동도 실시하고 있었다. 또한 일반 학생을 대상으로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활동도 점차적으로 증가시키고 있었다. 특히, 모어전승 교육과정은 시작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지만 신주민과 그 자녀의 만족도가 높고, 향후 신주민 자녀의 장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교육적 성과가 매우 기대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VI

국가 간 비교 및 정책적 시사점



본 장에서는 국내외 교육지원 현황과 실천사례 분석결과를 비교함으로써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하고, 국내 국제결혼가정 자녀를 위한 이민자 부모 출신국 언어 교육지원을 위한 향후 정책방안에의 시사점을 도출·제안하고자 한다.

1. 국가 간 비교

국가 간 비교는 결혼이민자 자녀를 위한 부모 출신국 언어 교육지원 현황과 이민자 자녀를 위한 부모 출신국 언어 교육프로그램 실천사례 두 가지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가. 교육지원 현황 비교

교육지원 현황 비교는 결혼이민자 자녀를 위한 부모 출신국 언어에 대한 용어 사용현황, 추진체계, 관련법 및 정책, 주요 교육대상, 실행배경, 실시시기, 재정지원, 시행학교 등을 준거로 이루어졌다. 이를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용어

이민자 부모의 출신국 언어를 나타내는 용어는 국가마다, 사용자마다 달랐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중언어, 모어, 어머니 나라 언어 등이 사용되었고, 일본은 모어, 계승어, 루츠어 등의 용어를 사용하였다. 대만은 모어, 모어전승어, 모어전승교육과정이란 용어를 사용하였다. 다양한 용어들의 사용과 함께 이들 용어들이 사용자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음을 감안할 때, 이민자 부모의 출신국 언어를 나타내는 용어에 대한 정립이 우선적으로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한국	일본	대만
이중언어, 모어(어머니 나라 언어), 결혼이민자 출신국 언어	모어, 계승어, 루츠어	모어, 모어전승어, 모어 전승 교육과정

2) 추진체계 및 관련 법·정책

이민자 부모의 출신국 언어 교육지원을 위한 추진체계 및 관련법, 정책은 국가 간 유사성을 보였다. 특히 우리나라는 대만과 중앙차원의 추진체계에 있어 매우 비슷하여 학교교육담당 부처와 지역교육, 복지담당 부처 두 곳이 관여되어 있었다.

관련법, 정책으로는 우리나라의 경우 다문화가족지원법, 다문화가정 학생지원정책(교육과학기술부) 및 다문화가족지원정책(여성가족부 외)을 들 수 있으며, 일본의 경우 중앙부처차원의 귀국·외국인아동학생교육 등에 관한 시책을, 대만의 경우 외국 및 대륙배우자의 자녀교육 지도계획 원칙을 들 수 있었다.

비교 항목	한국	일본	대만
추진 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앙 : 교육과학기술부, 여성가족부 지방 : 지역교육청, 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앙 - 문부과학성 지방 - 지역교육위원회, 지역교육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앙 - 교육부, 내정부 지방 - 교육국, 국민교육사, 민정부, 이민서
관련 법·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문화가족지원법 다문화가정 학생 지원 정책 (교과부)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 (여가부 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귀국·외국인아동학생교육 등에 관한 시책 오사카후 재일외국인시책 효고켄 외국인아동학생 관련 교육방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9년 수정 <신이민 자녀교육 개선방안> 대만 교육부 「외국 및 대륙배우자의 자녀 교육 지도계획 원칙」 2009년 수정 <대북시 신이민보호 상담 정책 및 실시방안>

3) 실시 시기 및 배경

이민자 부모의 출신국 언어교육의 실시는 한국은 2009년부터, 대만은 2010년부터였으며, 일본은 지방의 경우 2002년부터, 중앙의 경우는 2006년부터 실행되었다.

한국	일본	대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등] 2009.3-8 이중언어 교수요원 양성(서울) 2009.9-12 이중언어 교수요원 배정, 운영 (70명/2010-현재) [유아] 2010.현재. 이중언어 교수요원 양성중(63명) [초등] 2010-현재. 이중언어교수요원 양성중(경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2년 오사카후 재일외국인 시책에 따라 민족학급을 통한 모어교육 환경 조성 2003년~2006년 효고켄 어린이다문화공생센터 개설, 볼런티어 양성강좌, 지원센터학교 지정 중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6년 귀국·외국인아동학생교육지원체제모델사업 2010년 귀국·외국인아동학생교육 등에 관한 시책 : 교원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9년 7월 제안 2010년 3월 시행

이민자 자녀를 위한 부모 출신국 언어교육을 실행하게 된 배경은 국가 간 차이를 보였다. 한국의 경우, 다문화가정의 급증으로 인한 공교육 시스템 안에서의 교육지원의 필요성과 이들 가정 자녀의 부적응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정부차원에서 실행하게 되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아래서부터, 즉 민간차원에서 실시하게 되었다. 즉, 한국이나 대만보다도 훨씬 이전인 1948년 재일코리언학생의 민족정체성 확립을 목표로 한 ‘민족학급’ ‘민족동아리’의 활동에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의 모어교육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 대상과 목적을 달리 하며 다양한 형태로 실행되고 있다. 1980년대 이후부터는 일본에 들어오기 시작한 ‘뉴커머(new-comer)’라 불리는 외국에 뿌리를 가진 아동·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모어교육이 실시된다.

대만에서는 신이민자의 증가에 따른 자녀 교육지원 방안<신이민 자녀교육 개선 방안>에 따라 모어계승 교육과정의 지원이 법적으로 확립됨으로써 실시하게 되었다. 실시 시기에 비추어 볼 때, 대만이 가장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3개국 중 유일하게 이를 위한 법적 장치를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4) 재정 지원 및 시행학교

이민자 부모의 출신국 언어교육지원을 위한 재정은 한국의 경우, 교육과학기술부 특별교부금 및 지자체의 협조를 통해 이루지고 있었으며, 일본에서는 문부과학성, 지자체 단위별 지원이, 대만의 경우는 교육부 및 내정부 등 행정단위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시행학교와 관련해서는 한국의 경우는 전국차원의 실태조사를 통해, 유초중고등학교 총 322개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그러나 실제 운영 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갖고 있는 실정은 아니어서 향후 이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일본의 경우는 전국차원의 실태조사가 어려웠고, 연구에서 제시된 사례들은 담당교사, 행정직원과의 면담, 수업관찰 등의 방식으로 파악한 현황이다. 대만의 경우 역시, 전국 차원의 현황이기보다 타이베이시와 타이베이현의 담당 장학사 및 교육청 관계자를 면담하여 파악한 현황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국가간 비교는 한계를 가진다. 향후 가능하다면 한국, 일본, 대만에서의 전국차원의 실태조사 결과를 확보하여 비교할 수 있길 기대한다.

나. 실천사례 비교

국내외 이민자 부모의 출신국 언어교육 프로그램 운영 실천사례는 크게 학교중심 운영 사례와 학교 밖 지역 교육기관에서의 운영 사례로 나뉠 수 있다. 그리고 실천사례별 비교는 운영 취지 및 목적, 주관기관, 운영기관, 실시방법, 교육과정, 운영지원, 교육효과 등을 준거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 다루어진 실천사례 대상 및 준거별 비교내용을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분석 대상

구분	한국	일본	대만
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시 이중언어강사의 현장 교육 지원 사례(4개) 경기도 ○초등학교의 무지개 주말 학교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오사카시 시키초등학교 국제교실 가도마나미하야고등학교 효고현의 모어교육지원 센터학교(히메 지시립히가시초등학교) 	적수초등학교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문화가족 이중언어교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서브라질커뮤니티 돗까비루츠어교실 토요나카국제교류센터 	타이베이시 사례

2) 준거별 실천사례 비교

실천사례를 한국, 일본, 대만 3개국의 ① 학교와 지역의 운영 취지 및 목적 ② 행·재정 지원에 따른 주관기관 및 운영기관의 실천사례 ③ 직영 또는 위탁, 거점 단위학교, 실시유형, 교육자, 학습자별 운영방법 ④ 교재개발과 교육방법을 포함하는 교육과정 ⑤ 학생의 수업참여조건 ⑥ 운영지원 ⑦ 교육효과 및 문제점 등을 준거로 비교하였다. 준거별 실천사례 비교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가) 운영 취지 및 목적

운영취지 및 목적에서 3개국은 다문화가족의 역량 강화와 긍정적인 정체성 확립에 노력하고 있었으며 지역 차원에서는 한국이 정체성 형성 지원에 초점을 두는 것에 비해 일본은 부모와의 커뮤니케이션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 대만은 개인적으로는 부모와의 소통이었고, 국가적으로는 글로벌 인재 양성의 일환으로 또 하나의

언어가 개인 및 국가의 경쟁력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었다.

		한국		일본		대만	
취 지 및 목 적	학 교	이중 언어 실시 학교	-이 중 언 어 교 사 양성 교육 프로 그램 개발 -실제 활용방안 모색	시키초	정체성·자존감정 회복	적 수 초	다문화가정 자녀의 모어 교육을 강화함으로 다양 한 구성원에 대한 긍정적 인 정체성 형성
				가도마나 미하야고	모국에 대한 자부 심과 긍지		
	지 역	O초등학교	-자녀의 정체성 확립 -다문화가정 역 량 강화	모어교육 지원센터 학교	-학습언어 습득 지원 -정체성 확립	- 자신감 형성 - 부모와의 소통 - 국가적인 차원에서 언어 습 득이 경쟁력으로 작용	
		E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이중언어 교실	-지역사회봉사 -학습경쟁력 확보 -자기정체성, 자 아존중감 확대	관서 브라질 커뮤니티	-부모와의 커뮤니 케이션 -글로벌의식 육성 -학습 기본 능력 양성	신이민회관/ 타이베이시초등학교	
		무지개 청소년센터 이중언어 교실	-문 화에 술 활 동 통한 이중언어 역량개발 -정체감 형성 지원	돗까비 루츠어 교실	-부모와의 커뮤니 케이션 -부모에 대한 의 식 변화	-일반 대중에게 다문화 이해도 증진 -신주민 가족에게 출신국 언어 습득으로 상호 이해	
	하나 토요 베트남학교	-자녀의 정체성 확립	토요나카 국제교류 센터	부모와의 커뮤니 케이션	-일반학생에게 다문화 체험 및 학습		

나) 주관기관/운영기관

행·재정 지원에 따른 주관기관으로는 한국이 여성가족부, 시·도교육청, 민간기업으로 일본은 지자체 교육위원회, 지자체 국제교류협회를 중심으로 대만은 교육부가 지원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영기관으로는 한국이 63개의 초등학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무지개 청소년센터 세이브칠드런의 하나 토요베트남학교 등으로 구성되어있고, 일본은 초·중·고등학교, 다문화공생센터, 커뮤니티 등이 중심이 되어 구성되어있다.

		한국		일본		대만	
주관 기관 (행·재정 지원)	학 교	이중언어 실시학교	서울시교육청	지자체 교육위원회		적 수 초	교육부 지원
		O초	경기도교육청				
	지 역	E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이중언어 교실	여성가족부	지자체 국제교류협회		송산구청, 대안구청, 남강구 청, 내호구청 의 언어 문화 교실: 민정국 중심으로 지원	
		무지개 청소년센터 이중언어 교실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교 육진흥원			-신이민회관 : 타이베이시 에서 주관 운영	
		하나 토요 베트남학교	세이브더칠드런, 하나금융그룹			-시민단체 : 자체 운영	
운영 기관	학 교	이중언어 강사	63개 초등학교	-초·중·고등학교 -다문화 공생 센터			
		O초등학교	O초등학교			신이민회관	
	지 역	E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이중언어 교실	E다문화가족지 원센터	관서 브라질 커뮤니티	관서 브라질 커뮤니티	타이베이시의 4개 구청	
		무지개 청소년센터 이중언어 교실	무지개청소년센터, 살레시오다문화 교육센터, 서울시 립 청소년직업체 험센터(하자센터)	돛까비 루츠어 교실	NPO법인 돛까비	외국인배우자교육센터 /펼벅기금회	
		하나 토요 베트남학교	세이브더칠드런	토요나카 국제교류 센터	토요나카 국제교류 센터		

다) 운영방법

직영/위탁에 따른 운영방법은 한국이 학교와 지역 모두 직영이었고 대만의 학교 역시 직영이었다. 이에 비해, 일본은 직영과 위탁이 병행되어 운영되었다. 한국이 주

로 거점 학교를 중심으로 운영된 반면, 일본은 거점과 단위 학교가 병행되고 있었다. 실시유형에 따른 운영방법은 한국 학교의 경우, 전일제 또는 반일제, 학기제, 토요일 수업 등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었고, 일본은 학교의 경우 정규수업 시간의 학기제와 방과후 학기제로 실시·운영되고 있었으며, 대만은 오전 수업 시작전에 학기제로 운영되고 있었다. 지역의 경우 실시유형은 한국이 횡수에 비례하여 화요일 수업, 토요일 수업, 수요일 수업 등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었고, 일본은 연중 매주 토요일과 격주 일요일에 운영되고 있었다. 교육자의 운영방법은 한국 학교의 경우 교사 동아리 조직, 다문화가정 학부모의 강사 활용을, 지역의 경우에는 모집을 통해 집중연수를 이수한 강사의 활용을 하고 있었다. 일본은 학교의 경우, 시교육위원회에서 파견한 강사와 학교보호자가 강사로 활용되고 있었고 지역은 센터에 등록된 모어 지도자, 교류센터 직원 등이 교육자로 되어 있었다. 한편 학습자 운영방법은 한국 학교의 경우 다문화가정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일본의 학교는 외국에 뿌리를 가진 학생 및 일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으며 지역 측면에서는 한국이 다문화가정 학생 및 일반 학생을, 일본은 외국에 뿌리를 가진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다.

			한국		일본		대만	
언 영 방 법	직 영/ 위 탁	학 교	이중언어 실시학교	직영	시키초	직영	적수초	직영
					가도마나 미하야고			
			○ 초등학교	직영	모어교육 지원센터 학교	위탁		
		지 역	E다문화 가족지원 센터 이중언어 교실	직영	위탁			
			무지개청 소년센터 이중언어 교실	직영				
			하나 토요 베트남학교	세이브더칠드런 본부				

			한국		일본		대만	
	거점/ 단위 학교	학 교	이중언어 실시 학교	거점	시키초	단위		
					가도마나 미하야고	단위		
		O 초등학교		거점	모어교육 지원센터 학교	거점		
		지 역	E다문화 가족지원 센터 이중언어 교실	익산다문화가족지 원센터(거점센터- 이중언어교실은 전혀 관련 없음)				
			무지개 청소년센터 이중언어 교실	무지개청소년센터				
			하나 토요 베트남학교	1) 서울 하나토요 베트남학교 - 세이브더칠드런 본부 2) 인천 하나토요 베트남학교 - 세이브더칠드런 인천시아동복지 종합센터 3) 안산 하나토요 베트남학교 - 세이브더칠드런 경기지부 안산				
	실 시 유 형	학 교	이중언어 실시 학교	전일제 또는 반일제	시키초	학기제 : 정규 수업 시간	적수초	학기제로 운 영 : 오전 수업 시작 전
					가도마나 미하야고	학기제 : 정규 수 업 시간		
		O 초등학교		학기제, 토요일 수업	모어교육 지원센터 학교	학기제 : 방과후		
	지 역	E다문화 가족지원 센터 이중언어 교실	48회기, 화요일 수업	관서 브라질 커뮤니티	연중 : 매주 토요일	신이민 회관		

			한국		일본		대만		
교육자			무지개 청소년센터 이중언어 교실	기초필리핀어교육 16주, 타악기교육 6회, 다문화 이해 교육 및 필리핀 문 화이해교육 6회, 수요일 수업	돗까비 루초어 교실	연중 : 매주 토요일	구청의 언어 교실		
			하나 토요 베트남학교	수준별 교육, 비교 교육, 토요일 수업	토요나카 국제교류 센터	연중 : 격주 일요일	외국인 배우자 센터		
	학교	이중언어 실시학교	-모집 선발자 대 상 집중 연수 -월 130만원(전일 근무), 70만원(방 과후 근무) -자조모임 운영	시키초	중국어 : 시교육위원회 파견 베트남어 : 야오시가 위탁 태국어 : 시키초등학교 보호자				
				가도마나 미하야고	중국어 전임 교원, 모어강사				
		○ 초등학교	-교사동아리 조직 -다문화가정 학부 모가 강사 -한 학기에 36만원	모어교육 지원센터 학교	어린이다문화공생 센터에 등록된 모어 지도자				
		지역	다문화 가족지원 센터 이중언어 교실	베트남통번역사, 베트남 이주여성, 담당선생님	관서 브라질 커뮤니티	포르투갈어 강사, 일본어 강사	신이민 회관		
			무지개 청소년센터 이중언어 교실	필리핀 이주여성, 음악강사, 보조강사	돗까비 루초어 교실	베트남 이주 여성	구청의 언어 교실		
			하나 토요 베트남학교	재한 베트남 유학생, 베트남 이주여성	토요나카 국제교류 센터	토요나카국제교류 센터 직원, 모어강사	외국인 배우자 센터		
	학습자	학교	이중언어 실시학교	다문화가정 학생과 학부모, 일반 학생	시키초	외국에 뿌리를 가진 이동·학생	적수초	-국제결혼 이 민자녀 - 베 트남 학생	

			한국		일본		대만	
		지 역			가도마나 미하야고	외국에 뿌리를 가진 아동·학생, 일본인 학생		수업 신청 시 아버지의 동 의서를 받드 시 필요
			○ 초등학교	다문화가정 학생 과 학부모	모어교육 지원센터 학교	외국에 뿌리를 가진 아동·학생		
			E다문화 가족지원 센터 이중언어 교실	다문화가정 학생 과 일반 학생	관서 브라질 커뮤니티	일본계브라질 학생	신이민 회관	신주민 가족, 일반인
			무지개 청소년센터 이중언어 교실	다문화가정 학생 과 일반 학생	돗까비 루초어 교실	베트남에 뿌리를 가진 학생	구청의 언어 교실	
			하나 토요 베트남학교	다문화가정 학생	토요나카 국제교류 센터	페루, 브라질, 중 국에 뿌리를 가진 학생	외국인 배우자 센터	

라) 교육과정

교육과정의 지도언어로 한국은 10개국 이상의 다양한 언어를 지도하고 있었다. 일본 역시 다양한 지도 언어를 택하고 있었고 스페인어와 포르투갈어를 추가로 지도하고 있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대만은 다수의 학생이 있는 국가의 언어를 중점적으로 지도하고 있었다.

교재개발의 경우, 한국에서는 직접 제작하고 개발·보급 하는 등이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반해, 일본은 기업 조성금으로 교재를 개발하는 제한된 한계를 보이고 있었고, 대만은 신주민과 학부모, 교사의 협의 하에 교재를 편제하고 있는 정도였다.

교육방법은 한국이 대상아동의 언어 능력, 관심분야를 고려한 커리큘럼을 기초로, 일본은 다양한 문화체험과 생활 언어 습득을 주요 내용으로, 대만은 담당교사와 신주민 학부모 강사를 보조로 하여 교·강사의 협력을 강조하는 등의 방법을 택하고 있었다.

			한국		일본		대만	
교육과정	지도언어	학교	이중언어 실시학교	중국어, 일본어, 우즈베크어, 몽골어, 러시아어, 필리핀어, 태국어, 키르기스스탄어, 카자흐스탄어, 대만어, 인도네시아어, 말레이시아어, 베트남어	시키초	중국어, 베트남어, 태국어	적수초	다수의 학생이 있는 국가의 1개 언어 중점지도
			가도마나미하야고	중국어, 스페인어, 필리핀어, 태국어, 한국어				
		지역	초등학교	일본어, 중국어, 필리핀어, 태국어, 영어	모어교육지원센터 학교	중국어, 베트남어, 태국어, 스페인어, 한국어, 중국어		
			E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중언어 교실	베트남어	관서 브라질 커뮤니티	포르투갈어	신이민 회관	인도네시아, 베트남어, 태국어
			무지개 청소년 센터 이중언어 교실	필리핀어 (따갈로그어)	돗까비 루츠어 교실	베트남어	구청의 언어 교실	송산구청: 인도네시아어, 대안구청: 남강구청: 베트남어, 내호구청: 태국어
			하나 토요 베트남 학교	베트남어	토요나가 국제교류 센터	중국어,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교재 개발	학교	이중언어 실시학교	직접 제작	시키초		적수초	신주민 학부모와 담당 교사의 협의 하에 교재 편제
			가도마나미하야고	모어교육지원센터 학교				
		지역	초등학교	직접 제작				
			E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중언어 교실	2009년도 몽골어 이중언어교실 교육책자 개발 2010년도에는 개발된 것 없음(베트남)	관서 브라질 커뮤니티			

			한국		일본		대만		
		내용		무지개 청소년 센터 이종언어 교실	개발 중	돗까비 루츠어 교실	2007년 기업 조성금으로 교재 개발 : 초급용 돗까비 선생님, 학교 선생님(일본인, 베트남어 가능) 참가		
				하나 토요 베트남 학교	초등학생을 위한 베트남어 교재 개발 (총11권)	토요나카 국제교류 센터			
			학교	이종언어 실시학교	문화, 생활 언어	시키초			
						가도마나 미하야고			
				○ 초등학교	문화, 생활 언어	모어교육 지원센터 학교			
			지역	E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이종언어 교실	기초 몽골어, 몽골 문화	관서 브라질 커뮤니티			
		무지개 청소년 센터 이종언어 교실		기초 필리핀어, 동요, 문화이해교육	돗까비 루츠어 교실	기본 글자			
		하나 토요 베트남 학교		베트남어, 문화비교, 수준별 심화 프로그램	토요나카 국제교류 센터				
		교육 방법	학교	이종언어 실시학교	-다문화 이해 수업 -이종언어 교육 -외국어 교육 -학부모 상담 -다문화 행사 지원	시키초	레벨1 : 병음학습, 발음, 일본어 대역, 한자 쓰기, 단문, 양언어 번역 레벨2 : 중국어 단문을 일본어로 번역하기, 문법	적수초	담당 교사와 신주민 학부모 강사를 보조로 하여 교강사의 협력 하에 학생 지도

		한국		일본		대만	
					1학년 : 모어 중국어, 제1언어 2학년 : 중국어C, 제1언어, 국제영역 중국어 3학년 : 중국어C, 국제영역 중국어, 중국어강독, 제 1 언어		
				가도마나미하야고			
		○ 초등학교	-대상아동의 언어 능력, 학년, 관심 분야 고려해 커리큘럼 구성 -정체성 함양에 주력	모어교육지원센터 학교	기본 언어 학습과 함께 음식, 노래, 놀이 등 다양한 문화 체험과 단어 카드를 이용한 생활 언어 습득		
		지역	E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중언어 교실	-기초적인 베트남어 수업 진행, 베트남 문화, 아시아 문화 체험 위주 -학생들의 흥미 유발	관서 브라질 커뮤니티	1시간 20분 : 포르투갈어 수업 1시간 20분 : 일본어, 산수 30분 : 포르투갈어 어휘 학습(비디오)	
			무지개 청소년 센터 이중언어 교실	-공동체 놀이 통한 복습 -노래와 율동, 악기 연주 통한 학습 -전통놀이, 그림, 음식 등을 활용한 문화이해교육	돗까비루츠어 교실	학년에 따라 6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수업. 레벨에 따라 개발한 교재를 사용한 기본 글자 학습과 미국 교재를 사용한 수업	
			하나 토요 베트남 학교	그룹식 언어교육, 체험식 다문화교육	토요나카 국제교류 센터	스페인어 : 스페인어로 수업 진행, 보조교사가 있어서 일본어 설명 중국어 : 일본 출생이 많기 때문에 일본어 사용이 많음 포르투갈어 : 포르투갈어를 주로 사용	

마) 학생의 수업참여조건

학생의 수업참여 조건은 학교와 지역 교육기관 두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학교의 경우, 한국에서는 다문화가정 자녀 및 학부모가 참여할 수 있으며, 일본에서는 외국에 뿌리를 갖고 있는 재적 학생 및 일본 학생으로 한정하고 있었다. 지역 교육기관의 경우에는 한국에서는 거주 지역, 연령, 대상의 제한을 두고 있었지만, 일본의 경우는 조건에 특별한 제한이 없었다.

		한국		일본		대만	
학생의 수업 참여 조건	학 교	이중언어 실시학교	다문화가정 자녀 및 학부모	시키초	외국에 뿌리를 가지고 있 는 재적 학생	적 수 초	학생의 아버지 동의 반드시 필요
				가도마나 미하야고	외국에 뿌리를 가지고 있 는 재적 학생, 일본 학생		
		○ 초등학교	부천시내 다문화가정 자녀 및 학부모	모어교육 지원센터 학교	외국에 뿌리를 가지고 있 는 학생		
	지 역	E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이중언어 교실	다문화가족 자녀 및 비 다문화가족 자녀 중 만 3세부터 초등학생	조건 없음			조건 없음, 신청자
		무지개 청소년센터 이중언어 교실	다문화 가족 자녀 및 비다문화가족 자녀 중 초등학생				
		하나 토요 베트남학교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의 다문화 배경(베트남 : 한국인 아버지 + 베트 남인 어머니)				

바) 운영지원

운영지원은 한국 학교의 경우 멘토와 멘티의 결연, 학교장의 지원, 서울시 교육청의 캠프 지원 등이 있었고, 일본의 학교는 단위학교의 학교장 지원 중심이 필수적이며, 대만은 교육청의 주관으로 학교장의 전폭적인 지원, 이에 따른 강사들의 복지후생 강화 등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학교장의 지원과 지지가 3개국 간에 공통

적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며, 다만 교육청의 지원이 다소 차이가 있다는 점은 주시할 필요가 있다. 지역의 경우는 한국이 사업단의 예산 및 프로그램의 지원, 멘토활동자의 자발적 지원 등을 병행하고 있고, 일본은 지자체의 지원, 회원의 회비로 지원 등을 병행하고 있었다.

		한국		일본		대만	
운영지원	학교	이중언어 실시학교	-서울시 관내 초등학교 교장과 이중언어 강사의 멘토-멘티 결연 -서울시 교육청 주관 다문화 캠프 개최	시키초 가도마나미하야고	학교장의 '일본어학급'에서 '국제교실'로의 변화를 시도 모어의 정규 수업과 모어 지도자의 전임 강사 등의 요구는 학교장을 통해 교육위원회에 제출	적수초	-교육청 지정 사업으로 학교장의 전폭적인 지지 -해당 담당교사에 인센티브 제공 -강사는 건강보험, 퇴직보험 등이 제공, 인건비 지급 -교육청에서 학습 관련 DVD, 7개국 언어 동화 제공
		○ 초등학교	-교장의 지원이 활발 -서울 신세기 특허 법인의 지원 -○ 초등학교 교실 8개, 교무실 및 교사 연구실 매회 개방	모어교육 지원센터 학교	모어교육 지원 센터 학교 지정은 학교의 지원 신청에 의해 지정되는 것으로 학교장의 지원이 필수적		
	지역	E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이중언어 교실	-사업단의 예산 지원	관서 브라질 커뮤니티	켄과 시의 조성금을 받아 2009년 리모델링 (10억 엔) 교통비 보조(1달 2만 엔) : 버스 운영	신이민 회관	타이베이시/외국 인배 우자돌봄기금에서 지원
		무지개 청소년 센터 이중언어 교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2010 지역 다문화 프로그램 지원 사업	돗까비 루츠어 교실	1. 장소 : 안중인권커뮤니티 →무료 2. 운영 : 시에서 강사비 지급, 기업의 조성금, 회원의 회비 (약 100명의 회원 :회비 연3000~5000엔)	구청의 언어 교실	타이베이시

		한국	일본	대만
		<p>하나 토요 베트남 학교</p> <p>-멘토 활동자 40명 -세이브더칠드런 (지역 토요베트남 학교 별로 3~4개 의 교실 운영) -현재 서울, 인천, 안 산 3개 지역의 하나 토요베트남 학교 운영 -야외체험(4회), 캠프 (1회), 송년행사(1회), 부모교육 및 참여 (4회), 멘토 교육 및 간담회(월2회) 실시</p>	<p>토요나카 국제교류 센터</p> <p>1. 장소 : 시에서 제공 2. 운영 : 시에서 운영의 반 을 지원 받고 나머 지는 회원의 지원</p>	

사) 교육효과 및 문제점

우선 교육효과 측면에서, 학교의 경우 3개국이 공통적으로 정체성과 자신감의 확인 및 증진이라는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밝혀졌고 의사소통, 인간관계, 친화감과 같은 측면에서 다소의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지역의 경우에도 한국과 일본이 부모와 자녀간의 건강한 다원적 정체감을 형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문제점으로 한국은 이중언어 강사의 측면에서 효율적 강사 활용 방안의 부재, 복무 규정의 미비, 이중언어 강사들의 교육자료의 개발과 보급 미진 등이 지적되었고, 일본은 모어 강사의 열악한 대우와 보수 문제, 이들을 위한 교재 개발과 부교재 부족 등이 지적되었으며 대만 역시 교재 개발의 전문성 미흡, 강사의 전문적인 훈련의 부족 등이 문제로 제시되었다. 학교의 경우에는 한국이 수업 시간이 적다는 점이 지적되었고, 일본은 개인차에 따른 지도 방법의 부재가 문제로 나타났다. 지역의 경우, 한국은 교·강사의 업무과중, 이에 따른 수업 역할 분담의 부적절성, 프로그램의 의존도가 지나치게 많은 점, 교·강사의 잦은 교체와 변동으로 인한 수급 및 관리의 어려움 등이 한계로 드러났고, 일본 역시 교·강사 확보와 육성의 미진, 자원봉사자의 역량 미비 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국		일본		대만	
교육 호과	학교	이중 언어 실시 학교	<p>-다문화가정 학생의 학업 능력 향상 및 학교생활 적응에 기여</p> <p>-부모님과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자부심 증진</p> <p>-일반학생들의 다문화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 및 다문화적 감수성 증진</p> <p>-학교장의 다문화교육에 대한 인식 전환</p> <p>-방과후 이중언어 수업으로 인해 담임교사와 협업체계 조성</p> <p>-다문화가정 학생의 전학 및 입학의 경우 학부모와의 의사소통에 도움</p> <p>-이중언어 강사의 경우 한 국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음으로써 자신의 잠재 능력을 개발의 기회</p> <p>-이중언어 강사 제도가 한 국 사회의 통합에 기여</p>	시킴초	정체성 확립, 자신감	적 수 초	<p>-학생은 자신 감 및 동일 민족 학생과 친화감 형성</p> <p>-엄마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형성</p> <p>-다문화 교육에 대한 학교의 홍보 극대</p>
		○ 초등 학교	<p>-어머니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며, 어머니를 존중하게 됨</p> <p>-같은 형편의 친구를 만남으로써 힘을 내게 됨, 자신의 뿌리를 찾음.</p> <p>-어머니 나라의 언어를 배워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고 하는 희망이 생김</p> <p>-자신의 언어로 자녀와 대화하며 만족</p> <p>-같은 나라의 친구들을 만나 대화 및 정보 교환</p> <p>-생활언어가 아닌 학교 관련 용어를 배우며, 학교생활에 대해 이해함으로써 자신감 향상과 더불어 한국생활에 안정감</p> <p>-교사의 인식 전환</p>	가도마나 미하야고	정체성 확인, 가족 간의 커뮤니케이션의 회복, 모 어와 관련된 장래 희망 발견		<p>학생 :</p> <p>1.마음의 안정 -같은 모 어를 사용하는 친구들과 과의 연계와 모어로 안심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장소</p> <p>2.학습언어의 습득</p> <p>3.자긍심을 통한 정체성 확립에 영향</p> <p>학교 :</p> <p>1.학교장, 담당자를 중심으로 시교육위원회와 연계하여 교내추진위원회를 조직함으로써 조직적, 계획적인 운영을 함.</p> <p>2.연간지도계획을 책정하여 학생실태에 따른 지도내용·방법을 모색함</p>

		한국		일본		대만
지역	E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 이중 언어 교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놀이를 통한 언어 및 문화 수업으로 어머니나라 문화 이해, 관심 증진 -결혼이주여성 출신의 강사로 아이들과 라포형성 쉬움. -통번역지원사를 배우며, 경험을 쌓고, 좋은 인적 자원이 됨 	관서 브라질 커뮤니티	<p>학생 : 학습의욕 증가</p> <p>학부모 : 자녀 교육에 관심과 열의</p>	신 이 민 회 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주민간의 교류로 인한 정보 공유
	무지개 청소년 센터 이중 언어 교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모나라의 언어 및 문화이해교육으로 자신의 문화적 배경을 장점으로 인식함으로써 건강한 다원적 정체감 형성 -다문화 및 일반 아동청소년의 또래관계를 증진시키고, 다양한 문화에 대한 수용력, 다문화적 감수성을 향상시켜 학교 교실내 차별 및 편견 감소 효과를 가져옴 -이주 여성이 수업을 진행함으로써 이중언어 교육역량 개발 -이중언어수업의 내용을 매뉴얼화하여 제작·보급 필요. 	돗까비 루츠어 교실	<p>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공간을 제공</p>	구 청 의 언 어 교 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주민의 휴식 공간 제공 -신주민 관련 관계자의 신주민에 대한 이해 증진 -신주민 가족의 출신국 문화 및 언어 이해로 소통 증진
	하나 토요 베트남 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엄마나라의 문화 이해 및 정체성 향상에 도움 . -베트남 친척과 교류하며 뿌리를 찾음. 더불어 커서 한국과 베트남 연결하는 일을 하고 싶어 함. -아이와 베트남어로 의사소통을 하며, 긍정적 효과 느낌. 가족 간의 유대관계 증진 및 엄마의 자심감 향상 	토요나카 국제교류 센터	<p>학생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부모(가족)를 의식하기 시작 2.학교생활에 자신감을 가지게 됨 		

		한국	일본	대만		
문 제 점	학 교	이중 언어 실시 학교	-이중언어 강사 의 지원이 필요한 다문화가정 학생 의 수요파악 미진 -강사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강사의 역할영역과 우선순위 결정 -이중언어 강사 의 정체성 부각이 적음 (일반 외국 어 강사와 차별화 필요) -이중언어 강사 계약 관련 에 따른 복무 규정 마련 -이중언어 강사 들의 수 업, 교육자료의 개발과 보급이 잘안됨.	시키토 -교재 개발과 부교재 부족 -모어교육 시간의 제한 으로 인한 모어 능력 향 상의 한계	적 수 초	교재 개발에 대한 전문성 확보 시급 · 강사의 전 문적인 훈 련 필요
			가도마나 미하야고 -열악한 보수와 대우로 모어강사의 확보가 어 려움 -교재의 개발과 선택 기 준의 어려움			
	지 역	O 초등 학교	-재정적 어려움 직면 (캠프, 강사료) -접근성이 먼 경우, 참석 의 어려움. -수업시간이 적어 언어적 향상이 눈에 띄게 늘지 않음.	모어교육 지원센터 학교 학습언어 습득을 위한 효과적인 지도 내용 및 개인차에 따른 지도 방 법 모색		
		E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 이중 언어 교실	-통번역지원사라는 업무 외에 이중언어교실 수업 까지 진행하므로, 업무 과중	관서 브라질 커뮤니티 -교재 개발 -자원봉사자의 역량		
		무지개 청소년 센터 이중 언어 교실	-필리핀이주여성 강사와 음악강사, 보조강사들의 수업준비모임을 통한 의 사소통 및 수업 역할 분 담 중요 -수업시간 외에 일상에서 도 필리핀어를 자주 사 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이 미진함	돗까비 루츠어 교실 -학생들의 결석 -부모와의 연계		

		한국	일본	대만
	하나 토요 베트남 학교	-가정 내 이중언어 활용 이 더 중요하나, 프로그램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침. -고학년의 경우 학교 교과과정 수행과 더불어 학습적 스트레스를 느낌. -원어민교사 및 멘토 활동자의 잦은 교체, 변동과 같은 인적자원 수급 및 관리의 어려움.	토요나카 국제교류 센터	-독자적인 교재 개발 -선생님 확보와 육성

2. 정책적 시사점

가. 한국

국내 국제결혼가정의 자녀들을 위한 이민자 부모의 출신국 언어교육 지원은 2009년 교육과학기술부가 다문화가정의 자녀뿐 아니라 부모의 교육지원 역량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강조하고, 서울시 교육청이 다문화가정 학부모의 강점을 살려 이들을 이중언어 강사로 양성, 학교현장에 배치함으로써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 교육지원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타당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의 형성이 미진하고 이는 국가차원의 큰 틀에서 이를 위한 정책이 부재한 상황으로 실행되고 있으며 일본과 같이 민간차원의 실천 움직임 또한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통해, 체계적인 언어교육 지원정책 수립의 필요성 및 이를 위한 유관부처 및 기관 간 연계체제구축, 언어교육지원 전문 강사 양성·배치 사업의 확대, 교육지원 환경 개선 등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주요 연구 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이민자 부모 출신국 언어 교육지원 국내 현황 분석결과, 시도교육청 담당자를 통해 파악한 이민자 부모 출신국 언어 교육지원 현황은 관련정책의 추진이 불과 1,2년 정도 밖에 되지 않는 것을 감안할 때, 기대한 것보다도 많은 학교에서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이민자 부모 출신국 언어 교육지원이 이루어

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16개 시도교육청 중 서울(72개교)에서 가장 많은 학교가 교육지원을 하고 있었으며, 경기도(54개교), 충남(39개교) 순이었다. 지도 언어의 수는 서울에서 10개로 가장 다양한 언어를 가르치고 있었다. 이민자 부모 출신 국어 교육지원은 다문화가정 학부모(108개교)가 주교육자인 경우가 가장 많았고, 이중언어 강사(90개교)가 그 다음이었다. 교육방식은 다양하였으나, 대부분의 시도에서는 방과후 지도(총 235개교)방식을 택하고 있었다.

양적 현황을 파악하는 것 외에 이민자 부모 출신국 언어 교육지원의 질적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이중언어교육 실천사례 4개교와 주말학교를 관찰·면담한 결과, 이중언어 강사들이 학교 배정과 관련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사의 거주지가 고려되지 못하고 있었고, 또한 배정 받은 학교의 다문화가정 학생 재학현황이 반영되지 않은 문제를 발견할 수 있었다. 이는 향후 이중언어 강사 현장배치에 있어 강사의 거주지, 지도 언어, 학교 내 다문화가정 학생 재학 현황 등에 대한 정보가 사전에 충분히 고려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였다.

또한 면담강사들은 향후 이중언어 강사 양성을 위해 요구되는 프로그램으로 초등학생 맞춤형 다양한 교수법 개발 방법, 학생의 정체성 및 자신감 향상 방법, 구체적인 상담기법과 실습, 수업지도안 작성 방법 등을 제안하였다. 이는 향후 이중언어 강사 양성 프로그램에 이러한 내용이 다루어져야 함을 시사하였다.

주말학교의 경우, 운영상의 문제로 학부모가 자녀를 이중언어교실에 보내고 싶어도, 아동이 어려서 혼자 등교하기 어렵고, 어머니는 직장에 다녀, 학생들이 학교에 오지 못하는 사례를 볼 수 있었다. 또한 강사들은 한 교실에 다른 학년 다른 수준의 아동들을 동시에 지도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었다. 교재가 따로 준비되지 못해 지도하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이러한 사실들은 주말학교 운영을 위해 교육환경 및 지도 여건의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이민자 부모 출신국 언어 교육지원은 지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다문화가족 이중언어교실을 통해서도 추진되고 있었다. 이는 결혼이민자의 주요 출신국 언어 수업을 통해 초등 및 미취학 아동을 다문화 감수성을 지닌 글로벌 인재로 성장시키고, 다문화가족의 부모-자녀 간 소통 증진 및 자아존중감과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며, 다문화 및 일반아동의 다문화인식 개선 및 사회통합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었다.

2010년 현재, 제주를 제외한 15개 시·도, 총 57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개설·

운영하고 있으며, 경기도가 총 11개 센터로 전국에서 가장 많이 이중언어 교실을 운영하고 있었다. 언어별로는 중국어 교실이 48개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베트남어 교실(22개), 몽골어, 러시아어, 필리핀어, 태국어 교실(각 1개)이어서, 중국어와 베트남어 수업 위주임을 알 수 있다. 교육 기간별로는 익산시와 진주시 다문화센터가 10개월로 가장 길었고, 안성시(베트남어 교실)가 2개월로 가장 짧았다. 이중언어교실의 강사 소속별로는 센터 관계자가 47명으로 가장 많다. 센터 관계자는 센터 회원(22명), 센터 통번역 담당(15명)을 의미한다. 즉, 언어별 해당 국가 출신으로 모국어 및 한국어 구사가 가능한 사람이나 대졸 이상의 결혼이민자를 강사로 활용하였다.

지역차원의 이민자 부모 출신국 언어 교육지원의 질적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대도시와 농촌 소재 센터 두 곳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특히 농촌지역의 경우, 강사 및 운영자는 강의 준비, 학습자의 개인차에 대한 대응, 효과적인 교육진행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학생의 이동거리 문제, 이중언어 교실을 진행 할 수 있는 매뉴얼이나 워크북 개발의 필요성, 학생모집을 위한 유관기관 간 협력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적인 언어교육 제공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계획 수립과 이주여성 및 다문화를 위한 교육의 장 마련도 요청되었다.

민간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지역 사례로 ‘하나 토요 베트남 학교’에 대해 살펴본 결과, 여러 가지 교육적 효과도 있지만 가정으로부터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의 필요성, 학교 교과과정과 더불어 수행함으로써 겪는 부담 및 학습 스트레스, 원어 민교사 및 멘토의 잦은 교체, 변동과 같은 인적자원 수급 및 관리의 어려움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주관, 무지개 청소년센터에서 운영되는 “문화예술활동을 통한 이중언어 역량개발 프로그램”의 경우, 부모나라의 언어 및 문화이해교육을 통한 건강한 다원적 정체감 형성, 학교 교실내 차별 및 편견 감소, 여성결혼이민자의 이중언어 교육역량의 개발 등 긍정적인 효과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 외에 운영의 어려움으로 필리핀이주여성 강사와 음악강사, 보조강사들의 수업준비모임을 통한 커뮤니케이션 및 수업 역할 분담, 수업시간 외에 일상생활에서도 필리핀어를 자주 사용할 수 있도록 환경이 만들어주는 것 등이 지적되었다.

이민자 부모 출신국 언어교육에 대한 이중언어 강사 대상 의견조사 결과는 지금

까지 살펴본 이민자 부모 출신국 언어 교육지원 사례분석 결과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더욱 부각시켰으며, 아울러 향후 개선방향에 대한 시사점도 명확하게 하였다. 조사결과는 첫째, 이중언어 교사들이 수업의 질을 개선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을 시사하였다. 대부분의 교사들이 직접 교재를 작성하거나 시중의 자료를 구입하여 사용하는데, 이들에게 수업상황과 학습자 특성을 고려해 학습교재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방법 등을 제시, 교육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이중언어 교사들이 교육받길 원하는 학생의 흥미유발 교수법, 게임 활용 교수법 등 다양한 교수법 및 이중언어 교육의 성공사례 등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조사결과 이중언어 학습에 있어, 가정에서 이민자 부모 출신국 언어교육 수행 유무는 주요한 영향 요인임을 나타내었다. 이는 가정에서 부모들이 열의를 가지고 자녀에게 이민자 부모 출신국 언어를 지도할 수 있도록 어머니(부모) 교육을 통해 이중언어 교수법을 가르쳐주고, 캠페인을 통해 이중언어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주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셋째, 조사결과는 이중언어 교육의 효과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학교 및 교육청의 정책적 지원의 변화가 필요하며, 가정에서, 교사들 간의 이중언어교육에 대한 인식이 전환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였다.

이중언어교실에 참여하는 자녀를 둔 국제결혼가정 학부모의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밝혀진 주요 결과로는 대부분의 이주여성인 어머니가 자녀가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출신국의 언어를 가르치기 시작했고, 이러한 교육을 통해 자녀가 어머니 나라에 대해 관심을 갖고, 어머니를 자랑스러워하게 되었으며, 어머니는 이를 뿌듯하게 느끼고 있음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학생, 가정, 학교(교사)에게 이민자 부모 출신국 언어교육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줄 캠페인의 필요성, 이러한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 그리고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출신국 언어교육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부모교육의 마련 등이 요청됨을 시사하였다.

나. 일본

현재까지 일본 중앙정부에서 시행한 외국에 뿌리를 가진 아동·학생에 대한 지원 체계는 일본어 지도와 적응 지도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었고, 이들을 위한 교원 배치나 모어를 이용한 일본어 지도 등의 지원도 그 목적은 일본어의 향상과 정상적

인 일본 수업 참여에 있다. 일본의 경우 정책으로서 외국에 뿌리를 가진 아동·학생의 모어교육을 위한 지원 내용이 만들어진 것은 최근으로 그 역사가 길지 않다. 하지만 지역차원에서 다문화를 이끌어 온 지자체, 국제교류협회, 시민단체, 주민단체 등의 활동으로 지속되어 온 모어교실의 활동과 성과가 정책으로 연결되었다는 점에서 이들의 활동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리라 생각한다.

일본 모어교육은 중앙정부인 문부과학성의 ‘귀국 및 외국인아동·학생교육 지원 체제’를 기반으로, 각 지자체의 ‘인권교육 기본방침’ ‘외국 국적 주민 시책 기본방침’ ‘외국인아동·학생에 관한 교육지침’ 등의 정책지침 아래 교육위원회 및 교육센터 등이 중심이 되어 시행되고 있다.

학교에서 시행되는 모어교육은 각 학교의 필요와 요구에 대응하는 교사의 배치, 공교육으로서의 자리매김을 특징으로 하여, 정체성의 확립과 자존감 회복을 통한 사회 일원 육성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고 있다. 한편, 지역 차원에서 시행되는 모어교육은, 외국인 ‘당사자’의 이해와 의욕에 따른 수업 운영 및 지속성,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지도 노하우를 통해 가족 간의 커뮤니케이션 회복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고 있다. 외국에 뿌리를 가진 아동·학생의 학교생활 적응과 학습 지원이 시급한 과제인 학교 상황을 고려할 때, 효고현의 지역차원 어린이다문화공생센터와 연계한 모어교육지원센터학교 지정 및 시행은 학교와 지역차원의 연계에 의한 모어교육 추진 체계의 형성이라는 점에서 모어교실의 확대와 모어교육 추진 체계의 확립 모델로 기대된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모어강사의 양성교육이 시급한 문제라 하겠다. 현재 모어강사 연수는 초·중·고등학교에서 활동하고 있는 교육지원교사, 지역의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지만, 모어교실의 확대와 모어교육 추진 체계의 확립에 부응하는 대상 범위와 실시 기간, 내용 등의 확대 및 강화가 필요한 현실이다.

모어교육의 실천사례는 같은 모어를 사용하는 친구들과의 연계 형성을 통한 마음의 안정, 자긍심과 정체성 확립, 가족 간의 커뮤니케이션 회복 등의 성과를 보여준다. 또한 ‘모어는 현지어에 의한 학습과 정체성 형성에 시너지 효과를 준다.’는 이론적 입장을 실천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언어 지도의 학습목표와 방법의 전환을 제시하였다. 공교육에 있어서의 모어교육의 가능성과 단계별 학교 간 연계의 중요성을 제시해 주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이상에서 살펴본 일본 모어교육의 운영 특징과 모어교육 사례의 검토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시사점들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일방적인 관치 중심의 지원행정에서 벗어나 단계적으로 위임과 이양이라는 하의상달(bottom-up)추진체계의 지원방식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다문화 교육지원은 학교나 민간단체가 지자체에 지원을 요청하고, 지자체는 중앙 정부에 지원을 요청하는 하의상달(bottom-up)방식의 지원 추진체계를 갖는다는 점에서 실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고 있는 과도기적 단계란 점을 감안하더라도 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모어교육 정책의 수용이라는 견지에서 이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역차원의 모어교실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고 원어민 대학생과 대학원생으로 모어 담당교사를 지속적으로 활용하되 이들에 대한 재정지원은 정부와 지역사회가 공동으로 분담할 필요가 있다. 일본에서는 외국인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외국인여성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어린이모어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중국어·스페인어·포르투갈어 등의 다양한 언어로 모어교실이 운영되고 있다. 모어교실의 담당교사는 주로 원어민 대학생과 대학원생이다. 이들은 어려서 일본에 온 경험을 갖고 있어서 외국에 뿌리를 가진 아동들의 애로사항을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상담해 줄 수 있다는 점 등의 강점을 갖고 있어서 중요한 롤모델이 되고 있다.

셋째, 모어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모어교육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의식의 확립이 필요하다. 일본 모어교육 사례가 보여 준 성과를 통해 모어교육이 외국에 뿌리를 가진 아동·학생들의 자존 감정을 높여 주고, 정서적 안정과 정체성 확립, 가족 간의 커뮤니케이션 회복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일본의 사례에 비추어 모어교육의 동기부여와 글로벌 인적 자원으로서 가능성의 제시가 필요하다.

넷째, 모어교육의 목적은 체제형태나 체제시기, 모어 형성 상태 등 외국에 뿌리를 가진 아동·학생의 연령과 환경에 따라 다양하게 설정되어야 한다. 국제결혼가정은 물론, 외국인 노동자, 주재원, 유학 등 다양한 체제형태에 의해 한국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모든 외국에 뿌리를 가진 아동·학생들을 포용할 수 있는 모어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정형화된 운영 체계나 수업 형태에서 벗어나 다양한 환경과 필요에 따른 목적 설정과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

다섯째, 커리큘럼과 교재의 개발이 필요하다. 10년 이상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일본 모어교육도 다양한 교육 대상과 교육 언어, 인적·재정적 지원 문제 등으로 커리큘럼과 교재 개발이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는 가운데, 기업 조성금에 의한 교재 개발이나 교육위원회 관련 기관이 운영하는 사이트 등을 통하여 커리큘럼과 교재에 관한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있다. 즉 다양한 언어에 의한 교재 개발이 정부차원은 물론 기업, 연구 단체 등의 지원으로 확대되어져야 한다.

여섯째, 학교와 지역단체의 연계에 의한 발전된 운영 형태의 모색이 필요하다. 학교가 가지고 있는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운영과 지역단체가 축적해 온 노하우가 더해짐으로써 모어교육의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운영을 위한 네트워크 형성을 위하여 지역차원에서 활동하고 있는 모어강사에 이르기까지 네트워크의 확대가 필요하다. 또한 모어교실을 지역 교육에 있어서 유효한 자원으로 활용함으로써 지역사회 안에서의 자리매김과 네트워크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다. 대만

대만은 20여년의 다문화 경험의 역사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나, 최근 국제결혼이민자의 증가로 인하여 이들에 대한 ‘완전한 돌봄’ 지원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예를 들어, 타이베이현에서는 신주민의 교육, 문화, 생활 등을 전담지원하는 부서로 ‘신주민 문교지원과’를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는 국제결혼 이민자에 대한 지원 단일창구로써 신주민의 각종 필요에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고 있음을 볼 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타이베이는 단일 창구로 구성되어 있지는 않지만, 각 정부 부서의 자원을 연계 통합하여, 부처의 역할을 업무 분담함으로 체계적인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국제결혼이민자의 각종 사안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부처 연합회의를 거쳐 이들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예상치 못한 신주민 관련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 임시 회의를 소집하여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논의하고, 이를 적극 지원하는 방식이다. 일례로, 결혼 후 출산은 10개월 후에 이루어지는 것이 정상이지만 결혼 3개월 된 신부가 출산을 하게 될 경우, 이러한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비상회의를 소집하여 출산, 보건, 체류 등 각 부서가 업무 연락을 통하여 체계적인 지원을 신속하게 하게 된다. 이처럼 타이베이의 즉각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를 대처할 수 있는 신속한

연계 체제의 작동이 우리 다문화 교육을 실천함에 있어 필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대만에서 우리 교육에 제시한 가장 큰 시사점은 모어 전승 교육과정을 법적 기반을 확립하고 난 후 학교 현장에 지원을 시작하였다는 것이다. 대만 교육부는 기존의 「외국 및 대륙 배우자 자녀의 교육지도계획 지원원칙」을 수정하여 2009년 <신이민 자녀교육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고, 이 방안에서 특히 강조된 것은 ‘모어 전승 교육과정’을 실시하기로 한 것이다. 이러한 법적 정비로 인해 타이베이현에서 3개 시범학교를 지정하였고, 시범학교에 대한 재정 지원이 확보되어 학교에서는 활발하게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추진체계에 있어서는 중앙에서는 교육부와 내정부에서 다문화가정을 중점적으로 돌보고 있다. 교육에 있어서는 교육부와 각 지방 교육청, 생활면에서는 내정부의 민정국을 중심으로 역할이 분담되어 국제결혼이민자에 대한 연계 및 통합적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타이베이현의 교육국에 신주민 전담 부서인 ‘신주민 문교 지도과’를 중심으로 단일 창구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 부서를 통하여 각 부처 및 자원을 연계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타이베이는 다각적인 방면으로 민간과 정부의 자원을 통합 연계하여 신주민을 돌보고 있다.

셋째, 교육 대상으로는 타이베이는 구청 및 신주민 회관, 지역사회 대학, 시민단체 중심으로 신이민의 가족, 일반인, 자원봉사자, 행정 기관의 신이민 담당자 및 교사 등, 성인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타이베이현에서는 자녀를 주요 대상으로 하는 모어 전승 교육과정을 실시하고 있다.

넷째, 학교와 지역간의 연계는 타이베이는 신주민을 주로 구성원으로 하는 ‘학부모 자원 봉사대’가 전국적으로 조직화되어 있다. 이들의 헌신적인 자원봉사로 인하여, 학교 현장의 필요 및 학생의 돌봄, 각종 자원 활동으로 인하여 다문화교육이 활성화되고 있다. 이러한 자원 봉사의 힘이 다문화가정의 자녀 및 그 배우자들에게 많은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외국인 배우자 스스로가 봉사자가 되어 대만 사회에 적응하고, 활발한 활동을 통하여 대만을 배우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국제결혼 이민자들로 구성된 학교 자원 봉사대가 구성되어 학교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할 필요가 있다.

또한 타이베이현에서는 거점 초등학교를 지정하여 ‘국제학습센터’를 개설하여, 이 센터를 통하여 각종 다문화 행사가 진행되고, 학생 및 학부모, 지역사회에 개방하여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타이베이는 신주민이 밀집되어 있는

2개의 구청을 중심으로 ‘신이민회관’을 설립하여, 신주민의 교육 및 신주민간의 교제 장소로 활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학교와 지역사회가 다문화 교육 및 이해를 위하여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고, 이러한 과정에서는 정부 및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 및 장소 제공이 요구된다.

다섯째, 언어교육 지원 전문 교강사 양성에 있어, 대만은 국제결혼 이민자가 대만 체류 자격을 소지하기 위하여 의무언어교육 72시간 중국어반을 이수하면, 자국의 언어로 ‘통번역 교육’ 훈련반에 참여 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이 훈련반을 이수하면, 모어 전승 교육과정의 보조 강사로 활동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현지 언어에 대한 일정 정도의 교육을 이수하게 하는 것은 신주민으로 하여금 현지에 적응하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며, 특별한 높은 수준의 중국어를 구사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기본 언어 교육을 이수 한 후 모국 언어로 ‘교·강사’에 지원할 수 있도록 최저 자격 요건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섯째,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저변 확대 노력의 일환으로 대만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성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외국인 배우자 돌봄 지도 기금’을 조성한 점이다. 이는 2005년 출입국 관리서를 승격시키면서 관리서에서 외국인 배우자에 대한 적극적인 돌봄을 강조하여, 전용 지원 기금을 조성하도록 하였고, 확보된 기금을 신주민 지원에 사용하고 있다. 일례로, 모어 전승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시범학교에서 추가 재정적 필요가 발생하여 기금을 신청하면, 일정 심사를 거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완전한 돌봄, 섬김’의 모토를 가지고 지원하는 국가적인 정책이 요구된다.

특히, 자국민과 동등한 수준으로 수용하는 차원에서 ‘신주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돌봄을 하고 있다. 아울러 타이베이시에서는 초등학교 전체에 ‘다문화의 날’을 3개월에 1회 반드시 실시하도록 하여, 일반 학생들이 세계 각국의 문화 체험을 시행하고 있다. 이와 같이 다문화가정 자녀에게 뿐만 아니라, 일반 학생들에게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정규 교과에 편성하는 방안이 우리 교육에도 확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라. 종합 시사

지금까지 국내외 국제결혼가정의 자녀들을 위한 이민자 부모의 출신국 언어교육 지원현황, 실천사례, 그리고 국제동향 분석결과 및 각각의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체계적인 언어교육 지원정책 수립의 필요성 및 이를 위한 유관부처 및 기관 간 연계체제구축, 언어교육지원 전문 강사 양성·배치 사업의 확대, 교육지원 환경 개선 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이민자 부모 언어 교육지원 정책 방향 정립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우선, ‘국제결혼이민자 부모 출신국 언어’를 나타내는 용어를 정립하여 다양한 용어사용으로 인한 혼동을 피할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제결혼이민자 자녀에게 이주부모의 출신국 언어를 교육하는 것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사용되는 이유는 다양한 배경과 처한 환경에 따라 국가별로 그 특징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로 미국과 일본, 대만을 중심으로 ‘이중언어’, ‘모어’, ‘계승어’ 등이 흔히 사용되고 있는 용어이다. 따라서 소통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관련용어 검토를 통해, 적합한 용어를 선택하고 이를 정립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다음으로,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이민자 부모 출신국 언어교육지원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이민자 부모의 출신국 언어’ 정책은 소외계층을 최소한으로 줄여보자는 소극적 의미의 정책의도라기 보다는 이들이 국가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자율적 권리와 이에 따르는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적극적 의미의 정책의도를 반영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국제언어교육에 대한 국가경쟁력을 담보할 수 있고 국익과 개인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부수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회적이고, 근시안적인 정책이 아닌 체계적인 절차와 과정을 수반하고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정책들이 수립되어야 한다.

둘째, 지속적 언어교육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이 요청된다. 이론적 배경에서 이미 살펴본 것처럼 미국은 1968년 이중언어교육법 제정 이후, 이민아동의 교육 지원을 위해 1984년도에 「긴급이민아동교육법(Emergency Immigrant Education Act of 1984: EIEA)」을 제정하였고, 이민자 가족 교육지원을 위해 EIEA에 의한

보조금(EIEP grants)지원 및 EIEP 프로그램을 오랫동안 시행하였으며 「학생낙오 방지법(No Child Left Behind Act of 2001)」에 의거하여 이민아동들을 위해 보충적 교육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대만 역시 기존의 「외국 및 대륙 배우자 자녀의 교육지도계획 지원원칙」을 수정하여 2009년 <신이민 자녀교육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의 법적 기반을 확립하고 난 후 ‘모어 전승 교육과정’을 학교 현장에 지원하였다. 따라서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현장 맞춤형 다문화교육지원과 다문화교육기반 구축의 양대 축은 그대로 유지하되 하위 추진체계에 정규 교육과정으로서의 공교육의 제도적 착근을 위한 법적 정비가 신설될 필요가 있다. 법적 정비면에서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일부(제11조,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의 조항을 적극적으로 실현 가능하게 하는 ‘의무화’의 문구를 포함할 필요가 있으며 이중언어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조항들이 신설될 필요가 있다.

셋째, 언어 교육 지원을 위한 행정적 지원이 요청된다. 미국의 경우는 ‘소수자 정체성 보호’, ‘미국사회 적응지원’ 등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우수교사 및 학교장 채용, 이를 위한 재정지원을 다각도로 운영하고, 이민자가정 자녀들의 적응을 돕기 위한 교육지원을 수행하고 있다. 대만의 경우, 타이베이현은 교육국에 신주민 전담부서인 ‘신주민 문교지도과’를 중심으로 한 단일 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부서를 통하여 각 부처 및 자원을 연결함으로써 국제결혼이민자에 대한 연계 및 통합적 지원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이민자 부모의 출신국 언어교육 지원을 위해 지속적 재정확보와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전담부서 설치와 같은 적극적인 노력을 할 필요가 있겠다. 아울러 현재 추진 중인 이중언어 활성화 교육을 위한 연구학교 및 우수학교의 지원 확대 방침 제시, 이중언어 교·강사 인력풀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재원 지원, 멘토링 대학생 양성 강화를 위한 유인체제의 제시 및 적용, 예비교사의 이중언어 이해 교육 강화를 위한 대학의 강좌 개설 의무화 권고, 국가차원의 이중언어 교재 및 부교재의 발간 및 보급, 이중언어 중심 대안학교에 대한 정식 학력 인증의 확대 등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넷째, 향후 발전된 교육지원을 위해 유관기관, 부처의 연계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중앙과 지방의 지역적인 상황의 논리, 재정 자립도 및 확보율에 따른 예산 확보 등을 고려하여 정부는 장기적으로 각 지역의 특수성과 상황을 고려하여 비용을 분담하되, 단기적으로는 다문화 정책의 시행 초기 단계인 점을 감안하여 강력한

지원의지를 보여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가 책임을 갖는 구조의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유관기관 및 부처의 연계와 협력을 유인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안정적인 강사요원의 확보와 전문성 제고를 위해 서울시 이중언어 강사 양성, 배치 사업 등과 유사한 사업이 수정·보완되어 다른 시도교육청으로 확대되고 적용·추진될 필요가 있다. 또한 이중언어 강사 현장배치에 있어 강사의 거주지, 지도 언어, 학교 내 다문화가정 학생 재학 현황 등에 대한 정보가 사전에 충분히 고려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전제로 교수법 개발, 정체성 및 자신감 향상 방법, 상담 기술 및 수업 지도안 작성과 같은 구체적 지침을 담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중요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와 고려사항이 면밀히 검토되어 다른 시도교육청에로의 보급, 홍보 및 확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여섯째, 향후 보다 발전된 이민자 부모의 출신국 언어 교육지원을 위해 가정, 학교, 교육청의 교육지원 환경에 대한 개선이 절실히 요청된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다양한 외생변수들과 맞물려 있는 만큼, 이를 고려하여 학교나 가정, 교육청의 인식 및 정책의 변화, 교·강사의 이중언어교육에 대한 인식 변화, 교육여건 개선, 수업교재 개발 및 수업시수 확충과 같은 제반 환경의 내실화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일곱째, 국제결혼가정의 자녀들에게 이민자 부모의 출신국 언어를 교육할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저변확대 노력이 우선적으로 요청된다. 실제로 국내에서는 영어권을 제외한 다른 소수의 언어는 경시되는 경향이 있다. 이는 다문화가정 부모와 자녀의 언어소통을 막고 자연스럽게 학교 안팎에서 부적응을 초래하고 나아가 사회에서의 또 다른 차별의 구실로 작동되는 악순환적 고리를 형성할 수 있다. 따라서 소수언어를 차별하는 사회적 인식의 대전환이 선행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사회지도층은 물론이고 언론, 시민단체 등의 적극적인 홍보와 관계 부처·기관의 전략적인 정책 방안들이 제시되어야 하겠다.

참고문헌

- 공숙자 (1995). 유아의 언어능력과 초언어능력과의 관계 연구. 부산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교육과학기술부 (2010). 국제결혼가정 자녀 재학 현황 내부자료.
- 교육과학기술부(2009). 2008~9년도 16개 시·도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지원 실적 및 계획 보고서.
- 교육과학기술부(2008). 2008~9년도 16개 시·도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지원 실적 및 계획 보고서.
- 교육인적자원부 (2007). 2007년도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 계획. 교육인적자원부.
- 김경란 (2007). 다문화가정자녀의 자아정체감과 사회적지지가 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 국민 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재금 외(2007). 미국 연방정부의 교육정책 동향 :연방교육법을 중심으로. 주미대사관.
- 박성혁 (2008). 다문화교육정책 국제 비교연구. 교육과학기술부.
- 박정은 (2007). 다문화사회에서 생각하는 모어교육 :이주가정과 국제결혼가정을 중심으로. 일지사.
- 서울교육대학교 다문화교육연구원 (2010). 다문화가정 학생을 위한 이중언어 강사 양성 및 배치 사업 평가 백서. 서울특별시교육청.
- 설동훈 외 (2005).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 지원정책방안. 보건복지부.
- 오성배 (2005). 코시안 아동의 성장과 환경에 관한 사례연구. 한국교육, 32(3), 61-83.
- 원진숙 외(2010) '다문화가정 학생을 위한 이중언어 강사 양성 및 배치 사업 평가 백서. 서울 교육대학교 다문화교육연구원. 서울특별시교육청.
- 이재분, 김혜원, 변종임, 채재은, 이해영 (2009). 다문화가족 역량계발을 위한 통합적 교육지원 방안 모색. 한국교육개발원.
- 전국다문화가족지원단 (2010). 2009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결과보고서. 전국다문화가족 지원단.
- 조영달 외 (2006). 다문화가정교육 지원을 위한 자료 개발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 OECD (2006). Where immigrant students succeed: a comparative review of performance and engagement in PISA 2003 재구성.
- Bankston, C. and Zhou, M.(1995). "Effects of minority-language literacy on the academic achieve of Vietnamese youth In New Orleans", *Sociology of Education*, Vol. 68, pp. 1-17.
- Benton, T. and White, K. (2007). Raising the Achievement of Bilingual Learners in

- Primary Schools : Statistical Analysis. education. gov. uk.
- Bereiter, C. & Englemann, S. (1966). Teaching Disadvantaged Children in the Preschool. John Wiley, New York.
- Brind, et al., (2008). Education for Migrant, Minority and Marginalised children in Europe, a report commissioned by the Open Society Institute's Education Support Programme.
- Cummins & Swain (1983). Bilingualism in Education. New-York: Longman.
- Cummins, J. (1976). The influence of bilingualism on cognitive growth : A synthesis of research finding and explanatory hypotheses. Working Papers on Bilingualism, 9. 1-43.
- Cummins, J. (1979a). "Cognitive/ Academic language proficiency, linguistic interdependence, the optimum age question and some other matters", *Working Papers on Bilingualism*, Vol. 19, pp. 121-129.
- Cummins, J. (1981). The role of primary language development in promoting educational success for language minority students", in Office of Bilingual Bicultural Education (eds.), *Schooling and language minority students : A theoretical framework*, pp. 3-49, California State Department of Education, LosAngeles, CA.
- Cummins, J. (1986). Empowering minority students : A framework for intervention. Harvard Education Review. 56, 18-36.
- Cummins, J. (1979). "Linguistic Interdependence and the Educational Development of Bilingual children",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Vol. 49, No. 2, pp.222-251.
- Dopke(1986) Discouse structures on bilingual families, Journal of Multilingual and Multicultural Development, 7:6, 493-507.
- EC (2004b). Integrating Immigrant Children into Schools in Europe.
- Guide to U.S. Department Education Programs, 2007.
- Gorrell, P. (1987). Theoretical and methodological issues in natural language processing. Ph. D.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Connecticut.
- Hakuta, K. (1999), "The debate on bilingual education", Developmental and Behavioral Pediatrics, Vol. 20, pp.36-37.
- Herweijer (2009). "OECD Review of Migrant Education - Country Background Report for the Netherland", www.oecd.org/dataoecd/8/21/42485352.pdf.
- Kessler, C. & Quinn, M. (1987). ESL and science learning. In J. Crandall (Ed.) *ESL through content-area instruction*(pp.55-87) Englewood Cliffs, NJ : Prentice

- Hall Regents.
- Lambert, W. (1977). The effects of bilingualism on the individual : cognitive and sociocultural consequences. In P. Hornby(ed.) *Bilingualism : Psychological, Social and Educational Implications*(pp(15-28). New York : Academic Press.
- Leung, C (2004). “Integrating EAL Learners into the Migration Curriculum” NALDIC Quarterly, No. 2. 1. pp3-10.
- Martin-Jones and Romaine(1985). Semilingualism : A half-backed theory of communicative competence. *Lancaster Paper in Linguistics*.
- Massachusetts 2020 Foundation (2009). “Time for a Newday: Broadening Opportunities for Massachusetts School children”, Expanding Learning Time Initiative 2006-2007 Annual Report.
- Meisel, J. (1989). Early differentiation of language in bilingual children. In K. Hytlenstam & L. Obler(Eds.), *Bilingual across the lifespan : Aspects of acquisition, maturity and loss*(pp.13-40). Cambridge, U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Nusche et al., (2009). “OECD Review of Migrant Education : Austria, OECD Paris, www.oecd.org/dataoecd/61/6/4419225.pdf.
- OECD (2006). Where immigrant students succeed: a comparative review of performance and engagement in PISA 2003. pp. 118~155.
- OECD(2009). OECD Reviews of Migrant Education : Austria. OECD, Paris.
- Oksaar, E. (1983). Language Acquisition in the Early Years. An Introduction to paedolinguistics, tr. by katherine Turtler. London.
- Pearl, E. & Lambert, W. (1962). The relation of bilingualism to intelligence. *Psychological Monographs*, 76, (Whole No. 546), 1-23.
- Pendakur, K and Pendakur R. (2002). “Language knowledge as human capital and ethnicity”,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Vol. 36(1).
- Portes, A. and Hao, L. (1998). “E pluribus unum: Bilingualism and loss of language in the second generation”, *Sociology of Education*, Vol. 71, pp. 269-94.
- Reich, H. H. et al. (2002). *Spracherwerb zweisprachig aufwachsender Kinder und Jugendlicher : Ein Überblick über den Stand der nationalen und internationalen Forschung*, Behörde für Bildung und Sport, Amt für Schule(BSJB), Hamburg.
- Shewbridge et al., (2009). OECD Reviews of Migrant Education : Netherlands. OECD, Paris.
- Skutnabb-Kangas(1984). *Bilingualism or not the education of minorities*. Multilingual

Matters.

Takuma et al., (2009a). OECD Reviews of Migrant Education : Norway. OECD, Paris.

Takuma et al., (2009b). OECD Reviews of Migrant Education : Ireland. OECD, Paris.

Tunmer, W. & Myhill, M. (1984). Metalinguistic awareness and Bilingualism. In W.

E. Tunmer, C. Pratt, and M. L. Merriman(eds.), Metalinguistics. Awareness in children, pp. 169-87. Berlin: Springer- Verlag.

UC2 and KLEO (2004). Evaluering af Dansk soon Andetsprog Folkeskolen, Evaluering Fore faget for Undervisning sministerist af CVU Kobenhavn og Nordsjælland. Copenhagen.

US DOE Event start homepage

Vygotsky, L. S. (1962) Thought and language. cambridge. MA: MIT Press

White, K. et al., (2006). Raising the Achievement of Bilingual Learners in Primary Schools : DfES Research report No. 758.

大倉安史(2006)『門間なみはや高校の母語教育』『言語的マイノリティ生徒の母語 保障に関する 日米比較研究』報告書

大阪府在日外国人施策の実施状況(平成20年度版)

http://www.pref.osaka.jp/jinken/measure/31jisshi1_4_3.html

大阪府教育委員会事務概要主要予算(平成21年度)

<http://www.pref.osaka.jp/kyoikusomu/jimugaiyou/jimugaiyou21.html#03-01>

大阪府教育委員会事務概要主要予算(平成22年度)

<http://www.pref.osaka.jp/hodo/index.php?site=fumin&pageId=2965>

大阪府「教育サポーター育成研修講座」

http://www.pref.osaka.jp/jidoseitoshien/nihongo/ni_07.html

干濤(2008)「Y市における外国人児童生徒に対する教育支援体制に関する考察一同 化教育からの脱却に注目して一」『神戸大学大学院人間発達環境学額研究家研究紀要』第2巻 第1号

文部科学省「帰国・外国人児童生徒教育等に関する施策概要」

http://www.mext.go.jp/a_menu/shotou/clarinet/003/001.htm

文部科学省「帰国・外国人児童生徒教育支援モデル事業(平成18年度)」

http://www.mext.go.jp/a_menu/shotou/clarinet/003/001/014.htm

文部科学省「日本語指導が必要な外国人児童生徒の受け入れ状況等に関する調査(平成20年度)」

http://www.mext.go.jp/b_menu/houdou/21/07/1279262.htm

- 文部科學省予算主要事項(平成18年度)
http://www.mext.go.jp/b_menu/houdou/18/01/06011923/003.pdf
 文部科學省予算主要事項(平成20年度)
http://www.mext.go.jp/a_menu/yosan/h20/index.htm
 兵庫縣教育委員會「人權教育課の施策」
<http://www.hyogo-c.ed.jp/~jinken-bo/sesaku/22sesaku%202.html>
 兵庫縣教育委員會、2000. 8「外國人兒童生徒にかかわる教育指針」
<http://www.hyogo-c.ed.jp/~jinken-bo/gaikokujinsisin.html>
 兵庫縣教育委員會(2009.3)「平成20年度新渡日の外國人兒童生徒にかかわる母語教育支援事業實踐報告書」母語教育支援センター校等連絡會
 兵庫縣國際交流協會「平成21年度事業報告書」
 古角美之(2007)『兵庫縣における子ども多文化共生教育の取組について』JICA兵庫 2007年度教師海外研修授業實踐報告書
 金淑伊(2010). 대만 다문화 교육의 이해, 「다문화교육연구」, 3(1), 28-54.
 內政部入出國及移民署(2010). 外籍配偶照顧輔導基金簡介.
 邱汝娜·林維言(2004). 邁向多元與包容的社會, 「社區發展」, 105, 6-19.
 李明芳(2010). 臺北縣政府教育局新住民教育施政措施簡報. 2010年臺灣及韓國移民教育研討會.
 吳瓊茹(2010). 當前國內新移民子女課程與教學的省思與展望. 「教育研究月刊」, 195, 15-27.
 張芳全等(2008). 新移民子女的教育. 臺北: 心理出版社.
 楊千儀(2006). 當教育遇見多元文化-我們的問題, 困惑和省思, 「現代教育論壇」, 14, 533-542.
 教育部統計處(2009-10). 外籍配偶子女就讀國中小人數分布概況統計.
 黃文彥(2008). 外籍配偶教育問題分析與制度建構-以2002-2006臺北縣為例. 臺北: 國立臺灣師範大學 政治學研究所 碩士學位論文.
 黃昭勳(2007). 當前新移民教育問題芻議, 「北縣教育」, 62, 103-106.
 鄧連林(1993). '臺北縣母語教學實施現況調查研究', 「多元文化教育」, 中國教育學會編, 529-544.
 臺北: 臺灣書店.
 馮清皇(2010). 臺北市新移民照顧輔導政策及實施方案. 2010年臺灣及韓國移民教育研討會.
 馮朝霖·簡瑞容·단志禹(2005). 多元文化與教育-其理論政策與課程, 教育改革的另類思考. 國家政策研究中心.
 臺北縣政府教育局(2008). 臺北縣新住民教育白皮書.
 臺北縣教育局(2009). 新住民文教輔導科2008-2009年度在教育文化施政成果
 臺北縣中和市積穗國民小學(2010). 大陸及外籍配偶子女教育-越南母語傳承. 2010年臺灣及韓國移民教育研討會.

內政府入出國及移民署全國資訊網(2010). 各縣市外籍配偶人數按國籍分與大陸(含港澳)配偶人數.<http://www.immigration.gov.tw/aspcode/info9906.asp>(2010.8.5검색)

臺灣觀光廳(2010). 臺灣紹介. <http://www.tourtaiwan.or.kr/taiwan1>(2010.8.5검색).

教育部(2007). 高級中等以下學校及幼稚園推動臺灣母語日活動實施要點.

<http://epaper.edu.tw/print.aspx?print-type=topical&print-sn=77&print-num=27>
(2010.3.22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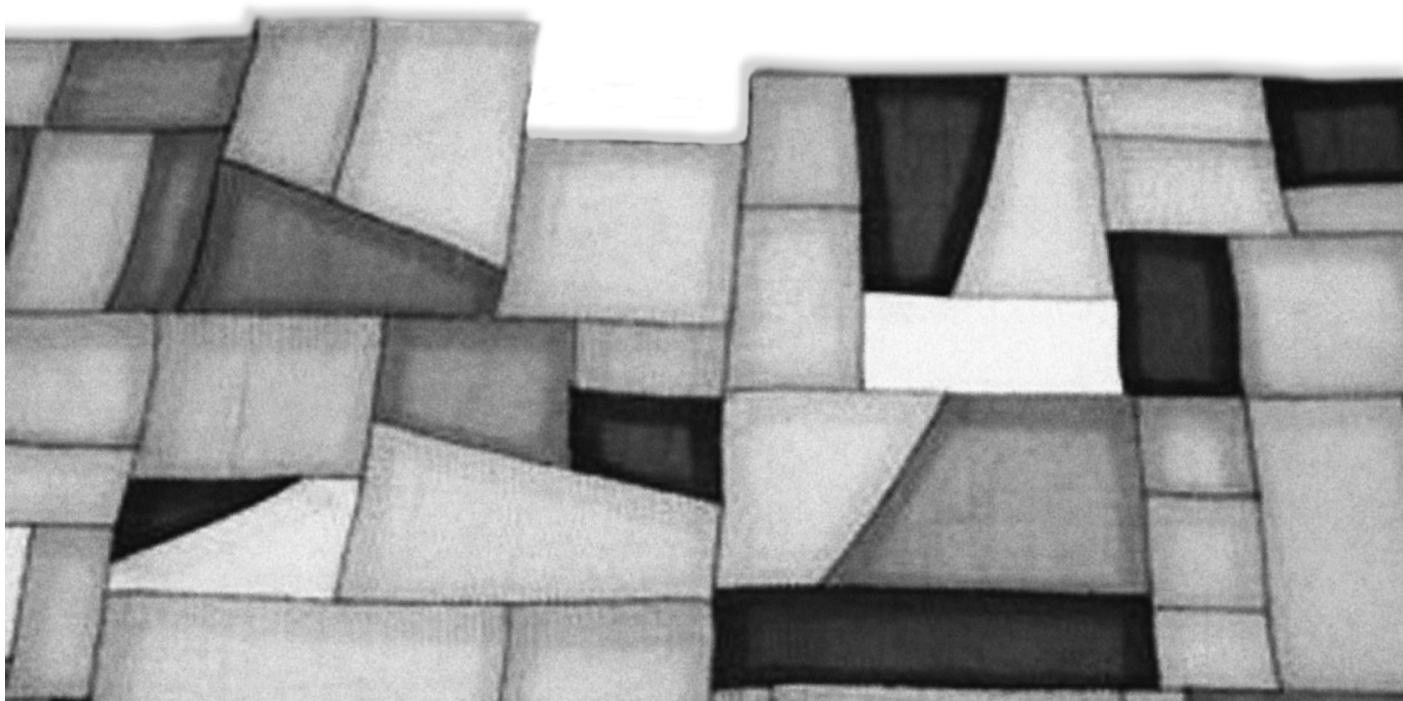
教育部 (2010). 新移民子女教育輔導推動現況與展望.

<http://www.edu.tw/print.aspx?table-name=news&tablemsn=3012>(2010.2.6검색)

教育部統計處(2010). 就讀國中小之外籍配偶子女人數－按父母國籍分.

http://www.edu.tw/statistics/content.aspx?site_content_sn=8956(2010.8.5검색)

부 록



〈부록 1〉 이중언어 교육지원 현황 조사지

선생님의 응답내용은 국가 교육지원 정책 수립의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오니,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다음은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대상으로 한 이중언어 교육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해당사항에 √ 하거나, 선생님의 의견을 적어주십시오.

1. 선생님은 현재 학교에서 이중언어교육을 지도하고 계신가요?

- ① 한다 ② 안한다 ③ 기타_____

2. 수업에 사용하는 교재는 어떻게 준비합니까?

- ① 직접 만들어서 사용함 ② 교사 연수를 통해 배운 교재를 이용함
③ 서점에서 구입하여 사용함 ④ 학교에서 줌

3. 학교에서 수업 시간은 언제입니까?

- ① 방과후 교실 ② 주말학교 ③ 정규 수업시간 외 ④기타_____

4. 수업의 횟수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 ① 격주 1회(한 달에 두 번) ② 주 1회 ③ 주 2회
④ 주 3회 ⑤ 기타 _____ 번

5.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의 수는 몇 명입니까? _____ 명

6. 수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까?

- ① 매우 어렵다 ② 어렵다 ③ 보통이다 ④ 어렵지 않다

6-1. 수업 진행이 어려운 경우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교수법이 다양하지 못해서
- ②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추기가 어려워서
- ③ 수업지도안 작성이 어려워서
- ④ 교재, 교구 구입의 어려움 때문에
- ⑤ 기타 _____

7. 수업에 필요한 보충자료는 어떻게 수집합니까?

- ① 이중언어 강사 카페를 통해(동호회)
- ② 다문화센터를 통해서
- ③ 현재 근무하는 학교의 도움으로
- ④ 교사연수를 통해서
- ⑤ 기타 _____

8. 최근 다문화교육 연수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② 없다

9. (자녀가 있는 경우) 가정에서 모국어를 가르치고 계십니까?

- ① 가르친다
- ② 가르치지 않는다
- ③ 가르치다가 가르치지 않는다
- ④ 가르칠 계획이다
- ⑤ 기타 _____

9-1. 가르친다면 자녀가 몇 살 때부터 가르치기 시작했나요?

_____살

10. 이중언어 강사를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11. 이중언어(모국어)교육을 하면서 수업을 잘 따라오는(잘하는) 학생과 그렇지 못한(잘 못하는) 학생이 있어서 차이를 보인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학생의 동기
- ② 가정에서 모국어 지도의 유무
- ③ 지적능력(IQ)
- ④ 부모의 열의
- ⑤ 기타_____

12. 현재 수업하고 있는 선생님의 학교에서는 이중언어(모국어) 교육을 어떻게 하게 되었나요?

- ① 학생이나 가정의 요구에 의해 ② 학교의 필요에 의해
③ 기타_____

13. 이전에 모국어를 전혀 접해보지 못한 학생들에게 이중언어(모국어)교육을 처음으로 시작했을 때, 학생들은 어떤 어려움을 보입니까?

14. 수업을 진행하면서(수업이 계속 될수록) 학생들이 보이는 긍정적인 변화는 무엇입니까?

15. 선생님이 가르치는 학생 중에 이중언어(혹은 어머니 출신국 언어) 수업을 중간에 그만둔 학생이 있습니까?

- ① 있다_____ ② 없다_____

15-1. 중간에 그만둔 학생이 있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6. 학생과의 관계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17. 수업 때, 선생님 외에 자원봉사 교사가 있습니까?

- ① 있다_____ ② 없다_____

18. 수업을 하기 전에 학교에서 오리엔테이션이 있습니까?

- ① 있다_____ ② 없다_____

18-1. 만약 있다면 이 오리엔테이션은 누구를 대상으로 합니까?

- ① 학생_____ ② 학부모_____ ③ 학생과 학부모_____
 ④기타(구체적으로)_____

18-2. 오리엔테이션은 학생들의 수업에 얼마나 도움이 됩니까?(도움이 되는 내용 및 도움 정도를 구체적으로 기술해주세요.)

19. 이중언어(모국어)교육을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이 가장 먼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가정에서의 인식 변화 필요 ② 선생님의 교수법 변화
 ③ 학교나 교육청의 정책의 변화 ④ 기타 _____

20. 수업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학교나 교육청에서 꼭 해주었으면 하는 내용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21. 만약 교사 연수가 제공된다면 무엇을 가장 먼저 배우고 싶습니까?

※ 다음은 응답내용을 통계처리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입니다.

* 성별 (남, 여)	* 연령 : _____세
* (귀화 전)국적 :	
* 이중언어교육 경력 _____년 _____월	
* 근무처 : _____ 학교	
* 담당과목(지도하는 언어) : _____	

- 응답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록 2〉 유·초·중·고등학교 이중언어 교육지원 현황(2010)

〈부록 2-1〉 유치원

시도	이중언어 실시유치원 (총) 수	실시유치원	유치원별 참여 학생 수	유치원별 지도언어	지도언어별 주 교육자 (예 : 교사, 다문화가정 학부모 등)	기타 (교육/지도 방식)
부산	1	서면원광유치원	1	영어	교사	특성화프로그램
대구	8	가람유치원	1	중국어	이중언어교사	서구다문화가족 지원센터 프로그램
		민들레유치원	2	일어	씨앗 열매 학교 교사	이중언어교실 씨앗열매 학교 프로그램 (서구제일종합 사회복지관)
		아이러브유치원	1	베트남어	〃	〃
		무궁화유치원	1	베트남어	〃	〃
		초록나라유치원	1	베트남어	〃	〃
		침산초병설유치원	1	필리핀어	〃	〃
		한솔유치원	1	중국어	〃	〃
		새솔유치원	1	중국어	〃	〃
인천	6	신동아유치원	1	중국어	교사	특성화 다문화활동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은별유치원	1	중국어	학부모	학부모
		한울유치원	2	영어	교사	수업중
		엄지유치원	1	태국어	학부모	
		현대유치원	2	베트남어, 일본어	다문화가정 학부모	특성화 프로그램
		당산초 병설유치원	3	중국어	다문화가정 학부모	교육과정 수업 (다문화특색활동)
대전	1	서대전초 병설유치원	1명	일본어	다문화가정 학부모	동화 및 놀이지도 (세대별지혜나눔)

시도	이중언어 실시유치원 (총) 수	실시유치원	유치원별 참여 학생 수	유치원별 지도언어	지도언어별 주 교육자 (예 : 교사, 다문화가정 학부모 등)	기타 (교육/지도 방식)
경기	7	보라초 병설유치원	51	영어	원어민교사	시청각교 재활용수업
		미리내유치원	65	영어	담임교사와 다문화가정 학부모	특성화 프로그램
		원덕초 병설유치원	11	영어	원어민교사	주1회 20분, 생활영어
		용문초 병설유치원	17	영어	원어민교사	영어동요, 스토리텔링
		성남장안초등학교	29	중국어	학부모	놀이를 통한 중국어 배우기
		가평유치원	90	영어	교사	종일제 특성화 프로그램
		정교초등학교 병설유치원	4	중국어	외부강사	종일제·방과후 지도
충남	2	금당초 병설유치원	1	영어	다문화가정 학부모	방과후 지도
		합덕초병유	1	필리핀어	다문화가정 학부모	가정에서 지도
전북	2	황산초 병설유	6	영어	다문화가정 학부모	종일제 특성화 프로그램
		남원 노암병설유	40	영어	다문화가정 학부모	방과후 프로그램, 방학 프로그램
경북	3	성심유치원	2	영어	교사	특성화 프로그램
		해나라유치원	2	중국어 베트남어	교사	방과후 프로그램/ 재량활동/ 주말/ 방학 프로그램
		옥계유치원	270	러시아, 페루, 베트남, 중국, 일본, 우즈베키스탄 각 5주	대구 다문화 교육원 강사	수업 중 주1회

* 여기에서의 이중언어 교육은 '결혼이민자인 부모의 출신국 언어 교육'을 의미함

〈부록 2-2〉 초등학교

시도	이중언어 실시학교 (총)수	실시학교	학교별 참여 학생수	학교별 지도언어	지도언어별 주 교육자	기타 (교육/지도 방식)
서울	69 ¹⁴⁾	군자초	9	몽골어	이중언어 강사	수업지원 및 개인학습지도
		상봉초	20	러시아어	이중언어 강사	방과후 프로그램, 계발활동
		이문초	7	일본어	이중언어 강사	재량활동, 방과후 프로그램
		중곡초	11	일본어(5), 중국어(6)	이중언어 강사	계발활동
		중목초	3	중국어	이중언어 강사	방과후 프로그램
		상암초	2	몽골어	이중언어 강사	방과후지도
		서교초	1	중국어	이중언어 강사	방과후지도
		성산초	2	필리핀어	이중언어 강사	방과후지도
		수색초	1	우즈베키스탄어	이중언어 강사	방과후지도
		연광초	2	중국어	이중언어 강사	방과후지도
		아현초	1	일본어	이중언어 강사	방과후지도
		은평초	1	일본어	이중언어 강사	방과후지도
		개웅초	4	미얀마, 일본, 중국	다문화가정 학부모	주말 가정학습
		고척초	7	중국어	이중언어 강사	방과후 프로그램
		구로남초	2	중국어	이중언어 강사	방과후 프로그램
		금산초	3	영어, 일본어	다문화가정 학부모	집에서 수시로 공부
		독산초	7	중국어	이중언어 강사	방과후 프로그램
		동구로초	3	일본어	이중언어 강사	방과후 프로그램, 방학 프로그램
		문래초	2	일본어	다문화가정 학부모	주말
		영문초	2	일본어,영어	다문화가정 학부모	집에서 수시로 공부
		영일초	5	일본어	외부 강사	방과후 프로그램
		방학초	17	베트남, 영어, 중국어, 일본, 몽골어	다문화가정 학부모	방과후 프로그램

시도	이중언어 실시학교 (총)수	실시학교	학교별 참여 학생수	학교별 지도언어	지도언어별 주 교육자	기타 (교육/지도 방식)
		상곡초	3	일본어	다문화가정 학부모	주말/방학 프로그램
		신방학초	6	일본어	이중언어 강사	방과후 프로그램, 방학 프로그램
		월계초	4	일본어	이중언어 강사	방과후프로그램 특별활동
		창경초	2	몽골어	이중언어 강사	방과후 프로그램
		보광초	10	일본어	교사	돌봄교실 프로그램
		보광초	54	영어	이중언어 강사	재량활동
		신당초	3	몽골어	이중언어 강사	방과후 프로그램
		이태원초	3	영어	이중언어 강사	방과후 프로그램
		장충초	3	몽골어	이중언어 강사	방과후 프로그램, 방학중 프로그램
		청파초	15	일본어	이중언어 강사	방과후 프로그램, 방학중 프로그램
		충무초	4	러시아어	이중언어 강사	수업 지원, 방과후 프로그램
		고덕초	11	몽골어	이중언어 강사	방과후프로그램, 재량활동
		신천초	90	영어	이중언어 강사 ,	방과후 프로그램
		장지초	12	일본어	이중언어 강사	방과후 프로그램
		신명초	2	영어	이중언어 강사	방과후 프로그램, 재량활동
		백석초	2	영어	이중언어 강사	방과후 지도
		신남초	5	일본어	이중언어 강사	방과후 프로그램, 특별활동
		신정초	1	러시아어	이중언어 강사	방과후 프로그램 (주 2회 1대1 지도)
		양동초	6	몽골어	이중언어 강사	방과후 교육활동
		양목초	4	일본어	이중언어 강사	방과후 교육활동
		양화초	1	중국어	이중언어 강사	재량활동

시도	이중언어 실시학교 (총)수	실시학교	학교별 참여 학생수	학교별 지도언어	지도언어별 주 교육자	기타 (교육/지도 방식)
		월정초	8	일본어, 한국어	이중언어 강사	방과후 프로그램
		탑산초	1	러시아어	이중언어 강사	재량활동
		화곡초	3	중국어	이중언어 강사	방과후 프로그램
		도곡초	2	중국어	이중언어 강사	방과후 프로그램, 여름방학 프로그램
		관악초	4	일본어	이중언어 강사	방과후 프로그램, 방학프로그램
		난곡초	3	중국어	이중언어 강사	재량활동, 방과 후 프로그램
		난우초	1	일본어	이중언어 강사	방과후 프로그램
		난향초	3	중국어	이중언어 강사	방과후 프로그램, 재량활동
		대림초	4	영어	이중언어 강사	방과후 프로그램
		문창초	30	중국어	이중언어 강사	방과후 프로그램 (각 단계별 주 2회 지도)
		미성초	3	중국어	이중언어 강사	재량활동
		보라매초	3	한국어	특수학급교사	2학기에 실시 예정
		신길초	1	태국어	이중언어 강사	수업 중 지원, 방과후 프로그램
		신상도초	5	일본어	이중언어 강사	방과후 프로그램
		인현초	3	일본어	이중언어 강사	방과후 프로그램
		광장초	4	몽골어	이중언어 강사	방과후 프로그램, 계발활동 (몽골어반), 여름방학 프로그램
		광장초	40	몽골어	이중언어 강사	정규수업, 방과후, 방학 프로그램
		광진초	30	일본어	이중언어 강사	방과후 프로그램, 방학 프로그램
		동의초	14	영어, 러시아어	이중언어 강사	방과후 프로그램, 방학프로그램

시도	이중언어 실시학교 (총)수	실시학교	학교별 참여 학생수	학교별 지도언어	지도언어별 주 교육자	기타 (교육/지도 방식)
		무학초	23	중국어	이중언어 강사	방과후 프로그램, 방학 프로그램
		자양초	12	국어	이중언어 강사	방과후 프로그램, 방학 프로그램
		동신초	5	몽골어	이중언어 강사	계발활동
		송인초	3	몽골어	이중언어 강사	방과후 프로그램, 방학 프로그램
		삼양초	4	일본어	이중언어 강사	방과후 프로그램
		송천초	6	일본어	이중언어 강사	방과후 프로그램
		월곡초	3	몽골어, 한국어	이중언어 강사	방과후 프로그램
		길원초	2	러시아어	이중언어 강사	방과후 프로그램
		장월초	8	러시아어	이중언어 강사	방과후 프로그램
부산	17	낙동초	1	중국어	대학생 강사	60분/주 교과시간지도
		부전초	1	영어	다문화가정 학부모	가정 지도
		양정초	8	러시아어(1), 인도네시아어(2), 일본어(4), 중국어(1)	다문화가정 학부모	방과후지도
		오륙도초	1	러시아어	어학원 강사	어학원 프로그램
		좌천초	2	일본어, 페루어	다문화가정 학부모	방과후지도
		동성초	3	영어	교사	특성화 프로그램
		주감초	3	중국어	외부강사	방과후 지도
		금샘초	1	중국어	교사	LG지원 다문화학교 참가
		연서초	1	일본어	다문화가정 학부모	방과후학교
		회동초	2	일본어	다문화가정 학부모	방과후학교
		광남초	3	일본어	교사	방과후지도
			3	영어	원어민교사	특성화프로그램
		남천초	3	일본어, 중국어	다문화가정 학부모	가정 지도

시도	이중언어 실시학교 (총)수	실시학교	학교별 참여 학생수	학교별 지도언어	지도언어별 주 교육자	기타 (교육/지도 방식)
		신도초	2	영어	대 학생멘토	방과후지도
		장안초	1	일본어	Talk장학생	가정 지도
		해운대초	1	중국어	다문화가정 학부모	무료 방과후지도
		반안초	1	베트남어	외국인 교사	방학 중 중국초등학교에 위탁교육
		송수초	1	영어	다문화가정 학부모	하노이방문 교육
대구	16	대구반야월초	5	필리핀어4, 중국어1	씨앗 열매 학교 교사	이중언어교실 씨앗열매 학교 프로그램(서구제일 종합사회복지관)
		대구달성초	12	영어5, 일어5, 중국어2	"	"
		대구인지초	2	필리핀어	"	"
		대구침산초	14	일본어7, 중국어2, 베트남어2, 필리핀어3	"	"
		대구평리초	2	일본어	"	"
		대구월성초	2	일본어	"	"
		대구송일초	2	일본어	"	"
		대구장동초	2	일본어	"	"
		대구서변초	1	우즈베키스탄어	다문화가정 학부모	방학 중 지도
		대구내당초	5	중국어	씨앗 열매 학교 교사	이중언어교실 씨앗열매 학교 프로그램 (서구제일종합사회 복지관)
		대구비봉초	1	중국어	"	"
		대구대성초	1	중국어	"	"
		대구봉덕초	2	영어	교사	방학 프로그램
		대구남도초	1	영어	다문화가정 학부모	주중 프로그램

시도	이중언어 실시학교 (총)수	실시학교	학교별 참여 학생수	학교별 지도언어	지도언어별 주 교육자	기타 (교육/지도 방식)
		대구성서초	1	영어	대구교대 대학생	교대다문화교육 지원 프로그램
		대구현풍초	25	일본어	다문화가정 학부모	방과후 프로그램
인천	14	인천백학초	4	중국어	중국어 원어민 교사	재량활동
		인천신광초	3	중국어	방과후 담당 외부강사	방과후교육활동
		인천신흥초	2	중국어	외부강사, 다문화가정 학부모 코티칭	방과후교육활동
		인천삼목초	1	중국어	외부강사	방과후/특기적성교실
		인천신촌초	4	일본어	교사	다문화반/방과후
			1	영어	교사	다문화반/방과후
		인천부개서초	1	일본어	교사	다문화반/방과후
			2	영어(필리핀)	교사	다문화반/방과후
			2	중국어	교사	다문화반/방과후
		인천개흥초	5	영어(필리핀)	교사	다문화반/방과후
		인천약산초	8	일본어	다문화가정 학부모	다문화반/방과후
		인천안남초	3	중국	교사	다문화반/방과후
			2	영어(필리핀)		
		인천화전초	2	일본어	다문화가정 학부모	다문화반/방과후
		인천신석초	2	일본어	다문화가정 학부모	방과후
		인천천마초	7	중국어	교사	다문화반/방과후
		대월초	4	중국어	외부강사	방과후
			3	일본어	다문화가정 학부모	방과후
		강화초	3	타갈로그어	다문화가정 학부모	다문화반/방과후
광주	1	하남중앙초	4	중국어, 영어	다문화가정 학부모	주말이나 여가시간을 활용한 가정교육
대전	11교	산내초	13명	중국어	교육청에서 채용한 이중언어 강사(중국인)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시도	이중언어 실시학교 (총)수	실시학교	학교별 참여 학생수	학교별 지도언어	지도언어별 주 교육자	기타 (교육/지도 방식)
		대전현암초	8명	중국어	〃	〃
		대전중리초	3명	중국어	〃	〃
		대전법동초	3명	중국어	〃	〃
		대덕초	15명	중국어	〃	〃
		대전도마초	9명	중국어	〃	〃
		대전성룡초	3명	중국어	〃	〃
		대전성천초	7명	중국어	〃	〃
		대전수미초	6명	중국어	〃	〃
		대전하기초	10명	중국어	〃	〃
		대전동광초	1명	영어	교사	재량활동
울산	3	내황초	5	일본어, 중국어	다문화가정 학부모 (결혼이민자)	방과후지도
		신정초	3	일본어, 중국어	다문화가정 학부모	종일제·방과후 지도 특성화프로그램
		학성초	2	일본어, 중국어	다문화가정 학부모	<일본어> 쓰기 : 학습지, 말하기 : 부모님 <중국어> 방과후
경기	51	수원신곡초	4	중국어	이중언어 강사	방과후 프로그램
		지동초	1	몽골어	이중언어 강사	방과후 프로그램/수업보조
		송죽초	1	영어	방과후 강사	방과후 교육프로그램
		고촌초	25명	중국어	방과후 강사	방과후 프로그램/ 방학 프로그램 등
		통진초	5명	중국어	이중 언어 강사	방과후 프로그램
		양곡초	11명	중국어	방과후 강사	방과후 프로그램 4, 5, 6학년 재량활동 주 1회 운영

시도	이중언어 실시학교 (총)수	실시학교	학교별 참여 학생수	학교별 지도언어	지도언어별 주 교육자	기타 (교육/지도 방식)
		하성초	10명	중국어	방과후 강사	방과후 프로그램 (시청 지원)
		마송중앙초	129명	몽골어	방과후 강사	방과후 프로그램/ 전교생 재량활동 주1회 운영
		합정초	5	일본어	이중언어 강사	방과후 프로그램/ 재량활동
		둔전제일초	2	중국어, 베트남어	다문화가정 학부모	가정학습
		도당초	62	몽골어	이중언어 강사	방과후/재량활동
		부천대명초	4	태국어, 필리핀어, 일본어	교사	오정초 무지개주말학교
		부천신흥초	662	몽골어	이중언어 강사	재량활동
		오정초	80	일본어, 중국어, 필리핀어, 태국어, 한국어	다문화가정 학부모	무지개주말학교
		새말초	2	중국어	이중언어 강사	방과후 프로그램
		의정부서초	2	일본어	방과후 교사	방과후 프로그램
		본오초	1,488	중국어	이중언어 강사	중국문화체험 프로그램
		안산원곡초	225	중국어	이중언어 강사	재량활동 시간 활용 및 방과후 특기적성
		관산초	1	몽골어	이중언어 강사	방과후교육
			1,263	몽골어	이중언어 강사	오전중재량 특활시간활용교육
			12	몽골어	이중언어 강사	일반아동대상방과 후교육
			2	몽골어	이중언어 강사	일반학부모대상다 문화교육
		원일초	6	중국어	이중언어 강사	외국인근로자자녀 특별학급 학생 지도

시도	이중언어 실시학교 (총)수	실시학교	학교별 참여 학생수	학교별 지도언어	지도언어별 주 교육자	기타 (교육/지도 방식)
		안산서초	870	중국어	이중언어 강사	국제문화이해교육, 다문화학생 학습지도, 방과후 중국어교실
		상록초	755	중국어	이중언어 강사	3,4학년재량 활동중국어 협력수업
		본원초	8	중국어	이중언어 강사	방과후 지도
			2,338	중국어	이중언어 강사	재량활동
		안산회원초	1,000	중국어	이중언어 강사	중국문화체험 프로그램
			1	영어	이중언어 강사	수업보조
			30	중국어	이중언어 강사	제2외국어반
			4	중국어	이중언어 강사	방과후 프로그램
		안산화정초	1862	중국어	이중언어 강사	중국문화체험
		동탄초	1	한글 및 영어	교사, 학부모	교과 수업 활동
		정남초	1	한글	기초학력담당교사	방과후기초학습반
		송곡초	47	영어	교사	방과후 프로그램
		광명초	1,370	일본어, 중국어	전교생, 교사, 다문화가정 학부모, 일반 학부모	일본문화 이해교육, 학부모 평생교육, 방과후교육, 기초일본어, 중국어교육
		광명서초	1280	중국어	교사, 일반 학생 및 다문화 학생, 학부모	재량 활동 /방과 후 프로그램
		광문초	1428	중국어	이중언어 강사	재량활용 /방과후 프로그램
		서현초	4	영어, 태국어	다문화가정학부모	주말
		성남초	8	일본어	이중언어 강사	방과후 지도 (9월14일부터 실시예정)

시도	이중언어 실시학교 (총)수	실시학교	학교별 참여 학생수	학교별 지도언어	지도언어별 주 교육자	기타 (교육/지도 방식)
		수진초	2	베트남어	다문화학생 및 전교생	재량활동시간중 다문화교육 및 방과후학교를 통한 베트남어 지도
		초림초	1	영어	교사	주2회/귀국자녀 반 운영 방과후
		가좌초	18	중국어	학생	방과후지도
		고양한내초	2	일본어	일본어-학부모	가정지도
		금계초	9	일본어, 중국어	일본어-학생, 중국어-학생	중국어- 종일제, 일본어- 방과후 지도
		아람초	95	중국어	중국어-학생	종일제 방과후지도
		풍동초	1	필리핀어	필리핀어-학생	가정학습
		현산초	3	일본어	일본어-학생	가정학습
		남양주송라초	653명 (5,6학년)	일본어	이중언어 강사	재량활동
		남양주송라초	12	일본어	이중언어 강사	방과후 프로그램
		마석초	12	몽골어	이중언어 강사	방과후 프로그램
		천마초	45	중국어	이중언어 강사	방과후 프로그램
		덕정초	329	중국어	교사(이중언어 강사)	재량활동 /방과후교육활동
		양주백석초	30	일본어	1.다문화가정학생 2.학부모 (다문화, 일반) 3.교사 및 일반학생	멘토링제운영 평생교육 특기적성교육활동
		미원초	9	일본어	학부모강사	방과후프로그램
		미원초	49	영어	영어원어민강사	방과후프로그램
		정교초	133	중국어	외부강사	방과후 프로그램 / 재량활동
강원	12	거진초	7	영어	교사	특활활동(6) 방학프로그램 (영어캠프)(1)

시도	이중언어 실시학교 (총)수	실시학교	학교별 참여 학생수	학교별 지도언어	지도언어별 주 교육자	기타 (교육/지도 방식)
		풍산초	45	영어	방과후강사	한국수자원공사에 산지원 학기중실시
		북평초	1	영어	방과후강사	방과후 프로그램
		삼생초	2	영어	다문화가정 학부모	방과후 프로그램
		울전초	25	영어	다문화가정 학부모	방과후 프로그램
		구정초	61	영어	다문화가정 학부모	방과후 프로그램
		단계초	200	영어	교사, 방과후 강사	방과후 프로그램, 방학프로그램
		우산초	22	영어	방과후 강사	방과후 프로그램
		문막초	4	중국어	방과후 강사(원어민)	방과후프로그램 (다문화교육 협력학교)
			1	영어(필리핀)	방과후 강사(원어민)	방과후프로그램 (다문화교육 협력학교)
		동화초	10	중국어, 일본어, 태국어, 베트남어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소속 강사(결혼이주여성)	다문화교실 프로그램
		부론초	51	영어	원어민영어보조교사	방과후 프로그램
충북	2	남당초	3	영어	다문화가정 학부모	방과후 지도
		삼양초	15	일본어, 중국어	다문화가정 학부모	방과후 지도
충남	29	천안부영초	11	일본어,	다문화가정 학부모	방학 프로그램
			12	중국어	다문화가정 학부모	방학 프로그램
		신관초	15	일본어	교사	방과 후 수업
		상서초	31	중국어	다문화가정 학부모	방과 후 수업
		청라초	1	영어	다문화가정 학부모, 담임교사, 한글선생님	방과후 가정연계교육, 재량(한글수업)
		개화초	37	영어	원어민 영어강사	방과후 가정연계교육, 재량(한글수업)

시도	이중언어 실시학교 (총)수	실시학교	학교별 참여 학생수	학교별 지도언어	지도언어별 주 교육자	기타 (교육/지도 방식)
		금곡초	1	중국어	다문화가정 학부모	주말
		남창초	1	중국어	방과후강사	방과후프로그램
		관대초	2	영어, 중국어	교사	방과후 프로그램
		금성초	8	중국어	교사	방과후 프로그램
		선장초	6	일본어, 중국어	다문화가정 학부모, 전문강사	방과후 프로그램
		신창초	1	중국어	방과후 교사	방과후 프로그램
		동암초	4	영어	교사	방과후프로그램
		부적초	1	영어	다문화가정 강사	방과후 프로그램
		금산동초	9 17	중국어 영어	교사 원어민영어보조교사	계발활동 방과후프로그램
		제원초	12	영어	교사	방과후프로그램
		부리초	26	일본어	다문화가정 학부모	돌봄학교 일과전 프로그램
		연동초	1	영어	교사	방과후 프로그램
		구룡초	2	영어	교사	방과후 프로그램
		합송초	3	중국어	다문화 학부모	방과후 프로그램
		부여초	5	영어	원어민교사	방과후 프로그램
		은산초	3	영어	원어민교사	방과후 프로그램
		백강초	2	중국어	다문화 학부모	방과후 프로그램
		비인초	1	영어	원어민교사	방과후 프로그램
		미당초	17	중국어	다문화가정 학부모	주말(휴무토요일)
		조림초	26	중국어	외부 중국어 강사	방과후 프로그램
		양신초	10	중국어	다문화가정 학부모	방과후 프로그램
		합덕초	3	필리핀어, 우즈베키스탄어	다문화가정 학부모	가정에서 지도
		신촌초	1	중국어	중국어 강사	방과후 교육프로그램
		서정초	1	중국어	순회교사	방과후 지도

시도	이중언어 실시학교 (총)수	실시학교	학교별 참여 학생수	학교별 지도언어	지도언어별 주 교육자	기타 (교육/지도 방식)
전북	18	송원초	1	중국어	다문화가정 학부모	방과후 프로그램
		중인초	2	일본어	외부강사	방과후 특설 프로그램
		우림초	1	영어	학부모	주말
		산북초	18	일본어	다문화가정 학부모	교육복지, 일본어동아리
		금성초	2	영어	방과후 강사	방과후 프로그램
		이리초	12	중국어	방과후 강사	방과후 프로그램
			35	영어	방과후 강사	방과후 프로그램
		익산옥야초	1	몽골어	학부모	
		황등남초	14	중국어	다문화가정 학부모	방과후프로그램
		남원노암초	86	영어	다문화가정 학부모	교과시간원어민활용, 방과후프로그램 방학프로그램
		보절초	5	영어	교사	방과후 프로그램
		순창초	10	일본어	다문화가정학부모중 해당언어강사	방과후 프로그램
			10	중국어	다문화 가정 학부모 중 해당언어 강사	방과후 프로그램
		동산초	35	영어	다문화가정 학부모	방과후 프로그램
		시산초	15	중국어	다문화학부모	방과후프로그램
		봉서초	232	영어 중국어	내부강사(교사), 외부강사(방과후강사)	방과후 프로그램
		화산초	76	중국어	학교 교사, 외부 강사	정규영어수업, 방과후 프로그램
		오수초	2	일본어	다문화가정 학부모	방과후프로그램
		해리초	19	일본어	다문화가정 학부모	방과후 프로그램
		장수초	76	영어	다문화가정 학부모	방과후 프로그램
전남	17	남평초	338	스페인어	스페인학부모	아침방송
		서창초	14	일본어	일본인학부모	특성화프로그램

시도	이중언어 실시학교 (총)수	실시학교	학교별 참여 학생수	학교별 지도언어	지도언어별 주 교육자	기타 (교육/지도 방식)
		장흥초	7	일본어	방과후강사	방과후지도
			16	영어(필리핀)	다문화가정 학부모	방과후지도
		장평초	10	일본어	다문화가정 학부모	방과후지도
		광의초	10	일본어	외부강사	특성화프로그램
		용방초	25	일본어	원어민	방과후지도
		원촌초	18	일본어	원어민	방과후지도
		중동초	19	일본어	원어민	방과후지도
		봉강초	5	일본어	외부강사	방과후지도
		장성성산초	7	일본어	교사	학부모상담시
		곡성중앙초	20	중국어	다문화학부모	방과후지도
			18	일어	다문화학부모	방과후지도
			50	영어	원어민강사	방과후지도
			583	중국어	다문화학부모	방과후지도
			583	일본어	다문화학부모	방과후지도
		삼기초	11	일본어	다문화학부모	방과후지도
		석곡초	160	영어	외부강사	방과후지도
		옥과초	20	일,중,영어	다문화학부모	방과후지도
		담양남초	6	영어	영어교담 및 원어민	방과후지도
		북평초	16	일본어	후지사쿠 에미꼬	방과후지도
		천태초	32	일본어	외부강사	방과후지도
경북	4	서후초등	45	중국어	안동시 다문화가정지원센터 지도강사	방과후 프로그램 (수요일 2시간, 2개반 운영)
		증산초등	8	중국어	다문화가정 학모	엄마품 멘토링
		덕촌초등	59	일본어	다문화가정 학부모	방과후 프로그램
			42	중국어	다문화가정 학부모	방과후 프로그램
		낙동초 (용포분교)	7	중국어	다문화가정 학부모	방과후 프로그램

시도	이중언어 실시학교 (총)수	실시학교	학교별 참여 학생수	학교별 지도언어	지도언어별 주 교육자	기타 (교육/지도 방식)
경남	3	안골포초	1	영어	방과후강사	방과후 프로그램
		궁류초	27	일본어	다문화가정 학부모	방과후 프로그램
		송진초	28	중국어	다문화가정 학부모	방과후 프로그램

* 여기에서의 이중언어 교육은 '결혼이민자인 부모의 출신국 언어 교육'을 의미함

-
- 14) 이중언어를 실시하는 총 학교수는 69개교이며, 보광초는 일본어와 영어 두 가지의 이중언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광장초가 두 곳인데, 학생 수가 4명인 곳은 실제 광장초이며, 학생 수가 40명인 광장초등학교는 몽골학교를 일컫는다.

〈부록 2-3〉 중학교

시도	이중언어 실시학교 (총)수	실시학교 명	학교별 참여 학생 수	학교별 지도언어	지도언어별 주 교육자 (예 : 교사, 다문화가정 학부모 등)	기타 (교육/지도 방식)
서울	1	금옥중	1	일본어	교사	방과후 프로그램
부산	24	반여중	1	중국어	교사	주1회 교과 수업
		해강중	1	중국어	다문화가정 학부모	가정 지도
		부산여중	1	일본어	교사	방과후 지도
		남천중	1	일본어	일본어 전문강사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대천중	2	일본어, 러시아어	다문화가정 학부모	가정에서 부모님이 교육
대구	1	가창중	2	중국어1, 일본어1	다문화가정 학부모	방과후 프로그램
인천	2	인천신흥중	2	중국어	교사	교과 재량활동
		인천동방중	1	중국어	교사	방과후 프로그램
광주	2	전대사대부중	2	일본어	교사(시간강사)	방과후 프로그램
		광주서광중	1	일본어	방과후학교 강사	방과후 프로그램
대전	2	한밭여자중학교	2명	일본어	다문화가정 학부모	선택교과시간
		가수원중	1명	일본어	교사	방과후 프로그램
경기	21	매향중	2	중국어	교사	교과재량활동
		율현중	2	일본어	교사	선택교과교육
		율전중	2	영어	교사	정규수업시간
		숙지중	1	일본어	교사	정규수업시간
		포승중학교	18	일본어	교사(강사)	방학 프로그램
		초당중학교	13	일본어	외부강사	방과후학교
		부천남중학교	4	일본어, 필리핀어	다문화가정 학부모	재량활동
		수주중학교	1	중국어	교사	재량활동
		선일중	5	중국어	교사	정규수업, 방과 후 프로그램
			1	영어	교사	정규수업, 방과후 프로그램

시도	이중언어 실시학교 (총)수	실시학교 명	학교별 참여 학생 수	학교별 지도언어	지도언어별 주 교육자 (예 : 교사, 다문화가정 학부모 등)	기타 (교육/지도 방식)
		양감중학교	1	일본어	다문화가정 학부모	방과후어학프로그램/ 개인및그룹지도
		광명북중학교	3	중국어	교사	방과후프로그램 (12차시 예정)
		양영중학교	3	영어, 일본어	교사, 원어민교사	교과수업, 방과후학교프로그램
		하탑중학교	229	일본	교사	선택교과
		구리여중	3명	일본어	교사	선택교과
		도농중	282명	중국어	교사	정규수업
			28명	일본어	교사	방과후 프로그램
		인창중	2명	일본어	교사	재량활동
		장자중	7명	일본어	교사	방과후 프로그램
		어람중	30명	일본어	교사	방과후 프로그램
			267명	일본어	교사	재량활동
		동두천중	25	일본어	교사	방과후학교활동
		설악중	10	일본어	다문화가정 학부모	방과후프로그램
		조종중	28	일본어	교사	방과후 프로그램 방학 프로그램
			27	영어	교사	방과후 프로그램 방학 프로그램
충남	9	천안새샘중학교	1	일본어	외부강사	방과후 프로그램
		대천여중	50	일본어	다문화가정 학부모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탕정중	일본어 : 22명, 중국어 : 195명	일본어, 중국어	강사, 교사	일본어-방과후 프로그램/ 중국어-재량활동
		인주중	12	일본어	다문화가정 학부모	방과후 프로그램
		서산중학교	1	중국어	인턴교사	재량활동
		서일중학교	1	일본어	교사	방과후 주말프로그램

시도	이중언어 실시학교 (총)수	실시학교 명	학교별 참여 학생 수	학교별 지도언어	지도언어별 주 교육자 (예 : 교사, 다문화가정 학부모 등)	기타 (교육/지도 방식)
		금산여자중학교	18 (다문화 자녀 1명)	일본어	교사	방과후프로그램
		조치원여중	1	일본어회화	원어민 강사 (다문화가정 학부모)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서면중학교	1	영어	원어민교사	방과후 프로그램
전북		전주서곡중	2	일본어	교사, 다문화가정 학부모	정규 교과
		정산중	17	일본어	다문화가정 학부모	방과후 프로그램
		익산부천중	14	일본어	다문화가정 학부모	방과후프로그램
		삼례중	1	중국어	교사	방과 후 프로그램
		화산중	8	중국어	교사	방과 후 프로그램
		순창여중	35	일본어	다문화가정 학부모	방과후 프로그램
전남	5	강진중	3	일본어	교사	재량활동
		진도중	28	일본어	교사	방과후지도
		장흥장평중	10	일본어	외부강사	방과후지도
		광양여자중	1	중국어	외부강사	방과후지도
		광양여자중	2	일본어	외부강사	방과후지도
경북	1	울릉중학교	1	일본어	다문화가정 학부모	방과후학교
경남	3	대방중	1	일본어	다문화가정 학부모	방과후 프로그램
		창원중앙중	65	일본어	다문화가정 학부모	방과후 프로그램
		안남중	1	일본어	다문화가정 학부모	방과후 프로그램

* 여기에서의 이중언어 교육은 '결혼이민자인 부모의 출신국 언어 교육'을 의미함

〈부록 2-4〉 고등학교

시도	이중언어 실시학교 (총)수	실시학교 명	학교별 참여 학생 수	학교별 지도언어	지도언어별 주 교육자 (예 : 교사, 다문화가정 학부모 등)	기타 (교육/지도 방식)
서울	3	삼성고등학교	1	일본어	교사	방과후 프로그램
		대진디자인고	2	일본어	교사	정규 수업
		양천고	1	중국어	교사	방과후 프로그램 정규 수업
부산	1	지구촌고	25	영어	원어민 교사	정규 수업
			4	중국어	원어민 강사	정규 수업
			2	러시아어	원어민 강사	정규 수업
			1	스페인어	원어민 강사	정규 수업
대전	2	유성고등학교	2명	일본어, 중국어	교사	주말
		청란여자고등학교	1명	일본어	교사, 학부모	자체교육시간
경기	5	광명고	39명 (다문화가 정학생 1명)	일본어	교사	교육과정에 일본어 편성
		성남외고	2	일본어	교사	방과후 프로그램
		광주중앙고	2	일본어	교사	교과교육
		광남고	2 (필리핀1명, 일본 1명)	일본어, 영어	교사	정규 수업
		효양고	13	일본어	다문화가정 학부모	가정에서 수시지도
경남	1	창원토월고	1	일본어	다문화가정 학부모	주말

〈부록 3〉 서울시 이중언어 강사 배정학교 명단

연번	배정교육청	배정학교	강사명	출신국가	비고
1	동부	중곡초	김영란	중국	
2	동부	중목초	정명숙	중국	
3	동부	군자초	거바야르토야	몽골	
4	동부	상봉초	차가이나탈리아	우즈베키스탄	
5	동부	이문초	마쯔시다 도모꼬	일본	
6	서부	서교초	김인숙	중국	
7	서부	연광초	김민주	중국	
8	서부	대신초	아리야수렐	몽골	
9	서부	아현초	기다야스꼬	일본	
10	서부	성산초	바두아 로이다	필리핀	
11	서부	수색초	이스베틀라나	우즈베키스탄	
12	서부	은평초	오오가키도모미	일본	
13	남부	고척초	김춘화	중국	
14	남부	구로남초	장소	중국	
15	남부	독산초	김계향	중국	
16	남부	오류초	서이라	몽골	
17	남부	대동초	쿠치카로바샤호노자	우즈베키스탄	
18	남부	동구로초	하타치주유	일본	
19	북부	신방학초	이이다마유꼬	일본	
20	북부	월계초	아마네노리꼬	일본	
21	북부	태랑초	안나 쿠수마	인도네시아	
22	북부	창도초	턴티웨	베트남	
23	북부	방학초	아마노바아이나굴	카자흐스탄	
24	북부	창경초	앵볼드 우랑구	몽골	반일 근무
25	중부	신당초	소드에르덴오양가	몽골	
26	중부	장충초	채나라	몽골	
27	중부	청파초	아베미유키	일본	
28	중부	보광초	임헬라	필리핀	
29	중부	충무초	이엘레나	러시아	
30	강동	고덕초	우리체호	몽골	
31	강동	장지초	요내자와노리꼬	일본	

연번	배정교육청	배정학교	강사명	출신국가	비고
32	강동	신명초	마가이올가	키르기즈스탄	
33	강서	양화초	무상이	대만	
34	강서	화곡초	이수빈	중국	
35	강서	양동초	잠강	몽골	
36	강서	양목초	다나까토미꼬	일본	반일 근무
37	강서	신남초	나유끼마사에	일본	
38	강서	백석초	박가비니	태국	
39	강서	탑산초	바이노바비크토리아	러시아	
40	강서	신정초	이나직	키르기즈스탄	
41	강서	월정초	노도미지요꼬	일본	
42	강남	서래초	아마노바잠자골	카자흐스탄	반일 근무
43	강남	도곡초	위한잉	중국	
44	동작	문창초	유미려	말레이시아	
45	동작	난곡초	커메이	중국	
46	동작	미성초	이지혜	중국	
47	동작	난향초	장리리	중국	
48	동작	난우초	사이토치아끼	일본	반일 근무
49	동작	신상도초	코무로유키꼬	일본	
50	동작	인현초	나리따마미	일본	
51	동작	관악초	사카구치하루미	일본	
52	동작	신길초	와니다츄푸봉	태국	
53	동작	대림초	한유진	필리핀	
54	성동	광장초	홀라어터건	몽골	
55	성동	무학초	권력	중국	
56	성동	광장초	남경민	몽골	몽골학교
57	성동	자양초	니가이올리아	러시아	반일 근무
58	성동	동의초	정나래	우즈베키스탄	
59	성동	광진초	아키야마야스꼬	일본	
60	성북	장월초	아이다	키르기즈스탄	
61	성북	송인초	바야르막나이	몽골	
62	성북	동신초	비양바도우람	몽골	
63	성북	송천초	니시다쿠미	일본	

〈부록 4〉 S교육청 관내 이중언어교사별 수업계획서(시간표 순)

■ 1교시 : 국제이해교육수업

▪ 수업지도안

주제	다문화·반편견 프로그램	교육대상	
연월일	4월 1주	이중언어 강사명	A교사
과목명	모습은 달라도 마음은 같아요		
수업목표	움베르트 에코의 동화 “지구인, 우주인, 화성인”을 보고 타인과 타문화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타문화적 감수성을 향상한다.		
수업자료	ppt 자료, cd 자료, 인터넷 사이트		
수업절차	수업내용 및 방법		
이론적 근거	사람들은 자신과 다른 낯선 자극에 대해서 접근하기 주저하고 자신과 비슷한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편애하는 반응을 보인다(Allport, 1953).		
수업 진행	<p>-플래시 애니메이션을 보여준다. 애니메이션을 보고 난 느낌에 대해 생각해보고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여 적절한 대답을 유도하고 동화의 내용을 환기시키며 생각할 거리를 준다.</p> <p>-지구인들은 처음에 왜 서로 이상하다고 생각했을까? -지구인들은 서로 어떻게 친해지게 되었나요? -지구인들이 화성인을 처음 보았을 때 어떻게 했나요? -지구인들은 화성인을 왜 죽이려고 했을까? -사람들은 왜 처음 보는 것이나 사람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낄까요? -나중에는 지구인과 화성인이 서로 어떻게 친구가 되었나요? -화성인이 물을 마시고 맛은 좋는데 약간 어지럽다고 했지요? 그 때는 아무도 놀라지 않았다고 했는데 왜 그랬을까요?</p> <p>지금 본 동화와 같은 일이 우리 주변에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일까요? 즉, 모습이 서로 다르고 말이 달라서 서로 오해하고 무섭다고 느끼고 차별하고 피하고 하는 일들 말이다.</p>		
조금 더 생각해 보기			
정리	우리 사회에 많은 다양한 이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물론 화성인이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비슷한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았다. 오늘에 이어 앞으로 우리는 모습이 서로 다르다고 차별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질 것이다.		

■ 2교시 : 국제이해교육수업

- 수업지도안

재량활동(국제이해)과 교수-학습 과정안			
단원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이해	장소	3-4 교실
학습주제	모습은 달라도 마음은 같아요.	교사	B교사
학습목표	움베르토 에코의 '지구인, 우주인, 화성인'을 읽고, 타인과 타문화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다문화적 감수성을 향상한다.		
수업자료	동영상 자료, 활동지	차시	
수업단계	교수-학습 활동	시간	자료·유의점
도입	<p>◎ 동기유발</p> <p>○ 질문하기</p> <p>-여러분은 지금 친구들과하고 함께 공부하면서 즐겁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여러분과 비슷한 친구가 좋아요 아니면 여러분과 다른 친구가 좋아요?</p> <p>-그렇군요. 만일 지금 여러분과 얼굴색이 다르고 쓰는 말도 다르고 여러분이 먹지 않는 음식을 먹는 친구를 만나게 된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p> <p>◎ 학습 문제 제시</p> <p>-이번 시간에 우리는 모습, 취향, 고향 등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함께 살아갈 수 있을지 살펴보고 그렇게 서로 다른 것 때문에 누군가를 차별하고 부당한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에 대해서 함께 배울 겁니다.</p> <p>◎ 학습 활동 안내</p> <p>-활동1 <생각 이끌어내기></p> <p>-활동2 <그림 그리기></p> <p>-활동3 <그림 발표하기></p>	5'	
전개	<p>◎ 동영상 보기</p> <p>-움베르토 에코가 들려주는 <지구인, 화성인, 우주인></p> <p>◎ [활동 1] 질문을 통해서 생각을 이끌어내기</p> <p>-지금부터 우리가 느낀 점들에 대하여 서로 얘기를 나누어 봅시다.</p> <p>-지구인들은 처음에 왜 서로 이상하다고 생각했을까요? (서로 다른 노래를 부르고 인사하는 방법도 다르고 자신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익숙하지 않으니까 이상하다고 생각한 것이다.)</p> <p>-지구인들은 서로 어떻게 친해지게 되었나요?</p>	<p>10'</p> <p>5'</p>	동영상 자료

재량활동(국제이해)과 교수-학습 과정안			
	<p>(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엄마를 생각하는 것은 서로 같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서로 같은 마음을 지닌 똑같은 사람임을 느꼈기 때문이다.)</p> <p>-지구인들은 화성인을 처음 보았을 때 어떻게 했나요? (죽이려고 했다.)</p> <p>-지구인들은 왜 화성인을 죽이려고 했을까? (지구인들과 너무 다르고 무섭게 생겨서 위협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구인을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p> <p>-나중에 지구인과 화성인이 어떻게 친구가 되었나요? (추위에 떨고 있는 화성 새를 감싸 안는 것을 보고 서로 다르지만 죽어가는 새를 보고 안타깝게 생각하는 마음은 지구인들과 같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p> <p>-서로 다르다는 것이 친구가 되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p> <p>◎ 생각해보기</p> <p>-동화에서처럼 우리 주변에도 모습이 서로 다르고 말이 달라서 오해하고 무섭다고 느끼고 차별하고 피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살고 있고 그 중에는 한국 국적을 취득하여 한국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답니다. 공부를 하거나 돈을 벌기 위해서, 혹은 한국 사람과 결혼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찾는 사람이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서 살게 됩니다. 동화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모습이 달라도 차별하지 말고 이해하고 존중하면 친해질 수 있습니다.</p>	5'	
	<p>◎[활동 2] 그림 그리기</p> <p>-사귀고 싶은 외국 친구와 내가 함께 노는 모습을 그려봅시다.</p>	10'	
정리	<p>◎[활동 3] 그림 발표하기</p> <p>-그린 그림을 친구들에게 소개해봅시다.</p>	5'	

■ 6교시 : 몽골어 수업

▪ 수업지도안

주제	-장모음 -이중 모음	교육대상	계발활동 몽골어초급반 6학년 5명
연월일	2010년 4월 15일	이중언어 강사명	D교사
과목명	몽골어 초급 강좌		
수업목표	장모음과 이중모음을 쓸 수 있고, 인사말을 할 수 있다.		
수업자료	학습지, ppt 자료		
수업절차	수업내용 및 방법		교구 및 유의점
도입	◎ 동기유발 -몽골어 기본 모음 몇 개예요? -아, 어, 오, 우, 어, 우, 이 -칠판 위에 학생이 쓰게 한다.		ppt
전개	◎ 학습목표 확인 ◎ 학습 활동 안내 활동 1: 몽골어의 장모음, 이중모음 배우기 -장모음 7, 이중모음 5 -한국어 모음과 비교하면서 가르친다. 활동 2: 인사말 -안녕하세요? -헤어질 때 쓰는 말을 안다. 활동 3: 장모음과 이중모음을 쓰는 방법 배우기 -발음하면서 공책에 쓴다. -칠판 위에 쓰면서 외운다.		ppt
정리	◎ 학습내용 정리하기 -작은 칠판 위에 쓰는 활동으로 평가하기		작은 칠판, 학습지 작은 칠판
평가 및 유의점	-장모음과 이중 모음을 쓸 수 있는가? -큰 소리로 정확하게 발음할 수 있는가? -몽골 인사말을 할 수 있는가?		

■ 7교시 : 몽골학생 대상 한국어 수업

▪ 수업지도안

주제	-동사-다가, 동사-았다가/었다가, ㅅ불규칙 문법 사용하여 문장 만들어 표현하기 -5월 학교 행사 용어 알기	교육대상	6학년 *반 ○○○ (몽골아동)
연월일	2010년 4월 15일	이중언어 강사명	D교사
과목명	한국어 배우기		
수업목표	-동사-다가, 동사-았다가/었다가, ㅅ불규칙 문법 사용하여 문장 만들고 대화할 수 있다. -5월 학교 행사 용어를 알고 사용할 수 있다.		
수업자료	한국어교재, 학습지, 코이카 학교용어집		
수업절차	수업내용 및 방법		교구 및 유의점
도입	◎동기유발 대화 1 자료 듣기 -듣기자료를 함께 들으며 제니, 한국 역할 분담하여 상황극하기 -대화 1과 같은 상황이 있었는지 자신의 경험 나누기		듣기자료 (라디오)
전개	◎학습목표 확인 ◎학습 활동 안내 활동 1 : 동사 -다가, 동사 -았다가/었다가, ㅅ불규칙 알아보기 활동 2 : 동사 -다가, 동사 -았다가/었다가, ㅅ불규칙 사용하여 문장 만들고 대화하기 활동 3 : 5월의 학교 행사 용어 알아보기 -소체육대회, 소풍, 특별활동, 공개수업,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날 뜻 알아보기		코이카 학교용어 자료, 학습지
정리	◎학습내용 정리하기 -배운 내용 골든벨 퀴즈 활동으로 평가하기		골든벨 퀴즈판
평가 및 유의점	-동사 -다가, 동사 -았다가/었다가, ㅅ불규칙을 사용하여 문장을 만들 수 있는가? -큰 소리로 정확하게 발음하며 대화할 수 있는가? -5월에 있는 학교 행사 용어를 알고 설명할 수 있는가?		

〈부록 5〉 2010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중언어교실 현황

2010년 이중언어교실 현황

(2010. 5.)

센터명		2010 사업기간	이중언어	강사(출신국)	소속	계	
1	서울	광진구	6~11월(6개월)	중국어	미정	미정	서울 총 7개 센터
2		동대문구	3~6월, 8~11월 (8개월)	중국어	왕금봉(중국)	센터통번역	
3		성북구	4~9월	베트남어	팅티브이/쩨티끼우니	센터회원	
4		금천구	4~7월, 9~10월 (6개월)	중국어	김타다(중국)	센터	
5		영등포구	3~11월(9개월)	중국어	미정	미정	
				베트남어	미정	미정	
				러시아어	미정	미정	
6		동작구	5~10월(6개월)	베트남어	도탄디	센터 회원	
7	송파구	3~8월(6개월)	중국어	남미숙	센터통번역		
8	부산	해운대구	4~11월(8개월)	중국어	오연민(중국)	센터자원활동가	부산 총 2개 센터
베트남어			부티호영장(베트남)	센터회원			
9		사상구	4~9월(6개월)	중국어	순치(중국)	외래시간강사	
10	대구	대구서구	4~12월(9개월)	중국어	웨이옌옌(중국)	제일복지관	대구 총 2개 센터
			베트남어	팜티프엉(베트남)	제일복지관		
11		대구남구	4~11월(8개월)	중국어	류양(중국)	-	
12	인천	인천남구	5~7월, 9~11월 (6개월)	몽골어	몽크바이르(몽골)	센터 다문화강사	인천 총 4개 센터
13		남동구	4~6월, 9~11월 (6개월)	태국어	니티낫	센터 회원	
14		계양구	4~10월(7개월)	중국어	장이옌팡(중국)	센터통번역	
15		인천서구	5~11월(7개월)	베트남어	미정	미정	
16	광주	광주북구	5~11월(6개월)	중국어	이향란(중국)	센터통역 인력	광주 총 1개 센터
17	대전	유성구	6~11월(6개월)	중국어	지연녀(중국)	센터 회원	대전 총 1개 센터

센터명			2010 사업기간	이중언어	강사(출신국)	소속	계
18	울산	남구	4~10월(7개월)	중국어	양남향(중국)	-	울산 총 1개 센터
				베트남어	이금주(베트남)	-	
19	경기	수원시	5~11월(6개월)	중국어	이옥휘(중국)	-	경기 총 11개 센터
20		고양시	4~9월(6개월)	중국어	최설매	09년 센터 대표	
			6월~11월(6개월)	베트남어	느구엔티응아(베트남)	센터 베트남 대표	
21		안양시	5~7월, 9~11월(6개월)	중국어	김연옥	안양시청	
22		안산시	7~12월(6개월)	중국어	류징징(중국)	-	
				베트남어	호티디에우(베트남)	-	
23		남양주	2~9월(8개월)	중국어	이설, 화옥최(중국)	-	
				베트남어	도지선, 응우엔타인호영(베트남)	-	
24		광명시	4~6월, 9~11월(6개월)	중국어	류지애(중국)	류선생중국어교실	
25		시흥시	4~9월(6개월)	중국어	정옥선	센터	
				베트남어	원마이타오	센터	
26		화성시	4~10월(7개월)	중국어	박천빈(중국)	중국어강사	
27		양주시	4~11월(7개월)	중국어	이영애(중국)	센터통번역	
28		안성시	3~9월(8월방학)(6개월)	중국어	최연(중국)	센터	
			8월, 10월(월1회)	베트남어	전정숙(베트남)	센터	
29		오산시	4~9월(6개월)	중국어	환씨엔화	-	
30	강원	평창군	3~9월(7개월)	베트남어	탄티홍(베트남)	센터통번역	강원 총 3개 센터
31		춘천시	4~9월(6개월)	중국어	최솔이	센터통번역	
32		원주시	4~10월(7개월)	중국어	한주연(중국)	센터 회원	
				베트남어	이후애(베트남)	센터 회원	
33	충북	청주시	5~8월, 9~11월(7개월)	중국어	최유림(중국)	센터	충북 총 2개 센터
34		충주시	3~9월(6개월)	중국어	애니(중국)	센터회원	
35	충남	천안시	4~6월, 9~11월(6개월)	베트남어	띠엔	센터통번역	충남 총 4개 센터
36		당진군	6~11월(6개월)	중국어	강미화(중국)	-	

센터명		2010 사업기간	이중언어	강사(출신국)	소속	계	
37		아산시	4~9월(6개월)	중국어	진미영	센터회원	
38		예산군	4~6월, 8~10월 (6개월)	중국어	김향분(중국)	센터교육생	
				베트남어	영편튀황(베트남)	센터교육생	
39	전북	남원시	4~9월(6개월)	베트남어	탁봄파리(베트남)	베트남 자조모임시 강의 /주부	전북 총 5개 센터
					필리핀어	안부남(필리핀)	
40		임실군	3~6월, 8~10월 (6개월)	중국어	조우옌웨이(중국)	센터통번역	
41		익산시	3~12월(10개월)	중국어	장웨이웨이(중국)	외부강사	
42		장수군	4~10월(6개월)	베트남어	마이티탄(베트남)	센터통번역	
43		고창군	4~9월(6개월)	중국어	최향자(중국)	센터통번역	
44	전남	순천시	4~9월(6개월)	중국어	류귀화(중국)	센터 회원	전남 총 5개 센터
45		나주시	5~10월(6개월)	중국어	백미경/이취란(중국)	센터 통번역/자원봉사자	
46		화순군	3~10월(8개월)	중국어	박춘란(중국)	센터 아동양육 방문지도사	
47		무안군	3~11월(9개월)	중국어	김미화(중국)	센터통번역	
48		해남군	4~9월(6개월)	중국어	신철매(중국)	센터통번역	
49	경북	포항시	6~11월(6개월)	중국어	채춘홍	센터회원	경북 총 4개 센터
50		안동시	4~11월(7개월)	중국어	황선영(중국)	센터	
51		구미시	4~10월(6개월)	중국어	조우리핑(중국)	센터통번역	
					베트남어	도티빛웅(베트남)	
52		경산시	4~10월(7개월)	중국어	미정	미정	
53	경남	창원시	5~7월, 9~11월 (6개월)	중국어	김미화(중국)	센터 인턴	경남 총 5개 센터
					베트남어	원태향(베트남)	
54		진주시	3~12월(10개월)	중국어	유미란	외부강사	
55		김해시	4~11월(8개월)	중국어	박선녀(중국)	센터회원	
					베트남어	김응언(베트남)	센터회원

센터명			2010 사업기간	이중언어	강사(출신국)	소속	계
56		함안군	5~10월(6개월)	중국어	장하(중국)	센터행정인턴	
				베트남어	강미정(베트남)	센터방문지도교사	
57		함양군	5~10월(6개월)	중국어	양미성(중국)	센터원어민 지원사업 강사	
전국 총 57개 센터							

출처: 전국다문화가족사업지원단 홈페이지 <http://liveinkorea.mogef.go.kr/community/community.do?method=main&partyId=4>

Abstract

A Case Study on Learning the Mother Tongue: Children Born from Multicultural Parents Residing in Korea

Researcher Lee, Jae-Boon
Park Kyunyeal
Kim Kap Sung
Kim Sunmi
Kim Sook Yi

Research assistant Lee, Haeyoung
Research cooperater Ryu Myung Sook

When cross-nationally wed immigrant parents residing in Korea teach their children the language of their home countries (mother tongue), such parents lacking confidence in the kids' education due to their difficulties with the Korean language can gain significant potential and hope in the kids' education and as well as other areas. Furthermore, not only can the immigrant parent's mother tongue become a valuable asset to the child individually and to Korea, it can serve in the long-term as a bridge connecting the societies of Korea and the parent's motherland.

In the case of Korea, however, there still exists the tendency to stress only the importance teaching of Korean with families of trans-national marriages

and the fixed idea that education of children must be conducted in Korean. Koreans should become aware of the importance of teaching – in addition to Korean – the mother tongue of the immigrant parent of trans-national marriages, and it is necessary to create measures to systematically educate children the immigrant parent's mother tongue.

Currently, precedent research concerning policies and the related support for systematically teaching the mother tongue of immigrant parents do not exist.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gather the fundamental data necessary to develop a plan to systematically teach the immigrant parent's mother tongue to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To these ends, the primary areas of research addressed in this paper are as follows. First, this paper examines the language education support efforts that have been performed thus far in Korea to teach the immigrant parent's mother tongue to school-age children and adolescents of multicultural families. Secondly, to grasp the demands of the pending issues and areas of improvement, this study digs into and analyzes practice cases. In addition, in order to substantiate the validity of teaching the immigrant parent's mother tongue, not only the multicultural family's developmental background but also its historical and cultural elements are examined against case studies of other countries, with the most similar ones of Japan and Taiwan being relied upon the most. Lastly, the paper draws conclusions with the possible implications on Korea's education from analyses of national education policies, environments, conditions, and case studies.

The research methods for this study include literature review, analyses of related material and programs, academic seminars for pooling expert opinions, in-depth interviews and class observations, examinations of the current state of support for teaching the immigrant parent's mother tongue in Korea and other countries, and collection and analyses of case studies.

The study was able to draw the following conclusions for developing measures to systematically teach the mother tongue of the immigrant parent to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First, a policy direction needs to be established for language education, the foremost being the need to establish the language to express “cross-nationally wed immigrant parents mother tongue.” Following an inspection of the many terminology presently being popularly used such as bilingual, mother tongue, and heritage language, a selection of appropriate terms needs to be made. Next, policies need to recognize that multicultural families are important members of Korean society, and these policies should strive to enhance their linguistic and cultural potentials from the standpoint of guaranteeing human rights and securing societal resources. As opposed to a nonrecurring and shortsighted policy, Korea needs policies based on social agreement that will go side-by-side with systematic processes.

Secondly, in order to reinforce language education, the immigrant parent’s mother tongue should be adopted as part of regular school curricula, and a legal basis should be instituted to operate within the public education system. From the aspect of legislative organization, for example, wording needs to be included into a section of the Support for Multicultural Families Act (Article 11 on providing services for multiple languages) to make these compulsory and there by make it possible to actively realize them, and detailed clause sare needed to stimulate bilingual education.

This will call for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support. In other words, government authorities will need to promote the teaching of immigrant parents’ mother tongues by creating a department exclusively in charge and taking similar efforts to procure the funds without delay and operate smoothly. In addition, it will also call for efforts similar to the ongoing programs by the Seoul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and the Gyeonggi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to train and deploy bilingual¹⁾ teachers, such as: policy recommendations for supporting research schools and outstanding schools; financial support for continuously expanding the labor pool of bilingual teachers; recommendations to make mandatory bilingual familiarity college courses for college students training to be school teachers; publication and dissemination of bilingual textbooks and auxiliary material at the national level; and establishment of formal certificate education alternative schools focused on bilingualism.

Fourth, there will be a strong need for a cooperative system between service providers and government departments to support the language education that will be developing. In the long-term, the government will have to raise and allocate the financial resources with considerations for the uniqueness and individual conditions of all the various regions, as well as demonstrate its intentions for strong support in the short-term by taking into careful considerations during the first stages of multicultural policy implementation. In order to accomplish these aforementioned goals, the government will need to construct an accountability structure and management system, and attract connections and cooperation agreements among the service providers and government departments.

Fifth, efforts will be needed to procure reliable language instructors and enhance instructors' competence. Improvements should be made according to the lessons learned from the currently ongoing "train and deploy bilingual instructors" program by the Seoul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and similar enterprises should be modified and customized to be expanded and implemented by the education offices of other cities and provinces according to their

1) Currently, the mother tongues of immigrants via trans-national marriages are commonly referred to as second languages in Korea.

respective regional needs, all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quality education to students of multicultural families. Along with these, there is a need to develop teaching methods, ways to raise students' self-identity and self-confidence, and programs to aid with counseling skills, teaching plans, and related guidelines.

Sixth, a more developed language education underpinning will call for a rapid improvement in the environments of families, schools, and regional education offices. Further advances will be needed in all areas such recognition and policy changes by families, schools, and education offices; cognitive awareness changes by teachers and instructors concerning bilingual education; improvements in learning conditions; and advances and expansions in the teaching materials and the number of classroom hours spent.

Lastly, it will call for building social consensus and expanding the base for the need to educate the immigrant parent's mother tongue to the children of trans-national families. With the exception of English, Korea has the tendency to belittle languages of minority groups, and a major shift in the societal awareness and discrimination against other languages. In addition, there will need to be a forming of a social consensus regarding the value and necessity for teaching immigrant parent's mother tongues via discussions and assertive publicity efforts by civil and other groups.

연구에 도움을 주신 분들

자료 수집

강 복 정 (중앙건강가족지원센터)	石川朝子 (오사카대학교대학원)
신 경 순 (인천교육청)	Marina Matsubara (관서브라질커뮤니티)
이 강 애 (몽골학교)	金 由香 (NPO법인뚝까비)
이 혜 진 (교육과학기술부)	Dung (NPO법인뚝까비 모어강사)
	Ngoc (NPO법인뚝까비 모어강사)
	具圭三 (토요나카국제교류협회)
	今井貴代子 (토요나카국제교류협회)
	Saki (토요나카국제교류협회 모어강사)
	陳麗華 教授 (臺灣市立教育大學)
	李明芳 科長 (臺北縣教育廳)

자료 정리

김현애, 손보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0-27-03
2010 연구보고서-3-2

**다문화가족 자녀의 결혼이민 부모 출신국
언어 습득을 위한 교육 지원 사례 연구**

2010년 12월 28일 인쇄

2010년 12월 31일 발행

발행인 : 김 태 현

발행처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76(불광동 1-363)

전화 / 3156-7000 (代)

인쇄처 : (주) 늘품플러스

전화 / 070-7090-1177 (代)

ISBN 978-89-8491-370-7 94330

<정가 13,500원>

978-89-8491-367-7 94330(세트)

다민족·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패러다임 구축(Ⅳ)

다문화가족 자녀의 결혼이민 부모 출신국 언어 습득을 위한 교육 지원 사례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9 788984 913707
ISBN 978-89-8491-370-7